건국60년기념사업백서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대한민국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엠블렘 설명 : 힘찬 붓 터치와 태극 문양은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태극에서 분출되는 빛은 새로운 시대와 미래를 상징합니다.

나는 화가다. 붓을 들고서도 국토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죽의 장막 안에 있는 고구려 문화를 지켜내기 위해 고구려벽화연구에 40년이 넘었고 독도문화심기운동에 30년이 훌쩍 넘어서고 있다. 1977년에 최초로 독도를 화폭에 담은 지 5년 만에 그린 것이 〈독도의 기II〉이다. 이 그림의 변화에서 진경의 세계가 원형상으로 변해가는 조형의 과정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세 개의 돌섬으로 이루어져 삼봉도라 하였는데 그런 독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만파식적의 명경지수와도 같은 평온한 바다 위에 자신의 모습을 드리우며 억겁의 세월을 민족의 수호청룡으로 해돋이의 땅이 되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자연 속에 피보나치수열의 아름다움을 조형화하여 수묵화로 그렸다. 나는 독도를 'DOKDO'로 표기하며 1980년 초부터 전 세계로 다니며 전시할 때마다 이 작품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독도에 문화를 심어 내 땅 지키기를 실천해왔다. 사람들은 나를 독도교주라고 놀린다. 우리가 독도를 지킨다는 오만을 버리고 독도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을 독도는 품에 안아준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기 때문이다. 확실히 독도는 작은 섬이 아니라 동해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정신적 수호신이라고 믿는다.

일랑 이종상(화가,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자연 속 피보나치수열의 아름다움, 독도(DOKDO)

〈독도의 기II〉, 89×89㎝, 장지화, 1982년 작.

너와 나, 그대와 우리

오탁번 (시인, 한국시인협회 회장)

2008년 건국60년의 새 아침,
독도의 하늘 높이 떠오르는 태양이
천지의 푸른 물결 흔들어 깨우고
백록담 사슴 떼를 손짓해 부르는데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자손들이 너무 대견하다는 듯
단군할아버지가 구레나룻 쓰다듬는다
지구촌 구석구석 나부끼며
광막한 우주의 지평선까지 드리우는
대한민국의 깃발이여

1945년 8월 15일,
갑오 농민혁명의 들불과
기미 독립운동 만세소리를 뒷심으로
서릿발 같은 상해 임시정부는
반드시 오고야 말
조국 해방의 그날을 앞당겼다
38선 그어놓은 야욕에 휘말려
감부기 같고 쪽정이 같은
눈먼 좌우투쟁도 있었지만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가늠하는
백범, 우남, 고당의 눈높이가
이짝저짝 좀 다르기도 했지만
1948년 8월 15일,
조선 500년의 수도 서울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아아,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가 건국되었다
모든 주권은 장삼이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김지이지로부터 나오는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이 탄생하였다

1950년 전쟁의 상처도
평화와 자유의 정신으로 극복하고
4월혁명과 6월항쟁으로
독재정권의 사슬도 다 끊어버렸다
산업화 시대의 갈등을 넘어
민주화의 거센 파도가 휘몰아쳐서
88올림픽 성화가 붉게 타오르고
월드컵의 함성이 천지를 흔들었다
볼가심할 것도 없는 긴긴 겨울밤
보리누름 기다리던 가파른 고갯길
이제 모두 빛바랜 추억이 되어
동서양 지구촌이 한 마을이 되는
국제화 시대의 중심으로 우뚝 섰다

건국60년의 새 아침이 밝았다
너와 나, 그대와 우리,
띠앗 좋은 오누이처럼
동서남북 하나가 되어
옛 조상이 말 달리던 대륙으로
파도치는 바다로
Made in Korea,
무지개빛 브랜드 휘날리며
양 날개 활짝 펴고 날아오른다
눈부신 백두산 천지에 올라
하늘눈 뜨고 자손들 살펴주는
어렵고 두려운 단군할아버지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큰절을 한다

기적의 역사,
새로운 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올해로 대한민국이 건국60년을 맞이했습니다.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의 60년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광복 직후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전자, 해외건설 등 주요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가 부러워하는 당당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경제와 정치 양면에서 모두 성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기적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피와 땀과 열정으로 일구어낸 성공의 역사, 발전의 역사입니다.

이제 지난 60년을 올바르게 평가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으로 이루어낸 창조의 역사, 희망의 역사, 자랑의 역사로 받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2008년 8월 15일, 건국60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였습니다. 성공 6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온 국민의 힘을 새로운 도약의 에너지로 모으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건국60년 기념사업 백서《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는 건국60주년의 의미 및 그러한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거나 마무리한 사업들을 7가지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는 경제 및 문화계 원로의 인터뷰, 둘째는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본 대한민국60년 생활사, 셋째는 광복절 63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60년을 기념하는 중앙경축식을 포함한 행사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넷째는 중앙부처가 8개 분야로 진행한 총 63개 주요사업 내용, 다섯째는 민간단체가 펼친 총 26개의 민간 기념사업 주요내용, 여섯째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한 총 292개 행사의 주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명사 60인이 참여했던 60일 연속강연 내용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건국60년 기념사업 백서《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에는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건국60년을 축하하는 시와 그림이 실렸고, 오래된 사진과 최근의 사진을 비롯하여, 온 국민이 기꺼이 참여함으로써 더욱 빛나는 피와 땀이 스미어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열망과 희망도 실려 있습니다.

이번 건국60년 기념사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건국60년을 넘어 새로운 6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토대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세계국가, 글로벌 코리아를 만들어 다시 한번 21세기의 성공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기적의 역사, 새로운 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공동 위원장 한승수
현승종
김남조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60년 경축사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와 국가유공자,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60년 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습니다. 5천년 한민족의 역사가 임시정부와 광복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계승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때 이 자리에는 동족상잔으로 붉은 깃발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용맹한 우리 국군이 태극기를 다시 꽂았지만 수백만의 목숨이 스러지고 국토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어느 참전 장군은 "이 나라는 백년이 지나도 복구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경제규모는 그 때보다 750배나 커졌고 1인당 소득도 300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우리의 발전은 경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4 · 19 혁명과 5 · 18 민주화 운동, 6 · 10 항쟁을 거치며 인권과 민주주의는 굳건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올림픽을 치르고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며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하였습니다. 비록 시련과 굴절은 있었지만 우리는 줄곧 전진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60년은 '성공의 역사' 였습니다. '발전의 역사' 였습니다. '기적의 역사' 였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기적의 역사' 는 국민 여러분이 모두 함께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던진 순국선열들이 계셨습니다. 6 · 25전쟁에서 장렬히 산화한 수많은 무명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자유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이역만리에서 고생한 간호사와 광부가 있었습니다. 동생의 학비를 대기 위해 밤새 재봉틀을 돌리던 우리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열사의 땅에서 비지땀을 흘린 산업역군들이 있었습니다. 자식교육을 위해 손발이 닳고 허리가 휘어도 내색 않던 우리의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불의와 독재에 맞서 싸운 수많은 학생과 시민, 선거 때마다 한 표로 선거혁명을 이룬 유권자들, 이분들이 없었다면, 민주화의 길은 아직도 멀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단합했고 시련을 겪을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금융위기에 장롱 속 금붙이를 선뜻 내놓은 서민들, 기름으로 뒤덮인 태안 바닷

가에 내 일처럼 뛰어온 자원봉사자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오늘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를 남들은 신화라고 하지만, 그것은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나라의 회갑을 맞은 오늘, 우리 선조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시다. 우리 모두에게 긍지와 자부심의 박수를 보냅시다. 우리 후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시다.
저는 이 역사가 기록되고 새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현대사 박물관' 을 짓겠습니다. 광화문 앞에서 숭례문까지 거리를 '국가의 얼굴' 로 가꾸어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를 여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저는 건국60년을 맞아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엄숙히 받아들이며 그 책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역사는 구경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국60년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과 당당히 싸워왔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빈곤과 싸웠습니다. 정치적 자유를 얻기 위해 억압과 싸웠습니다. 사회적 자유를 얻기 위해 차별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자유를 얻기 위해 편견과 싸웠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같습니다. 자유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기에 더욱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는 이제 더 넓고 더 깊어져야 합니다. 자유는 자율과 창의, 책임과 신뢰, 배려와 협력 속에서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유는 행복한 가족과 따뜻한 공동체 없이는 꽃 피울 수 없습니다. 자유는 폭넓은 자아실현의 기회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건국60년이 기본적 자유를 얻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60년은 성숙한 자유를 구현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건국은 완성될 것입니다.

새로운 60년을 열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새로운 60년이 열립니다. '성숙한 자유' 의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선진화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선진일류국가는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성숙이 균형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잘사는 국민' , '따뜻한 사회' , '강한 나라' 입니다. 인류의 모범이 되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나라입니다.
선진일류국가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기본〉부터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압축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소홀히 한 것, 우리가 놓친 것들을 다지고 채워야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안전〉부터 확고히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은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식품안전만큼은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먹거리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부녀자가 폭행과 납치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을 지키는 '인간 안보' 는 '국가 안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일상생활과 산업 및 교통 등 사회전반에 걸쳐 대한민국을 안전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신뢰〉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합니다. 개인 간의 신뢰, 법질서의 준수, 정부의 투명성, 윤리경영과 노사관계,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현재 OECD 최저 수준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갈등이 깊어지고 통합은 멀어집니다. 신뢰가 없으면 규제가 많아지고 거래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신뢰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한 사회자본, 정신자본입니다.
〈법치〉도 확고히 하겠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법령은 지킬 수 있도록 고치고, 합의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부터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는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관용이란 있을 수 없음을 실천으로 보이겠습니다. 건국60년의 새로운 출발과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을 단행했습니다만, 이제 제 임기 동안 일어나는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60년의 비전 : 저탄소 녹색성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일자리 부족,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돌파하고 선진화의 문턱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더욱 창의적인 발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문명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 환경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나무와 석탄과 석유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 이 같은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1차 석유파동은 해외건설 진출과 산업고도화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2차 석유파동은 안정 속의 성장과 대외개방의 촉매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의 고유가 사태도 우리 경제체질을 바꾸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60년을 맞는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 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녹색 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입니다. 녹색기술은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문화산업기술을 아우르면서도 이를 뛰어 넘습니다.
녹색기술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자리 없는 성장' 의 문제를 치유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존 산업에 비해 몇 배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에는 부의 격차가 벌어졌지만 녹색성장시대에는 그 격차가 줄어들 것입니다. 녹색성장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 미래 전략입니다.
우리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 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50년 이상이었습니다. 반도체는 20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 세계 5위, 반도체 세계 1위의 기술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행동에 나선다면 녹색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문명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녹색성장을 통해 다음 세대가 10년, 20년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총력투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에너지 안보를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5% 남짓한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임기 중에 18%, 2050년에는 50% 이상으로 끌어올려 에너지 독립국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자원의 보고인 북극해와 남극에 대한 탐사와 연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DNA를 가졌음을 안팎으로 알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현재의 2%에서 2030년에는 11% 이상, 2050년에는 20% 이상으로 높이도록 총력투자에 나서겠습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두 배 이상 확대하여, 2020년이면 3,000조 원에 달할 녹색기술 시장의 선도국이 되겠습니다. 새만금을 비롯해 국토 곳곳이 태양과 바람, 꽃과 바다 에너지가 만개하는 신천지가 될 것입니다. 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린홈' 100만 호 프로젝트를 전개하겠습니다. LED와 무공해석탄과 같은 새로운 그린 에너지 기술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고효율 '그린카' 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임기 중에 세계 4대 '그린 카'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기후변화종합대책도 9월 중에 마련하여, 올해를 저탄소사회로 가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돌이 없어서 석기시대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석유시대도 석유가 없어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령 앞으로 유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과도한 석유의존시대와 결별해야 합니다. 비록 탄소시대에

는 뒤졌지만 다가올 수소시대에는 앞서 나가야 합니다. 그 길은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단절의 고통과 불편도 따를 것입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를 앞당겼듯이 대담하고 신속하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녹색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삶의 질 선진화와 생활공감 정책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고령화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거대한 도전입니다. 1948년, 우리의 평균 수명은 50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생존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평균기대수명은 80세에 달합니다. 생애는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생존이 아니라 삶의 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과 교육과 여가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령 인구도 활발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개인의 행복' 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국가 경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 문화, 복지 분야의 혁신을 서둘러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 사는 것이 큰 행운이 되도록,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생과 직결되는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 을 대폭 발굴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새 정부 들어 빈곤층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대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중풍 환자는 국가가 책임져서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계획' 을 통해서 장애인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있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촘촘히 들어서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생활의 불편을 가져오는 각종 규제는 신속히 풀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살맛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착실히 전진할 것입니다. 국민성공시대를 넘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인이 세계에서 존중받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우리 경제력의 30퍼센트 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수십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국가이지만 외국인들은 한국 하면, 노사분규와 거리시위를 먼저 떠올립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원한다면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평판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저는 조만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임기 중에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공적개발원조(ODA)를 우리 위상에 맞게 늘리고 평화유지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소중한 발전의 경험을 '글로벌 코리아 모델' 로 승화시켜 세계와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십만 명의 우리 젊은이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 일하고 배우며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0만 재외

동포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100만 외국인 시대를 맞아 전 세계의 인재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와 이주정책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땅은 좁지만 마음은 넓은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통일 한국의 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60년을 여는 오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남과 북 8,000만 겨레가 하나 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꿈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고 나아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환태평양권은 세계 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과반이 몰려있는 유라시아는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 세계 무역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유라시아-태평양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해양과 대륙이 연결되어 한반도는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닷길, 땅길, 그리고 하늘 길로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번영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부산에서 화물을 싣고 대륙횡단철도를 따라 중앙아시아, 서유럽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해양시대와 대륙시대를 동시에 열면서 통일한국은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저는 그 꿈을 8,000만 겨레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을 우회하거나 뛰어넘고 싶지 않습니다. 남과 북 모두가 함께 잘사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불신과 갈등의 원천이 되는 핵무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상생과 공영의 기회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부시 미국대통령과 만나서 "북한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한국과 미국이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감스러운 금강산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경제 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놓쳐서는 안 될, 변화의 호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6자회담과 국제협력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대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그칠 수 있지만 8,000만 겨레가 같은 꿈을 꾸면 그것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한민족이 하나가 되면 이토록 위대할 수 있음을 후손들에게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으로부터 63년 전 우리는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영토를 부당하게 넘보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일본도 역사를 직시해서 불행했던 과거를 현재의 일로 되살리는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주 로켓은 처음 발사될 때 연료의 90%를 쓴다고 합니다. 일단 중력의 한계를 돌파해서 하늘로 솟구치면 연료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선진국과 만년 중진국을 가르는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로켓처럼 3만 달러의 고비를 넘는다면 더 쉽게 4만 달러, 5만 달러 시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좌절과 분열로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용기와 화합으로만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에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눈을 세계로 미래로 돌려야 합니다. 선진일류국가를 위해 모두 힘을 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전과 신뢰, 그리고 법치를 통해 선진국의 기초를 다질 것입니다. 녹색성장으로 수소시대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생활공감 정책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조금 전 여기에 섰던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자질에 맞는 교육을 받고, 지구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자랑스러운 지구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칩시다. 우리 아이들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우리 세대보다 더욱 크고 의미 있도록 합시다.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음을 이 아이들이 60년 뒤 후손들에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합시다.
건국60년, 기적의 역사가 새로운 꿈과 만납니다. 건국60년, 기적의 역사는 새로운 60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신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위대한 통일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앞으로,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08년 8월 15일

대통령 이 명 박

나의 그림 이야기 / 자연 속 피노나치수열의 아름다움, 독도(DOKDO)

이종상(화가, 한국예술원 회원) · 04

시 / 너와 나, 그대와 우리 / 오탁번(시인, 한국시인협회 회장) · · · · · · · · · · · · 06

발간사 / 국무총리 한승수 / 현승종 / 김남조 · · · · · · · · · · · · · · · · · · 08

건국60년 경축사 /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 / 이명박 대통령 · · · · · · · · · · 10

요약화보 · 34

Part 1 건국60년을 말한다 · · · · · · · · · · · 44

- 경제 및 문화계 원로 인터뷰

대한민국 '건국 · 근대화 · 1948년' 혁명 그리고 21세기 글로벌 코리아 모델로의 승화 · · · · 47
김진현(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건국60년과 여성 경제인 안윤정(여성경제인협회 회장) · 51

건국60년과 한국영화 임권택(영화감독) · 56

건국60년과 전통문화 인식 황병기(국악인) · 60

Part 2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 · · · · · · · 64

- 대한민국 60년 생활사

물가변동 · 67

물가지수의 변화 / 쌀과 라면, 그리고 자장면 가격 / 대중교통 요금 / 공중전화, 전화요금, TV 시청료 / 연탄, 가스, 유류가격 / 담배, 맥주, 소주 / 학비는 얼마나 올랐을까? / 영화, 이발요금, 미용요금

시장의 변화 · 71

재래시장의 역사 / 백화점 / 슈퍼마켓과 편의점의 등장 / 대형할인점의 출현 / 안방에서 쇼핑하는 시대

마이카(My Car)시대 · 75

손재주로 일군 자동차산업 / 시발에서 새나라로 / 기아산업과 삼륜트럭 / '드럼통 버스 왕' 하동환자동차 / 새나라에서 신진으로 / 아세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등장 / 고유모델 개발과 수출산업으로 육성

가족의 변화 · 79

베이비붐과 넘치는 사람들 / 가족계획을 세웁시다 /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 고령화 시대의 대한민국

거듭나는 복지의료 강국 · 83

법정전염병의 등장과 변화 / 세계보건기구 가입과 세계보건일 행사 / 방역사업과 국민보건 향상 서비스 / 의료보험제도의 실시 / 국민연금제도의 실시

의복의 변화 · 86

재건을 위해 인간을 개조하라 / 일제시대 국민복을 모방하다 / 교복, 통제의 상징 / 교복 자율화 / 한복에서 양복으로 / 섬유산업의 발전과 의류의 다양화

주택의 변화 · 89

국민주택 혹은 문화주택 설립 / 한국 최초의 아파트 단지, 마포아파트 / 시민아파트의 비극 / 무허가 판자촌의 확산 / 주택재개발의 명과 암 / 초고층 아파트의 시대

통신의 변화 · 93

덕률풍 · 득률풍 · 다리풍? / 공중전화의 보급과 발전 / 삐삐와 시티폰의 등장과 쇠퇴 / 휴대전화의 시대 / 인터넷 전화로의 발전

정부비교 · 96

1948년 건국 대한민국과 2008년 현재 대한민국 비교

興禮門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
통일의 시대
대한민국의 시대
대한민국의 신화

Part 3 희망과 화합의 한 무대 · · · · · · · · · 100

- 8 · 15 광복 및 건국60년 기념행사

음악으로 재현한 한국의 역사 _ 건국60년 기념 전야 음악회 및 나라사랑 독도함 콘서트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_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60년 중앙경축식

하나 된 대한민국, 함성을 울려라! _ 큰울림 한강축제

Part 4 위대한 국민, 위대한 꿈 · · · · · · · · · 128

- 대한민국 건국60년 주요기념사업

1. 건국의 의미 상징화 사업 · 131

건국60년 기념 국립대한민국관 건립

건국60년 기념 우표발행 및 전시회

건국60년 기념주화 발행

한국 현대사 아카이브 구축

2. 대한민국 건국 경축 행사 · 138

건국60년 기념 세계지도자 포럼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축제

바른 역사 정립을 위한 전국 달리기

재외동포 명예위원 초청

건국 및 건군60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200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건국 60년 기념사업
제5회 바른역사 정립
10월

3. 700만 해외동포 자긍심 고취 사업 · 164
2008 세계한민족축전
건국60년 기념 세계태권도 한마당 2008
건국60년 세계 한인의 날
제7차 세계한상대회
건국60년 기념 2008 세계한인회장대회
건국60년 해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건국60년 재외동포 모국체험

4.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호국 보훈 사업 · 188
제2연평해전 기념행사
북한산 수유지구 독립유공자 묘역 정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마당
한 · 베트남 평화의 마을 건립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행사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지역문화 축제화
역대 정부수반 유적 종합 보전 · 관리

5. 대한민국 건국60년 학술적 의미 고찰 사업 · 204
건국기념역사관 설치
건국60년 국토개발의 성과와 도전
건국60년 《세계명사 기고집》 발간
영토사랑 청소년 독도 캠프 및 독도 아카데미
《대한민국사 연표》 간행
건국60년 기념학술대회
대한민국 유엔 승인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건국60년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추진
한국 여성의 삶의 변화와 미래 아젠다
'대한민국 건국60년, 과거 · 현재 · 미래' 학술회의
학술회의, '1948년 남북한 건국과 동북아 열강들의 인식'
'건국60년 우리의 영토와 주권' 학술대회
'한국독립운동과 대한민국' 학술회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미래' 국제학술회의
'한국을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 국제학술회의

60
0일 연속 강연
|재|세종문화회관

6.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문화축전 · 236
건국60년 한국인의 얼굴
대학생 사이버 건국내각
'제1회 DMZ 보전의 날' 행사
건국60년 기념 특별공연 '여민동락'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
건국60년 기념 임정프로젝트
국어사랑 큰잔치
한글 해외 순회전

7. 대한민국 6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보는 전시회 · 257
한국현대사진 60년 1948-2008 展
2008 대한민국 과학축전
특별 전시, 그 고난과 영광의 순간들
건국 · 건군 60년 특별 전시회
건국60년 도로교통의 발전과 도전
여성60년사, 그 삶의 발자취
2008 국립묘지 설치예술제
건국60년 기념 국가기록물 특별전, '대~한민국'
외국 교과서의 한국이미지 기획 전시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 그림 및 글짓기 공모전

8. 산업발전 조명 및 미래 산업 제시 사업 · 276
경제60년 학술세미나
건국60년, 산업방송 관련 방송기획

합동참모본부
60

Part 5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평화의 합창 · · 282

- 건국60년 민간 기념사업

건국60년 기념 범국민 대축제
건국60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건국60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일본에서 본 한국 기업 60년의 역사와 미래
2008 평화재단 심포지엄
건국60년 기념 2008 골든아이 아트페어
건국60년, 한국오페라 탄생60주년 기념공연
세계한국학대회
이승만 박사 제43주기 추모식 및 《독립정신》 봉정식
건국60년 기념 한강 횡단 수영대회
바른 역사 정립과 평화와 통일 기원 전국 달리기
무궁화사랑 나라사랑 가족체험 2008

Part 6 지방화 시대와 미래로 가는 길 · · · · · 316

- 건국60년 기념 지방자치단체 사업

서울시, 건국60년 기념 역사 탐방
부산시, 국기게양 운동
대구시, 2008 올해의 청년작가 초대전
인천시, 건국60년 및 건군60년 기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대전시, H2O페스티벌
경기도, 60년사 사진전
강원도, '플라워 파워' 평화기원 페스티벌
전라북도, 재외동포 모국방문단 홈스테이
경상북도, 중 · 고교생 독도탐방
제주, 국제관악축제

대한민국

대한민국

Part 7 역사, 미래와 만나다 · · · · · · · · · · 334

- 건국60년, 60일 연속강연

월	〈지나옴과 다가옴〉	- 이어령(중앙일보 고문) 외
화	〈뒤섞임과 고유함〉	- 이참(방송인) 외
수	〈소통과 가능성〉	- 최인철(교수) 외
목	〈함께 사는 지구〉	- 김현진(교수) 외
금	〈21세기 한국의 도전〉	- 김경훈(대표) 외
토	〈부드러움과 단단함〉	- 이인화(교수) 외
일	〈사람이 희망이다〉	- 한비야(팀장) 외

대한민국의 상징

①태극기에 얽힌 이야기 · 98

②애국가에 얽힌 이야기 · 126

③무궁화에 얽힌 이야기 · 280

④국새에 얽힌 이야기 · 314

⑤나라문장에 얽힌 이야기 · 332

⑥국호, 연호에 얽힌 이야기 · 352

65
대한민국

부록 : 위원회 통신 · · · · · · · · · · · · · · 354
위원 소개
추진기획단 조직도
엠블럼 안내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사업 관련 회의
총괄
건국60년기념사업 2차조정위원회
건국60년기념사업 3차조정위원회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 제1차 회의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 제2차 회의
건국60년 기념사업 총괄
주요사업(총 63건)
민간사업(총 26건)
지방자치단체 사업(총 292건)

▲ 최초의 한국 엔진을 단 시발자동차

▲ 초기의 Y자형 아파트 단지

대한민국 60년 생활사

물가변동, 시장의 변화, My Car 시대, 가족의 변화, 복지의료강국, 의복의 변화, 주택의 변화, 통신의 변화, 정부비교 등 크게 9가지의 흐름을 포착했으며, 건국60년의 흐름과 기적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 주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변화의 흐름을 도표와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64쪽 참조).

▲ 중앙경축식 장면

8 · 15 광복 및 건국60년 기념행사

8월 14일 오후 8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펼쳐진 '건국60년 기념전야 음악회' 를 비롯하여 8월 15일 오전 9시 30분에는 '대한민국 건국60년 중앙경축식' 이 옛 중앙청 광장 및 광화문 거리 일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또한 오후부터 밤까지 '큰 울림 한강축제' 가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렸다(100쪽 참조).

▲ 중앙경축식 장면

I lov
대한
한국전

▲ 건국 및 건군 60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 제7차 세계한상대회

대한민국 건국60년 주요기념사업

대한민국 건국60년 주요기념사업은 8개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총 63개 사업이 건국6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행되었다. 특히, 주요기념사업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함으로써 새로운 꿈을 향한 위대한 국민의 도전이자 성과로 평가받을 만하다(128쪽 참조).

▲ 북한산 수유지구 독립유공자 묘역 환경정비사업

▲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축제

▲ 3 · 1 운동 장면을 재현한 모습

▲ 범국민축제 개회

▲ 2008 평화재단 심포지엄

▲ 한국오페라 탄생60주년 기념공연

건국60년 민간 기념사업

건국60년을 기념하는 민간사업은 경축, 학술, 문화 행사 등 3개 분야에서 총 26개의 사업이 진행됐다. 민간사업은 전체적으로 건국60년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전망해보는 형태로 진행됐다. 민간사업의 가장 큰 특징으로 학술 행사가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282쪽 참조).

▲ 이승만 박사 43주기 추도식

▲ 한강횡단 수영대회

▲ 인천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건국60년 기념 지방자치단체 사업

건국60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주로 중앙경축식 행사와 보조를 맞춰 진행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전야 음악제, 기념식, 독립유공자 초청 및 방문 행사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음악제, 영화제, 지역 축제 등 총 292개의 행사가 진행됐다 (316쪽 참조).

▲ 대전시, H2O페스티벌

▲ 경기도, 60년사 사진전

▲ 제주시, 국제관악축제

▲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 강연을 하고 있는 김덕수

▲ 행사 공연장면

건국60년, 60일 연속강연

건국60년을 기념하는 60일 연속강연은 2008년 7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렸다. 건국6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의 주관으로 열린 이 강연은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 60인을 초청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정원에서 진행됐다(334쪽 참조).

▼ 우리 나라 첫 우주인 이소연 박사

Part 1

건국60년을 말한다

건국60년을 말한다

경제 및 문화계 원로 인터뷰

건국60년을 맞이하여 건국의 의미와 시대적 흐름에 관하여
경제 및 문화계 원로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건국60년의 의미를
'글로벌 코리아 2008년 혁명'의 원년으로 승화시킬 것을 주창한
김진현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의 발제문을 비롯하여
안윤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임권택 영화감독,
국악인 황병기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 감독 등이
건국 이후 60년 동안의 대한민국 경제와 문화의 흐름을 되돌아보았고,
거시적 관점에서 현안문제도 진단했다.

대한민국 '건국 · 근대화 · 1948년' 혁명 그리고 21세기 글로벌 코리아 모델로의 승화

- 김진현(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건국60년을 글로벌 코리아의 모델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김진현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가장 성공한 근대화 혁명,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건국은 특별히 산고가 컸습니다. 많은 근대국가의 건국역사 중에서도 매우 고통스럽고 분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국한 지 2년이 채 안되어 6 · 25 전쟁으로 존폐의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지나간 60년은 5,000년 한반도 역사의 기록으로나 18세기 이래 현대 세계사의 조명으로나 '가장 성공한 근대화 혁명' 입니다. 항일 민족독립 운동의 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은 지나간 60년의 성공으로 한반도와 전 세계 7,500만 한민족 한인(韓人) 사회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건국60년을 맞은 우리는 1945년 제2차 대전 이후 독립 건국한 140개 가까운 국가 중 완벽한 근대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임을 자랑스럽게 건국선열들께 고하고 전 세계에게 선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국 이후 60년의 과정은 단순히 성장, 개발, 발전, 성공이라는 어휘로만 새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1948년 혁명', '대한민국 건국 혁명', '대한민국 근대화 60년 혁명' 입니다. 프랑스의 1789년 공화정 혁명, 영국의 18세기 산업 혁명, 미국의 20세기 시민사회 혁명이 있었듯이 20세기 후반 제3세계 성공신화는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꽃피웠습니다. 현대 세계사적 관점에서도 혁명입니다. 정치 민주화, 근대경제 성장, 사회문화적 다원성, 고등교육,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근대화의 기준과 내용을 완벽하게 성취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건국 이후 60년간의 성취

대한민국이 성취한 자유와 민주주의는 단군 이래 한반도에 사는 주민, 한인(韓人)으로서 맞는 최초의 자유이고 평등이고 복지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이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한민족 5,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창조한 대한민국의 성취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자유, 언론자유는 일본열도에서 우랄산맥에 이르는 46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인도양 해양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프리덤하우스' 나 '국경없는 기자회' 의 국제비교의 지표가 보여주듯이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보다 훨씬 앞섰던 일본도 싱가포르도 인도도 지금은 우리보다 뒤집니다. 인권은 아시아, 아프리카 후진국, 때로는 선진국의 국제비정부기구(NGO)들도 배우러 오는 인권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사적 가치가 찬란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이 휴전선으로 막혀 2,300만 북녘동포가 세계 최악의 폭력과 억압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강의 기적' 이라는 근대경제 성장과 산업의 고도화는 이미 세계적 고전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140개 가까운 비(非) 서양국가 중 1인당 소득 1만 달러 이상을 성취한 UN회원국은 싱가포르, 브루나이, 카다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바레인 그리고 대한민국 7개국뿐입니다.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구 50만~300만의 도시국가 또는 석유 단종 경제 국가입니다. 정상적 근대화기준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인구의 규모, 국제관계, 안보조건은 특히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없이 편안한 나라들입니다.

이제 전자,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산업과 기술의 고도화를 계기로 미래기술과 정보화 부문에서 최첨단의 선진국과 발걸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3% 수준의 연구개발비(R&D)를 쓰고 있는 비(非) 서양국가는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은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 높습니다. 해방 당시에는 무(無)에 가까웠고 1960년대까지도 일본에 비하여 100분의 1, 혹은 1,500분의 1 수준이었던 과학기술력은 이제 3내지 5분의 1로 축소되었습니다. 이공계 대학생의 수는 오히려 절대수에서 일본보다 많습니다.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비율, 해외유학생 비율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비(非) 서양권 국가에서는 비교의 대상이 없고 선진국을 합친 전 세계기준으로도 2~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외지향 성장전략과 민주화, 그리고 고등교육의 발달은 필경 경제개발을 넘어 사회와 문화의 다원성, 다양성을 촉진하였습니다. 특히 종교의 다양성이 두드러져 전 세계에서 동일한 민족이면서 종교적으로 불교, 유교, 기독교가 균형 있게 공존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라는 서양종교의 신도가 30% 가까이 이르는 아시아 비 기독교권 국가는 오직 한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60년의 혁명 중 가장 두드러진 결실의 하나가 해외진출입니다.

대한민국 시민과 기업인과 예술인과 학자, 그리고 기술자들의 발자국이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있습니다. 단순히 누비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도시마다 코리안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19세기 말 이래 제국주의 패권싸움의 희생양이 되어 밖으로 내몰린 퇴적층에 불과하였으나 일본,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교포들과 더불어 세계 소수민족 해외 정착 사상 보기 드문 대한민국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 역사에도 혜초, 고선지, 원광, 장보고 같은 해외개척의 선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1회성, 그 한 사람의 행적으로 그쳤을 뿐 역사의 연속, 한민족의 해외진출 거점으로 오늘에 이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 이후 60년간 성취한 대한민국 시민과 한인의 세계무대 진출은 1회성이 아니며 한 사람의 선구자만이 아닌 대한민국이 키운 저력의 해외 거점으로 세대를 넘어 지속적으로 번성할 것입니다.

21세기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한류(韓流)라는 문화가, 세계 최고의 예술가와 과학기술자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업인과 외교관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한 개인, 한 작품이 아니라 한인 수준 전체가 세계 최고와 경쟁하고 성취하는 성공입니다.

건국 이후 60년의 성공은 한국 역사에 있어서의 혁명이고 비(非) 서양, 제3세계 근대화 역사에 있어서의 혁명입니다.

보편적 코리아 모델(Korea Model), 근대화와 초근대화, 안과 밖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선진 일류 국가, 글로벌 코리아 모델(Global Korea Model)의 비전과 실천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출범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초일류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 까닭

이제 대한민국 60년의 위대한 혁명, 기적과 신화는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 일류 선진 국가, 엘리트 국가, 그리고 지구촌 사회의 주역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1945년 이후 독립한 비(非) 유럽권 국가 중 유일하게 성공한 대한민국의 근대화혁명의 경험이 다른 국가들의 발전과 성공에 도움이 되는 보편적 '코리아 모델(Korea Model)' 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혁명의 가치, 이념, 제도, 자원, 행위자(actor), 역사들에 대한 단편적 해석이나 소개나 자랑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사회, 시민들의 오늘과 내일에 도움이 되는 보편적 패러다임이 되도록 갈고, 닦고, 다듬고, 보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성취를 총체적 통합적으로 소화하고 체화하며 체계화하여 하나의 시스템 모델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양(量), 규모, 강(强), 경(硬)에 충실했던 근대화를 넘어 질, 격(格), 연(軟), 선(善)의 선진화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근대를 가장 깊이 소화한 동양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과 최첨단의 경험을 공유하는 나라로 도약했습니다. 2,000년 대륙의 역사를 넘어 해양화에 성공한 다원국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 다양한 경험을 한국사, 세계사, 동양의 마음, 서양의 마음을 관통하고 투시하여 창조한 한국 모델이 곧 지구촌 평화, 인류의 생존, 세계 화합의 영감이 되고, 단초가 되고, 계기가 되고, 모델이 되도록 승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건국60년을 맞아 선열들에게 다짐하는 사명이고 후손들에게 주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건국60년을 기념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20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근대화의 세계화' 를 통하여 세계 인류의 생존조건은 근본적으로 변하였습니다.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히말라야권 30억 인구의 근대화 편입은 전 세계의 에너지, 식량, 자원, 생산, 물류, 노동력, 무역과 금융과 자본거래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세계 정치, 외교, 문화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교육 향상과 정보화는 경제의 세계화 못지않게 정보와 문화의 세계화, 도시화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전 지구적 상호영향의 극대화이고 이는 지구 생태계의 변화, 기후변화, 공간의 변화, 인간생존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근대를 넘는 탈근대, 초근대의 '인류문제군' 이 지구라는 행성을 덮고 있습니다. 에너지, 식량, 자원의 파동과 기후온난화가 그 징표입니다.

미국 · 중국 · 러시아 · 일본 등 4대 강국에 둘러 쌓여있는 유일한 나라. 4대 강국 간의 세력균형 변동의 과도기에 있는 지정학적 조건. 생명자원(에너지, 식량) 조건이 선진국에 비하여도 특별히 불리하여 전 세계를 무대로 거래해야 사는 지경학(地經學)적 조건. 전 세계에 교민과 교포로 한인촌(코리안 클러스터)이 존재하는 독특한 지족학(地族學, geo-ethnic)적 조건. 세계 최악 환경오염인 중국을 바로 옆에 끼고 있는 지환경(地

環境)조건.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생존조건입니다. 근대화가 성공했기 때문에 더욱 절실해진 그리고 '근대화의 세계화' 가 몰고 온 인류지구촌적 새로운 변화들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부분적이 아닌 완전한 세계국가,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 인류의 생존, 세계의 평화, 지구촌 사회의 안전을 나의 생존, 나의 평화, 나의 안전과 일치시키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보다 후진국보다 지상의 어느 나라보다 더 절실합니다. 우리는 근대에 성공한 근대화의 막내이면서 21세기 '인류문제군' 을 가장 먼저 밟고 가는 탈근대 초근대의 맏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 초일류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룩한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을 통해 21세기 90억 인구 지구촌 인류에게 생존, 평화, 안전의 길로 인도하는 글로벌 코리아 모델(Global Korea Model)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코리아 2008년 혁명' 의 출발

이제 우리는 건국60년의 성공을 바탕으로 안과 밖 모두 통합의 미래로 가야 합니다.

근대화의 기적적 성공조건은 저절로 21세기 성공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지나간 날의 성공요인 중 한 부분이었던 압축, 폭발, 단절, 극단, 편중, 이기적 발전은 근대를 넘는 생존환경과 상충됩니다. 그 틈에 생긴 그늘, 함몰, 굴절을 메우고 다스려야 합니다. 성공조건 중에서도 자율적 자성(自成)적 조건에 더욱 충실해야 합니다.

항일민족운동, 건국, 반공(反共)호국 그리고 민주화, 산업화, 다원화, 개방화라는 발전의 각 단계마다의 주역승계가 갈등적이었던 과거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성공을 이룩했기 때문에 항일독립, 건국과 반공호국의 주류간의 부분적 단절, 민주화와 산업화 주류간의 마찰을 성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각 주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성찰하고 나눔과 희생의 모범을 보이면 안의 통합이 가능합니다.

21세기 새로운 생존조건에 충실하게 우리의 마음과 규범을 밖과 통합하면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 평화혁명' 과 선진 일류 국가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남북한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도 글로벌 코리아 모델(Global Korea Model)의 선진 일류 국가 숙성과정에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대화 성공과정에서 배운 다원성, 다양성에 관용과 이타(利他)를 더하면 안의 통합과 바깥과의 통합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보편적 코리아 모델(Korea Model), 근대화와 초근대화, 안과 밖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선진 일류 국가, 글로벌 코리아 모델(Global Korea Model)의 비전과 실천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대한민국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가 출범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20세기의 성공을 넘어 21세기 성공으로의 승화를 다짐하는 일입니다.

이 자리 우리 모두 선열과 후손에게 과거 60년 '대한민국 1948년 혁명' 의 성공을 승화하는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 2008년 혁명' 의 출발을 기약해야겠습니다.

건국60년과 여성 경제인

- 안윤정(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안윤정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안 회장은 여성 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건국60년과 의상의 변화

회장님께서는 건국60년의 태동기인 1947년 대구에서 출생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건국60년 역사를 모두 경험한 세대이신데 패션디자이너로서 건국60년을 돌아볼 때 한국 사람들의 의상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한국 사람들의 60년 동안의 의복의 변화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의상이나 의복의 변화를 개인적인 가족사를 통해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어렸을 때는 거의 한복을 입었지요. 저희 어머님은 신여성이었고 멋쟁이라고 불리었는데도 늘 한복을 입으셨어요. 그때는 한복을 양단, 나일론 같은 것으로 많이 해 입었습니다. 그때 어머님 세대는 세일러복 시대였죠. 그렇지만 결혼하시고서는 거의 양장을 안 하시고 한복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저희들에게는 미제인지 구제품인지는 몰라도 최신 유행의 옷을 입히셨어요. 그런데 저 혼자 시골에서 그런 옷을 입고 다녀서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당시 아이들은 학교에 올 때 한복 치마저고리를 입고 오는데 저는 마포 바지 같이 몸에 달라붙는 바지에 스웨터 같은 것을 입고 다니니까 아이들이 이상하게 바라봤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싫었어요. 저 혼자만 다르다는 게 무척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옷 안 입겠다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지금 디자인 하듯이 옷을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서 만든 옷을 많이 입었죠. 게다가 저희들을 대구에 있는 신발가게에 데려가서 구두도 맞춰서 신겼어요. 그래서인지 당시 시골에서는 저희가 사람들의 연구 대상이었어요. 운동회 같은 것을 할 때, 친구들은 그냥 체육복 같은 것을 입고와도 저희는 블루머(Bloomer : 여성 체육용 반바지) 같은 것을 입고 갔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양말을 신기실 때도 면양말 위에 나일론 양말을 신기셨어요. 당시에는 나일론 양말이 상당히 고가의 양말이었어요.

6 · 25 이후 회장님 가족의 생활과 의복의 변화는 어떠했습니까?

6 · 25 때 우리 가족은 대구에 살았는데 그때 아버지와 같은 대학생들의 경우 숨어서 살 수밖에 없으셨다고 해요. 전쟁 중이라 고향으로 가는 통로가 막혀서 생계가 곤란했을 때 어머니께서 시집올 때 해온 옷들을 내다 팔아서 쌀을 장만하셨대요. 당시 대구에 피란민들이 많이 몰렸는데 그러다보니까 생필품이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곡식과 옷을 바꾸는 등의 물물교환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당시 어머니 세대는 돈이 많고 배움이 많아도 대학을 가지 않았던 세대였어요. 정신대 문제 때문에 대학에 가기보다는 일찍 결혼을 시키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신식 교육을 받으셨으면서도 대학을 가지 않고 일찍 결혼을 하게 되셨죠. 그렇지만 저희 세대는 그런 속박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가는 여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1965년도에 대학을 들어갔고요.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당시 대부분의 학생들은 겨울에도 그냥 교복만 입고 다녔어요. 그때 교복 위에 코트를 입고 다니는 학생들은 부잣집 학생들이었죠. 남학생들의 경우 교복 위에 코트를 못 입게 했다는데 저희 때는 여학생들은 교복 위에 코트를 입었어요. 그렇지만 코트를 입고 다니던 학생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입시 때만 되면 날씨가 춥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날씨가 춥다기보다는 코트를 입을 형편이 안 되던 때이니 당연히 추울 수밖에 없었지요. 대학교 입학 때도 고등학교 교복을 그대로 입고 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모직에서 나온 원단으로 코트를 해 입고 갔었는데 사실 그리 좋은 옷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당시는 코트라는 것 자체를 입고 다니기 힘들었던 시절이었으니 얼마나 어려웠던 때인가를 알 수 있죠. 1960년대 이후 명동은 서서히 패션이 기지개를 펴던 때였어요. 송옥, 엘리제 같은 의상실, 뉴욕화점 같은 제화점들이 각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옷을 제일 잘 입는 사람들은 반도조선아케이드에서 외국산 옷을 사 입었습니다. 이곳에서 파는 옷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여성경제인으로 산다는 것

회장님께서는 패션보다는 그야말로 복식(服飾)이라는 단어가 익숙했던 1975년에 '안윤정 부띠끄'를 열어 패션 시대를 연 1세대 패션디자이너이십니다. 그때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세대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남으셨던지 여성인 제가 공부를 계속해서 판사나, 의사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학교 공부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윤리 교육이 너무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학교 갈 시간에 할아버지께 붙잡혀서 종종 『동문필습』을 읽곤 했어요.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때 적성검사를 했는데, 이과 쪽 적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바람대로라면 의사가 돼야 하는 것이었지요. 당시 대학 입시는 대학교마다 다 달랐어요. 저는 이화여대 의대를 목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시를 치르기 석 달 전쯤에 다시 꼼꼼히 적성을 따져보니 제가 비위가 약해서 아무래도 의대를 가기는 힘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당시 이화여대가 이과 계열에서는 의대와 약대 빼 놓고는 커트라인이 좀 낮았어요. 그래서 자존심상 다른 이과 계통의 과를 가기보다는 문과 쪽으로 가서 교수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독어독문학과에 들어갔는데, 적성에 너무 안 맞아서 교수가 되기는커녕 4년을 다니기도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전과를 하든지, 아니면 학사편입을 하든지 하려고 했는데 담당 교수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공대 출신인데, 전과를 해서 독어독문학과에 오니 너무나 이질감이 생겨서 고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졸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잠시 했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 적성에 맞지 않아 교사가 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그런데 막상 졸

여성경제인들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남성경제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까지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 기득권을 여성들에게 조금만 양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성들은 주류 사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할 때쯤 되니 선생님 역시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는 아직 논문이 덜 끝나서 졸업을 못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서는 돈을 받아서 복장학원을 다녔어요. 복장학원을 다니면서 제 적성을 찾았어요. 공부는 밤을 새서 하려고 하면 졸려서 못하겠는데, 바느질은 밤을 새서 해도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장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여성 경제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셈이로군요.

그런 셈이죠. 그런데 제가 패션 계통으로 들어서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당시 의상실의 옷들이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대학교에 다닐 때 몸은 날씬했는데 얼굴이 통통한 편이라 몸에 잘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굉장히 뚱뚱해 보였어요. 반대로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몸매가 참 날씬하고 예쁘다고 칭찬을 했었죠.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으려고 노력했는데, 예쁘면서도 몸에 잘 맞는 옷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당시 외국산 옷들은 사이즈가 대부분 한 가지여서 옷은 예쁜데 몸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의상실에 가서 비슷한 모양으로 제 몸에 맞는 옷을 해 입으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한 옷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피트 자체가 다른데 당시 의상실 사람들이 이런 옷들을 많이 안 다뤄봐서 몰랐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뒤떨어져 있으면 내가 한 번 도전해 볼 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의상실을 시작하게 됐어요. 물론 취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집에 알리지 않고 몰래 하는 일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어요. 미싱 같은 경우만 해도 가정용 미싱을 가져다 썼었는데 사람들이 의상실에는 공업용 미싱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공업용 미싱이 뭐가 다른가 하고 가서 봤더니만 미싱에 모터가 달려 있더군요. 그만큼 초보였고 아는 게 별로 없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의상실을 하게 됐어요.

처음 시작한 의상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 서울에 장위동이라는 동네가 막 생겼을 땐데, 그곳에서 의상실을 열었지요. 요즘과 비교해 보면 부자들이 사는 신도시라고 할 수 있죠. 당시 장위동에는 연예인, 군 장성, 기업가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당시 의상실을 할 때 명동에서 기술자를 데려다가 썼어요. 그런데 조금 멀리서 데려오다 보니 월급을 더 줄 수밖에 없었지요. 결과적으로 그게 옷값에 반영이 되니 사람들은 옷은 명동과 비슷한데 가격은 명동보다 더 비싸다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명동에서 옷을 만들고 장위동으로 가지고 와서 파는 것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렇게 3년 정도를 하다가 어느 날 미국에 나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출입국 카드를 작성할 때 방문 목적을 적는 칸에 비즈니스라고 적어야 하는 데 갑자기 철자가 헛갈리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살다간 무식한 사람이 되겠구나, 세상을 좁게 살겠구나 하고 느꼈죠. 의상실에만 얽매여 살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내가 이

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성복으로 바꾸게 됐죠. 바로 그 시기에 우리나라 기성복 시대의 시작인 롯데백화점이 오픈했고, 저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경제인의 현안과제와 희망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업 정보가 부족하고 접대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남성과의 '공정한 경쟁' 이 어려워 보입니다. 여성 경제인의 어려움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중소기업청과 함께 실시한 '여성 기업 실태조사' 에 따르면 여성 기업은 모두 110만 7,594개로 전체 기업의 3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법인은 1.4%이고 나머지는 개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보통 중소기업을 300만 개 정도라고 추산하는데, 그 중 여성이 경영하고 있는 게 110만 개가 훨씬 넘죠.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면 모두 놀라요. 여성 기업인이 이렇게 많은 것은 소규모 기업들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미장원, 음식점, 꽃집 같은 경우들이죠. 그런데 이런 영세업체들의 경우 시장 상황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따로 지원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 경제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런 외부적 어려움보다 내부적 어려움이 더욱 많습니다. 특히, 1세대 여성 경제인의 경우 사회적인 분위기가 여성 차별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죠. 그리고 스스로의 결심보다는 주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영에 뛰어들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병을 얻거나 실직으로 인하여 생계를 책임지게 된 경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시작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가족을 먹여 살려야겠다는 신념 하나만으로 버텨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힘이 드는데 그동안 특별히 은행과 사업상의 거래가 없다 보니 대출을 받기도 힘들고, 또 입찰 같은 경우 남자들처럼 인맥 같은 것에 기댈 수도 없어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여성은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자기 계발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 구매와 같은 경우 여성 기업인에게 우선적으로 5% 배정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여성이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 보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을 할 때 그냥 막연하게 소상공인 혹은 저소득층 지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성들에게 할당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원을 하면 여성들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의 경우 1994년 정부계약의 5%를 여성 기업에 주는 연방정부구매합리화법을 제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여성들은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부도율이 낮고 대출금의 연체율도 낮은 편입니다. 이외에도 인도와 스리랑카의 경우 여성 기업이 리스크가 적다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도 여성기업, 장애인, 소수 민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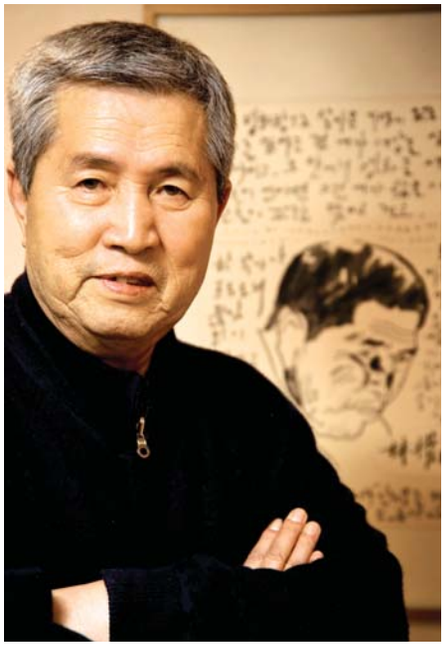
우리나라 여성경제인협회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며, 건국60년을 맞아 국민들의 경제인식과 관련하여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소망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경제인협회는 현재 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 여성을 위한 은행 신설, 여성 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유도, 여성 창업인을 위한 컨설팅, 사회적 기업 만들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성 경제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 기

득권을 여성들에게 조금만 양보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성들은 주류 사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무슨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해 보면 여성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여성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검은색 계통의 옷보다는 색상이 화려한 옷을 입고 참석을 합니다. 특히 언론에 노출되는 사진들도 대부분 저를 찍은 사진들이 많습니다. 여성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단적으로 지금 인터뷰 같은 경우도 여성은 저 혼자뿐이죠. 그러니 기득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망은 저희 기업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돋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자서전을 펴내는 것도 소망입니다. 또 다른 소망은 사회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이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규모가 큰 재단을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만약 제가 못하면 제 자식 세대에서라도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건국60년과 한국영화

- 임권택(영화감독)



임권택 감독은 한국영화가 질적인 발전을 거듭해 미래가 밝다고 전망했다.

생활과 세계 속의 한국영화

감독님께서는 거장감독, 국민감독, 가장 한국적 감독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습니다. 100편이 넘는 영화를 통해 한국인의 삶을 가장 한국적으로 그렸다는 평가도 받고 계십니다. 상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의미 있고 보람이 있었던 상은 어떤 것입니까?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1981년에 〈만다라〉가 베를린 영화제의 본선에 진출했을 때도 생각이 나고, 1987년에 〈씨받이〉로 강수연 씨가 베니스영화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과 같은 해에 아시아 · 태평양 영화제에서 감독상 · 작품상을 수상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1993년에는 〈서편제〉로 국내의 많은 상과 상하이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것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도 2002년 〈취화선〉으로 칸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것이 오래 기억에 남아요. 세계영화제에서 상을 받는 것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런 큰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면 전 세계에 제 영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무엇보다 영화를 세계 각국에 배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감독님께서는 전라남도 장성에서 태어나 광주 숭일중학교 3년을 중퇴하시고 1955년 신생영화사 영화 제작부에 입사하셨습니다. 영화에 입문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에 뛰어든 것은 아닙니다. 6 · 25 당시 가출을 하여 부산에서 막노동을 하며 힘겹게 살았습니다. 처음엔 지게를 날랐고, 그 다음에는 군화 장사를 했어요. 그때 군화 장사를 하다가 알게 됐던 분들이 휴전이 되자 서울로 올라가서 〈장화홍련전〉이라는 영화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촬영 중반쯤에 저에게 연락을 해서 영화 촬영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제작부 막내 일을 권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 부산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 영화제작을 하면 밥은 굶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순전히 생계 때문에 뛰어든 것이죠. 영화적 수업은 대부분 〈장화홍련전〉을 감독한 정창화 감독에게서 배웠죠. 정창화 감독은 1960년대 후반부터 홍콩에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정 감독이 만든

〈철인〉(영어제목은 〈죽음의 다섯 손가락〉)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개봉되었는데 그 주 박스 오피스 1위를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 영화사에서 오랫동안 정 감독을 주목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임권택 영화로 본 한국 영화의 강줄기

1962년에 〈두만강아 잘 있거라〉로 데뷔를 하셨는데, 어디서 개봉을 하셨고, 그 당시 우리나라 영화계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아울러 그 당시부터 한국영화의 흐름을 소개해 주십시오.

〈두만강아 잘 있거라〉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을지로 4가에 있던 국도극장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제 나이 28세였죠. 나이는 어린 편이었지만 감독으로서 빨리 데뷔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제 영화를 만드는 일에만 열중했기 때문에 한국영화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다만 시대별로 제가 만든 영화에 대해 질문을 한다면 설명할 수는 있겠지요. 어쨌든 제가 만든 영화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 초반이었지요. 1960년대는 국산 영화가 가장 호황을 누렸던 때라고 생각이 돼요. 당시로서는 유일한 오락의 수단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유신체제가 굳어지면서 영화 산업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소재 선택의 제약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1970년대는 좋은 영화가 나오기 어려웠던 시절로 기억됩니다. 물론 1960년대라고 해서 소재 선택이 자유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국가관이나 보안 쪽과 관련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비해서는 자유로웠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의 경우 버스 여차장의 고단한 삶을 다룬 영화가 이상한 쪽으로 해석되어 아예 상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서기원 작가의 〈마록열전〉을 영화로 찍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록열전〉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한국인을 다룬 소설입니다. 그런데 소설의 제목에서 '마록'이라는 말은 일본말로 '바가야로(バカヤロ)' 즉, 바보라는 안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알라스카의 늑대'라고 새로 지었죠.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보부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전라도를 하와이, 함경도를 알라스카로 말하고는 했는데, 중앙정보부에서 제목만 보고 "주인공이 함경도로 가고 싶다는 얘기냐? 이북으로 간다는 얘기냐?"라는 식으로 따졌습니다. 물론 영화내용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비록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아 간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시달리다 못한 제작자가 중앙정보부 사람들에게 그럼 제목을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 중앙정보부 사람이 〈왜 그랬던가〉로 하라고 해서 영화 제목을 그렇게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통제를 받던 시절이었죠. 사회적 문제나 이념 같은 것은 전혀 다루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영화 〈만다라〉로 베를린 영화제에 진출했던 1980년대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지금은 영화제에 출품을 하는 것은 영화사 고유의 영역이지만, 당시는 영화진흥공사가 작품을 선발해서 영화제에 출품하도록 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당시 출품작에 〈만다라〉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대사관 문화원장이 〈만다라〉를 보고, "무슨 소리냐? 만다라도 출품돼야 한다"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영화사 단독으로 출품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만다라〉가 영화제 본선에 진출함으로써 제 이름이 조금씩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역시 군사정권 시절이었지만 영화 쪽에서는 조금씩 관대해졌던 시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 1980년대에는 휴머니티를 다룬 영화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6·25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무리 좋은 이데올로기라도 인간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들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부탁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영화를 잘 만들어야겠지요. 요즘 허리우드 영화와 비슷한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적인 개성을 살린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990년대에 〈서편제〉, 〈태백산맥〉 같은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1990년대의 분위기도 설명해 주십시오.

1990년대는 판소리와 같은 우리 문화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시기였습니다. 〈서편제〉, 〈축제〉, 〈춘향전〉 같은 경우가 그런 맥락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 판소리는 그저 들으면 뭔가 감동이 있고 좋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판소리에 대해 뭔가 깊이가 있어서 영화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것이 이대로 놔두면 박제처럼 돼 버리고 말 것 같아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2000년대에 가장 주목할 만한 영화로는 〈취화선〉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작품을 만드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일단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1962년에 감독으로 데뷔하고 나서 10여 년 동안 약 50여 편의 작품을 찍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제 마음 속에는 우리나라 영화를 허리우드 영화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의 영화 제작 여건이 허리우드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것이 내가 어떤 영화를 찍어야 감독으로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란 문제였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한국인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한국 영화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영화의 표면적인 면에서는 허리우드 영화에 비해 떨어질지 몰라도 내용상으로는 허리우드와 차별화 되는 영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80년대 만들었던 분단의 아픔을 다룬 영화 같은 경우 이런 맥락에서 만들었지만 더 이상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 1990년대에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로 관심을 돌렸던 것입니다. 2000년대 역시 1990년대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화선〉의 경우 김홍도 같은 당대의 유명한 화가가 있었지만 제가 그 화가의 내면세계로 들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승업의 경우 52세에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금강산에 들어가 신선이 됐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록을 보고 장승업이 신선은 못 되었어도 화선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장승업이 얼마나 그림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으면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와 비슷한 점이 많아서 장승업의 내면으로 들어가기가 쉬웠습니다. 게다가 장승업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었다는 점이 오히려 자유롭게 영화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와 미술은 비록 장르가 다르지만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장승업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고, 저는 지금도 그런 표현들이 어느 하나 거짓된 것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적인 영상미를 창출해 내는 감독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타르코프스키는 평생 7편의 영화를 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7편의 모든 영화에 물의 이미지가 등장한다고 하더군요. 감독님의 경우 작품 속에서 일관되게 드러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평생 7편의 영화만 만들었다면 일관되게 추구하는 주제나 이미지를 쉽게 적용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영화를 100편 정도 찍었는데 이 작품 모두에 일관된 주제나 이미지를 넣었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요. 다만 주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각 시기별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휴머니즘이라든가 전통 문화라든가 그런 식으로 나눠볼 수는 있겠지요.

파이팅, 한국영화!

작년에 건국60년을 맞이했는데 대한민국은 그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영화를 만들어 오시면서 감독님께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을 텐데, 한국영화의 어려움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 '화천영화사'와 '태흥영화사' 두 군데에서만 주로 작업을 해서 총체적으로 한국영화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겪은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2000년대가 한국영화의 최고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만 관객이 넘는 영화가 등장을 하고, 젊은 감독들이 영화를 잘 만들고 있고, 제작환경도 제가 데뷔했던 1960년대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단순하게 비교해 보자면, 1960년대에 영화 한 편을 찍을 때 보통 필름을 3만에서 4만자 정도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만에서 40만자 정도를 소비합니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최소 10배 정도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작환경의 경우 옛날과 비교해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예전에는 영화사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영화가 펀드를 만들어 다른 곳에서 투자를 받아 영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목적도 변한 것 같습니다. 수익을 떠나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는 제작자가 수익은 물론, 영화 자체가 좋아서 영화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수익만을 목적으로 영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흥행작을 만들 수 있는 감독 몇몇은 투자를 쉽게 투자를 받아 영화를 제작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감독들은 영화 제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외적으로는 풍성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오히려 큰 고비를 겪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저와 같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흥행배우를 캐스팅하기 위해 고액의 출연료를 제시한다든지, 제작비를 낭비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제작을 검토하고 낭비를 줄여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영화가 몰락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일단 소재 면에서 예전과는 달리 어떤 것을 소재로 삼아도 될 만큼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케 하는 자본의 뒷받침도 탄탄한 시대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명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영화의 미래에 대해 밝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까? 건국60년을 맞이하여 영화계 원로로서 영화에 관해 국민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한국영화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영화와 같은 영상 매체 쪽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단순히 양적으로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수하다는 것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조금 잦아들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한류'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충분히 조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국영화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관해 국민들에게 바라는 점은 따로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부탁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영화를 잘 만들어야겠지요. 요즘 허리우드 영화와 비슷한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적인 개성을 살린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국60년과 전통문화 인식

- 황병기(국악인)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문화 창조를 강조한 국악인 황병기 선생.

건국60년과 서울의 변화

선생님께서는 일제 하인 1936년도에 서울에서 태어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가장 변화와 발전이 크게 나타난 곳이 아마 서울일 겁니다. 그동안의 서울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장 한국적인 동네라고 불리는 북촌 가회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북촌 지역에서 1974년도까지 살다가 현재 살고 있는 북아현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70평생을 서울에서만 살았죠.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서울은 지금과 비교하면 시골 같은 분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었던 시절이었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삼청동 골짜기에 물방개를 잡으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도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흙길 위에서 맨발로 뛰어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더구나 서울 지역 대부분의 도로에서는 제비가 많이 날아다녔습니다. 아울러 청개천도 복개가 안 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던 것이 1960년대 말 경에 고층 빌딩이 하나 둘씩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미도파 백화점, 화신 백화점 정도였습니다. 대략 5층 정도의 건물이었을 겁니다. 당시 시골 사람들이 서울 구경을 오면 화신 백화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구경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 호텔의 경우 7층 건물이었는데 당시의 느낌으로는 현재의 63빌딩에 맞먹는 높이로 느껴졌습니다. 당시 멋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반도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술을 한 잔 마시며 서울의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을 감상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서울의 모습이 급격하게 변했던 것 같습니다. 왜 서울만 급속하게 변하고 지방은 전혀 변화가 없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죠. 그런데 88올림픽을 전후로 서울이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지방에 내려가 보면 이런 급속한 변화의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가끔 부산에 내려가곤 하는데 내려갈 때마다 오히려 서울보다 더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깜짝 놀라곤 합니다. 실제로 현재 부산 지역 3군데에서 100층이 넘는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정말 역동적인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전통 음악으로의 긴 여로

선생님께서는 경기중학교 3학년 때인 1951년 부산 피난시절부터 가야금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야금을 배우게 된 배경이 각별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열심히 가야금을 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대신동에 있는 피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근처에 고전무용학원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에 가야금을 하시는 김철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가야금이라는 것을 구경하고 그 소리에 매혹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소리가 좋아 가야금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서도 경기고등학교(당시에는 천막학교)에 다니면서 계속 가야금을 배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서울대 법대 3학년 때 KBS 주최 전국 국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하셨습니다. 법관 등 전도가 양양한 법대생이 그리고 여자도 아닌 남학생이 가야금을 연주하셨는데 그때 당시의 세간의 반응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가야금을 배웠습니다. 학교 공부를 마치면 국립국악원에 들러서 가야금을 배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국악이나 가야금을 전공해야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대를 다니던 학생들이라고 해서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시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학교에 아예 나오지 않고 절에 들어가거나 시골로 내려가서 공부만 했습니다. 당시 저와 함께 법대를 다니던 사람으로는 전 헌법재판소장인 김용준, 그리고 대중가요 가수 최희준 씨가 생각납니다. 모두 제 동기였습니다. 최희준 씨 같은 경우 서울대 총학생회가 주최한 축제에서 장기자랑 코너에 나가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가야금을 연주했습니다. 당시에 최희준 씨는 아르바이트로 미8군에 나가 노래를 부른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팝송을 잘 불렀습니다. 어쨌든 1959년은 제가 졸업하던 해였는데 서울대학교에 국악과가 처음 생겼는데 그곳에 강사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 결심은 딱 4년만 가르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들을 졸업시킬 때까지만 하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당시 가르쳤던 제자 두 명이 훗날 서울대 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강사를 그만두고서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계속하다가 1974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에 국악과가 전국에서 3번째로 개설이 됐는데 그 곳에 교수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것에는 일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음악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1978년에 국악 앨범 ≪침향무(沈香舞)≫를 발표하신 뒤로 2007년 ≪달하 노피곰≫ 등 5개의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특히, 현대 음악기법으로 만들어진 ≪미궁≫의 경우 '세 번 들으면 죽는다'는 루머가 퍼졌는데 당시 어떻게 그런 루머가 퍼지게 되었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미궁≫이라는 곡은 제 작품 중에서 가장 아방가르드한 곡입니다. 그 곡의 초연을 1975년도에 국립극장에서 했습니다. 그때 관객 중에 한 여성이 연주를 듣다가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너무 충격적이라는 이유로 연주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면서 10대들 중 누군가가 ≪미궁≫이라는 곡을 인터넷에 올렸고 그것이 인터넷 상에서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곡을 들었던 사람들은 1975년도와 마찬가지로 곡이 너무 무섭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이 발전하여 '세 번 들으면 죽는다'는 루머가 퍼졌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곡을 들은 사람들 중 전 세계적으로 300명이 죽었다', '작곡가가 자살했다' 등의 루머가 떠돌았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여기는 점

은, 그 동안 제 음반이 총 5장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안 팔린 음반이 바로 ≪미궁≫입니다. 즉, 화제만 됐지 팔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전통문화는 사회 전체가 만드는 것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5개의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추가로 앨범을 내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울러 현재 우리 국악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국악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붐을 이룬 것은 크로스오버(Crossover)입니다. 그래야 국악이 세계화가 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 세계 그 어느 곳에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오직 한국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한국적인 음악을 좋아하는 세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악을 전공하려 생각하거나 현재 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이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악을 전공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해야 내재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힘이 어떤 어려움이든 뚫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제 아들이 수학을 전공했는데, 당시 하버드에서 제 아들을 가르치던 지도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다. 나는 나보다 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두렵다." 그만큼 어떤 분야에서든 미칠 만큼 좋아해야 한다는 말이겠지요.

앞 질문과 연관이 있겠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현재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이십니다. 예술감독으로서 앞으로 추진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며, 어떤 점에 역점을 두실 계획입니까?

크게 3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중성보다는 예술성을 강조한 음악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극히 대중적인 음악을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전 우리의 선인들이 음악을 들었던 방식 즉, 사랑방 음악회를 여는 것입니다. 차와 다과를 차려놓고 제가 설명을 하고 음악을 듣는 방식입니다. 지난 3년간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끌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와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국립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봉사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예술성이 아주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네 줄기 강물이 바다로 흐르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 줄기 강물' 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인 기독교, 불교, 도교, 무교입니다. 세계적으로 종교 문제 때문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모든 종교가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오늘날의 대중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것을 바라면서도 예술적인 것을 향유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평소에 청량음료를 즐기면서도 깊은 산속의 맑은 샘물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은 대한민국 건국6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건국60년을 마무리하면서 문화계 원로로서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인 인식, 문화생활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문화라는 것은 크게 우리만의 독창적인 것, 그리고 세계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을 하나의 커다란 꽃밭으로 비유한다면, 그 꽃밭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세계 각 민족 문화라는 다양한 꽃이 피어나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 꽃만 피

문화는 예술인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문화라는 것은 향유하는 대중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문화 수준이라는 것은 그 문화를 향유하는 대중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있으면 아름답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세계 문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남의 흉내만 내면 변방의 문화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가 세계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너무 대중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좀 더 폭넓게 문화를 즐겼으면 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사회 전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문화는 예술인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문화라는 것은 향유하는 대중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문화 수준이라는 것은 그 문화를 향유하는 대중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Part 2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대한민국 60년 생활사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이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발판으로 삼아,
영민한 시선으로 고통을 딛고, 웅장한 횡보로 시련의 파고를 넘어 기적의 역사 앞에 우뚝 섰다.
위대한 국민이 기적의 역사를 만드는 것은 그래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한민국 60년 생활사>는 크게 9가지의 흐름을 포착했는데 물가변동,
시장의 변화, 마이카시대, 가족의 변화, 복지의료강국, 의복의 변화, 주택의 변화,
통신의 변화, 정부비교 등을 통해 60년의 흐름과 기적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
주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변화의 흐름을 도표와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대한민국을 기적으로 이끈 정부의 입법·사법·행정 등의 비교를 통해 통시적 흐름을 분석했다.

물가변동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1936년이다. 경성상공회의소에서 최초로 실시하였는데 1945년 이후 조선은행에서 인수하여 발표하였다. 당시에는 주로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55년 이후부터는 서비스 물가지수를 함께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조사대상 품목을 단순평균화하지 않는다. 소비자 물가 조사대상 489개 품목의 가격변동을 종합할 때 단순평균화하게 되면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품목마다 서로 다르다는 점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쌀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와 콩나물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가계의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같을 수 없다. 따라서 개개 품목의 월평균 소비지출 비중을 기초로 품목별 가중치를 작성하여 지수에 소비지출 규모에 비례하는 영향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를 검토할 때 전체적인 가격 동향과 개별 상품의 가격 변화는 일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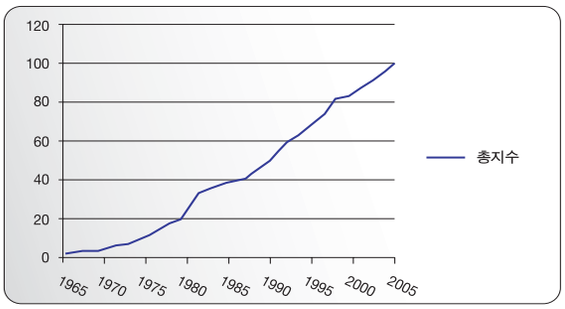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개의 품목의 가격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면 쌀의 경우는 약 400배, 라면 80배, 버스요금 125배, 연탄 20배, 담배 80배, 소주 9배, 영화요금 140배, 대학등록금은 62배 정도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가격만을 비교한 것이므로 전체적인 가격 동향은 이와 다를 수 있다.

물가지수의 변화

- 2005년 물가, 1965년 대비 28배 올라

경제성장에 따라 물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5년을 100으로 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나타낸 것이 다음의 그림이다. 각 수치는 1965년부터 5년 간격의 물가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1965년의 물가지수는 3.509로 2005년은 1965년도에 비하면 28배도 넘는 물가상승이 진행된 것이다. 1965년을 기준으로 하면 대개 13년 만인 1978년쯤 물가가 5배 증가하였고, 1982년에 10배, 1997년에 20배로 증가하였다.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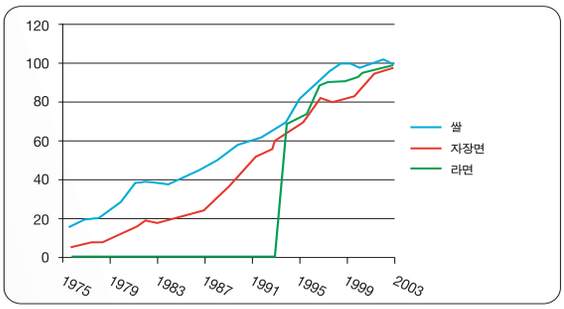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쌀과 라면, 그리고 자장면 가격

- 2002년 쌀값, 1952년 대비 402배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인 쌀값은 얼마나 변했을까? 1952년과 2002년을 비교하면 50년 사이에 402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라면은 1963년 9월에 처음 등장했다. 최초에 100g이었던 라면의 가격은 10원이었다. 이후 조금씩 오르던 라면 가격은 1981년 8월 들어 겨우 100원에 도달했다. 1980년

쌀 · 라면, 그리고 자장면 가격



자료 : 통계청

대만 해도 100원이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60년에 자장면 한 그릇의 가격은 15원으로 당시로는 상당히 비싼 가격이었다고 한다. 1968년에는 50원으로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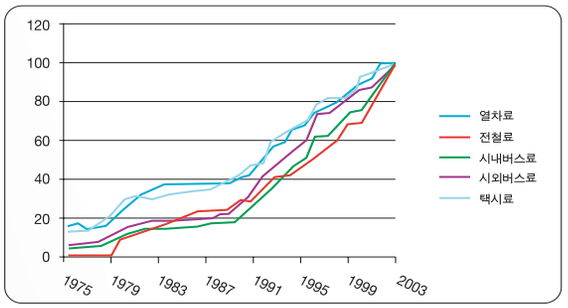
통계자료를 구할 수 있는 시기부터 이들 쌀, 라면, 자장면의 가격변동을 보이면 위의 그림과 같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간단히 가공하여 1975년을 100으로 하였을 때 각 제품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가를 보여주도록 그린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자장면 가격의 상승이 가장 급격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76~1980년간에는 매년 38.4% 정도의 증가였다. 1980년 후반에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쌀과 라면의 경우 가격이 두 배가 되는 것은 1980년대이지만 자장면의 경우는 1979년에 두 배에 달했다. 쌀의 경우는 1987년에 와서 3배가 되지만 라면은 1994년에 와서야 3배가 되었다. 반면 자장면은 1981년에 이미 3.4배에 이르고 1993년에 10배에 이르렀다. 정부의 물가안정화정책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었던 쌀과 라면의 가격에 비해 자장면의 가격은 많이 올랐음을 알 수 있다.

대중교통 요금

- 시내버스요금 : 1965년 8원, 2008년 1,000원

대중교통 요금의 가격지수 추이



자료 : 통계청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요금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원 단위로 통일된 1965년 이후를 기준으로 하면 시내버스 요금은 1965년 8원이었다. 이후 서서히 상승하다가 1992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택시는 일제강점기에 처음 도입되었다. 1972년도에 택시 기본요금은 90원이었는데, 1989년에는 소형택시의 기본요금이 700원, 중형택시의 기본 요금이 800원이 되었다. 지하철은 1974년 기본구간 요금이 30원이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1999년 기본구간 요금이 500원이 되었다. 현재는 요금 제도가 변화하여 기본구간 요금을 기본으로 하고, 거리마다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요금제로 변경되었다.

표를 보면, 열차는 1975년을 100으로 하였을 경우 1982년에 두 배, 1996년에 4배, 2006년은 1975년의 6.3배에 이르고 있다. 전철요금은 1980년을 100으로 하면 1987년에 두 배, 1996년에 4배, 2005년에 9배 증가하였다. 택시비의 경우 1975년을 100으로 하면 1980년에 2배, 1994년에 4.4배, 2006년에 8배가 되었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경우는 1990년 이후에 요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시내버스의 경우 197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1980년에 2.5배, 1990년에 4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다가 1992년에 5.7배, 1993년 6.8배 등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 현재 21.7배 증가하였다. 시외버스의 경우도 시내버스와 거의 같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1998년 이후에 시내버스보다는 적게 증가하고 있고, 2006년 현재 1975년에 비해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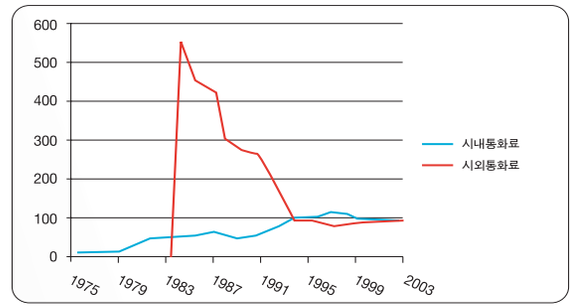
공중전화, 일반 전화, TV 시청료 요금

- 시외통화료, 기술 발전으로 계속 하락

우리나라에 공중전화가 도입된 것은 1954년 8월에 최초로 자동식 관리공중전화(유인공중전화)제도가 실시되면서부터다. 1967년 2월에 일반인의 공중전화 수요가 늘어나자, 따로 공중전화용 회선을 달지 않고 일반전화 회선에 달아서 설치할 수 있는 간이공중전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로써 공중전화의 보급이 더욱 확산

되었다. 공중전화 요금은 1970년에 5원이었던 것이 1998년에 50원으로 올랐다. 일반전화의 경우 1963년 1월 1일 전화보급에 따른 주택용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정액요금제의 불합리성이 표출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자동전화 도수제가 실시되었다. 이 당시 월 기본요금은 83원이었고, 1통화 당 전화요금은 3원이었다. TV 시청료는 1960년대 초, 100원이었다. 이후 4~5년마다 100원씩 증가하다가 1980년에 800원으로 올랐다. 이듬해 1981년에 2,500원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컬러 TV방송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통화 요금의 변동 추이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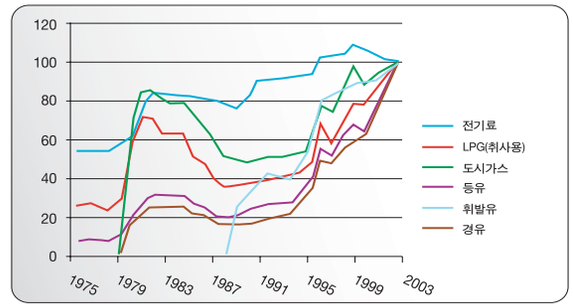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해 전화요금의 추이를 보인 것이 위의 그림이다. 모든 물가가 오르기만 한다는 선입견을 버려야 할 것이다. 전화요금의 경우는 좀 예외적이다. 시내통화료는 1975년을 100으로 하였을 경우 1980년에 2.3배, 1990년에 4.4배, 2000년에 8.1배로 정점에 달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06년 현재는 1975년에 비해 7배 정도 올라 있다. 시외통화료의 경우는 기술발전의 덕택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1985년을 100으로 할 경우 2006년의 경우는 불과 17.96에 불과하다.

연탄, 가스, 유류 가격

- 전기료, 1975년 100으로 하면 2001년 201

1970년 당시 가정용 소형탄의 가격은 18원이었다. 연탄은 1974년과 1980년 전후에 가장 많이 인상되었는데, 이 시기가 제1차, 제2차 오일쇼크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1988년 이후 연탄요금은 동결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가스나 석유 등이 일반 가정의 연료원으로 사용되면서 무연탄의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너지원의 가격지수 추이



자료 : 통계청

전기료의 경우는 1975년을 100으로 하면 2001년에 201에 이르고 있다. 다른 물가에 비해 그렇게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2001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감소하여 2006년에는 188.3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취사용 LPG, 등유는 2차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1980~1985년에 걸친 기간에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등유의 경우, 1975년을 기준으로 하면 1991년에 3배, 1996년에 4.3배, 1997년에 5.3배를 기록하는 등 급격히 상승하여 2006년 현재는 1975년의 14배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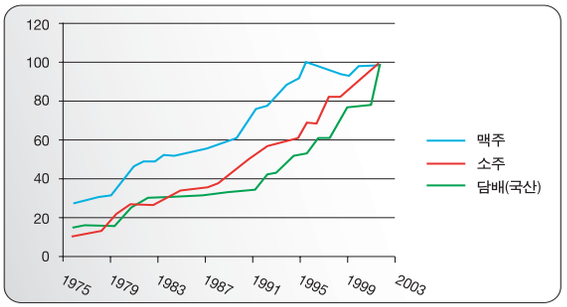
휘발유의 경우는 1990년 이후의 자료만 입수할 수 있는데 1990년을 100으로 할 경우 2006년 에는 약 4배 정도 가격이 상승하였다. 경유도 마찬가지이다. 1980년을 100으로 하면 2006년 현재 약 7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도시가스의 경우는 1980년을 100으로 할 경우 1990년에 79까지 가격이 하락했다. 이후 다소의 변동을 보이고 있지만 1999년 이후 상승을 하고 있고, 2006년 현재 1980년의 약 1.8배에 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기와 도시가스의 가격 상승이 급격하지 않았던 반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유류의 경우는 급격히 상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담배, 맥주, 소주 가격

- 소주값, 2006년 현재 1975년 대비 약 8.7배

서민들의 고달픈 삶과 같이한 담배, 맥주, 소주의 가격은 얼마나 변화했을까? 담배의 경우는 1949년의 '화랑' 부터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화랑은 1950년대 이래 3원에 판매되었고, 1963년 5원으로 인상된 후, 1973년에 10원으로 인상되어 1974년까지 판매되었다. 70년대 최고급 담배였던 '청자' 는 1969년 100원에 출시되어 150원으로 인상되었다가, 다시 200원으로 인상된 후 1978년까지 판매되었다. 1980년에는 '솔' 이 출시되었는데 가격은 450원이었다. 1987년에는 '88라이트' 가 600원에 출시되었고, 1994년에 900원짜리 '디스' 가 출시됨으로서 최고급 담배의 위치는 바뀌었다. '디스' 는 현재까지도 2,000원에 팔리고 있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 담배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은 4,000원이다.

주류의 가격지수 추이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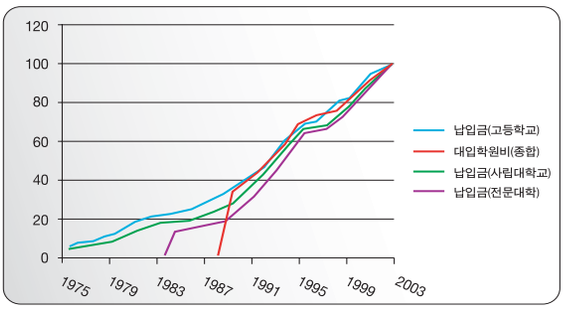
소주와 맥주의 경우는 1975년부터 자료를 구할 수 있다. 1975년을 기준으로 하면 맥주는 1986년에 가격이 두 배가 되었고, 1995년에 3배가 되었다. 2006년은 3.6배 정도 상승한 것이어서 큰 폭의 가격상승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소주의 경우도 비슷하다. 1975년을 100으로 하면 1987년에 3배, 1995년에 5배가 되었고, 2006년은 1975년에 비하면 약 8.7배이다. 다른 물가에 비해 서민들의 애환을 달랬던 담배, 소주, 맥주의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니었다.

학비는 얼마나 올랐을까?

- 1995년 대학 등록금, 1970년 대비 최고 62.3배

1970년 중학교의 1년간 수업료는 최고치를 기준으로 20,700원이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9년에는 10만 원 선을 넘었다. 1985년에는 20만 원을 넘었고, 1995년 약 50만 원까지 증가하였다. 고등학교 수업료는 중학교 보다 다소 높다. 1970년 27,320원으로 중학교 수업료의 1.3배이다. 이도 역시 1995년에 오면 32.3배 증가한 883,200원으로 증가하였다.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대학의 등록금이다. 특히 자연계 대학의 수업료가 가장 많이 올랐다. 인문계 대학의 수업료가 1970년에 33,000원이었던 것이 1995년에 1,849,000원으로 56배 인상되었고, 자연계의 경우는 45,400원에서 2,828,000원으로 62.3배 인상되었다.

등록금 지수 추이



자료 : 통계청

영화, 이발, 미용 요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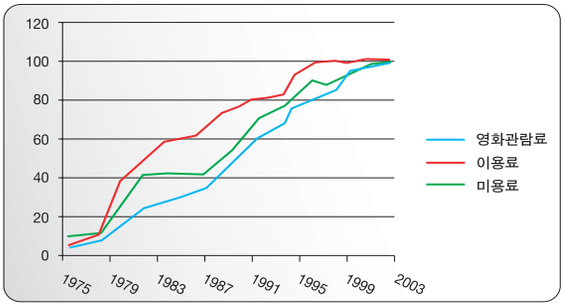
- 영화요금, 1975년을 기준으로 18.5배 증가

한국영화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1960년대 영화요금은 한국영화 55원, 외국영화 70원이었다. 인상폭이 컸던 시기는 1979년으로 전년의 700원에서 1,200원으로 71.4%나 인상되었다. 이후 2~4년마다 500원씩 인상되

었는데 1981년에 2,000원, 1988년에 3,500원, 1995년에 6,000원이 되었다.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관람료가 동일하게 책정된 것은 1990년의 일이다. 또 1973년부터는 영화요금에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도표를 보면, 1975년을 기준으로 영화요금이 18.5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용료와 미용요금은 얼마나 올랐을까? 초기 가격을 알 수 없지만 이용료는 약 1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현재, 이용료를 6,000원으로 가정하면 1975년의 요금은 385원 정도였다는 말이 된다. 미용료도 비슷한 추이인데 이용료보다 덜 올랐다. 1975년에 비해 2006년은 약 10.3배 정도 올랐다.

영화관람료, 이 · 미용료의 가격지수 추이



자료 : 통계청

시장의 변화

이미 농촌의 장시는 15세기 후반부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17세기 전반까지는 국가의 상업 경제 억제책에 의해 본격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17세기 후반 이후 국가의 상업 억제 정책은 사실상 무효화되어 갔으며, 이에 따라 농촌 장시가 곳곳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17세기 말과 18세기 초에 걸쳐 지금도 농촌에 남아 있는 5일장 체계가 확립되었다. 농촌 장시는 전국적으로 그 수가 1,000여 곳을 넘었다. 당시 전국 군 총 수를 330개 정도라고 한다면 한 군에 평균 3곳 정도의 장시가 개설된 셈이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할인점, 홈쇼핑, 인터넷 상점 등 다양한 형태의 시장이 경쟁을 하고 있다.

재래시장의 역사

- 최초의 상설시장은 1905년 설립한 광장시장

우리는 보통 시장이라고 하면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을 떠올린다.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1961년에 제정된 시장법에 의하면 시장은 개설형태에 따라서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구분된다. 상설시장은 법이 정한 시장개설 요건을 갖추고 일정 지역 내 하나의 건물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수의 영업자가 항시 물품의 매매교환이나 기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정기시장은 상품교환의 발생 빈도가 정기적인지, 아니면 연속적인지 혹은 매일인지에 따라 상설시장과 구분된다.

전국 재래시장은 2005년 기준으로 총 1,660개가 있으면 이중에서 등록시장이 1,016개로 전체의 61.2%를 차지하고 있고, 점포수가 100개 미만 시장의 시장이 1,027개로 전체의 61.9%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시장은 동대문 광장시장이다. 김종한 외 3인의 발기인은 1905년 시장의 명칭을 동대문시장으로 확정하고 법원에 등기하였다. 시장의 경영체 법인명은 광장주식회사로 명명하였다. 1970년 12월

종로6가 맞은편에 기존의 동대문시장보다 훨씬 큰 규모로 개설된 동대문종합시장과 청계천이 복개되면서 인근에 생긴 평화시장까지 아울러 동대문시장이라 부르게 되었다. 1970년 12월에는 서울동대문종합상가가 새로이 개점하였다.

남대문시장은 '남문안장' 또는 '신창(新倉)안장' 이라고도 불렸다. 남대문시장의 기원은 조선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태종 14년(1414년) 새 도읍지인 서울의 남대문 근처에 가게를 지어 상인들에게 빌려준 것이 시초였다. 1608년에 와서 포(布) · 전(錢)의 출납을 담당하던 선혜청(宣惠廳)이 남창동에 설치됨에 따라 지방의 특산물 등을 매매하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그 후 1921년 3월, 송병준이 조선농업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정식으로 개시되었다. 1922년 경영권이 일본인 소유의 중앙물산주식회사로 넘어갔으며, 1936년 3월, 남대문시장에서 중앙물산시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8 · 15해방 후에는 남대문상인연합회가 운영했으나 6 · 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

1958년 대지 약 1만 2,000평, 건평 약 2,000평 규모의 건물이 세워졌지만, 1968년 대화재가 발생하여 시장의 중심부가 전소되기도 했다. 1970년 1월에 남대문시장이 국내 최신시장으로 다시 개설되었다.

오늘날 상설시장들은 1980년 이후 슈퍼마켓이 등장하고 이어 대형마트, 편의점, 무점포 영업 등 신업태 증가로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매출액 역시 2004년 35.4조 원에서 2005년에는 32.7조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재래시장들도 이제는 더 이상 재래시장이기를 거부하고 있고, 정부도 이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물론이고, 백화점식 서비스 강화, 첨단 판매기법 도입, 사이버 쇼핑시장 진출 등으로 현대화와 고급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시장전경. 국내 최초의 상설시장은 1905년 동대문에 설립한 광장시장이다.

백화점

- 1930년 설립된 미쯔코시백화점이 최초

우리나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백화점은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매장면적은 3,000㎡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은 1930년에 설립된 미쯔코시백화점이다. 민족자본에 의해 최초로 개점한 백화점은 1931년에 문을 연 화신백화점이고, 미도파백화점의 전신인 조지아백화점이 개점한 것은 1935년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재래시장이 소매업을 전부 장악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백화점 시대의 개막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970년 백화점 전경.
우리나라 백화점은 해방 이후에 오히려 백화점 운영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방 이후는 오히려 백화점 운영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1954년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주요도시 가운데 전남 순천에 5개, 춘천에 5개, 군산에 10개의 백화점이 있었다고 한다. 서울에는 1954년에 미도파백화점이, 그리고 미쯔코시백화점과 동화백화점이 설립되었다. 또 화신 백화점의 분신인 신신백화점이 정식으로 개점하였다. 이로써 서울의 백화점은 화신, 미도파, 동화, 천일, 자유, 신신 등 7개가 되었고, 1980년대 초반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백화점의 매출액은 1960년에 44억 원, 1961년에는 82억 원에 이르렀다. 1958년의 서울소재 재래시장의 총매출액이 32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백화점의 매출규모는 상당히 컸다. 또 당시 백화점의 매장 수는 서울 총 상점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지만 매출액은 서울 재래시장 이상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1962년부터 1973년까지를 대개 백화점 생성기로 보고 있다. 1979년 말에는 롯데쇼핑이 기존 백화점의 면모를 일신하는 혁신적 시설로 개점하면서 뒤이은 백화점 성장의 기폭제가 되었다.

1980년부터는 백화점이 대중화된 시기이다. 1980년부터 1983년까지는 롯데, 신세계, 미도파라는 도심의 3개 백화점이 시장점유율을 삼분하던 시기이다. 그러나 1984년부터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백화점 사업에 진출하면서 상권이 부도심 및 강남으로 다핵화되기 시작하였다.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백화점의 새로운 유형의 백화점이 등장하여 백화점의 다양화가 시도되었다.

1995년 백화점 매출액은 10조 원을 돌파하며 13.1%의 소매시장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6년부터는 정체되었고 소매시장 점유율도 감소하고 있다. 1998년에는 경제위기의 여파로 매출액이 10% 감소하면서 시장점유율이 11.5%로 떨어졌다. 백화점 산업의 정체와 함께 중소규모 백화점과 지방 백화점이 도산하고 대형백화점에 인수 · 합병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대표적인 예가 2002년 미도파백화점이 롯데에 인수된 것이다. 또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유통시장 내 업체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백화점들은 새로운 방향 찾기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수퍼마켓과 편의점의 등장

- 편의점은 1989년 올림픽선수촌에 처음 등장

수퍼마켓은 1930년대 미국에서 탄생하여 전 세계로 보급된 새로운 형태의 현대식 소매유통기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에 '한국슈퍼마켓' 이 개점하였지만, 근대적 의미의 수퍼마켓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68년 '뉴 서울슈퍼마켓' 과 같은 해 8월 '삼풍슈퍼마켓' 의 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수퍼마켓의 체인화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71년 설립된 '새마을슈퍼체인' 이다. 1970년대 수퍼마켓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1996년에 와서는 3조 6,000억 원의 거대시장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할인점의 성장과 1997년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여파로 최근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특히 1997년과 1998년에 한남체인, 해태유통 등의 대형 수퍼체인점들의 부도는 업계의 침체를 가속화한 것이었다.

편의점이 등장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1989년 5월6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선수촌에 국내 최초의 편의점이 생겼다. 그로부터 꼭 18년이 지난 2007년 5월 현재 대한민국 편의점 숫자는 무려 1만 개를 넘어섰다. 편의점은 주택가에 입지한 것이 38%로 가장 많다. 주택가 중에서 복합지역이 1.7% 가량 분포율이 높아졌다. 주 5일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오피스가 지역의 분포도는 13.8%로 0.8% 정도 낮아지고 있다. 반면 역세권은 전년도보다 3%가 늘어난 23.3%를 유지했다. 이 역시 시대상황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국내 8대 체인화 편의점의 2006년 총매출액 규모는 4조 9,624억 원으로, 2005년 대비 7.7% 신장됐다. 2001~2003년도까지 3년간 연평균 38.7%의 최고 성장세 이후 2004년도부터 안정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형할인점의 출현

- 이마트, 1993년 창동에서 최초 개장

대형할인마트는 1993년 창동에 이마트(E-mart)가 생기면서 본격적인 할인점 시대를 개막하였다. 이마트가 많은 수익을 창출하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다른 업체들도 할인점 시장에 하나 둘 진출하기 시작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일부 광역시에 집중되던 대형마트는 지난 1996년 유통시장의 개방과 함께 눈을 지방으로 돌려, 현재 국내 대형마트의 수는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대형마트는 2000년대 초까지 점포수, 매출액이 급증하다가 2003년부터 안정적인 성숙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 경기, 서울, 인천의 수도권이 점포수 160개로 전체의 48.3%를 차지하고 있고, 총매장 면적도 1,706천㎡로 전체의 48.9%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별로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수도권이 13조 2,000억 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지역이 6조 5,000억 원으로 28%를 차비하면 전국 1위이다.

이러한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등장은 재래시장 등 지역 영세 상인들의 몰락으로 이어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들 대형마트들은 기존의 재래시장을 비롯한 지역의 상권을 완전히 잠식해 기존의 상가들 상당수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다. 유통시장이 개방된 1996년을 기준으로 하면 개방원년 70만 6,000개 정도로 추산되던 종업원 4인 이하 영세 소매상 가운데 8만 개의 점포가 사라졌다. 흔히 구멍가게라고 불리는 기타 소매업은 판매액이 12% 감소하였다.

안방에서 쇼핑하는 시대

- TV홈쇼핑의 첫 판매제품은 만능 리모컨

TV홈쇼핑은 1995년 한국홈쇼핑(현재의 GS홈쇼핑)과 삼구쇼핑(지금의 CJ홈쇼핑)이 첫 방송을 하면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상품도 부족하였지만 시청하는 가구도 거의 없어 실적이 부진하였다. 한국홈쇼핑의 첫 판매제품인 만능 리모콘의 판매량은 10개 내외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8년부터 2002년까지 TV홈쇼핑은

연평균 72.3%의 경이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매출 3조 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2001년에 후발주자로 우리, 농수산, 현대홈쇼핑이 가세하면서 외형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TV홈쇼핑에 대한 접근성과 취급상품의 개선, 업계의 마케팅 노하우가 축적된 것이 성장의 원인이다. 또한, 케이블 방송과 신용카드 보급이 증가하면서 TV홈쇼핑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판로를 찾던 중소기업과 아이디어 상품을 찾던 홈쇼핑업체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TV홈쇼핑 히트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2002년에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인터넷 사용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했다. 국내 인터넷 쇼핑몰 이용률은 2000년 18.8%에서 2002년 25.7%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TV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을 포함하는 무점포 판매는 1995년에 10,088개사였던 것이 2005년에는 13,674개사로 3.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를 보아도 1995년에 8만 9,000명이었던 것이 16만 9,000명으로 6.7% 증가하였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1997년에 3조 2,000억 원으로 전체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였지만 2005년에는 15조 3,000억 원으로 전체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2.3%에 달한다. 이제 집에서 거의 모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이카(My Car)시대

2006년 현재 우리나라는 384만 대를 생산하여 2005년에 이어 세계 5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3.8% 증가한 것이며, 전 세계 자동차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5%를 기록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총수는 5,000만 대이고, 수출은 3,000만 대에 이르고 있다. 또 2002년에 비해 다소 순위가 하락하였지만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자동차수는 약 121만 대로 세계 13위에 이르고 있다. 전 차종을 기준으로 하면 2006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589만 5,000여 대의 자동차가 있으며, 국민 3명당 1대꼴이다.

손재주로 일군 자동차 산업

- 첫 국산자동차 '시발자동차'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처음 들여온 것은 1903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즉위 40주년을 맞아 미국 공관을 통해 포드 승용차 1대를 의전용 어차로 들여온 것이 시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종의 어차는 이듬해인 1904년 러일전쟁 중에 자취를 감추어 현재 실물은 남아있지 않다. 이후 1937년에 김용주에 의한 국산자동차(주)가 부천에 세워지는 것을 시작으로 기아산업의 전신인 경성정공이 1944년에 설립되었다. 이때의 자동차 공장은 수공업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전쟁 이후 1955년 10월에 국산장려회 주최로 광복 10주년 기념 산업박람회가 창경원에서 개최되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가 출품되어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다. 이 차는 서울

에서 정비업을 하던 최무성, 혜성, 순성 3형제가 미군으로부터 불하받은 지프차를 개조하여 만든 첫 국산자동차 '시발자동차' 이다.

국산 엔진을 장착한 국내 최초 자동차 '시발'

시발차의 모양은 좀 촌스러웠지만 인기는 아주 좋았다. 대부분 택시로 팔려 나갔는데 택시가 모자랄 때라 모양이 좋고 나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돈벌이가 잘 되면 되는 것이었다. 시발차 한 대면 그 수입으로 중류생활을 할 수 있었다. 1955년 당시 영업용 승용차가 불과 2,361대 정도이고 마이크로버스 등 합승차를 합하여도 6,286대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시발자동차는 자가용을 겨냥한 왜건형을 만들기도 하였고, 디젤화 계획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59년 9월에 디젤엔진을 장착한 시발차가 나왔고, 1962년 4월까지 3,100여대의 디젤엔진을 생산했다.

시발에서 새나라로

- 시발택시, 1962년 설립한 새나라자동차에 밀려 쇠락

5 · 16 군사혁명의 발발은 시발자동자의 시련의 시작이었다. 국내 자동차 공업육성을 포함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면서 1962년 재일 교포인 박노정에 의해 설립된 새나라자동차가 소형자동차 부문 실수요자로 선정되었다. 반면 시발자동차는 생산경험이 전무한 중형자동차 부문 실수요자로 선정되었다. 새나라자동차는 자본금 1억 원에 내자 3억 4,080만 원과 외자 510만 달러를 투자하여 일본 닛산자동차와 기술제휴하고 조립공장이 건설되면서 곧바로 닛산 블루버드를 생산하였다. 국산화율이 5%에 불과했던 사실상 CBU(complete built-up)방식에 의해 조립된 새나라가 9월부터 관광택시라는 이름으로 운행을 시작하자 철판을 두드려 만들었던 시발택시로는 당할 길이 없었다. 1963년 서울 시내 택시 2,700대 중에서 시발택시는 1,700대로 줄어들었다. 시발자동차의 생산은 1963년 말에 완전히 중단되었다. 총 2,235대를 판매하고 시발의 시대를 마감한 것이다.

새나라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장면.

새나라자동차는 1962년에 1,710대를 조립했다. 다음 해인 1963년에는 1,063대를 조립하여 모두 2,773대가 판매되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1963년 말에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버려,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외화가 부족해지자 새나라자동차는 1963년 7월 문을 닫는다.

기아산업과 삼륜트럭

- 최초의 삼륜트럭은 기아산업의 K-360

1962년 기아산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3륜 트럭인 K-360을 출시하였다. 같은 해 10월에 시흥공장을 자동차 제조공장으로 신청하여 국내 최초로 자동차 제작공장 허가를 받았다. K-360은 1962년 일본의 하위 업체였던

도요고교(東洋工業, 현재의 마쓰다)와 기술제휴로 생산하였다. 기아산업은 연이어 3륜 트럭인 T-1500을 선보였다. 그러나 기아의 3륜 트럭의 판매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 당시 국내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고, 특히 외환사정이 좋지 않아 생산과 판매가 부진하였다. 1963년 191대가 최고 실적이었다.

1966년부터 두 번째 3륜 트럭 사업을 시작한 기아는 T-2000을 도입하였다. 도요고교에서 CKD(complete knock-down)방식으로 도입하였고, 초기 국산화율은 32%였다. 이것이 기아마스타 T-2000이었는데 출시 후 판매가 급증하였다. 이후 기아는 생산설비를 확장하여 6인승 겸용 덤프트럭, 특수차등 T-2000변형 모델들도 생산하였다. 3륜 트럭으로 시작한지 10년만인 1971년에는 4륜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정부가 5톤 미만을 조건부로 4륜 트럭의 생산을 승인하였다. 이후 타이탄(Titan) E-2000과 복사(Boxer) E-3800을 내놓았다.

3륜 트럭으로 인기를 끈 기아산업의 기아마스터 T-2000.

'드럼통 버스 왕' 하동환자동차

- 특장차 전문업체로 자리 잡아

재생 조립업의 대표적인 업체였고 '드럼통 버스 왕' 으로 불렸던 것이 하동환자동차제작소이다. 1952년 설립된 정비업체가 1955년에 하동환자동차로 개명한 것인데 이때부터 군용폐차를 불하받아 재생시킨 부품과 망치로 편 드럼통으로 버스를 만들었다. 1956년 말 재생 조립업이었지만 정식 버스제작 공장을 세웠다. 1962년에 추진된 정부의 자동차 조립공장 정리계획에 의해 잠정 조립공장으로 선정되었고, 62년 12월 보성자동차공업사와 합병하여 서울 영등포에 공장을 세우고 회사명도 하동환자동차공업(주)으로 바꾸었다. 1965년 서울시가 좌석버스 운행을 시작하자 주문량의 90%를 수주함으로써 서울시내는 온통 하동환버스가 누빌 정도였다.

그러나 1972년 상공부가 신진, 현대, 아시아, 기아 등 4개 업체를 제외한 군소 조립공장의 폐쇄를 결정하면서 조립공장에서 제작된 자동차는 등록이 허가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동환자동차는 신진자동차와 업무제휴를 통해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5개 시도에서는 하동환자동차를 공급하되 신진의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자체 브랜드는 사라졌다. 이후 하동환자동차는 휠 디스크의 국산화에 성공하고 이를 일본과 동남아지역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또 경인, 경부 고속도로의 개통을 계기로 건설장비 등 각종 특수차의 수요가 늘어났는데 하동환자동차는 미국, 일본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특장차 전문업체로 자리 잡아 갔다.

새나라에서 신진으로

- 1,500cc급 '코로나' 시대의 개막

신진공업사는 1965년 11월 새나라자동차(주)를 인수하고 신진자동차(주)로 이름도 바꾸었다. 신진자동차는 당시 유일한 종합자동차업체로 선정되었는데 1966년 1월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기술 및 자재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1,500cc의 '코로나' 승용차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코로나의 인기는 대단한 것이었다. 1966년에

3,117대, 1968년에 4,983대, 1968년에 11,629대, 1969년에는 19,494대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낮은 국산화율을 상공부로서는 이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다. 상공부는 1967년에는 최소 32%만이라도 국산화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나, 신진자동차(주)는 겨우 23.6%만 국산화했다. 이 당시 망치로 두드려 만드는 수공업적 버스 조립공장의 국산화율이 64%나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주 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당시 정부정책은 자동차공업 일원화 방침으로, 국내 수요가 적은 상황에서 당분간 자동차 조립공장을 독점시키자는 것이었다. 수요를 한 곳에 모아줌으로써 부품공업 육성에 이바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시장 독점만 강화되었을 뿐, 국내 부품공장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즉 독점의 폐해가 나타난 것이었다. 따라서 상공부는 국산화를 많이 하는 업체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경쟁시키는 쪽이 국산화 내지는 자동차공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 결국 자동차공업 일원화 정책은 폐기되게 되었다.

아세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등장

- 조립 위주, 국산화률 30% 머물러

1970년부터 아세아자동차에서는 피아트로부터 CDK로 도입하여 1,200cc급 소형자동자인 피아트(Fiat)124 승용차를 생산하게 되었다. 첫해인 1970년에 1,737대가 생산되었는데, 국산화율은 30%였다. 높지는 않았지만 당초 자동차 제조업체 삼원화의 방침이 초년도 국산화율을 신진의 초년도 국산화율인 21% 이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실망할 정도는 아니었다. 아세아자동차 출현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공업은 이원화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원화로만 끝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가 등장한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1967년 12월에 설립하여 이듬해인 1968년에 영국 포드(Ford)자동차와 기술제휴 및 조립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생산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자동차와의 인연은 194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도서비스라는 자동차 정비공장을 인수하고 운영한 것이 그 출발점이다. 1946년 4월에 현대자동차공업사라는 정비업체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이 당시 정비업과 함께 조립사업도 하였다.

현대자동차는 1968년 11월에 1,600cc급 '코티나(Cortina)'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1969년에는 2,000cc급의 '포드 20M', '포드 R~192' 버스를 각각 생산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자동차공업은 삼원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되는 '코티나'의 국산화율도 30%에 불과하였다.

고유모델 개발과 수출산업으로 육성

- 1975년 11월, 한국 최초의 고유모델 '포니 1호' 생산

1973년에 수립되어 추진된 '장기 자동차공업 진흥계획'은 이전과는 그 궤를 달리하는 획기적인 계획이었다. 부품국산화가 부진한 여건에서도 고유모델의 소형차를 개발하고 자동차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한국 최초의 고유모델 '포니 1호'.

정부의 진흥계획안에 대응하여 기아가 선택한 고유형 소형차는 브리사였다. 1974년 10월에 탄생한 브리사(S-1000)는 985cc의 국산 엔진을 탑재한 것으로 1974년에 617대를 생산, 22대를 판매하였고, 다음해인 1975년에는 국산화율이 80% 이상으로 향상되면서 생산대수가 1만 202대, 판매 대수가 1만 757대로 폭발적인 신장을 보여 '브리사 시대'를 열었다. 1976년 말 당시 서울 시내에 운행되던 택시의 51.2%를 브리사가 차지할 정도였다.

현대는 1973년 9월에 이탈리아의 이탈 디자인사와 당시로서는 큰 금액인 약 100만 달러에 계약을 했다. 자동차 디자인은 1974년 2월에 완료되었고 2월말부터는 설계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그리고 1974년 10월 30일 개막된 제55회 토리노 국제자동차 박람회에 우리나라 고유모델로 개발한 '포니' 승용차와 스포츠카형 '포니쿠페' 등 2종의 시제품을 출품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6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고유모델을 갖는 나라가 됐다.

현대는 1975년 11월에 종합자동차 공장을 완공하여 한국 최초의 고유모델인 '포니 1호' 차를 생산하였다. 현대는 창립 8년 만에 고유모델 자동차와 종합자동차 공장을 갖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신기원을 이루게 되었다. 포니는 출고 개시년도인 1976년에 국내 승용차시장의 43%를 점하여 국내시장을 석권, 승용차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1976년 6월에는 중미 에콰도르에 최초로 포니 6대를 수출함으로써 세계시장을 향한 포니의 진출이 개시되었다. 우리나라의 고유모델 자동차 제작의 첫 번째 영예는 현대자동차의 포니가 차지한 것이다.

자동차 생산 장면.
1970년대 중반부터 국산화율은 80%를 넘었다.

가족의 변화

근대 우리나라 가족 구성의 변화를 가져다준 요인으로는 해방과 한국전쟁, 산업화와 도시화, 베이비붐과 가족계획, 저출산, 국제결혼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공업화와 함께 도시로 몰려 든 젊은이와 농촌에 남겨진 노인들로 세대가 분리되면서 전통적인 대가족 구성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제는 도시 속에서 핵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적합한 가족이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장성한 자녀들이 취업으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면 부모로부터 분리해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것, 자녀들을 출가시킨 후 노인부부만이 가족을 이루어 사는 모습, 배우자 사망 후 노인이 홀로 사는 모습 등은 더 이상 어색해 보이거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 되지 못한다. 또한 저출산과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 여성의 경제 · 사회적 지위 향상 등으로 결혼의 모습도 변모하였다. 농어촌지역에서는 결혼자 3쌍 중 1쌍 이상이 국제결혼을 하였다.

베이비붐과 넘치는 사람들

- 1955년의 인구구성비, 0~14세 전체 인구의 41.2%

1960년대까지는 인구증가 요인이 해외 귀환 동포나 월남한 북한 동포들에 의한 것이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해방으로 귀환한 동포들은 주로 일본, 만주, 그리고 중국 등에서 귀환하였고 총 22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남한에 정착하였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많은 인구가 감소했다. 물론 전쟁으로 인해 약 40만 ~ 65만 명으로 추정되는 월남인구가 있었지만 전사 · 행방불명, 월북 내지 납북으로 인한 사회적 감소인구는 약 50만 명에 이르며, 전쟁으로 인한 출생률의 저하와 사망률의 증가까지 합치면 약 130만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 이후 1955년과 1960년 사이에 인구는 다시 급증하였다. 소위 '베이비 붐' 으로 해방직후 1,614만 명이던 인구는 1955년에 2,150만 명, 1960년에는 2,499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1955년의 인구 구성비를 보면 0~14세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1.2%를 차지하고 있어 베이비붐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베이비붐을 타고 태어난 세대가 가임연령이 되는 1970년대와 1980년에는 이들의 결혼과 출산으로 인구급증과 함께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인구수용이 한계에 이르고 식량자급도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주택난, 고용문제, 교실과밀화, 도로, 교통 등의 문제에 이어 보건 의료 환경문제와 함께 향후 증대될 노인인구로 인한 사회보장의 문제까지 고려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의 인구는 1.5배 증가했고, 인구밀도는 방글라데시와 대만에 이어 세계 3위의 수준을 보였다.

가족계획을 세웁시다

- '알맞게 낳자' 에서 '자녀 하나' 로

우리나라에서 가족계획사업을 시작한 것은 1961년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창설되면서 시작되었고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된 것은 5 · 16 직후이다. 5 · 16 군사정부는 인구를 조절하는 것을 혁명과업으로 채택하여 가족계획사업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가족계획 전국대회 장면.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되었다.

1960년대에는 3.3.35원칙이라는 가족계획 용어를 확산시켰다. 3명의 아이를 3년간의 터울로 35세 이전에 낳아서 기르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1966년도에 '올바른 가족계획과 3.3.35원칙' 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당시 인기 여배우 고은아 씨를 출연시켜 가족계획에 대한 계몽을 시도하기도 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가족계획 정책의 기본방향도 '1가구 2자녀 이하 갖기' 로 정하고 1960년대의 기존 슬로건인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로 변했고 곧 이어 '둘도 많다' , '축복 속에 자녀 하나 사랑으로 튼튼하게' 로 슬로건을 바꾸면서 좀 더 적극적인 소 자녀 갖기 운동을 벌였다. 심지어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다산가족에게 수치심을 조장하도록 하는 홍보자료를 개발하는 방안도 강구했다.

가족계획의 확산을 위해 여러 가지 유인책을 마련하였는데 불임시술을 한 저소득 가정의 여성에게 생계비 지원을 늘리고, 불임시술자에게는 유급휴가제를 실시했으며 직장여성의 출산휴가를 2자녀까지로 제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를 확대시켜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영세민 임신중절 시술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각종 세제 혜택을 2자녀까지로 제한하고 자녀 학비수당도 2자녀에 한정하여 인구증가를 억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이러한 노력 외에도 가족계획을 성공으로 이끈 요인으로는 가족계획요원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가족계획요원들은 단산을 원하거나 또 이미 자녀를 여럿 두고도 불임시술을 받지 않은 대상을 색출 · 포섭하여 임무를 완수하였다. 그리고 정관수술을 받으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주는 제도 역시 한 몫을 했다.

피임방법으로는 초기 가족계획사업에서는 자궁 내 장치나 먹는 피임약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대상자들이 중도에서 피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확실한 단산이 보장되고 단 한 번만의 시술로 영구 피임이 되는 경제성이 높은 불임시술이 권장되었다. 1980년대는 동사무소에 피임기구 판매대를 설치하여 피임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슬로건 효과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했지만 피임과 인구증가 억제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서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자녀관을 지적했다. 즉 자녀가 많은 것은 오복 중의 하나이며,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은 꼭 낳아야 하고, 아들이 있어야 노후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산아제한의 장애요인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이러한 관념을 타파시켜야만 가족계획사업이 성공하고 인구증가율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가족계획에 대한 새로운 홍보 전략으로서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는 슬로건을 내걸어 딸을 아들보다 우선에 두고 차별의식을 없애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딸만 2명 둔 가정과 딸 하나만을 둔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각종 포스터와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였다.

그리고 남아선호사상을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는데 남녀차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또한 아들을 낳기 위해 다자녀를 두는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후생활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한편 남녀차별의식을 타파하여 가족계획사업을 성공시키려는 노력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게

범여성 가족법개정촉진회 결성대회 장면. 1970년대부터 남아선호사상을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뒤따랐다.

되었다. 여성의 취업기회를 늘리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여성에게 맞는 직종들을 개발하게 했고 또한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하게 되었다. 1960년대 초의 탁아소,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의 어린이집, 1980년대 초반의 새마을유아원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발전해온 보육시설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산시키려는 이면에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강구되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다.

고령화 시대의 대한민국

- 2018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14% 넘어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남아선호사상을 철폐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이 없어도 노후대책이 보장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했다. 1980년대 들어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노인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노인복지대책이 요구되었다. 정부에서는 후손의 양육과 나라의 사회발전을 위해 일생을 바쳐온 노인들을 위해 경로우대제를 실시하고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경로효친의 미덕을 기리기 위해 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해 경로우대증을 발급했다. 경로우대증은 70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발급되었다.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모든 노인에게는 철도나 지하철 요금을 포함한 공영서비스 요금과 목욕, 이발, 버스, 사찰 입장요금의 50%를 할인해주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1981년에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노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고 1982년 5월 제 10회 어버이날 및 제1회 경로주간을 맞아 경로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였다.

1962년에 시작한 가족계획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켰다.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선진국 클럽이라고 부르는 OECD 회원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빠른 속도로 출산율을 줄이는데 성공한 한국은 이제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축복 속의 자녀 하나'는 이제 '둘 만이라도 낳자'라는 구호로 변해버렸다. 출산율이 줄고 고령인구는 늘어가는, 소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14%가 넘는 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거듭나는 복지의료 강국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산업화를 이루기 이전인 1960년대까지는 천연두, 장티푸스, 결핵 등과 같은 전염병이 전국에 만연하고 있었다.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도 미흡하였고 발병하였을 경우 치료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서 사망률이 아주 높았다. 정부는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전염병의 예방접종과 방역 등 보건서비스 제공에 힘썼으며 전염병예방법 및 결핵예방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전염병 예방과 치료에 힘쓰기도 하였다. 덕분에 오늘날 천연두, 장티푸스, 결핵 등과 같은 전염병은 거의 없어지거나 완치율이 아주 높아졌다.

법정전염병의 등장과 변화

- 1868년, 콜레라 등 법정전염병 등장

우리나라에 법정전염병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 고종 5년 때인 1868년이다. 이 때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발진티푸스, 두창을 5종 전염병으로 지정하여 다루었다. 1910년에는 성열, 페스트, 디프테리아의 3종을 추가시켜 8종의 법정전염병을 만들었다. 그리고 1915년에 파라디푸스를 추가하여 총 9종의 법정전염병을 만들었다. 그 후 몇 차례의 전염병 추가가 있었으며 1954년에 전염병 관리의 근간을 이루는 전염병예방법을 공포하여 제1종에서 제3종까지 전염병을 구분하고 제1종의 13종, 제2종의 4종, 제3종의 3종으로 분류하여 전염병을 다룰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전염병 관리의 목적, 종류, 감시체계, 건강진단, 예방조치 및 접종, 환자관리 시설대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1976, 1983, 1986, 1993년에 걸쳐 개정되었다.

세계보건기구 가입과 세계 보건일 행사

- 1949년, 절대다수 국가의 찬성으로 WHO 가맹

1948년 9월 1일, 민족 · 정치 · 종교 또는 경제적 조건에 의한 차별 없이 전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 산하 전문기구로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족하였다. 우리나라는 1949년 이탈리아 로마시에서 개최된 제2회 세계보건총회에 대표를 파견하여 당시 공산진영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33대 6이라는 절대다수 국가의 찬성으로서 정식 회원국으로 가맹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양하고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4년 4월 7일 세계보건일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기념행사의 주관은 보건사회부가 맡았으며, 주최는 군, 면, 리 각 급학교가, 후원은 재건국민운동 횡성군지부, 대한의사협회 횡성군분회가 맡았다. 또한 보건 주간을 설립하여 1964년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로 두고, 이 기간 중 유선방송 및 기타선전망을 통하여 보건향상에 대한 계몽을 실시하였고 진료는 일반 개업의사, 보건소, 각 면 · 동의 일반 한의사 등이 무료상담 및 구료환자에 대하여 무료봉사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방역사업과 국민보건 향상 서비스

- 매년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방역 실시

1960년대에 정부는 주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한 하절기 방역대책을 강화했다. 하절기 방역사업 기간을 매년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123일간)로 정하여 하절기 방역을 실시했다. 또한 하절기 전염병(뇌염, 장티푸스, 콜레라포함) 환자의 진단은 임상적 소견과 혈청학적 검사에 의하도록 했다. 장티푸스 병역자 및 요식업소 종업원 및 기타 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및 공의진료소에서 실시하며 발견자는 취업(접객업소에 한함)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기동반 배치 방역 기간 중 보건소 및 각 면에서는 방역기동반으로 하여금 긴급방역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교육 방역기간 중 재건주민운동 군 지부 및 공보실협조로 계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사업을 위한 기념우표.

하기 방역사업기간 중 매월 1일과 15일은 모기, 파리 잡는 날로 정하고 이날은 주민을 총동원하며 청소 및 위생작업을 실시했다. 청소일 행사는 각급 관공서와 재건주민운동 촉진회의 소재지별 분담지역을 선정하고 솔선하여 실시하도록 하였고 리, 동, 반장은 관내 청소작업을 독촉하게 하였으며 살충 분무작업은 군, 면에 위생반의 책임 하에 실시했다. 또한 위생검찰 하절기 방역기간 중에는 월 1회 이상 모든 접객업소의 위생 상태를 검찰지도 강화하도록 했다.

만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산발적이거나 소규모로 전염병이 발생하여 이내 조치가 가능할 경우에는 자체에서 조치하도록 했고 집단적이거나 대규모로 발생되며 환자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부진상보고와 동시도 방역기동반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자는 긴급히 의료지원기관(도립병원)의 지원을 요청하여 이송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보험제도의 실시

- 1977년 7월 1일을 기하여 강제가입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1623호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강제가입 성격의 의료보험제도가 임의가입 성격으로 바뀌었고, 시행 후에도 임의적용 방식의 의료보험마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소수의 의료보험 조합이 결성되어 시범사업 정도로 실시되었을 뿐이었다. 1965년 이후 1976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조직된 임의방식의 의료보험조합은 모두 11개였으며, 그 피보험자는 1976년 말까지 67,929명(전 인구의 0.2%)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1965년 9월 호남비료주식회사 의료보험조합, 1969년 7월 부산청십자 의료보험조합 정도만 명맥을 유지했다. 1979년에 의료보험법의 1차 개정을 통해 피고용근로자에 대해 강제적 성격으로 전환하였으나 실제로는 강제가입 의료보험은 실시되지 않았다.

1976년 박정희 정부는 기존의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고, 1977년 7월 1일을 기하여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가입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했다. 이후 1988년부터는 농어촌 주민 대상 지역의료보험의 실시를 시작으로 1989년 도시지역 자영업자를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시작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때까지 의료보장의 수혜권에서 제외되었던 자영업자 계층에 대한 의료보험을 확대하여 전 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하였다는 점이다.

의료보험제도의 가입대상자 변화를 살펴보면 1977년 7월 1일부터는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을, 1979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1981년 1월 1일에는 100인 이상, 1983년 1월 1일부터는 16인 이상, 1988년 8월 1일에는 5명 이상 고용사업장으로까지 의료보험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해 왔다. 그리고 1989년 7월 1일부터는 도시 자영민에게까지 의료보험의 적용이 확대되어 전국민 의료보장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2000년 7월 1일부터는 의료보험의 명칭을 국민건강보험으로 개칭하였다.

국민연금제도의 실시

- 1988년부터 1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2호로 국민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갹출제에 의하여 재원을 조달하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또는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여 노인빈곤으로 연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주의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제공한다.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그 기본구조상 사회구성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중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 많은 사회구성원들의 참여 하에 개개인의 위험부담을 사회 전체적인 공동부담으로 분산시켜 나가는 사회보험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 급여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한 평생 동안 급여가 지급되므로 노인빈곤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제도는 세대 간의 상호부조로서 노령화시대에 장기화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여 노인빈곤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이후 점차적으로 적용대상을 늘려가면서 1999년 4월 도시지역 자영업자들에게까지 적용이 확대되면서 시행 12년 만에 전 국민 연금시대에 접어들었다.

의복의 변화

건국 이후 우리의 의복 문화는 일제 강점기와 비교해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의 의복은 재건복과 간소복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미니스커트가 상륙하여 돌풍을 일으켰고, 명동을 중심으로 양장 문화가 퍼지기 시작했다. 1970년대는 섬유가 수출 효자 종목으로 자리 잡던 시기였다. 그리고 이 시기는 맞춤복에서 기성복으로 넘어가는 시기였다. 또한 청바지가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1980년대는 캐주얼 의류와 스포츠 의류가 큰 유행을 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디스코 바지가 큰 인기를 끌었다. 1990년대는 해외 유명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진출을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가 막을 열었다.

재건을 위해 인간을 개조하라

- 1961년 10월, 정부차원에서 '표준간소복' 지정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내세운 슬로건은 '재건' 이었다. 당시 국가최고의 행정기구 명칭도 재건이 포함된 국가재건최고회의였다. 이 기구는 그 해 6월 11일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사치 · 허영 · 음란 · 폭력 등 사회악을 근절하는 재건국민운동실천요강을 발표하였다.

1961년 10월, 정부는 '표준간소복' 을 정하여 전 국민들에게 입도록 권장했다.

인간개조는 국민들의 정신개조에만 있지 않았다. 정신은 입고 다니는 옷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옷도 개조 대상이었다. 1961년 10월 정부는 전 국민들에게 '표준간소복' 을 정하여 입도록 하였다. 표준간소복이란 의미는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지정했다는 의미에서 표준이고, 종전의 펄렁펄렁한 한복대신 활동하기에 편리한 간편복이란 의미에서 간소복이다. 간소복은 주로 양복을 입던 사람들에게 양복대신 입도록 하는 복장이었다. 간소복의 종류는 남자 근무복, 여자 근무복, 여자 개량한복, 남자 하절기 노동복이며, 근무복이 중심이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간소복 착용을 요구한 것은 이 시대만이 아니었다. 1955년 이승만 정권 때에도 물자난 때문에 국무위원과 각급 공무원에게 솔선해서 국내에서 생산된 복지로 만든 생활복을 착용하도록 국회에서 결정하기도 했다.

일제시대 국민복을 모방하다

- 남자 국민복, 여자 몸빼 바지 착용

일제는 전시체제로 들어서자 남자에게는 국민복을, 여자에게는 일본 여성노동복인 '몸빼' 라는 바지를 착용하게 하였다. 1940년 소위 '국민복령' 을 내려 법으로 제정하였다. 전쟁이 확대되면서 물자가 부족해진 일본은 물자를 아끼기 위해 활동의 편리성을 내세워 이들 복장을 권유하였다. 이 국민복은 당시 일본인들조차 원성이 자자했다. 재질이 아주 나빴기 때문이었다.

해방과 함께 사라졌던 근무복은 5 · 16과 함께 부활했다. 특히 공무원들은 첫 시범케이스였다. 1961년 10월 국민에게 간소복을 소개하기에 앞서 정부는 솔선수범을 보이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신생활복' 을 착용토록 강요하였다. 신생활복을 만들 때는 모직 70%에 면직 30% 이하의 복지를 선택해 사치스럽지 않게 제작토록 했다.

교복, 통제의 상징

- 1886년 이화학당 치마저고리, 1888년 배제학당 양복 입어

제복 스타일의 교복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20년대이고, 교복의 의미가 있는 옷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86년 이화학당에서였다. 이 학생들은 다홍색 치마저고리를 입고 다녔다. 우리나라 교복의 처음이다. 남자 학교로는 배제학당이 1888년부터 검정색 양복을 교복으로 지정했다. 나아가 1909년 휘신(徽新)중학의 학생들이 일본 군복 같은 교복을 지정해 착용케 하였다. 이즈음의 교복이란 여전히 전통적인 조선인 의복인 한복류가 많았다. 남학생들은 흰 한복바지에 위에는 검정 두루마기를 입었고, 여학생들은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20년대 일반화되기 시작한 제복 스타일의 교복은 1930년대 들어 학생들에게 군사교육을 강화하면서 교복으로 정착하였다.

해방이 되면서 옷감이 없어 군복지를 물들여 교복을 만들어 입기도 하였다. 1950년대에는 일본에서 밀수해 온 옷감이 주로 이용되었다. 한국전쟁 중 부산의 어느 여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들이 입고 있는 교복의 대부분은 밀수된 옷감이나 아니면 옷들을 재활용한 것이라는 통계는 당시의 옷감 조달 현황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1960년대 말 무렵부터, 학생들이 졸업식장에서 밀가루를 온 몸에 던지고, 그 위에 날계란으로 떡칠을 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에서 발생한 일이 아닌가 싶다.

교복 자율화

- 교복 및 두발 자율화 정책 오락가락

통제의 상징이었던 교복은 1983년 정부의 교복 및 두발 자율화 정책에 의해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교복이 사라지자 학생들은 정말 자유스런 복장으로 활개를 폈다. 자유와 개성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이들의 복장에서처럼 다양한 표현은 그네들의 생각까지도 다양하게 만들어 나갔다. 하지만 이런 자유마저도 오랫동안 누릴 수 없었다. 자율복장이 점차 사치경쟁을 유발하면서 부모들의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면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복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생겨났다.

결국 문교부는 1985년 10월 교복 부활을 발표했다. 그리고 1986년 2학기부터 새로운 스타일의 교복이 다시 등장하였다. 기존의 제복 스타일에서 이제는 예쁜 양복과 양장차림의 교복이면서 넥타이를 넣어 귀엽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한복에서 양복으로

- 1896년 1월, 고종이 '문무관복제재정령' 선포

개항 이후, 조선정부는 근대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여 조선을 근대화시킬 방법을 강구하였다. 그 방법으로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으로 사절단을 파견하여 새로운 문화를 배워오게 하였다. 이에 따라 1881년 일본에서 신식문화를 배워오겠다고 신사유람단이 파견되었다. 박정양, 어윤중 등이 유람단을 이끌었는데, 그 중에는 젊은 개화파인 서광범, 김옥균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일본의 근대문화를 답사하면서 도쿄 옆의 요코하마에 들렀다가 그곳의 한 양복점에서 양복을 한 벌씩 사 입었다. 현재까지는 이들이 양복을 입고 귀국한 것이 조선인 가운데 최초의 양복 입은 신사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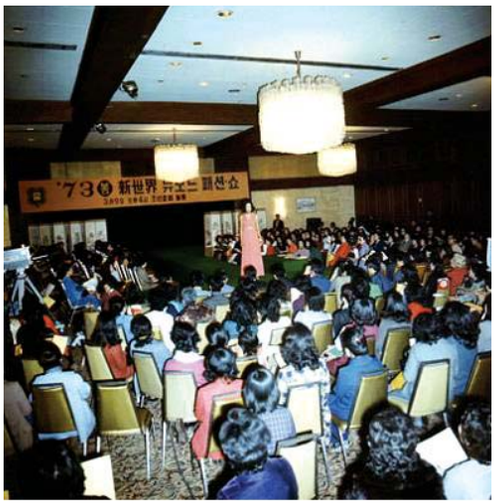
1896년 1월 고종이 '문무관복제개정령' 을 선포하고, 스스로 종전의 의관을 벗고 양복으로 바꾸었다. 이어서 중앙의 관리들이 양복으로 갈아입고, 권력과 재력 있는 자들부터 서서히 양복에 반질반질한 머릿기름을 바른 짧은 머리로 권위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여전히 조선의 많은 민중들은 무명으로 짠 힘없는 한복으로 몸을 칭칭 감고 다녔다. 일제 말이 되면서 부녀자들의 노동복으로 몸빼가 등장하기는 했지만 백의민족의 상징물인 한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해방이 되자 귀환 동포들이 몰려들어 왔다. 그리고 미군도 진주하였다. 이들이 입고 들어온 복장은 그동안 고이 지켜온 한복 중심의 복장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외국과 무역이 중단되고, 공장이 제대로 돌지 않아 옷을 만들 재료가 턱없이 부족했다. 겨우 마카오와 무역이 이루어져 영국제 옷감이 들어왔고, 이것으로 양복을 맞춰 입은 사람을 부러워해 '마카오 신사' 라는 말이 한 때 유행하였다. 여전히 남자나 여자들이 한복을 벗고 양장을 하기란 쉽지 않았다.

섬유산업의 발전과 의류의 다양화

- 1980년대 컬러TV, 1988년 서울올림픽 등 패션 변화 계기

한국전쟁은 많은 공장시설을 파괴하기도 했지만 원조물자나 구호물자, 군용 관련 물자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 시기이기도 했다. 군용 담요가 흘러나와 외투 감으로 사용되었고, 낙하산은 아주 질긴 나일론 재료여서 인기가 많았다. 전쟁의 어지러움 속에 거추장스런 한복보다 간편한 양장 계통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한복을 입는다 해도 저고리가 길며, 치마가 짧아지고, 단추나 고름 대신 브로치를 달면서 다소 활동에 편리하게 변해갔다. 밀수품으로 인기가 많았던 빌로드는 촉감이 부드러운 고급 복지여서, 돈 많은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다. 1950년대 중반 원조자금으로 면방직 공장이 복구되고, 고급복지를 생산하는 공장이 등장하였다. 나일론이 수입되다가 생산되면서 새로운 옷감이 다양한 옷을 만들 수 있게 하였다. 이때부터 양장이 한복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1973년의 한 패션쇼 장면. 1980년대 전후로 대기업에서 기성복을 만들어 내면서 수제품 양복점들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1961년 5 · 16 쿠데타가 일어나고, 사치를 근절하는 재건국민운동의 영향으로 의류제품의 수입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수출산업으로 부상한 섬유산업이 발달하면서 국내 의류산업 또한 발전하였다. 재건운동 과정에서 재건복이 등장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간편복이 강요되면서 자유로운 패션에 걸림돌이 되는 듯했다. 월

남전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의 영향으로 월남치마가 유행하기도 했다. 1967년 미국에서 들어온 가수 윤복희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귀국하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초미니, 핫팬츠라는 단어가 이 시절에도 유행어였다. 무릎 위 20cm 이상은 단속 대상이었고, 경찰은 대나무 자를 들고 치마 길이를 재고 다녔다.

1970년대 들어서자 서양 옷이 우리의 평상복이 되었다. 한복은 어머니들이 큰 일이 있어 외출하는 날이나 명절 때나 등장하는 특별한 옷이 되었다. ㅇㅇ라사, ㅇㅇ양복점이니 하는 양복 맞추는 집들이 성행했던 것도 이 시기였다. 하지만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반도패션, 삼성물산, 코오롱, 한일합섬, 제일모직 등 대기업에서 기성복을 만들어 내면서 수제품 양복점들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 컬러 텔레비전의 등장, 1983년 교복자율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해외여행자유화, 수입 자유화 등은 패션산업에도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그리고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의 등장은 패션의 다양화를 더욱 부채질하였다. 1990년대 이후 웰빙 바람은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웠고, 이 바람을 탄 스포츠 용품은 또 다른 스포츠 패션을 만들었다. 그리고 IT산업 발달과 함께 통신판매가 증가하면서 우리의 입을거리는 한층 다양해졌다.

주택의 변화

건국 후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는 놀라울 만치 많이 바뀌었다. 초가집은 이제 박물관이 아니면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아파트라는 새로운 형식의 주택이 우리 시대 주거생활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어 버렸다. 특히 대도시 지역은 농촌 인구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촘촘하게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아파트는 2005년 현재 전국의 주택 약 1,300만 호 가운데 53%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주택 혹은 문화주택 설립

- 1950~1960년대, 불광동과 갈현동이 대표적

한국전쟁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주택들은 많이 파괴됐다. 따라서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서울로 돌아오자, 서울은 심각한 주택부족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1957년 대한주택영단에서는 국민주택이라는 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국민주택은 단독주택 혹은 연립주택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국민주택은 서구의 건축개념을 도입하여 부엌과 화장실의 수준을 끌어올렸고, 생활공간으로서의 거실이 새롭게 도입되는 등 서구적인 주거생활을 추구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주택은 문화주택으로, 그리고 국민주택이 건설된 지역은 문화촌으로 불리기도 했다.

국민주택은 도시의 변두리 지역에 주로 건설되었는데, 그 결과 도시의 변두리 지역들이 새로운 주거지로 되면서 도시의 주거지가 교외로 확산되는 효과를 초래했다. 1950년대 말에 서울 불광동에 그리고 1960년대 초에 서울 갈현동에 지어진 단지가 대표적인 국민주택 단지이다.

한국 최초의 아파트 단지, 마포아파트

- 1950년대 후반 행촌아파트, 종암아파트 등 존재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도시로 유입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아파트를 대량으로 지었다. 그리고 농촌에는 주택을 개량한다는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하였다.

한국에서 최초로 단지 형태로 건설된 아파트는 1962년에 준공된 서울의 마포아파트이다. 마포아파트 이전에도 서울에는 몇 개의 아파트가 존재했다. 1950년대 후반에 건립된 행촌아파트, 종암아파트, 개명아파트 등이다. 하지만 이들 아파트는 단지 형태를 가지지 못한 단독건물 형태의 아파트였다. 마포아파트는 단지 형태를 지닌 최초의 아파트인 것이다.

마포아파트는 6층으로 지어졌고, 10개 동이 있었으며 (Y자형 6동, ㅡ자형 4동), 여기에 642가구가 입주했다. 마포아파트에는 서구식 생활양식의 한 형태로 알려진 거실과 발코니가 있었다. 마포아파트는 본격적인 아파트의 시대가 열리는 출발점을 제공했다. 그 이후 우리의 주거문화는 급속한 변화를 경험했다.

Y자형 아파트 공사장면.
국내 최초의 아파트 단지는 마포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시민아파트의 비극

- 창천동 와우아파트 붕괴, 23명 사망

1967년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 및 대도시에 산재한 불량주거지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그곳에 서민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1969년부터 1971년까지 서울시에 있는 노후불량주거지역을 정비하여 시민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2,000동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지역들에 공급되는 9만 호의 아파트에 도시빈민과 서민들을 입주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획기적인 것이었지만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다. 중앙정부 40%, 지방정부 40%, 입주민 20%씩 비용을 분담하기로 되었는데, 특히 서울시의 재정투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둘째, 시민아파트의 질적 수준이 좋지 못했다. 전용면적이 세대당 8평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각 세대 내에 화장실이 없었고 복도에 공용화장실을 두었다. 셋째, 계획수립과정 및 시공과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져서 부실공사의 논란이 계속되었다.

1970년 4월, 마포구 창천동에서 준공된지 4개월이 지난 와우아파트 5층 건물 한 동이 붕괴했다. 2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질과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위치선정, 부실자재 사용, 부실공사 등이 붕괴

원인으로 밝혀졌다. 시민아파트 건립계획을 추진한 김현옥 서울시장은 물러났고, 도시빈민과 서민을 위한 시민아파트 건설계획은 좌절되었다. 그때까지 지어진 시민아파트는 426개 동이었으며, 1970년대 이후 아파트는 주로 중산층 위주로 공급되었다.

무허가 판자촌의 확산

- 1970년대 초반 약 20만 채 집계

서울에 흔히 달동네라고 불렀던 무허가 판자촌이 급속히 늘어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다. 이런 지역은 농촌을 떠나 서울로 이주한 사람들이 저렴한 주거비로 살아갈 수 있었던 지역이었다. 1961년에 서울에만 4만 채가 넘는 무허가 불량주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1966년에는 13만 채, 그리고 1970년대 초반에는 약 20만 채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단속과 철거를 계속해 오다가, 도심 인근의 판자촌 주민들을 서울시 외곽의 새로운 정착지에 집단으로 이주시키기 시작했다. 이른바 집단 정착지 조성사업인 것이다. 서울시 외곽의 국공유지에 10평 내외의 필지를 분양하여 이주민들 스스로의 재원으로 집을 짓도록 했다. 그러나 여기에 지어진 건물들은 건축법상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의 불량주택이었기에 집단 정착지 조성사업은 서울시 외곽에 또 다른 대규모 무허가 불량주택지를 만든 결과를 초래했다. 무허가 판자촌이 서울시 외곽으로까지 확산된 것이다.

달동네 전경. 1970년 초반에는 무허가 불량주택이 20만 채에 달했다.

주택재개발의 명과 암

- 1983년 합동재개발 방식 도입 후 급증

1960년대와 1970년대 무허가 판자촌을 재개발하기 위하여 자력재개발, 차관재개발, 위탁재개발 등 여러 가지 방식이 도입되었지만 그 성과가 미미하였다. 본격적으로 주택 재개발이 시도된 것은 1983년에 합동재개발 방식을 도입하면서부터였다. 합동재개발은 가옥주들과 민간 건설업체가 합동하여 주택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즉, 가옥주는 자신의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업체의 자금으로 재개발을 시도하는 것이다.

합동재개발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했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가옥주든 세입자든 거의 대부분 그 지역을 떠났다.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입주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

리미엄을 받고 입주 권리를 팔고난 다음 그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25년 동안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주택재개발을 시행한 결과 서울의 불량주택지구는 대부분 고층 아파트 지역으로 바뀌었다. 이제 서울의 구릉지는 대부분 판자촌이 늘어선 지역에서 고층 아파트가 병풍처럼 들어선 지역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초고층 아파트의 시대

- 최초 고층아파트는 1971년에 걸립된 여의도 시범아파트

우리나라 최초의 고층 아파트는 1971년에 건립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이다. 12~13층의 고층 아파트가 처음으로 서울에 건설된 것이다. 이 때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처음으로 모델하우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서울 강남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1974년에 건설된 반포1단지 아파트는 생활권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에서 최초로 단지 내에 편익시설을 충분히 갖추기도 했다.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대규모 단지가 서울시 교외로 확산되었다. 과천, 목동, 상계동 등이 이 시기에 개발된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이다. 1980년대 중반에는 2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가 지어졌다. 1988년에 지어진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등 서울 주변 5개 신도시에서도 25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가 건립되었다. 그 이후 아파트의 고밀화, 고층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점점 대형화되기 시작한 아파트 단지.

통신의 변화

우리나라에서 전화가 처음으로 개통된 것은 1896년 대궐 궁내부에 자석식 전화기가 설치되면서부터이다. 이후, 특별한 발전을 보이지 않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선호출기, 이동통신전화 등 다양한 형태의 통신 수단이 선을 보이기 시작한다.

일명 삐삐로 불리는 무선호출 서비스는 1982년 서울을 기점으로 제한적으로 시작, 1989년 100만 명을 돌파, 1999년 303만 명까지 수를 늘리다가 2000년부터 급격히 감소했다. 이동통신은 1984년 5월 한국이동통신서비스주식회사(현 SK Telecom)가 AMPS셀룰러 시스템으로 차량전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러나 워낙 고가의 서비스여서 부유층 외에는 엄두를 내기 힘들었다. 이후 1988년에는 삼성전자가 몸에 지닐 수 있는 휴대폰(모델명 SH-100)을 처음으로 개발, 이듬해인 1989년 5월 출시함으로써 이동통신전화의 대중화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발신만 가능한 씨티폰은 자취를 감추었고, 이동통신전화 가입자는 빠르게 늘어나 현재는 '1인 1전화 시대' 를 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터넷 전화가 일반 전화를 대체해 나갈 전망이다.

덕률풍? 득률풍? 다리풍?

- 최초의 전화기, 1896년 덕수궁에 설치

덕률풍, 득률풍, 다리풍이 어떤 의미를 지닌 단어인지 짐작이 될까? 이 단어들은 우리나라에 전화가 처음으로 도입될 당시에, 영어로 전화를 의미하는 텔레폰(Telephone)이란 소리를 한자로 적은 것이다. 여러 관련 자료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기는 1896년 궁내부(宮內府) 주관으로 덕수궁에 설치된 것이다. 당시의 전화기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전화기와 달리 교환원이 전화를 연결해주는 수동교환방식이었다. 당시의 전화는 덕률풍, 다리풍 등 영어 '텔레폰' 의 소리를 한자로 옮긴 표현도 있었고, 전어기(傳語機), 어화통(語話筒), 전어통(傳語筒)과 같이 대화를 전달해주는 장치라는 뜻을 한자로 표현한 단어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구형 전화기.
국내에 최초로 전화기가 설치된 것은 1896년 덕수궁에 설치된 것이었다.

이후 전화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두었는데, ≪동아일보≫ 등에 게재된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1880년에는 이전처럼 전화를 걸기 위해서 자석발전기 핸들을 돌리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국의 축전지에서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전류를 공급하는 공전식 방식이 개발되어 가입자가 전화기를 들면 회선에 전류가 흘러 교환대에 설치된 램프를 점등시켜 교환원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 발전과정은 중간에 교환원을 거치지 않고 자동식이 1891년에 개발되었는데, 회전 다이얼을 돌려 전화를 거는 다이얼식이 먼저 개발되어 사용되다가 이후 전자식 교환기가 개발되면서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버튼식이 널리 보급되어 있다.

특히, 1971년에는 우리나라 전화 역사에 큰 진전이 이루어졌는데, 서울과 부산 간 시외전화 사용에 있어 교환원의 중계 없이 가입자가 직접 다이얼을 돌려 전화를 걸 수 있는 장거리자동전화(DDD ; Direct Distance Dialing)가 처음 개통되었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 시외전화 회선의 수는 매우 부족하였고 시외교환방식도 대

시방식에 의하여 소통되고 있어 전국 각 지역의 평균 대시시간이 120분 이상 소요되었다고 한다.

이후, 우리나라의 전화는 1987년에 1,000만 대를 돌파하여 '1가구 1전화 시대'를 열게 되었고, 1997년에는 2,000만 명을 넘어, 2007년 현재 2,300만 대 이상의 유선전화가 보급되어 있다. 4,000만 대가 넘는 이동전화의 보급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는 막강한 통신강국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공중전화의 보급과 발전

- 최초로 설치된 것은 1900년

전화기가 집과 사무실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갈 때, 바깥에서 전화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자 공중전화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 지금이야 휴대전화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여서 공중전화를 이용할 일이 거의 없지만, 휴대전화가 널리 보급되기 전인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공중전화는 우리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였다. 우리나라에 공중전화가 최초로 설치된 것은 1900년대이다. 당시 전화기는 자석식 방식의 공중전화로 핸들을 돌려 교환원을 부른 후 교환원에게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려준 다음 원하는 상대방과 통화를 하는 방식이었다. 이후에는 공중전화 옆에 관리인이 항상 자리를 지키면서 공중전화를 이용할 사람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공중전화를 이용하게 한 뒤 통화시간이 다 되면 타이머를 울려 다음 사람이 통화할 수 있도록 했다.

1980년대 초까지도 사용된 구형 공중전화기.

1954년에는 당시 체신부 고시를 통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공중전화 이용가능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로 정해놓고 관리인이 월 2회 공중전화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공중전화기는 관리인이 직접 통제하는 관리 공중전화와 관리인이 없는 지금의 공중전화와 같은 무인 공중전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리 공중전화는 1954년에, 옥외 무인 공중전화기는 1962년에, 벽걸이형 자동식 공중전화는 1969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등장하였다. 옥외 무인 공중전화기는 1962년 7월 1일 산업박람회장에 설치된 공중전화였는데, 이 공중전화기 10대가 서울시내 번화가에 설치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공중전화기는 1969년 최초의 국산 공중전화인 체신1호 공중전화기가 사용되었고, 1978년 12월 일제 다무라형 시내외 겸용 공중전화기 455대가 조립 · 생산되면서 시내전화만 가능했던 공중전화에서 시외전화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1983년 국내 기술로 개발된 시내외용 DDD 공중전화기가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1986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자기카드를 이용한 카드식 공중전화가 등장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주화 · 카드겸용 공중전화와 IC카드 공중전화가 이전의 카드식 전화기를 대체하여 전국에 보급되었다.

삐삐와 시티폰의 등장과 쇠퇴

- 무선호출기 삐삐, 1982년에 우리나라 최초 서비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널리 보급되었던 이동통신 기기는 일명 '삐삐'로 불린 무선호출기다. 무선호출기를 통한 이동통신 서비스는 소형 무선호출기에 연락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호출하는 것으로써 1982년 12월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1997년에는 가입자가 1,5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온 국민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저렴한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인해 현재는 병원이나 휴대전화 사용이 위험하거나 불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약 1만 5,000명 정도만이 사용하고 있다.

시티폰은 그야말로 비운의 이동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시티폰은 '걸어 다니는 공중전화', '값싼 이동전화'라는 칭호를 받으며 199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발신전용 이동통신 서비스로, 이동 중에 전화를 받

을 수는 없지만 걸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원래 정식 명칭은 'CT-2(Cordless Telephone 2)' 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무선전화기가 'CT-1' 이라고 불리었는데, 가정을 벗어나도 사용할 수 있는 이동 통신기기라는 의미에서 'CT-2' 로 명명되었다. 당시에는 무선호출기로 들어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음성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중전화에서 한참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따라서 무선호출기로 들어온 전화번호나 음성메시지를 공중전화에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화를 걸어 볼 수 있는 시티폰은 상당히 매력적인 통신기기로 각광받았다. 그래서 가입자가 한때 70만 명에 이르고 서비스회사도 20여 곳에 달했다. 하지만 곧바로 저렴한 가격의 개인휴대통신(PCS) 방식 휴대전화가 시장에 출현하면서 전화를 수신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전화였던 시티폰은 급격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어 시장에 등장한 지 3년 만인 2000년 1월에 사라지고 말았다.

휴대전화의 시대

- 1961년 카폰 20대, 2006년 4,000만 명 가입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휴대전화가 서비스된 것은 소위 '카폰' 으로 불리는 차량용 자동전화 서비스를 시작한 1984년이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최초의 휴대전화 서비스는 이보다 20여 년 앞선 1961년에 제한된 소수를 대상으로 시작된 카폰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정부각료 등 20대의 자동차에 카폰이 설치되었는데, 전화연결방식은 수동 교환 방식이었으며 통화가능 범위는 서울 외에 인천, 의정부 등 경기지역까지 통화가 가능하였다. 이에 비해 1984년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차량용 휴대전화 서비스는 수동교환이 아닌 자동방식이었으며 수도권을 통화지역으로 하여 3,000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1985년에 추가로 5,000대를 더 개통하고 부산이 서비스 지역으로 추가되었다. 1987년에는 5개 도시에서도 개통하는 등 점차 전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였다. 당시 전화기 1대 값이 400만 원 이상이었고 한 달 기본요금도 2만 7,000원에 통화요금은 8초에 20원으로 오늘날에 비해 매우 고가였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6년 11월 24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4,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 수치는 영유아와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을 제외하면 사실상 1인 1휴대전화를 넘어선 것으로, 우리 사회의 휴대전화 사용 정도가 얼마나 높은 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인터넷 전화로의 발전

- 2005년 8월부터 '070' 통해 인터넷 전화 상용화

지금까지의 유선전화가 구리선을 이용한 전화였다면 앞으로의 전화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한 인터넷 전화가 대세를 이루어 나갈 전망이다. 인터넷 전화는 PC에 인터넷 전화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스피커와 마이크가 내장된 헤드셋을 부착하여 통화하는 소프트폰과 일반 유선 전화기의 형태와 유사한 인터넷 전화 전용 단말기를 사용하는 하드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의 인터넷 전화는 대부분 소프트폰 방식으로 상대방과 음성통화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8월부터 '070' 번호를 통해 인터넷 전화가 상용화되어 하드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유선전화를 대체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인터넷 전화는 기존의 유선전화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장점은 무엇보다 기존 유선전화에 비해 엄청나게 저렴한 통신요금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30달러면 1년 간 전화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유럽도 한 달에 2유로 정도의 요금이면 자국 내에서는 무료통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두 번째 장점은 광대역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터넷팩스, 단문전송서비스(SMS), 전화벨소리 다운로드, 업무 및 생활정보 제공, 컨퍼런스 콜(다자간 전화회의)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앞으로 인터넷 전화 시장의 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비교
- 1948년 건국 대한민국과 2008년 현재 대한민국 비교

1948년 건국 이래 60년이 지난 오늘, 정부의 모습은 건국 초기와 비교하여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입법부인 국회의 경우 건국 초기에는 국회의원 수가 200명이었으나 현재는 299명으로 늘었다. 사법부의 경우 헌법 개정이 9차례 이루어진 것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것이 눈에 띄지는 않는다. 행정부의 경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대통령 선거 방식이 간접 선거에서 직접 선거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나라 살림의 규모가 점점 커왔던 만큼, 부처도 11부에서 15부로 늘어났다.

| 입법부 비교 |

구분	1948년 건국 대한민국	2008년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	200명	299명
국회의장	이승만	김형오
국회부의장	신익희 / 김동원	한나라당 이윤성 / 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원 선거일	1948. 5. 10	2008. 04. 09
국회의원 임기	2년 제헌헌법(48. 7. 17)에 의한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나 제헌의원은 제102조에 의해 개시일로부터 2년임	4년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중앙청(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국회의사당(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1948년 건국 당시 국회의원은 200명이었으나 2008년 말 현재 299명으로 늘어났다. 건국 당시 국회의장은 이승만, 현재는 김형오이며, 건국 당시의 국회부의장은 신익희와 김동원, 현재는 이윤성 의원과 문희상 의원이 맡고 있다.

건국 당시의 국회의원 선거는 1948년 5월 10일에 치러졌고, 제헌헌법(48. 7. 17)에 의한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나 제헌의원은 제102조에 의해 개시일로부터 2년이었다. 2008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는 4월 9일에 치러졌고,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건국 당시의 국회의사당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에 있었으나 현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 사법부 비교 |

구분	1948년 건국 대한민국	2008년 현재 대한민국
헌법개정	제헌헌법	현행 1987년 헌법(제9차 개정)
주요 내용	대통령중심제(임기 4년 1회 중심) 대통령 국회 간선, 국회 단원제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
헌법위원장	이시영	이강국
대법원장	김병로	이용훈
법원의 종류	3심제	3심제 (상고심: 대법원 / 항소심: 고등법원 / 1심: 지방법원)

건국 당시와 현재 사법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임기 4년의 대통령중심제에서 현재는 5년 단임 직선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건국 당시의 헌법위원장은 이시영, 대법원장은 김병로였으며, 현재 헌법위원장은 이강국, 대법원장은 이용훈이다. 법원은 3심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1심은 지방법원, 항소심은 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다.

| 행정부 비교 |

구분	1948년 건국 대한민국	2008년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부통령	이시영	없음
대통령 선거방식	간접선거	직접선거
행정부처	11부 (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재무부, 법무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사회부, 교통부, 체신부) 4처 3위원회	15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법무부, 국토해양부) 2처 4위원회

건국 당시 행정부의 경우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이시영이었으나 현재는 부통령제도를 없앴고, 대통령 선거방식의 경우 건국 당시에는 간접선거였으나 현재는 직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고 있다.

행정부처는 건국 당시에 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재무부, 법무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사회부, 교통부, 체신부 등 11부, 4처 3위원회였고, 현재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법무부, 국토해양부 등 15부와 2처 4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에 얽힌 이야기

1. 태극기의 어원과 담긴 뜻

우리나라의 국기를 '태극기' 라고 부르게 된 것은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을 하던 때부터다. 당시의 애국지사들은 일제의 강제합병과 탄압에 맞서, 1919년 3월 1일 정오에 맞춰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 낭독과 함께 전국적으로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이날 참여한 모든 국민들은 누구를 가리지 않고 손에 '기' 를 들고 나오기로 하고, '기' 제작을 하였는데, 그때만 해도 '조선국기' 로 부르던 국기 이름을 일본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태극기' 로 부르자고 약속을 하면서부터 '태극기' 라는 이름이 새롭게 퍼지기 시작했다.

'태극기(太極旗)' 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파랑)과 양(陽,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만물이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그리고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음--, 양–)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4괘중 건괘(왼쪽 위)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오른쪽 아래)는 땅을, 이괘(왼쪽 아래)는 불을, 감괘(오른쪽 위)는 물을 각각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2. 연혁으로 만나는 태극기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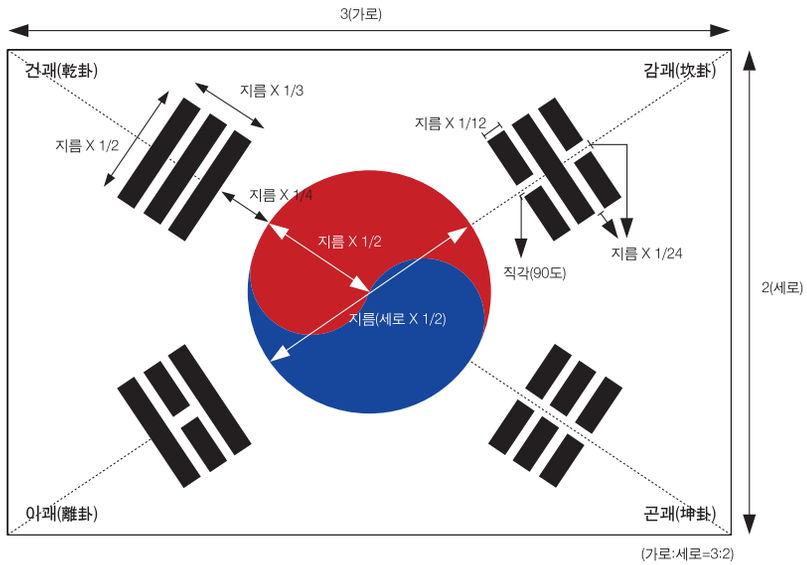
- 1882년, 일본 수신사 박영효 일행이 대외적으로 공식 사용.
- 1883년, 태극기를 대한제국의 국기로 사용토록 정식 왕명으로 반포함.
- 1949년, 각양각색으로 사용해 오던 태극기를 대통령령의 국기통일에 관한 지시에 따라 '국기제작법' 을 제정, 문교부 고시 제2호로 공포.
- 1950년, 문교부고시 2호를 보완하여, 3호로 깃봉제작법을 발표.
- 1976년, 훈령 136호로 국기게양식 및 강하식 요령을 공포 실시.
- 1984년,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 제정(대통령령 11361호)
- 1987년,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2148호)을 통해 국기강하시각 변경.
- 1989년,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2642호)을 통해 국기의 실내 게양 방법 등을 개선.
- 1996년, 대통령령 제15182호를 통해 국기의 표준색도 및 국기게양방법 개정.
- 1997년, 국기 게양 · 관리 및 보급에 관한 지시(국무총리지시 제16호)를 통해 공공건물 및 각종 경기장 · 공원, 가로, 옥 내외 정부행사장의 국기게양대 설치 방법 및 대형 국기게양 등에 관한 방법을 등을 개선.

- 2007년 대한민국 국기법(법률 제8272호)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20204호) 제정
- 2008년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0915호)을 통해 국기게양대를 다른 게양대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예우 강화

3. 태극기 정확하게 그리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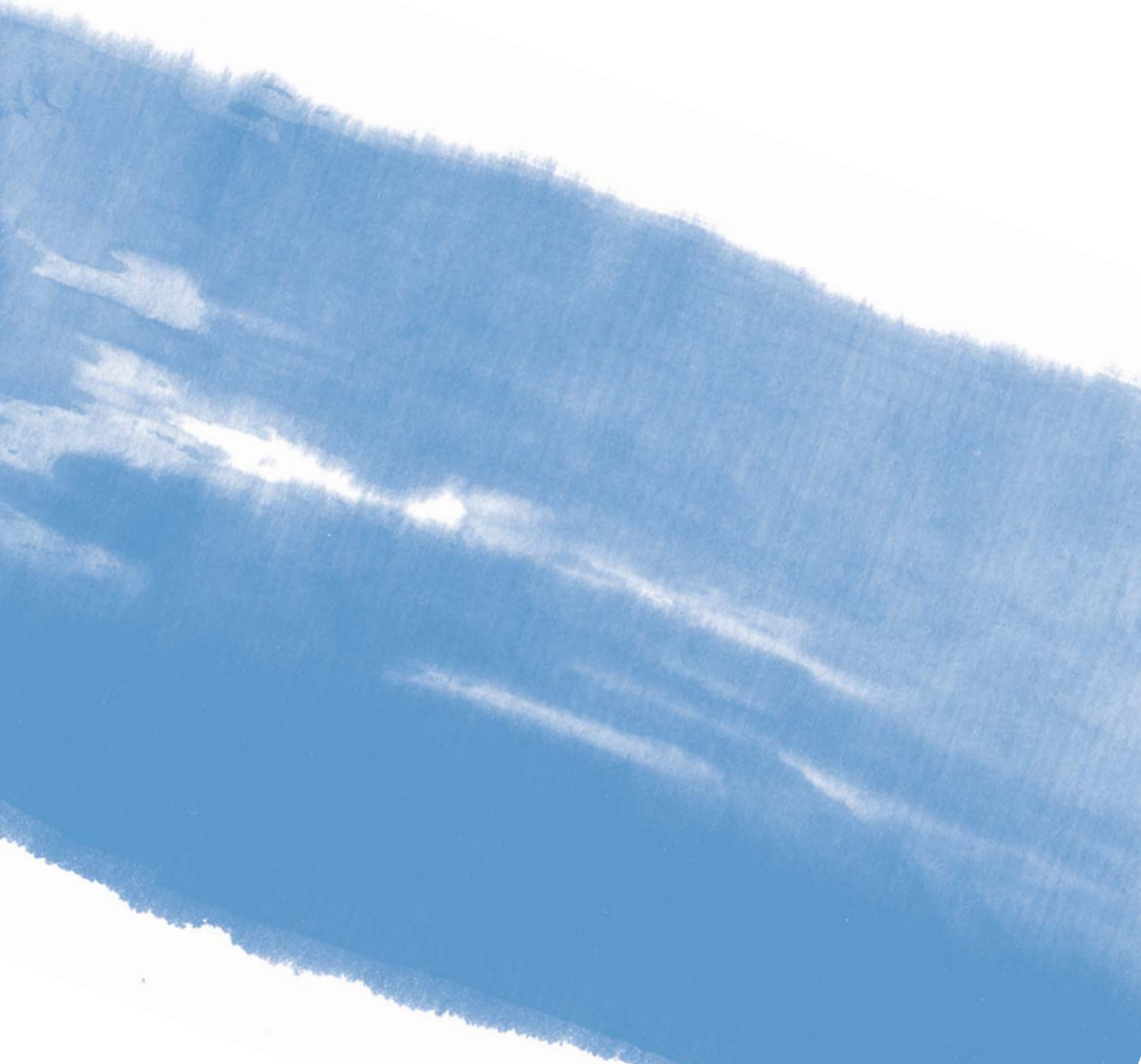
① 가로 세로 3:2 의 비율로 백색의 직사각형을 그린다.
② 가상의 대각선을 그린다.
③ 대각선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지름이 세로길이의 1/2인 원을 그린다.
④ 원안의 대각선을 4등분하여 4등분된 길이가 반지름이 되게 태극모양의 반원을 각각 그린다.
⑤ 태극의 형태에 빨강(상) 파랑(하)의 색을 칠한다.
⑥ 태극으로부터 대각선상 태극지름의 1/4 만큼 떨어져서 각 사괘의 전체형태를 그린다.
각 사괘는 대각선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며 또한 대각선에 직각을 이루게 하여 그린다.
※ 괘의 색깔은 검정색으로 하여야 하며 길이는 태극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로 한다. 괘의 너비는 태극 지름의 3분의 1 (깃면 너비의 6분의 1)로 하며, 괘와 태극 사이는 태극지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8분의 1)을 띄운다. 괘의 구성부분은 효로 하되, 그 효의 너비는 괘 너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24분의 1)로 하고, 효와 효 사이 및 끊어진 효의 사이는 효 너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8분의 1)로 한다.
⑦ 검정색으로 괘를 칠한다.

4. 태극기 구조



Part 3

희망과 화합의 한 무대



희망과 화합의 한무대
8·15 광복 및 건국60년 기념행사

광복절 63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기념하는 화합의 한 무대는 2008년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성대히 치러졌다.

이번 행사는 8월 14일 오후 8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펼쳐진 '건국60년 기념전야 음악회'를 비롯하여 8월 15일 오전 9시 30분에는 '대한민국 건국60년 중앙경축식'이 옛 중앙청 광장 및 광화문 거리 일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또한 대한민국 건국60년을 기념하는 '큰 울림 한강축제', 가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오후 2시부터 '소통의 함성', 이라는 주제의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제1부 '열정의 함성', 제2부 '화합의 함성', 제3부 '미래의 함성', 순으로 이어졌다.

음악으로 재현한 한국의 역사

- 건국60년 기념 전야 음악회 및 나라사랑 독도 콘서트

교향곡의 장중한 선율이 밤하늘에 울려 퍼지면서 광복63주년과 대한민국 건국60년의 전야제는 서서히 뜨거운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1948년 정부 수립부터 현재까지 한국 역사를 음악으로 재현한 무대가 광복절을 하루 앞둔 2008년 8월 14일 오후 8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막을 올렸다. 첫 순서로 60년 전 정부 수립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는 의미에서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가 연주된 것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가유공자, 주한외교대사, 전직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격무공무원, 모범군인, 해외문화 홍보원, 해외동포 등 초청 인사 2,000여 명과 시민 1만여 명 등 총 1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성원을 보냈다. 특히, 베이징올림픽 및 연휴로 인하여 관람객수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행사진행 중에도 관람객이 꾸준히 입장하였고 주로 가족 관람객이 많았다. 외국 귀빈 및 관광객의 참여가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었다.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를 시작으로 성대한 음악회가 개최되었다.

2만 7,000개의 소망방울, 모뉴먼트

전야 음악회에 앞서 '건국60년 영상상영' 은 참석한 사람들이 저마다 건국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고, '시청사 모뉴먼트 점등' 은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내 마음에 태극기 담아〉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청 본관건물 전면에 설치된 모뉴먼트 프로젝트는 2만 7,000개의 소망방울로 구성되었다. 소망방울은 지름 22cm 크기의 투명 반구로 제작됐고, 그 중 9,000개에는 태극기가 삽입되어 빨강, 파랑, 검정, 흰색의 4가지 색으로 구성된 가로 70미터, 세로 20미터 크기의 대형 태극기를 형상화했다. 행사무대에서 오세훈 시장은 7부터 1까지 시민들이 외치는 카운트다운에 맞추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해 터치버튼을 눌러 불을 밝혔다.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가 건국60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면 이어서 연주된 〈가라 꿈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라는 오페라 곡은 조국의 시련을 딛고 꿈을 펼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희망과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고통 받는 민족의 수난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었다.

정명훈 씨의 지휘 아래 서울시립교양악단과 그란데 오페라합창단이 합창하는 동안 〈요르단의 큰 강둑과 시온의 무너진 탑들에 참배하라〉, 〈예루살렘의 잔인한 운명처럼〉, 〈주님의 너에게 용기를 주시리라〉 등의 가사가 흘렀다.

1만 2,000여 명이 참석한 건국60년 기념 전야 음악회 장면. 외국 귀빈 및 관광객의 참여가 많아 성황을 이루었다.

이윽고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혔던 히브리인들이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릴 때 시온을 그리는 노래인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흘렀으며, 이는 한국전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한민족의 의지를 담은 것이었다. 이어 소프라노 김영미 씨가 베르디의 오페라 〈신이여 평화를 주소서〉를 노래했다. 한국의 성장과 역동성을 대변할 수 있는 작품도 연주되었다. 변화무쌍하고 열정적인 차이코프스키의 제4번 교향곡, 강준일의 사물놀이 협주곡 '마당' 이 이어졌다.

이번 전야 음악회는 1TV를 통해 방영했으며, 소프라노 김영미, 이광수와 민족음악원 풍물단, 연합합창단 등의 협연이 펼쳐졌고, 정명훈이 지휘하는 (재)서울시립교향악단이 연주를 맡았다.

국민 · 지방자치단체 · 정부의 3박자 호흡

서울시립교향악단은 헨델의 〈왕궁의 불꽃놀이〉 등을 연주했으며, 중간에 가곡 〈그리운 금강산〉이 연주될 때는 시민들의 참여가 높아졌고, 시민들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부르기도 했다. 이 노래는 같은 시간 대구, 광주, 제주, 대전, 독도의 전야제 행사장에서도 함께 불러 온 국민이 하나 되는 가슴 벅찬 장면을 연출했다. 애국가가 포함되어 있는 안익태의 〈한국 환상곡〉에 이어 마지막으로 차이코프시크의 〈1812년 서곡〉이 대미를 장식했다. 차이코프스키가 1812년 러시아를 침공한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1812년 서곡〉으로 음악회는 막을 내렸다.

이번 전야제 음악회는 광복과 건국의 의미 말고도 화합의 한 무대라는 점에서 뜻 깊은 자리였다. 첫째로는 일반국민 · 지방자치단체 ·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국민대통합을 실현한 기념적인 사업이었다는 점이었다. 둘째는 전 국민과 해외동포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범국민적인 기념행사 및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었다. 아울러 셋째는 건국60년 기념행사를 대표하는 메인이벤트로서 전야 음악회로 부각됐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연주를 마치고 관객들로부터 아낌없는 박수 갈채를 받았다.

나라사랑 독도사랑, 독도함 콘서트

유구한 한반도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며 늘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온 우리겨레의 상징, 독도. 그 독도로 향하는 육지의 끝자락 동해에서 우리 국민의 독도사랑과 국토수호의지를 한데 모은 '나라사랑, 독도함 콘서트'가 개최되었다. 동해항 중앙부두와 아시아 최대의 수송함(LPX)인 독도함 함상에서 식전행사와 본행사가 차례대로 진행되었다.

2008년 8월 14일 건국60년을 축하하는 전야제 행사의 일환으로 펼쳐진 이 행사는 군이 주관하는 유일한 행사로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충성하는 군의 충정과 위상을 축제 형태로 승화시킨 것이다.

동해항 부두를 무대로 펼쳐진 식전행사에서는 '건국60년 기적의 역사'를 주제로 민간 전문 무용단 및 창극단의 독창적인 공연과 함께 해군군악대를 위시한 연예사병들의 활기 넘치는 공연이 5,500여 관객의 뜨거운 열기 속에 어우러졌다. 또한 독도역사 사진전과 함께 '독도는 우리 땅' 사인 보드를 설치, 관람객들의 메시지를 유도함으로써 독도가 영원한 우리 땅임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연예인 병사들의 사인회를 동시에 진행, 행사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함상사진.

무용수 공연장면.

군악대 연주장면.

연예병사 가수 성시경 공연장면.

'이심전심(以心傳心)' 뜨거운 열기, 완벽한 무대

독도함 함상에서 펼쳐진 본 행사인 콘서트는 '대한민국 건국60년' 을 자축함과 동시에 '독도수호' 와 관련, 범국민적 인식을 다시금 결집하기에 충분했다는 평가 속에 전국 각지로 중계됐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 그대로 열정과 흥분 속에 펼쳐진 콘서트였다.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주요인사, 일반시민, 그리고 군 장병 2000여명과 함께 부두무대에서 생중계를 지켜본 많은 관객들이 혼연 일체된 콘서트는 독도아리랑을 합창하면서 그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민, 관, 군이 하나가 돼 독도사랑과 나라사랑의 전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 모았다.

특히 최단시간 내 군 특유의 기동성을 발휘, 경미한 안전사고 하나 없이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연출함으로써 군이 보유하고 주관한 문화예술 컨텐츠의 무한한 잠재력을 표출, 국민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건군60주년 및 선진강국 원년을 기념하는데 있어 우리군의 한 차원 달라진 위상을 발견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모습을 시현, 선진강군의 비전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

연예병사 팬 사인회장면.

부두 무대와 관객장면.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60년 중앙경축식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60년 중앙경축식' 이 옛 중앙청 광장 및 광화문 거리 일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식전행사와 본 행사, 미래대행진으로 나뉘어 열린 경축식에는 정부 주요인사, 정당대표, 주한외교단, 건국 · 산업 · 민주화 관련 인사, 국민 참여자, 사회 각계인사 및 21세기 청소년 대표 등 총 5만여 명이 참석, 광화문 일대를 태극기로 물들였다.

다채로운 식전 행사들

경축식 행사는 이원적으로 치러졌다. 60년 전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역사적 장소인 옛 중앙청 광장에서 중앙경축식 본 행사가 열리고, 일반 시민들이 경축식을 관람할 수 있도록 대형 LED 전광판이 세워져 함께 행사를 즐겼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광화문 거리에는 배너기와 태극기가 대량 설치되었고, 대형 걸개그림을 비롯해 무궁화 꽃이 활짝 핀 모습을 한 높이 18m, 폭 40m 규모의 대형 조형물이 설치돼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분위기를 돋웠다.

경축식에 앞서 오전 9시부터 약 30분 간 진행된 식전행사 〈자랑스러운 60년〉은 건국혼(광복과 건국), 근대화의 꿈(산업화), 동트는 아침(민주화), 휘날리는 태극기(오늘의 한국) 등 네 개의 주제로 무용과 합창 및 영상으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영상과 음악, 공연단의 건국 무용 총체극 등으로 표현된 '건국혼' 은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이루어낸 건국의 의미를 상징화한 것이다. 두 번째 프로그램인 '근대화의 꿈' 은 산업화의 과정을 Cine Poem 스타일의 스틸 영상과 자막 스크롤 방식으로 구성, 6 · 25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이루어낸 경제성장의 밑거름인 국민과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 힘겨웠던 산업화의 과정을 재조명했다.

중앙경축식에 참석한 시민들.
이번 행사는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역사적 장소인 옛 중앙청 광장에서 시작하여 시청 앞 서울광장까지 이어졌다.

합창과 테마 퍼포먼스 등으로 표현된 '동트는 아침'을 통해서는 민주화와 탈 권위의 역사를 귀에 익은 음악과 합창을 통해 공유하고 민주화와 더불어 성장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긍정적으로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휘날리는 태극기'에서는 세종기지 대원, 자이툰 및 동명부대원 등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경축하는 한국인의 메시지를 영상 및 실시간 인터뷰 위성 중계로 상영하여 세계 도처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자랑스러운 국민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이어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통해 2008년 오늘, 도전하는 한국인의 열정을 보여주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화문을 덮은 태극기 물결, 미래를 열다

본 행사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과 광복회원, 주한 외교단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행사에 참가 신청한 일반 시민 등 총 7,0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이번 행사에 걸맞도록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 등 재외동포 인사들도 다수 초청됐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후손을 비롯해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26명, 이북 5도민 200명, 사할린과 연해주에 사는 한인과 파독 광부 · 간호사 등 116명이 초청되어 한국을 찾았으며 외국인 중에는 6 · 25전쟁 당시 홍남 부두에서 피난민을 태운 화물선의 미국인 선장 가족과 선원, 인천상륙작전을 이끈 맥아더 장군의 유족이 자리를 함께 해 뜻 깊은 행사를 기렸다.

외부행사장에는 전경련이 주관한 'I love Korea 청소년 국토대장정' 참가자 1만여 명이 마지막 목적지인 서울광장을 눈앞에 두고 일반 시민들과 함께 제63주년 광복절과 대한민국 건국60년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했으며 이로써 독립과 건국, 산업화, 민주화 등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낸 위대한 국민들과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새로운 꿈을 실현해 갈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건국60년의 감동을 나누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뜻 깊은 자리를 연출했다.

북소리 공연 장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운 시민들(위쪽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시민의 환호에 답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그리고 국토대장정 청소년단과 함께 걷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새로운 꿈〉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하는 '경복궁 아리랑'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시작된 본 행사는 국민대표 및 국토대장정 청소년 대표, 독립지사, 재외 동포 등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입장하면서 막을 열었다. 국민의례와 함께 시작된 애국가 제창은 성악가 엄정행 씨와 파독 간호사로 구성된 퀼른어머니합창단, 다문화가정 어린이합창단, 16개 시 · 도 어린이 연합합창단이 1, 2, 3, 4절을 나누어 부르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애국가 제창 후에는 광복회장 기념사와 독립유공자 포상에 이어 대한민국 건국60년 영상보고,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 비전 퍼포먼스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건국60년을 성공의 역사, 발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로 평가하면서 건국60년 기적의 역사는 새로운 60년에도 이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의 신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국60년 간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과 당당히 싸워왔으며 이제 자유의 가치는 더 넓고 더 깊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 60년은 성숙한 자유를 구현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또 '성숙한 자유'의 시대, 우리가 꿈꾸는 선진일류국가는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라고 밝히며 선진일류국가가 되려면 '기본'부터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선진일류국가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안전'을 확고히 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앙경축식 행사 장면.

군악대의 행진 장면.

경축식이 끝난 후, 이명박 대통령은 경호의 어려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국토대장정 청소년단과 함께 최종 목적지인 서울광장으로 행진했다.

이날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새로운 비전의 축,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비중 있게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청정에너지, 녹색기술에 대한 총력투자를 강조하며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행동에 나선다면 녹색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문명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안보를 위해 현재 5% 수준의 에너지 자주 개발률을 임기 중에 18%, 2050년에는 50% 이상 끌어올려 에너지 독립국의 꿈을 실현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임기 중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경축사 후 이어진 비전 퍼포먼스와 만세삼창은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비전 퍼포먼스는 정부의 비전 추진과 실천 의지를 표현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의 동력을 얻는 과정을 대 합창, 무용, 대북공연 등을 통해 획득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무대 맞은편에 자리한 대고(大鼓)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북을 가슴에 맨 퍼포머들의 대북연주와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춘 대합창, 무용단의 깃발 퍼포먼스 등이 어우러진 비전 퍼포먼스가 끝나자 장내가 함성과 함께 태극기 물결로 뒤덮였다. 이어 전 참석자들이 일어선 가운데 선진화와 새로운 꿈을 향한 대한민국의 다짐과 결의를 표현한 만세 삼창이 광화문 일대를 뒤흔들었다.

무용단의 비전 퍼포먼스 장면.

중앙경축식이 끝난뒤 끝난 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국토대장정에 참가했던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함축적 의미를 담은 '국토대장정 슬로건'을 목청 높여 제창한 뒤 군악대를 선두로 국토대장정 청소년단의 최종 목적지인 서울광장으로 행진했다. 국토대장정 마무리 대행진이 시작되자 광화문 거리에 도열하고 있던 미8군 군악대가 건국60년을 경축하는 축하 연주를 함으로써 한 · 미간의 우호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 행사 진행표 |

1. 사전행사[섬김의 맞이] / 08:30~09:00

Welcome 행진곡	섬김의 음악맞이
Great People	위대한 국민 UCC

2. 식전행사[자랑스러운60년 / 09:00~09:30

건 국	건국혼
산업화	근대화의 꿈
민주화	동트는 아침
2008 오늘	휘날리는 태극기

3. 중앙경축식[새로운 꿈] / 09:30~10:40

국민과 함께	주빈입장
벅찬 가슴으로	개식 통고
고동치는 태극	태극기 입장
하나되는 대한	국민의례
다시 뻗는 빛	기념사
그날을 기리며	독립 유공자 포상
기적의 역사	대한민국 60년 영상보고
미래로의 초대	청소년 미래 스케치 인터뷰
새로운 꿈	주빈 경축사 및 비전화답
비전 메아리	비전 퍼포먼스
무궁한 대한민국	만세삼창
국민 속으로	주빈 퇴장

4. 국토대장정 미래대행진 / 10:40~11:10

전국 각지에서 기념행사 잇달아

광복 63주년 및 건국60년 경축식은 15일 전국 곳곳에서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날 정오 서울 종로구 보신각을 비롯해 대구 국채보상공원, 광주 민주의 종각, 경남 창원대종각, 부산 용두산 공원, 전주 풍남문 종각 등 곳곳에서 광복을 경축하는 타종식이 거행됐다. 특히 독도에서는 경상북도 주관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광복절 독도 경축행사가 열렸다. 독도 관련 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만세 삼창, 대형 태극기 그리기, 민속연날리기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대전시청에서는 육군 32사단이 지원한 기념 카퍼레이드와 태극기 전시회가 열렸고, 대전시 서구 만년동 한밭수목원에서는 '무궁화 및 전통식물 전시회'가 개최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도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이 열렸으며 이외에도 충청남도는 14~15일 모든 도민에게 아산 현충사, 천안 독립기념관, 금산 칠백의총 등의 역사적 관광 시설을 무료로 개방했다.

부산시 보훈청은 자전거로 부산시내 일대를 일주하며 현충시설을 참배하는 '나라사랑 출발!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가졌으며 부산시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은 '태극기 100% 달기 행사'를 벌였다. 또 울산시 북구 송정동에 있는 대한광복군 총사령관 박상진 의사의 생가에서는 광복회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제례가 열렸으며, 울산문예회관에서는 '건국60년 발자취 사진 전시회'가 열려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제주도 제주시 한라체육관 광장에서는 태평양전쟁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합동위령제가 봉행됐고, 제주지역의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인 강태선(84) 씨 등 광복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광복절을 맞아 도내 박물관과 농원 등을 특별히 이날 하루 무료로 개방했다. 이밖에 강원도 춘천시는 항일 의병장 유인석 장군 동상을 참배하는 행사를 벌였고, 전남도는 청사 외벽에 가로 20m, 세로 60m 크기의 대형 태극기를 내걸어 경축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토대장정 청소년단과 함께 서울광장으로 이동하여 연설을 하고 있다.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힘찬 발걸음 확인

광복 63주년을 맞아 기획된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60년 중앙경축식' 은 크게 네 개의 행사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우선 선진화 세력의 역사인식으로써 건국이후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선진화로 나아가는 건국60년 기적의 역사를 조명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통해 단기간에 선진화를 이룩하고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거듭난 역사, 도전하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어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을 강조하고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능동적 복지, 성숙한 세계 국가를 지향하는 이명박정부의 국정 이념을 전파하고, 경제의 선진화, 삶의 질의 선진화, 국제규범의 능동적 수용과 창출 등을 통해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 지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린 행사였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60년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시키고 대한민국 비전 전략을 함께 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는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진행형으로서의 우리 역사와 대한민국의 현재를 집중 조명, 국민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고,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근대화를 이룩했던 지난 60년을 재조명하여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나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전 국민 모두의 의지와 실천의 결의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었다 할 수 있겠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정신의 재확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 체제의 우월성을 공감했으며 아울러 대한민국 건국60년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공의 역사, 위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전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선진화 비전을 공유하고 이러한 동력을 바탕으로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강한 자신감과 실천 의지를 거듭 재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중앙경축식은 '대한민국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가 정한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를 주제로 펼쳐진 장엄한 국가 의식이었다. 이번 경축식 내용의 특징은 국가 의식으로서 식순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광복 60주년과 건국60년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가지며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낸 위대한 국민이 긍지로 하나 되어 새로운 꿈을 향해 출발한다는 주제를 선명히 표현한 자리였다.

또한 이번 행사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탄소중립의 정책을 실천하는 행사로 기획된 점도 의미 있다. 무더위로 인한 에너지의 사용을 가능한한 억제하기 위해 우선 행사의 시작 시간을 통상의 오전 10시에서 9시 30분으로 앞당겼으며,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인사는 모두 간편복을 착용한 채 행사에 나섰다. 아울러 기념품으로는 모자와 부채를 지급하고 행사장 셔틀버스는 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여 환경친화적인 CNG버스로 운용했으며, 행사에 쓰인 소품 종이는 모두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친환경 시대를 향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점이 이채로웠다.

하나 된 대한민국, 함성을 울려라!
- 큰 울림 한강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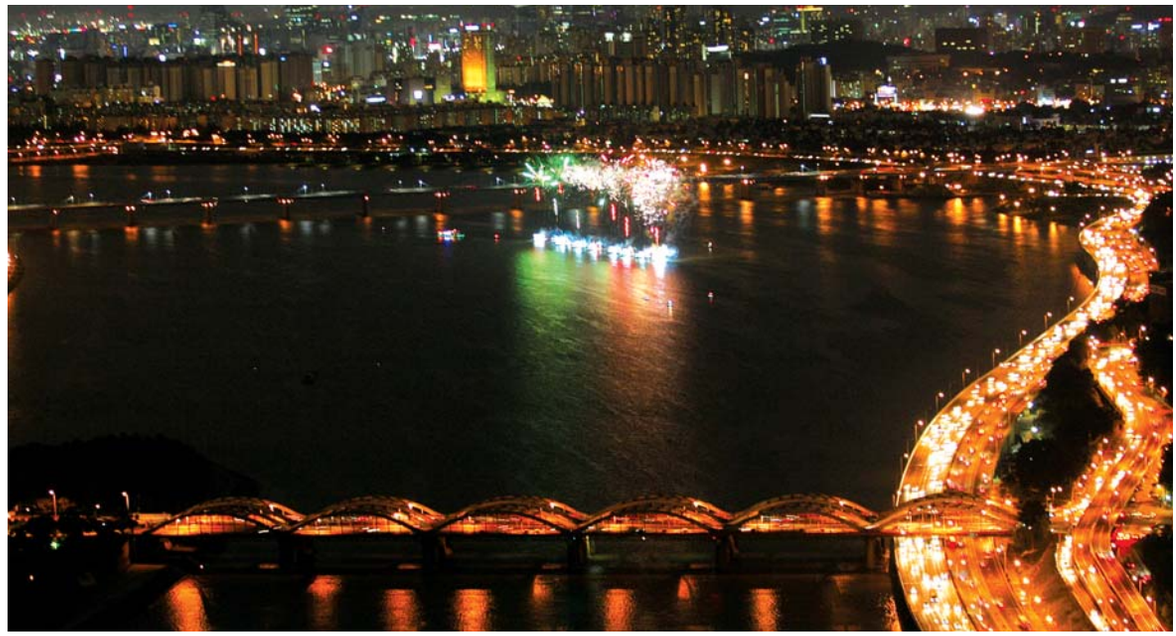
국민의 힘으로 일궈낸 기적의 순간들, 그 순간에 늘 함께했던 국민의 함성

지난 2008년 15일 대한민국 건국60년을 기념하는 '큰 울림 한강축제' 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벌어진 이번 축제는 〈소통의 함성〉이라는 주제의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제1부 '열정의 함성' , 제2부 '화합의 함성' , 제3부 '미래의 함성' 순으로 이어졌다.

큰 울림 한강축제는 60년 동안 이뤄 놓은 성취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새롭게 선포된 미래 비전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긍정의 기대감 확산하는 데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다' 는 확신과 재충전의 자리를 마련하고, 사회적인 이슈 속에서 흩어진 국민 정서를 새로운 구심점으로 모아 함께 즐기며, 국민의 하나 된 힘을 다지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리놀이, 수상퍼레이드, 빅스타 콘서트, 파이로뮤지컬 등은 단순히 행사 차원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역사와 함께해온 한강에서 국내 최초로 육지와 다리, 한강을 아우르는 퍼포먼스는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국민의 힘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자 시도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원효대교에서 진행된 다리놀이는 '소통의 함성' 이라는 콘셉트로서 건국60년의 축하와 소망이 담긴 국민의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이번 다리놀이는 '소통' 을 주된 테마로 하고 있다. 한강다리가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마을을 이어주듯이 다리놀이를 통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즐기며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인 것이다. 또한 수상 퍼레이드를 할 때 다리를 밝히는 경관 조명에 친환경 콘셉트인 자전거 발전시스템을 활용한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소통의 함성〉이라는 주제의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제1부 열정의 함성, 제2부 화합의 함성, 제3부 미래의 함성 순으로 이어진 큰 울림 한강축제 전경.

오후 8시에 수상퍼레이드 출항을 알리는 뱃고동 소리가 울려 퍼지며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한강 상류인 상암선착장과 하류인 잠실선착장을 출발한 퍼레이드 선단은 한강 특설무대로 집결했다. 30m급과 18m급 선박을 포함한 100여 척의 퍼레이드 선단이 행사장 앞에 도열하자 관람객들의 함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리고 대형 선박 2척을 각각 선두로 총 18척의 대형 선박들이 이끄는 수상퍼레이드는 각 선박마다 각기 다른 테마로 장식되어 보는 즐거움을 더했다. 이번 수상퍼레이드는 약 1시간 30분 가량에 걸쳐 한강을 누비며 웅장함을 자랑했다.

출항과 함께 시작된 빅스타콘서트는 국내 최고 가수들의 공연으로 국민들을 열광시켰고, 모두를 하나로 어우르게 만들며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어느덧 '국민의 힘' 이란 테마로 과거 60년의 역사적 순간과 미래를 향한 꿈의 빛을 표현하며, 한강의 상 · 하류에서 출발한 선단들의 도착을 불꽃으로 환영했다. 디지털오케스트라와 150명의 합창단이 부른 〈New Korea Fantasy〉의 웅장한 사운드와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불꽃은 더욱 분위기를 달궜다. 비가 오는 가운데 진행됐음에도 국민의 함성과 태극기의 물결이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 전체를 뒤덮었다.

| 행사구성 |

구성	구분	시간	내용	비고
다리놀이	사전행사	8월 13일~14일 10:00~20:00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장	· 그린브릿지
	본행사	14:00~22:00	원효대교	· 그린브릿지 · 프리스타일 공연 –B3 JAM · 함성 그래피티 ·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 함께 그리는 '新 대동여지도'
수상퍼레이드	수상퍼레이드	20:00~21:30	잠실 선착장 ➡ 여의도 ⬅ 상암 선착장	· 붉은&푸른 함성의 수상 퍼레이드 ·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민의 힘
특설무대	입장 및 사전 행사	~18:50	특설무대	· 태극기 배포 · 국민가요 입장 BGM · 희로애락 60년
	1부 – 열정의 함성 Power of Korea	18:50~20:11		· Opening 영상 – 백투더 1948 · 국민가요 리믹스 · 응원대한민국 · 수상퍼레이드
	2부 – 화합의 함성 Big Star Concert	20:11~21:37		· 빅스타 콘서트
	3부 – 미래의 함성 Pyromusical	21:26~21:30		· 김덕수 사물+디지털 오케스타라 · 수상퍼레이드 입항
		21:30~22:00		· 팔천만의 대합창 및 불꽃놀이

본행사가 개최되기 이틀 전인 8월 13일에는 원효대교에 가로 9.2m, 세로 20m의 대형 태극기가 게양되어 지나는 시민들의 눈길을 모았다. 행사가 열리는 마포대교 남측 하이서울페스티발 행사장과 여의도한강시민공원에 자전거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린브릿지' 가 설치되어 친환경적인 행사라는 이미지를 살려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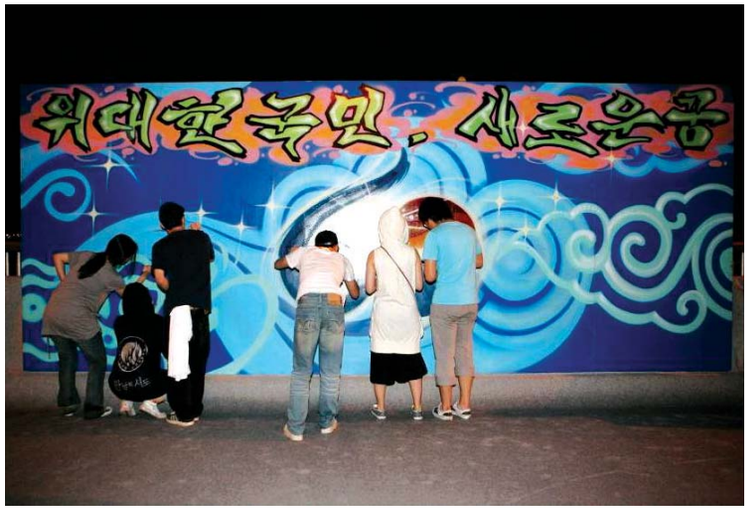
태극 배너 설치(원효대교)

그린브릿지(자전거 발전 시스템)

가장 먼저 다리놀이 부문은 '차 없는 한강다리 걷기' 라는 이름으로 8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효대교에 대해 차량을 통제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자전거 발전 시스템으로 경관조명을 켜는 '그린브릿지' 와 무동력 프리스타일 경기인 'B3 JAM' , 전시 및 국민이 참여하는 '함성 그래피티' , 응원의 메시지 리본을 다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 그리고 온라인 응원메시지를 보내는 '함께 그리는 新대동여지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무동력 프리스타일 경기인 B3 JAM 행사 장면.

함성 그래피티



축하메시지 작성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아쉽게도 다리놀이 부문은 강풍이 불고 비가 내린 탓에 참가자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다양한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행사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는 평가다. 게다가 평소 걸어서 다리를 건널 기회가 적었던 시민들에게 차 없는 다리는 오랜만에 경험하는 새로움이었다.

무대 위에 펼쳐진 대한민국 60년

본격적인 무대 행사는 저녁 6시 50분 즈음 대한뉴스 시그널 음악이 들리며 '희로애락 60년1' 영상이 펼쳐지면서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영상에는 5 · 10제헌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풍경/건국식 장면/한국전쟁 중의 시민 /서울수복 국기 게양하는 군인들/어린이날 행사/고등고시 시험장/한강채빙현장/우량아선발대회/전국체육대회 풍경/새로 나온 아리랑 담배/최초의 패션쇼/ 쥐 잡기 캠페인/미니스커트 열풍 등 건국 이후 60년 동안의 각종 영상이 담겨 있었다. 이후 국민 참여 시대별 패션쇼가 진행되었는데, 이 시간에는 경쾌한 음악과 함께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시대별로 유행하던 패션들이 선보였다.

식전 행사로 '시대별 패션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는 장면.

그리고 사전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된 네티즌들이 만든 UCC 동영상이 상영되었다. 또 UCC오케스트라의 '아리랑2'가 연주가 이어졌다. 9시경부터는 TV 드라마 '여로'의 열풍/새마을 사업장/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버스안내양/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기 캠페인/중동건설 러시 / 칼라TV 첫 방송/남북이산가족찾기(KBS)/ 프로야구 개막식/88서울올림픽 개최 등 희로애락 60년 영상2가 상영되었다. 그리고 88서울올림픽 공식노래인 〈손에 손잡고〉 음악과 함께 88서울올림픽 하이라이트 장면을 편집한 영상인 〈손에 손잡고〉 뮤직비디오가 약 4분간 상영됐다.

이후 다시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금융실명제 실시/금모으기운동(IMF)/2000년 뉴밀레니엄/2002년 월드컵 길거리응원/KTX/청계천 복원/태극기 휘날리며(1000만 관객 최초 돌파)/한류열풍 등이 상영되었고, 마지막 뉴스 장면과 함께 뜨는 엔딩 자막 '끝. 대한민국 건국60년'이라는 희로애락 60년 영상3이 펼쳐졌다.

제1부 : 열정의 함성을 온 누리에

제1부 Power of Korea 본 행사는 오프닝 '백투더 1948' 영상이 상영되면서 시작됐다. 이어 'DJ처리'가 진행하는 '1940년대~1960년대 국민가요 리믹스'가 흘러나오며 객석의 흥을 돋웠다. 그리고 넘버원코리아가 등장하여 1970년대 한국 가요를 새롭게 편곡하여 록(Rock) 형태로 불러 70년대의 음악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시 DJ처리가 진행하는 '1980년대~2000년대 국민가요 리믹스'가 이어졌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2002월드컵 하이라이트 영상이 펼쳐지며 〈오 필승 코리아〉 응원가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1980년대~2000년대 국민가요 리믹스〉를 진행하고 있는 DJ처리.

시대영상 중간에 폭죽이 터지고 있는 장면.

태극기로 치장한 사회자가 화합의 한마당을 외치고 있다.

베이징올림픽 하이라이트 영상도 상영되었다.

해변으로 가요 음악 리믹스가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는 가운데 DJ처리의 '수상퍼레이드'의 의의와 진행에 대한 멘트가 이뤄졌고, 카운트다운 구호와 영상이 펼쳐졌다. 그리고 응원단장의 구호로 화면에 카운트다운 숫자를 행사장의 관객들도 함께 외쳤다. 카운트다운 숫자가 0이 되는 순간 수상퍼레이드 주제선의 대북이 울리기 시작했고, 주제선의 '함성 퍼포머'들이 일제히 대한민국을 연호했다. 이어 뱃고동 소리가 울려 퍼지며 수상퍼레이드가 시작되었다. 또한 수상퍼레이드 출발과 함께 주행사장과 상,하류 선착장에서 대형 연화가 발사되며 레이저 effect show가 진행되었다. 1부와 수상퍼레이드 마지막에는 '대~한민국' 구호소리가 울린 후 약 3분간 행사장 전체가 암전되며 행사는 제2부 화합의 함성, Big Star Concert로 넘어갔다.

제2부 : 화합의 한마당

2부 오프닝에서는 1948년 건국선포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과 중앙청에 걸린 태극기, 1950년 서울수복 당시 중앙청에 국기를 다는 군인들과 게양대의 태극기, 1960년 4.19 혁명 당시 거리에 쏟아져 나온 학생들과 손에 든 태극기, 1980년 광주 5.18 묘역 앞에 선 어머니와 묘역 앞에 꽂혀있는 태극기, 1985년 남북 고향 방문단 상호교류와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 1988년 경기장, 시상대에 선 금메달리스트와 게양되는 태극기를 보는 관중들, 1992년 한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 별 1호 발사대와 인공위성에 새겨진 태극기, 2002년 월드컵 경기장 붉

2부가 진행되고 있는 장면.

은 악마들의 응원과 관중석을 덮은 대형 태극기, 2008년 우주 공간에 선 이소연을 비롯해 피겨스타 김연아 및 수영선수 박태환의 경기장면 등 각 시대를 상징하는 함성의 순간을 담은 '대한민국 국민의 힘' 이라는 영상 상영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흥겨운 대한민국' 이라는 주제로 대중가수들의 공연이 벌어졌다. 공연은 신동호, 서현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뤄졌으며, 출연 가수는 임형주, 2MC 멘트, 정수라, 쥬얼리, 크라운J+서인영, 노브레인, 박현빈, V.O.S, 한영, 현철, 최진희, 쿨, 엄정화, 정훈희, 김도향, 원더걸스, 이효리 등이었다.

밤 9시 20분경에는 '미래로의 함성' 이라는 주제영상이 펼쳐졌다. 영상 속에는 환하게 웃는 어린이들의 모습과 꿈과 희망을 한마디씩 이야기하는 장면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 임오균, 독도명예군수 정광태, 스포츠 꿈나무 윤예지, 상공회의소 회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축하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영상 상영이 끝나고 제3부 '미래의 함성 Pyromusical' 이 시작되었다.

제3부 : 세계로, 미래로

3부 행사는 수상 퍼레이드 입항과 팔천만의 희망 대합창 순으로 이어졌다. 수상 퍼레이드단 연출에는 주제선과 행사장이 함께 하는 '대~한민국' 응원 장단에 맞춰 김덕수 한울림 예술단의 공연이 벌어졌다. 김덕수 한울림 예술단은 디지털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주제선이 수상구조물과 만날 때 대형연화가 발사되면서 등대에 불이 들어왔고, 행사장 주변을 밝히는 메인 무대 타워에 조명이 밝혀지며 화려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이어서 디지털 오케스트라와 김덕수 사물놀이의 음악과 함께 거대한 빛의 향연인 불꽃축제가 시작되어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거의 동시에 디지털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뉴 코리아 환타지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애국가와 대현 태극기가 게양되면서 웅장한 애국가의 합창이 뒤를 이었다.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면서 한강 전역에 걸쳐 불꽃축제가 펼쳐지며 큰 울림 한강축제의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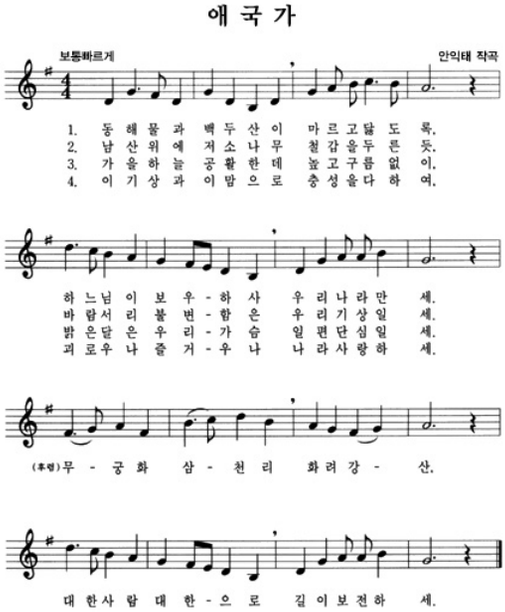
'흥겨운 대한민국' 이라는 주제로 대중가수들의 공연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들.

3부 행사로 김덕수 한울림 예술단의 공연 모습.

애국가에 얽힌 이야기

1. 국가(國歌)와 애국가(愛國歌)의 차이점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애국가(愛國歌)를 국가(國歌)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구분하면 국가(國歌)와 애국가(愛國歌)는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국가(國歌)는 한 나라를 상징하는 국가적 차원의 공식적인 노래이지만 애국가는 공식, 비공식 여부를 떠나 나라를 사랑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애국가에 달리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국가로 사용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애국가는 10여 개였다

현재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가 탄생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애국가가 존재했었다. 갑오경장(1894) 이후 각종 애국가가 널리 불리기 시작하여 1896년 무렵에 각 지방에서 불린 애국가만 해도 10여 종류에 이른다.

이처럼 다양한 애국가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서구 열강에 대한 문호 개방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 민족은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새로운 문물을 접하게 됐고, 이에 따라 개화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리고 서구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민족정신을 지키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싹트다 보니 각각 다른 애국가가 도처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시대에 나온 애국가를 살펴보면, 이필균의 〈애국가〉, 전경택의 〈애국가〉, 한명원의 〈애국가〉, 유태성의 〈애국가〉, 달성 예수교인들의 〈애국가〉, 새문안교회의 〈애국가〉, 최병희의 〈애국가〉, 배재학당 김종섭의 〈애국가〉, 배재학당 문경호의 〈애국가〉, 이용우의 〈애국가〉, 배재학당의 〈애국가〉 등이 있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4, 5종의 〈애국가〉가 더 전파되었는데, 그 중에서 현행 〈애국가〉의 가사와 같은 것은 배종섭 소장 《창가책》과 강릉 이기재 소장 《창가책》 사본에서 볼 수 있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는 후렴구는 이미 1896년 11월 21일 독립문 정초식 때 배재학당 학도들이 부른 〈애국가〉에서부터 등장한다.

3. 현재 애국가 탄생 과정

현재의 애국가 노래말은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던 1907년을 전후하여 조국애와 충성심 그리고 자주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후 여러 선각자의 손을 거쳐 현재와 같은 내용을 담게 되었는데, 이 노래말에 붙여진 곡조는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 (Auld Lang Syne)이었다.

당시 해외에서 활동중이던 작곡가 안익태(安益泰)선생은 애국가에 남의 나라 곡을 붙여 부르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1935년에 오늘날의 애국가를 작곡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곡을 애국가로 채택해 사용했으나 이는 해외에서만 퍼져 나갔을 뿐, 국내에서는 광복 이후 정부 수립 무렵까지 여전히 스코틀랜드 민요곡으로 불렀다.

그러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현재의 애국가가 정부의 공식 행사에서 불려지고,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도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불려지기 시작하였다.

그 후 해외에서도 이 애국가가 널리 전파되어 국가(國歌)로 자리잡게 되었다.

4. 애국가 제창 및 연주

- 애국가를 부를 때에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애국가의 곡조에 다른 가사를 붙여 부르거나 곡조를 변경하여 불러서는 안 된다.
- 주요 행사 등에서 애국가를 제창하는 경우에는 애국심과 국민적 단결심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절까지 제창하여야 한다.
- 애국가는 모두 함께 부르는 경우에는 전주곡을 연주하지만, 약식 절차로 국민의례를 행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시 연주되는 애국가와 같이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연주만 하는 의전행사(외국에서 하는 경우 포함)나 시상식 · 공연 등에서는 전주곡을 연주해서는 안 된다.
- 애국가가 연주될 때에는 일어서서 경청하는 것이 예의이다.

Part 4

위대한 국민, 위대한 꿈

위대한 국민, 위대한 꿈
대한민국 건국60년 주요기념사업

대한민국 건국60주년 주요기념사업은 크게 <건국의 의미 상징화 사업>, <대한민국 건국 경축 행사>, <700만 해외동포 자긍심 고취 사업>,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호국 보훈 사업>, <대한민국 건국60년 학술적 의미 고찰 사업>,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문화축전>, <대한민국 6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보는 전시회>, <산업발전 조명 및 미래 산업 제시 사업> 등 8개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총 63개 사업이 건국6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행되었다. 특히, 주요기념사업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함으로써 새로운 꿈을 향한 위대한 국민의 '도전이자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1. 건국의 의미 상징화 사업

자랑스런 역사의 기록과 계승을 통한 미래 원동력 창출
건국60년 기념 국립대한민국관 건립

건국60년을 맞아 정부는 광화문 앞에 국립대한민국관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2008년 8월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을 결정한 바 있다. 더불어 정부는 광화문에서 숭례문까지의 거리를 국가 상징거리로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해 설립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공모를 통해 명칭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후손들에게 전해줄 자랑스러운 역사관

정부는 건국60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역사를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을 추진키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또 광화문에서 숭례문에 이르는 구간을 '국가 상징거리'로 조성하고 종로구 소격동 국군기무사령부와 대통령 전용병원으로 알려진 기무사 인근 국군서울지구병원 부지를 국민들에게 반환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으로 활용키로 방안을 마련했다.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2차 회의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8월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2차 전체회의석상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사업추진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초 조사 및 사업용역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60년의 짧은 기간에 근대화와 민주화를 성취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일구어 낸 역사임을 강조하고 우리의 현대사를 후손들에게 전하여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현대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부지(6,446㎡)에 들어설 예정인 동 관은 전시장, 아카이브, 다목적 공연장, 수장고, 사무실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별전시장은 근현대사의 특정 주제를 3~6개월간 기획전시하고 관련 소장품을 보관하게 되며 상설전시장은 근현대사를 그림과 사료를 통해 시대별, 주제별로 생생하게 보여주게 된다.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대한민국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동 사업은 부지면적 6,446㎡(1,953평), 건축연면적 28,000㎡(약 8,470평)의 규모로 2014년 준공 및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을 위한 추진준비단 구성에 이어 건립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예산 및 법적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진 복합문화 공간 조성

정부는 경복궁의 광화문 앞에서 숭례문까지 이어지는 거리 일대를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얼굴, 즉 국가 상징거리로 조성해 전통과 미래, 지식과 정보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꾸민다는 방침이다. 광화문을 기점으로 가로의 양 축을 각각 거대한 아카이브(기록) 체제로 재편, 국립대한민국관과 같은 역사문화 시설을 건립해 '지식과 정보', '경험과 지혜'가 축적되고 통섭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건국60년에 맞춰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예정지

광화문에서 숭례문에 이르는 거리는 한국 현대사의 애환과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대표적인 장소다. 경복궁과 덕수궁에다 옛 문화의 복합전시장이라고 할 인사동이 이웃하고 있고 서울의 상징인 시청도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약 80%가 경복궁을 방문한다는 점에서 광화문 일대는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립대한민국관을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프랑스 퐁피두센터나 벨기에 보자르센터처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건국60년과 국립대한민국관

건국60년에 맞춰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이 추진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근대 이전의 문화역사는 국립중앙박물관, 민속은 국립민속박물관, 근대역사와 광복 자료는 독립기념관, 6·25전쟁에 관한 것은 전쟁기념관에서 기록, 보존, 전시하는 체계를 갖췄으나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현대사 부문은 사실상 공백상태에서 방치되어 왔다.

ㅇ 추진 방향
- 문화부, 국방부, 서울시 등 참여 추진단 구성
- 세계적 권위, 명성 있는 설계자의 설계 검토
- 역사체험과 강연, 공연예술이 가능하도록 건축

ㅇ 추진 내용
- 건국60년을 기념한 미래지향적 국가관 확립
- 현대사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여 대한민국 역사 재조명

국립대한민국관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담아낼 각종 자료를 전시하고 현대사를 재조명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다. 특히, 국립대한민국관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되돌아보며 세계 현대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근대화'를 이루어 낸 국민의 저력을 확인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기적의 60년 역사, 우표에 담아
건국60년 기념 우표발행 및 전시회

원더풀 코리아, 다이내믹 코리아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정경원)는 대한민국 건국60년을 맞아 기념우표 2억여 원을 들여 1종 총 160만 장을 제작해 2008년 8월 14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건국60년 기념우표.

2008년이 대한민국 건국60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임을 기념해 우표발행을 전격 실시한 것이다.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한 우리 대한민국은 같은 해 8월 15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외국의 원조에 의지해야 했다.

그런 속에서 대한민국은 고속성장을 이룩하여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다. 지나온 우리의 60년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장 신화를 창조한 기적의 시간이었다. 식민의 상처가 국토는 물론 우리들 의식 깊숙이 남아 있었다. 또한 세계인들은 우리나라를 조용하기 그지없는 '아침의 나라' 로 인식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고, 선박을 만들어내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탈바꿈하였다. 이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이고, 우리 국민이 일구어낸 성과다. 5,000만 국민이 하나 되어 월드컵 축구 4강의 신화를 만들었고,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수많은 국민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다.

이번 우표의 디자인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우표 한 장에 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표 윗부분의 단청은 전통을 상징하는 이미지이고, 건국60년 기념 엠블럼은 태극문양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기존 엠블럼의 도안을 그대로 활용했다. 또 미래를 상징하는 동북아 일대 지도는 한반도를 은빛으로 밝게 처리하였고, 여기에 빛줄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이미지를 가미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의 주역으로 우뚝 서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건국60년 기념우표 발행을 위해 2008년 5월 8일에 우표발행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어 6월 3일에 우표 이미지를 작성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6월 10일에 기념우표 디자인 시안 제작에 들어가 8월 14일에 판매를 시작한 것이다.

우표전시회도 열어

우정사업본부는 우표 발행에 앞서 2008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COEX센터에서 대한민국우표전시회를 열고 '건국60년 기념우표관' 을 설치했다.

이번 행사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소재로 발행된 우표와 설명자료를 게시하여 우리나라의 건국 이후 발전상을 국민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전시장에는 '정부수립 기념' 등 건국 관련 기념우표 9종과 기타 산업발전, 민주화 관련 기념우표 35종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우표전시회에서는 인형극과 매직쇼, 로봇댄스, 에너지체험관 등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와 체험시설을 운영하여 관람객의 호응이 높았다. 또한 건국60년 특별관은 물론 체신청 특별관의 경북청 독도특별전시가 열려 언론과 관람객의 관심을 불러모았다.

특별전시관도 운영되었는데, 이곳에서는 한국우정사특별관, 필라코리아 홍보관, 체신청 특별관, 우체국쇼핑 등 우정사업홍보를 위한 테마존을 조성하여 우표와 우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문화행사도 진행됐다. 이 행사에서 유소년은 물론 많은 관람객들에게 인기 있는 로봇캐릭터 전시와 댄스공연 등이 이어졌다. 특히 지능형 로봇을 시연하는 행사를 가져 우표수집에 소극적인 관람객을 유치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를 통해 전시회 홍보효과를 높였음은 물론 우표수집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 및 관람인원은 보면 2007년에는 7만 7,000여 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총 8만 200여 명이 전시장을 찾은 것으로 조사돼 성공적인 행사였다는 평가다.

우표의 디자인은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새로운 시대와 미래를 상징하는 엠블럼을 담고 있다. 건국60년을 전달하고, 전통문양으로 정통적 역사를, 그리고 건국 이후 기적의 역사를 이룩한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하는 국가의 비전을 표현하고 있다.

주화에 새긴 기적의 역사
건국60년 기념주화 발행

희망찬 미래 상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08년 6월 26일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주화' 발행을 의결하고 이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60년을 기념 및 경축하고 건국60년 기념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8년 5월 국무총리실이 한국은행에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주화 발행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

기념주화의 디자인 초안은 국무총리실이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화폐도안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한국조폐공사는 한국은행의 의뢰에 따라 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디자인을 수정 보완하였다.

기념주화의 앞면에는 휘날리는 태극기와 건국60년 기념사업 주제어인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기운이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뒷면에는 건국60년 기념사업 엠블렘을 채색기법으로 표현하여 화려함을 더했다. 엠블렘의 힘찬 붓터치는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태극문양은 우리 사회의 조화와 화해를 표현하고 있다. 태극에서 분출되는 빛은 희망찬 미래와 새로운 시대를 상징한다. 뒷면에 새겨진 문자와 숫자는 기념주화의 영문 표기 '60th ANNIVERSARY OF THE REPUBLIC OF KOREA' 와 발행기관의 영문 표기 'THE BANK OF KOREA' 및 액면 금액의 영문 표기인 '30000WON' 등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국무총리실과의 협의를 거쳐 기념주화의 금속 소재는 순도 99.9%의 은(Silver)을 사용하고 액면금액은 30,0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기념주화의 품위를 제고하기 위하여 무광(無光) 프루프(Proof), 일반

주화 앞면

주화 뒷면

광복50년 기념주화(만 원)

광복50년 기념주화(5,000원)

정부수립50년 기념주화

광복60년 기념주화

일반 주화와 달리 정교하게 제조되는 무결점 주화

주화와는 달리 정교하게 제조되는 무결점 주화로 제조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무게는 23.0g, 지름은 35.0mm로 결정하였다.

소장 가치 매우 높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이 기념주화의 최대 발행량은 5만 장(관련기관 홍보용 1,000장 별도)으로 2008년 8월 8일 한국조폐공사 앞으로 일괄 발행되었다. 그 이전에 한국조폐공사는 2008년 7월 3일부터 9일까지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받았으며, 사전에 예약 받은 물량이 금

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최대 발행량을 초과함에 따라 예약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당첨자를 결정하였다.

이후 한국조폐공사는 포장 과정을 거쳐 2008년 8월 14일부터 예약접수 금융기관을 통해 당첨자들에게 기념주화를 배부하였다. 한국조폐공사의 일반인 대상 판매가격은 개당 3만 7,000원으로 1인당 신청한도는 2개로 제한하였다.

이 기념주화는 건국60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물론이고, 1998년 발행된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주화 이후 10년 만에 발행된 건국 기념주화임을 감안할 때 그 소장가치는 향후에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념주화발행 포스터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근대화의 성공 모델 정립
한국 현대사 아카이브 구축

지난 60년간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어낸 성공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함과 동시에 근대화 성공모델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아카이브(Archive) 구축 작업이 추진 중이다. 한국 현대사 아카이브 구축 작업은 '대한민국의 지나간 60년은 5,000년 한반도 역사의 기록으로나 18세기 이래 현대사의 조명으로나 가장 성공한 근대화 혁명' 이라는 제1차 건국기념사업위원회 주제발표(5월 22일)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통찰할 지침을 제공하고,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서 무형자산(Soft Power)을 창출한다는 기획 하에 건국6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한국 현대사 아카이브 구축 작업은 크게 4가지 기본 원칙 아래 이루어졌다. 첫째는 이념적 중립성이었다. 사료로서의 순수한 가치를 위해 이념에 편향됨 없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은 집필진의 회의에 부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객관성이었다. 건국 이후 60년 동안의 성공한 근대화 역사를 사실(Fact) 위주로 객관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선택과 집중이다. 대상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자칫 산만한 방향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 관련된 모든 역량을 합목적적으로 조절하여 초점이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었다. 넷째는 미래에 대한 대응성이었다. 대한민국 건국60년사에 대한 인식격차를 해소하여 계층, 이념,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 · 통합하며 성공한 근대화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비전을 제시하자는 것이었다.

한국 현대사 아카이브 구축 작업은 건국60년 추진기념사업위원회가 총괄하고 있으며 통계청, 국사편찬위원회,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 자료 및 연구를 상호 지원하고 있다. 교육

과학기술부는 교육과학 분야, 외교통상부는 해외자료 수집, 재정기획부는 경제 관련 자료 지원, 지식경제부는 산업 관련 자료 지원, 국사편찬위원회는 사료 수집 및 역사 평가, 통계청은 분야별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의 분야를 맡고 있다. 먼저 1단계로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통계 자료 수집 및 분석, 우리나라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신생국 및 선진국과 비교 등의 작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로 2009년부터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 미래비전 도출, 근대화 성공모델 정립 및 국제사회 공유 등의 작업을 추진할 계획 하에 있다.

한국 현대사 아카이브 구축 작업의 제1차 건국기념사업위원회 주제발표 장면.

건국60년 기념 한국 현대사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대한민국의 분야별 통계 자료의 기록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신생국 및 선진국과의 비교 · 평가 및 미래 비전 설정이라는 활용의 분야까지 적용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건국60년의 주요 성과에 대해 객관적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제2차 대전 후의 신생국 및 주요 선진국과 비교 · 평가하고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예술(미술, 음악, 패션) · 과학 · 교육 등 전반적인 분야를 총망라하여 분석, 인권 · 사회복지 · 다문화 · 양성평등과 같은 삶의 질 분야를 분석대상에 포함한 과거와 미래가 소통될 수 있는 연구 추진을 통해 대표적인 '근대화 성공모델' 을 정립할 계획에 있다.

이외에도 한국 현대사 아카이브의 구축은 단순한 역사적 사료의 집성이나 통계적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뛰어넘어 한국 사람들이 지난 60년간 경험한 풍부한 경험들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문서나 텍스트, 통계적 수치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서로 연계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메타-데이터 아카이브를 지향, 사료로서의 가치를 드높일 예정이다.

아카이브(Archive)의 개념

영구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기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장소 또는 기관을 의미. 공공기관, 준공공기관, 각종 사회단체, 기업이 각자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들거나 수령하여 항구적으로 보존하는 여러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 브리태니커

2. 대한민국 건국 경축 행사

세계 일류 국가를 향한 발걸음
건국60년 기념 세계 지도자 포럼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꿈꾸다

지난 2008년 10월 29일과 30일 이틀간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가 주최하고,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이 주관하는 '건국60년 기념 세계 지도자 포럼(World Leaders Forum)' 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건국6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9일 환영 리셉션 및 만찬을 시작으로 30일 목요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15여 개국 주요 인사들을 초빙해서 열렸다.

여기에는 존 메이저, 모리 요시로, 마하티르 모하메드 등 전직 정상들을 비롯하여 로버트 먼델, 앨런 히거, 프랜시스 후쿠야마 등 노벨상 수상자 및 세계적 석학, 그리고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등 세계 유수 기관 대표, 전 UN 사무총장, 주요 국제 · 지역기구 대표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 건국60년을 맞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통해 이룬 '기적의 역사' 를 평가하고, 세계와 대한민국의 미래 트렌드를 진단하며, '녹색성장' 에 기반을 둔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성숙한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리고 세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의 지도자들이 단상에 올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적인 지도자들의 혜안(慧眼)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달성하고, 선진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새로운 60년' 의 국가 비전을 확인하는 한편 국민과 희망을 공유하면서 21세기 성장을 위한 조건인 경제 건전성 확보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세계 경제 주도 세력의 다극화와 탈산업화, 그리고 금융 불확실성 증가 추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기대처 능력 향상과 경제 체질의 선진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공유했으며, 이에 노벨상 수상자, 민간 및 정부 경제 전문가 등과 같이 세계 경제의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국가 경제 건전성 확보 방안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세계적 지도자들은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이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세계는 이미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 환경혁명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선포했다. 그래서 미래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을 위하여 미래학자 및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전문가 등과 함께 '새로운 한강의 기적' 구현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10월 29일 저녁 7시 신라호텔 에메랄드홀에서 펼쳐진 환영 리셉션 및 만찬은 한승수 국무총리의 만찬사를 시작으로 이어졌다. 한 국무총리는 만찬사를 통해 "유엔 총회 의장으로 재직할 때 오늘 참석한 지도자들의 역량과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으로 더욱 이 세계의 역사가 진보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지난 60년은 놀랄만한 여정이었다"면서 "건국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3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가 만개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토대로 21세기에 걸맞은 '선진화' 를 추진하고 있는데, 선진 일류 국가, 글로벌 코리아의 비전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또한 여러 지도자들과 석학들과 함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한 것은 바로 이 '선진화' 에 관한 지혜를 얻고자 함이라며 포럼의 취지를 이야기했다. 더불어 선진화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녹색성장' 이라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을 채택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녹색성장으로 선진화 이룬다

본격적인 포럼은 10월 30일 목요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시작되었다. 아침 9시 '대한민국60년, 미래를 향하여' 라는 주제 하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포럼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건국60년 기념 세계 지도자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녹색성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 지도자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제사회의 도움이 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베푼 지원과 협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 60년의 성취를 통해 여실히 증명해 보였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국력과 국제적인 위상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기조연설 요지

◉ 지난 60년은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과 열정으로 이뤄낸 '성취와 기적' 의 역사이며, 향후 60년은 21세기 국가전략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 을 통해 '기여하는 선진 시대' 를 지향.

◉ 세계적 실물경제 침체 우려에 대응해 '종합적이고(Comprehensive) 충분하며(Sufficient) 단호하게(Decisive)' 대처한다는 대원칙 하에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해소와 내수 활성화를 추구.

◉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협력이 필요하며, 새로운 금융질서를 모색하는 국제적 공조에 적극 참여.

◉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은 '저탄소 녹색성장' 이며, '녹색성장' 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과 환경개선, 국제사회와의 협력 동시 달성 기대.

건국60년, 글로벌 코리아의 길을 묻다

제1회의는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전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사회로 열렸다. 〈세계 원로들이 제시하는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회의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존스 홉킨스대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안팎으로 신뢰받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그는 한국이 신뢰강국(High-trust society within and without)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 정치적 · 국제적 측면에서의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첫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정책 결정자들이 정부의 정책보다 사회 저변으로부터의 변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는 민주주의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건국60년을 맞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통해 이룬 '기적의 역사' 를 평가하고, 세계와 대한민국의 미래 트렌드를 진단했다.

정치제도 구축, 특히 공평하게 집행되는 법치주의(사법부 독립) 확립, 정부의 투명성 확보, 언론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적 측면에서는 민족주의 강화 방지, 새로운 국제제도 창설에 대한 적극 기여 및 새로운 국제 틀의 준수다.

이어서 〈한반도 안정과 통일, 어떻게 이뤄야 하나?〉라는 제하의 패널 발표에서는 발표자들 모두가 한반도 안정이 동북아 지역 및 세계 평화 · 안정에 긴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다.

◉ 윌리엄 코언 (전 미국 국방부 장관)
미국은 특히 안보적 측면에서 '4D' (Deterrence, Defend, Dialogue, and Determination)를 추구할 것이며,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상호간 신뢰 증진에 더욱 노력 지속.

◉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
아시아의 선진 민주국가인 한일 협력 및 한미일간 공조와 주변국들의 협력이 중요하며, 특히 이명박 정부의 '비핵 · 개방 · 3000' 구상을 전면적으로 공감 · 지지함. 이명박 대통령 지도 아래 한 · 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를 기대.

◉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전 러시아 총리)
미국발 금융 위기는 일극 체제의 후과(後果)이므로 다극 체제가 필요하며, 시베리아 · 극동 지역에서의 한러 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 발전 기대.

◉ 존 메이저 (전 영국 총리)
미래의 한반도는 북한 문제 해결에 달려 있음. 현재로선 북한의 변화 의지와 결단이 가장 중요하나 이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북한의 정치 · 경제적 붕괴를 방지하는 가운데 지속적 대화를 통해 경제협력을 추구.

◉ 바차루딘 유스프 하비비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한국은 ASEAN 국가들의 발전 모델이자 5대 교역국 및 3대 투자국임을 감안할 때, 한반도 평화는 ASEAN의 이해관계에 직결됨. ASEAN은 남북대화를 촉진하는 무대로 활용될 수 있고, ASEAN의 경험은 남북관계 개선의 좋은 교훈이 될 것임.

〈성숙한 세계국가 한국,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하의 패널 발표에서 발표자들은 지난 60년 한국이 이뤄낸 성과들을 발전과 위기극복에 있어 가장 모범적 모델로 높이 평가하면서도 미래 한국의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 고촉동 (싱가포르 선임장관)

현재 한국은 중국 ·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과 일본 · 독일과 같은 선진 지식기반 경제와 동시에 경쟁해야 함.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적 개발, 노사관계의 선진화, 법치 강화, 기업가 정신 발현 등을 선진화 · 세계화 필요.

◉ 실비아 카트라이트 (전 뉴질랜드 총독)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인권 문제' 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둬야 함. 한국은 저(低)출산율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인권 개선, 사회적 지위 신장, 양육 지원이 필요.

◉ 킴 캠벨 (전 캐나다 총리)

한국 정부의 '성숙한 세계국가' 비전이 여성의 지위를 연계해 사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동적이라고 봄. 여성 · 모성의 자율성과 권리 신장은 생산성 향상 및 사회적 자산임. 아울러 남 · 북한간 양성 평등관의 불균형 방안도 고민 필요.

◉ 마하티르 빈 모하메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

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며, 근대화의 가장 교훈적 모범국가인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함. 특히 한국의 "Can Do" 정신은 동남아 국가들의 발전 슬로건으로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로버트 호크 (전 호주 총리)

한국은 유엔에서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고 다양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력에 부응하는 국제 기여를 하고 있음. 이러한 '기여 외교' 는 성숙한 세계국가로의 발전에 매우 중요.

두 번째 주제는 컬럼비아대 교수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 박사의 〈세계 금융위기가 달러 역할 및 아시아 통화 제도에 갖는 함의〉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로 시작되었다.

먼델 교수는 "세계적 금융위기의 원인은 국제통화 체제의 부재 때문이므로 각국의 외환보유고와 환율을 통제하는 국제통화 체제의 재창조가 필요하다" 며 "국제통화 체제의 지나친 자유방임과 환율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G-5 통화들(달러 · 유로 · 엔 · 파운드 · 위안) 간의 안정성 확보 국면을 거쳐 '인토(INTOR)' 라는 새로

참석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는 장면.
이번 포럼은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운 국제통화 바스켓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시아의 독자적 통화체제(ACU: Asian Currency Unit) 보유는 궁극적으로 바람직하나 국제통화 체제의 개혁과 보조를 맞춰야 하며, 일본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존재(리더십 부재), 그에 따른 사무국 배치 및 공통정책 · 정치통합체 실시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패널 발표로 나선 각국 전문가들은 금융위기와 관련한 현 상황이 '리더십의 부재' 문제에 봉착해 있음에 공감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다.

◉ 존 쏜튼 (브루킹스연구소 이사장)

현재의 금융 위기는 '리더십의 위기' 라고 봄. 만약 미국 대선 이후 세계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재무장관이 임명될 경우, 시장의 신뢰회복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데이비드 노트 (두바이 금융감독청장)

시중은행 이외의 대상들은 사실상 현 국제금융 감독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음. 바젤위원회 등 현 금융 제도들은 특정 부문만을 담당할 뿐, 총체적 감독 역할을 하지 못함. 따라서 총체적 감독 체계의 구축이 필요.

◉ 데이비드 에드워즈 (스탠다드차터드제일은행장)

현 금융위기는 아시아 금융 기관들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 "새로운 금융질서 재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역할을 기대.

◉ 티에리 드 몽브리알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장)

현 상황은 민주주의 ·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손상된 상태로, 향후 보호주의와 민족주의의 발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 국제금융 체제의 리더십 부재 상황을 극복함과 새로운 질서 창출에 있어 신흥국과 약소국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협의 시스템 모색이 필요.

◉ 수린 핏수완 (ASEAN 사무총장)

현 '아세안+3' 체제는 10년 전 금융위기 시와 비교해 볼 때, 현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제가 되었음. 전화위복을 위해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 적극 참여, 아시아 채권시장 활성화 등 지역 차원의 공조 강화가 필요.

◉ 장 핑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장)

현 위기 상황의 파급효과는 극빈국에게까지 미치고 있으며, 단순한 선진국가의 금융기술적 측면에서 현 상황을 진단해서는 안 되고, 극빈국의 '빈곤' 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함. 2020년경 약 14억 규모의 소비자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아프리카 지역에 적극적인 해외투자가 필요.

세 번째는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대 교수이자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앨런 히거 박사의 〈기후변화와 지구 미래를 위한 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그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 중요한데, 이는 화석연료 사용의 감축보다는 신재생 에너지(태양열, 풍력, 핵원자로)의 개발과 사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바이오연료 사용과 관련해 바이오연료가 여전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경작지 감소와 삼림 훼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학자 및 녹색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들은 녹색성장이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 과제이며, 저탄소 사회를 위한 인류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데에 공감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다.

◉ 모하메드 엘 핫산 샤보 (아랍연맹 베이징대표부 대사)
산유국들은 화석연료의 생산 · 정제 · 운송 ·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대체연료(재생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음.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농지 개간 및 벌목은 잘못된 것이며, 이로 인해 식량가격 상승과 환경 파괴 등 부작용 초래 예상.

◉ 알렉산더 카스너 (전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
21세기 도전 과제들 중 하나는 새로운 에너지 개발임. 환경이나 안보 문제와 함께 경제적인 면에서의 '저탄소 성장'을 위해서는 한 · 미간 기술적 · 정책적 협력이 필요함. 한국이 '저탄소 성장'에서 모범을 보여주기를 기대.

◉ 나라야나 무르티 (국제정보화기술대학 이사장)
저탄소 시장의 미래는 산업구조 전반에 파급 효과를 유발할 것임. 특히 정보 · 통신 기술을 활용하면,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산화탄소 방출량 축소 기대.

◉ 루벤 바르다니안 (투로익 다이얼로그 그룹 회장)
보호주의가 강화되면, 석유와 가스 등 산유국에만 도움이 될 것이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석유 · 가스 개발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 아샤 로즈 미기로 (국제연합 사무부총장)
한국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 노력은 매우 고무적임. 기후변화 문제는 인류 공동이 직면한 도전이지만,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음. 중국의 경우를 보면, 녹색 산업은 고용 증대의 효과를 시사.

이번 포럼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24명의 세계 정상급 지도자 및 지역기구 대표들, 세계 유수의 석학들, 그리고 800여 명의 국내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또한 참석한 각국 전직 정상들과 석학들의 혜안 및 제안들은 한국의 새로운 60년의 국가 비전과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에 매우 유익한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기 극복방안과 우리 경제의 건전성 확보 방안을 중점 토의하고, 차세대 신성장동력인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성장을 우리의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포럼에 참가한 석학들이 한승수 국무총리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5,000년 단일민족을 넘어 세계로, 미래로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축제

외국인 100만 명 시대의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축제' 가 2008년 10월 11일 토요일 서울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법무부와 여성부 장관, 주한 필리핀 및 몽골 대사 등을 포함 3,000여 명의 내 · 외빈이 참석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이 어우러진 한바탕 신명 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건국60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행사는 '사회통합을 위한 다민족 참여 행사' 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민자 합동결혼식과 다민족 어울림 한마당으로 나뉘어 치러졌다. 이와 연계하여 전국 9개 다문화 사회통합 협력대학(ABT)에서 학계 관계자, 지역 명망인사, 시민,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한국형 이민정책 개발' , '사회통합정책방향' , '국적 및 난민제도 개선 등' 의 주제로 릴레이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전국 20개 ABT대학(Active Brain Tower)이 공동 추진했다. 국민과 이민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융화되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확인함은 물론 대립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아울러 다민족 · 다문화 포용을 통한 선진 일류국가 달성, 건국60년 재조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마련, 국민과 이민자가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조화로운 환경마련, 다민족 · 다문화 포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기획되었다.

2000년대 들어 외국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도 100만 명을 넘어섰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도 이제 서서히 느슨해지고 모두가 함께 행복을 영위하는 지구공동체의 일원이 돼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급속히 변화하는 생활환경 속에서 기획된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축제' 는 재한 외국인 및 귀화자 증가에 따른 우리 사회의 다민족 · 다문화 현상을 미래의 국가경쟁력으로 발전시키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건국이념(홍익인간)을 되새겨 새로운 60년 도약을 위한 '인간 사랑과 세계인 정신' 으로 재창조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뜻 깊은 행사였다.

이날 합동결혼식에는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등 13개 국가 출신의 배우자가 있는 다문화 가정 100쌍이 참석하였는데, 외국인 배우자의 현지 가족 31명도 참석하여 축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합동결혼식 - 아름다운 신랑신부 100쌍의 100년 서약

KBS 이기상 아나운서의 사회로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진행된 다문화 가정 합동결혼식에는 국제결혼자로서 국내에서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100쌍의 신혼부부가 초대되었다. 화사한 드레스와 정장 등으로 멋을 낸 신랑신부들은 해병대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 속에 가족과 친지들의 환영을 받으며 무대 앞으로 입장하였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주례사를 맡았으며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축사를, 주한 필리핀대사, 몽골대사 등 각국의 주요 외교관들이 공동주례자로 참여하여 합동결혼식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주례사에서 "건국60년의 역사는 역경과 시련, 영광과 희망이 교차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산업화 · 민주화를 일구어 낸 기적과 성공의 역사"라고 강조하면서, "국제화 시대는 '문화의 다양성' 이 국가 발전의 동력이므로 다문화 가정의 가족 모두 우리 사회의 성숙한 구성원이자 일꾼으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국무총리로서 다문화가족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정

주례사 중인 한승수 국무총리

책을 세심하게 챙겨나갈 것"과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서로 막힘없이 소통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열린사회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총리의 주례사가 끝난 후에는 결혼한 부부들이 행복하게 잘 살라는 의미의 '행복한 가정 선포식'이 진행되었다. 파란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주례와 신랑·신부가 함께 행복과 평화를 상징하는 모형 비둘기를 동시에 하늘로 날리는 장관을 연출하였다. 이어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25명)과 한국여성(10명) 등 35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어울림 여성합창단'이 다양한 외국 노래를 불러 흥을 돋우며 결혼식을 절정으로 이끌었다.

이날 결혼식에 참석한 국제결혼 부부들은 대부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생활하며 모범적으로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전북 고창군에 거주하는 필리핀 출신 아티나유다곡(여, 53세) 씨는 1999년 현재의 남편과 혼인하여 아들 둘을 낳아 기르던 중 2003년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지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양팽링(여, 30세) 씨는 2006년 현재의 남편과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이 하나 있으며, 시부모를 봉양하면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으로 이번 행사에 초청되었다.

합동결혼식 행사는 주례와의 기념촬영, 신랑신부 사랑의 행진, 축하오찬 등의 순서로 성공리에 마무리되었

합동결혼식 장면. 이날 결혼식에는 국제결혼자로서 국내에서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100쌍의 신혼부부가 초대되었다.

다. 결혼식에 참가한 다문화 가정 부부들은 감동과 기쁨으로 행사를 마련한 정부에 감사를 표시했으며, 주한 외교사절과 일반 VIP 등 참석자 다수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깊은 관심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문화 가정을 배려하는 정책을 펴줄 것을 주문하였다.

합동결혼식 행사는 예산상 혼수품, 신혼여행 등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고, 100쌍의 대규모 행사로 행사 추진 및 진행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으나 준비위원회의 세심한 행사진행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도우미들의 헌신적인 봉사 등으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만족하며 행사를 즐길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포용 의지가 표명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식후 행사, 어울림 한마당 및 축하 공연

합동결혼식 행사가 끝난 뒤 88잔디마당에선 내국인과 외국인이 어울린 한바탕 신명 나는 놀이판이 벌어졌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서는 2부 시작을 알리는 퓨전국악밴드 크래용 밴드(Crayon Band)의 신명나는 연주와 건강 에어로빅 체조, 참가자 전원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바로알기 OX퀴즈, 다민족 댄스 및 노래자랑 대회, 트롯가수 김지애와 신세대 아이돌 그룹 U-Kiss, 중국 동포가수 최연화 등이 참여한 연예인 축하 공연, 흥겨운 사물놀이 한 판의 행사가 이어져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 결혼식 대상자 출신 국적별 현황(총100명)
- 중국(34명), 베트남(26명), 필리핀(16명), 몽골(8명)
- 태국(5명), 캄보디아(3명), 방글라데시(2명), 파키스탄(1명)
- 인도네시아(1명), 우즈베키스탄(1명), 키르키즈스탄(1명)
- 에리트레아(1명), 몰도바(1명)

이와는 별도로 부대행사의 일환으로써 사돈국가 문화 홍보부스 운영, 사돈국가 음식체험부스 운영, 타 국가 전통의상 착용 사진모델 운영, 크로마키 포토존 운영, 어린이 페이스 페인팅 프로그램 등을 운용하여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는 결혼식 대상자 200명 이외에도 그들의 친인척 1,000여 명, 결혼이민자 및 가족 300명, 유학생 500명, 외국인근로자 200명, 정부요인 · 주한공관원 · 외국인지원 단체 200명, 시민 300명, 출입국 직원 등 500명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졌다.

파란 잔디 위에서 펼쳐진 2부의 한마당 행사는 작은 올림픽을 연상시켰다. 세계 각국의 다문화 가정 참여자들이 각자 아이들의 손을 잡고 댄스 경연을 하고 평소 갈고 닦은 노래 실력을 자랑하며 우정을 쌓고 서로의 실력을 겨루었다. 이어 국가별, 민족별 팀을 조직하여 전통 문화 경연대회가 펼쳐졌으며 한쪽에선 국가별, 민족별 음식을 직접 만들어 참가자들을 위한 무료 시식 체험 행사도 열렸다. 다양한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을 전시하고 직접 입어보는 체험코너는 특히 내국인들과 어린 아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지역별 연계 행사, 다민족 · 다문화 릴레이 포럼

합동결혼식 및 어울림 한마당 행사와 연계하여 전국 9개 ABT대학(다문화 사회통합 협력대학)에서는 각 대학별로 다양한 다민족 · 다문화 릴레이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들은 10월에서 11월 사이 대학 자체적으로 동의대, 계명대가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역과의 협력강화 방안〉을, 건양대와 우석대가 〈국가경쟁력 강화 및 유학생,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정책〉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는 등 동아대학교, 목원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성결대학교, 인하대학교 등이 대학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다민족 가정 등이 참석한 가운에 릴레이 포럼을 개최하였다.

| ABT대학 선정 내역 |

서울(4)	경기(3)	인천(1)	부산(2)	대구(1)	경북(1)	경남(1)
숙명여대 서울교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중부(성결재) 남부(평택대) 북부(신흥대)	인하대	동아대 동의대	계명대	영남대	진주교대
광주(1)	**전남(1)**	**전북(1)**	**대전(1)**	**충남(1)**	**충북(1)**	**강원(1)**
조선대	목포대	우석대	목원대	건양대	세명대	강원대

우리의 땅 두 발로 느껴
바른 역사 정립과 평화통일 기원 전국 달리기 대회

국학운동시민연합이 주최하는 '바른 역사 정립을 위한 전국 달리기' 대회가 지난 2008년 8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전국 각 21개 시 · 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건국60년의 경축을 전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펼쳐졌다. 또한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동력을 창출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이번 행사는 21개 각 지역을 거치면서 서울 행사 참가자 200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4만 8,900명이 참가하여 성대하게 치러졌다. 8월 4일 부산을 출발한 참가자들은 15일 서울을 일주한 뒤 행사를 마무리했다. 참가자들이 일주한 거리는 약 1,220km로 지역 단체장은 물론 학생과 군인, 일반시민, 공무원 등 남녀노소 구분 없이 무료로 참가했다.

전국 각 21개 시도에서 개최된 바른 역사 정립과 평화통일 기원 전국 달리기 대회 장면.

8월 4일 부산을 출발한 참가자들은 15일 서울을 일주한 뒤 행사를 마무리했다. 사진은 12일간 전국적으로 총 4만 8,900명이 참가한 행사 장면들.

건국60년의 의미를 전 세계에
재외동포 명예위원 초청

재외동포 자긍심 높여

재외동포 명예위원 초청 행사 장면. 이번 사업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008년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간 재외동포 명예위원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 건국60년의 이미지에 부합하며 내국민과 700만 동포사회 간 가교역할을 통해 범국민 · 민족적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재외동포 40여 명을 각 재외공관 추천을 통해 선발하여 건국60년 명예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건국60년을 맞이하여 성공 재외동포, 한인회장 등을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에서 초청하여 중앙경축행사를 범민족적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들은 8 · 15 중앙경축행사에 참석하여 위촉장을 전수받고, 산업현장을 둘러보는 한편 문화유적을 탐사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건국60년의 의미를 전 세계에 널리 홍보하게 된다. 명예위원들은 아래와 같은 7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6 · 25 전쟁에 참전한 재일민단 박병헌 고문 등 6명의 재일동포 학도의용군 출신 위원, 6 · 25 전쟁에 사단장과 육군 일등상사로 각각 참전한 미국의 김웅수 위원과 호주의 강영식 위원.

② 도산 안창호 선생, 서재필 박사, 송세호 선생, 3.1 독립지사 이규갑 선생 등 독립운동 지사들의 후손, 이승만 박사 숭모회 김창원(미국 하와이) 회장, 윤봉길, 이봉창 등 독립지사의 유골 봉환위원인 오기문(여, 96세) 재일한국인 부인회 고문.

③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의 작곡가 안병원 위원,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에 힘써온 박병선(여, 80세) 재불 역사학자.

④ 우간다, 스와질랜드 등 아프리카 오지에서 33년간 무의촌 의료봉사 활동을 펼쳐 한국의 슈바이처로 일컬어지고 있는 민병준 위원과 말라위에서 역시 의료봉사활동을 펴고 있는 백영심(여) 위원.

⑤ 미국 국립암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홍완기 위원, 장훈 재일동포 전 일본 프로야구선수, 페루의 국민적 배우영웅인 박만복 위원 등 외국의 각 분야에서 한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있는 인사.

⑥ 경제계 인사로서 미국 김범섭 퀄컴사 기술 부사장, 일본의 한녹춘 관광주식회사 회장, 최익웅 요시코토흥업 사장, 말레이시아 헤닉권사 회장 등.

⑦ 미국 정계에서 활약 중인 인사들, 다수 교민 거주 지역의 한인회장 등 지역사회 대표, 입양인 대표 등.

이들 외에 미국 맥아더 재단의 관계자와 흥남 철수시 피난민 구출 화물선 선장의 유가족과 선원, 그리고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도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메러디스 빅토리호 흥남철수 사건' 은 1950년 맥아더 장군의 흥남철수 명령에 따라 레너드 라루 선장과 47명의 선원들이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1만 4,000여 명의 피난민을 태우고 거제도로 탈출한 사건이다. 당시 식량, 의료진, 통역도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으며, 5명의 아기까지 태어난 기적 같은 탈출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당시 탈출기는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세계 기록' 으로 2004년 영국 기네스북 본부로부터 공식 인정받기도 했다.

그 밖에 외교통상부는 사할린, 중국, 중앙아시아 등 소외지역 재외동포와 파독광부, 간호사 등 산업화에 기여한 동포 110여 명도 초청해 건국60년의 의미를 공유토록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음은 물론 애국심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다. 그리고 한민족 네트워크 구성과 유대를 강화했으며, 동포사회는 물론 각 거주국에 대한민국 건국60년의 의미를 전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진 강군! 국민과 함께 미래로, 세계로
건국 및 건군60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하늘과 땅, 바다를 주름잡는 우리 군의 위용

건국 및 건군60년을 맞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잠실 주경기장과 테헤란로에서 열렸다. 제2창군을 다짐하는 선진강군 출정식의 의미를 담아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3부 요인과 이상희 국방부 장관, 김태영 합참의장, 임충빈 육군참모총장, 정옥근 해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들과 군 원로 및 참전용사, 시민 등 6만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5년 만에 펼쳐진 시가행진은 이번 행사의 꽃이었다. 거리에는 많은 국민들이 나와 환영을 해주었다. 군은 이번 행사를 위해 병력 4,400여 명, 첨단장비 17종, 116대를 지원하였다.

본행사에는 제병지휘관 김진훈 육군중장의 열병 보고와 사열, 국가유공자 증서 및 훈 · 표창 수여, 선진강군 출정식에 이어 깃발무와 북공연, 특전사의 고공강하와 태권도, 공중탈출 시범, 헬기 축하비행이 펼쳐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금부터 60년 전 창군을 선언한 그 날, 그 설렘과 감격을 그려보면서 오늘 온 국민과 더불어 건군60주년, 국군의 날을 경축합니다"라고 축하한 뒤, "우리 군은 세계최고 선진강군의 대열에 속한다고 자부해도 좋을 만큼 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 가 되어 선진 일류 국가 건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변하고, 미래 위협 요인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우리의 시대적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도 선진화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정부와 국

민 또한 선진 강군을 만드는 데 협조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하며 끝을 맺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념사를 낭독한 뒤, 군 통수권자 자격으로 도자기로 된 대형 북을 여섯 번 치면서 제2의 창군이라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선진강군 출정을 선포했다. 이 북은 2008년 7월 전적지 국토순례단이 모아온 흙과 물로 빚어서 만든 북이다.

이어 제병지휘부와 국군 군악대를 시작으로 광복군복을 비롯해 창군 당시부터 6 · 25전쟁, 베트남전, 해외파병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19개 종류의 군복을 입은 국군변천제대, 각군 사관학교, 특전사, 해병대, 보병부대, 기계화부대, 국군 의장대, 해군 특수전부대, 공군 혼성부대 등 도보부대의 분열이 이뤄졌다.

여군 특전대원들이 포함된 연합 고공 강하단 60명은 유난히 맑은 가을 서울 상공에 연막탄을 이용, 무지갯빛과 형형색색으로 수놓으면서 시민들의 환호 속에 잠실 주경기장 · 보조경기장 · 한강시민공원 등으로 사뿐히 내려앉는 강하시범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항공기편대를 선두로 최신예 F-15K, F-16K 등 전투기 6개 편대 28대의 전투기가 잠실 주경기장 상공을 선회하는 축하비행을 펼쳤고, 도보부대와 각 시기별 군복을 입은 '국군변천제대' 가 분열식을 가졌다.

항공기편대가 연막탄을 이용하여 축하비행을 하고 있다. 이날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항공기편대를 선두로 6개 편대 28대의 전투기가 잠실 주경기장 상공을 선회하는 축하비행이 연출됐다.

위풍당당한 건국 및 건군60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위 아래) 장면.

이명박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 자격으로 도자기로 된 대형 북을 치면서 제2의 창군이라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선진강군 출정을 선포하고 있다.

사관학교 분열식 연습 장면.

기념식 후에는 행사장 인근 삼성교에서 역삼역까지 3㎞ 구간에서 국산 지대공미사일 '천마'를 선두로 기계화부대의 시가행진이 펼쳐졌다. 천마의 뒤를 이어 국산 무기인 '비호', '신궁' 등을 비롯해 올해 독일에서 도입한 패트리엇 미사일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실전배치를 앞둔 차기보병장갑차(K21), 차기전차(XK2)를 비롯해 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각종 장갑차와 전차 등이 뒤를 이었다. 그리고 K- 55자주포와 신형 다연장로켓 MLRS, 사거리 180㎞ 이상의 지대지 미사일 '현무'와 함대함 미사일 '하푼', 사거리 270km의 공대지미사일(SLAM-ER) 등 각종 화력장비와 화생방 장비도 위용을 과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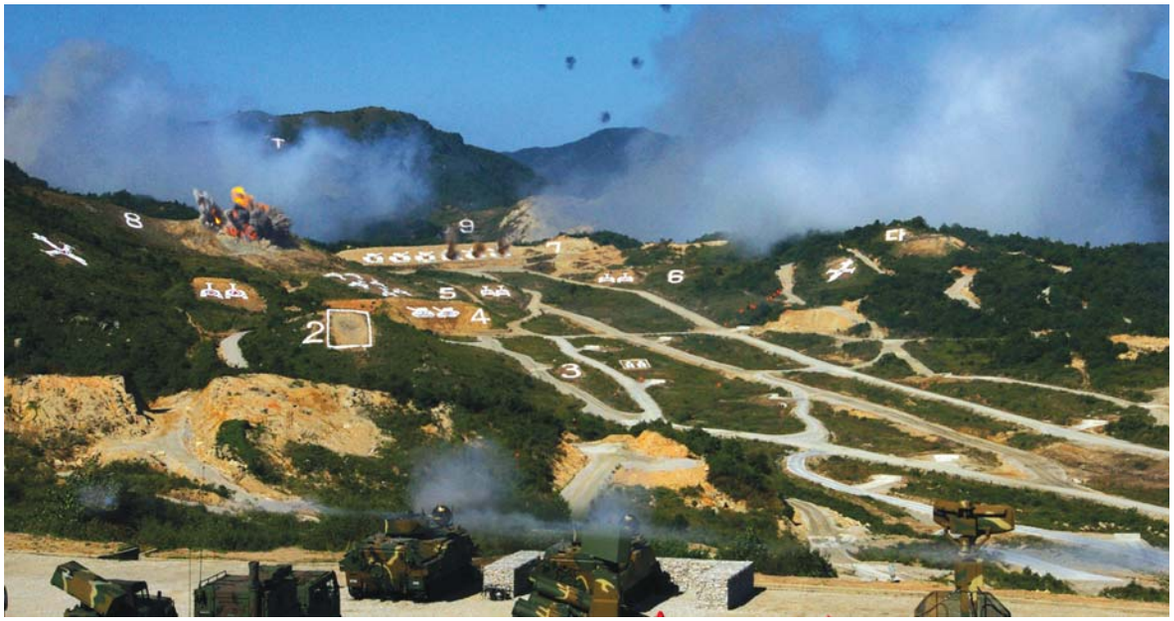
기계화부대 뒤로는 장병 340여 명으로 구성된 국군변천제대가 삼성역~선릉역의 2㎞ 구간을 뒤따라 행진하며 국군의 60년 역사를 조명했다. 국군변천제대는 독립운동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군의 성장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장병 340명이 광복군부터 국군창설, 한국전쟁, 베트남 참전, 해외파병 때 입었던 24종의 군복차림으로 행진했다. 이어서 14개 부대 1800여 장병으로 이뤄진 도보부대의 행진과 24대의 최신형 군용지프에 나눠 탄 군 원로 · 참전용사 · 순직 유가족 등 72명의 카퍼레이드를 끝으로 시가행진은 마무리됐다.

이번 시가행진은 1998년 이후 새 정부 출범 첫 해에 대규모로 행사여서 오랜만에 우리 국군의 행진을 본 국민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시가행진을 지켜봤다.

기념식 후, 행사장 인근 삼성교에서 역삼역까지 3㎞ 구간에서 기계화 부대의 선두로 시가행진이 펼쳐졌다.

합동화력운용 시범

건국60년과 함께 건군60년을 맞이하여 군의 발전된 전투수행체계인 '한국적 NCW[1)]' 체계하 정보화 · 과학화 · 첨단화된 정예군의 현대전 수행능력을 과시하는 대규모 화력시범을 실시하였다. 1998년 이후 10년 만에 실시된 이번 '합동화력운용 시범' 은 국민들에게 정보화, 첨단화된 강력한 군의 전투수행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완벽한 군사대비태세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우리 군에 대한 국민들의 확고한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V형 사격

합동화력운용 시범 참관 모습

목표탈취를 축하하는 대통령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정부 수립 및 건군60년을 맞아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한 '합동화력운용 시범' 은 종합예행연습부터 일반 관람객을 참관토록 하였고 본 시범은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 여 · 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3부 요인, 한 · 미 고위 관계자, 주한외교사절 및 무관 등 2,200여 명이 참관한 가운데 9월 26일 하오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중부전선 승진 훈련장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시범은 준비 단계부터 마칠 때까지 일반인 8,000여 명, 정부관료 1,400여 명, 군장병 2,900여 명 등 총 12,300여 명이 시범을 참관하였다.

장병 2,200여명의 병력과 250여점의 각

NCW(Network Central Warfare) : 신개념 전투수행체계인 네트워크 중심전

1
2 3

1. K-55 사격 파열 장면
2. TOT 사격 파열 장면
3. 적 전차 표적 파열 장면

종 장비가 참가한 이날 시범은 제1부 국군 홍보영상 시청, 제2부 NCW 체계 설명 및 화기별 위력사격, 제3부 NCW(네트워크 중심전)하 통합전투수행, 제4부 장비견학 순서로 진행되는 등 전반적인 행사를 스토리텔링(Story Telling)화 시켜 진행하였다.

제1부 '국군 홍보영상 시청' 에서는 한반도의 현 안보정세와 북한의 안보위협, 대한민국 및 국군의 60년사, 최첨단 방위산업 발전사, 대한강군의 위상과 미래상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제2부 'NCW 체계 설명 및 화기별 위력사격' 에서는 작전부대가 컴퓨터 네트워트상으로 탐지 · 결심 · 타격체계를 활용하여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여, 먼저 타격함으로써 적을 격멸시키는 신개념 전투수행체계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NCW 체계 하에서 운용되는 화기의 정밀사격 능력과 막강한 실제 위력을 과시하였다.

제3부 'NCW(네트워크 중심전)하 통합전투 수행' 에서는 네트워크 중심전하에서의 실제 전장 같은 화력과 기동에 의한 통합전투수행모습을 박진감 있게 소개하였으며 특히, 적 전차 킬러인 미군 A-10 전투기와 공격헬기 아파치의 위력적인 화력을 유감없이 보여 줌으로써 한 · 미 연합방위태세를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위는 500MD, **아래는** 비호사격

KF-16의 MK-20탄 사격

장비견학 현장

차기소총견학

제4부 '장비견학' 에서는 최신예 전차 '흑표' , 차기 보병 전투장갑차, 차기 보병 소총 등 국내 방위산업체에서 생산한 육군 장비 35종과 공군의 최첨단무기 체계 18종 등 총 53종의 각종 최신예 장비 및 무기종류 등을 과감하게 개방하여 군의 발전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홍보하였다.

합동화력운용 시범 훈련은 KBS, MBC, SBS, YTN, 국군방송 등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 보도와 네이버(Naver), 다음(Daum), 엠파스(Empas), 야후(Yahoo) 등 인터넷 포탈의 보도와 중앙 일간지, 국방일보 등에 게재되어 전 국민적인 홍보가 되었으며, 또한 KBS(무한지대 큐), EBS(사이언스플러스), 국군방송(합동화력운용 시범) 각 방송사에서는 합동화력운용 시범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다 심층깊게 방송하여 마니아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다양한 부대행사

한편 이날 저녁에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이 대통령과 군 원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군60주년 경축연이 열렸다.

육 · 해 · 공군 각급 부대도 건군60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이날 하루 동안 부대개방 행사 등 다양한 자축행사를 갖고 국민과 함께하는 강군의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합동화력시범, 국제관함식, 건군제60주년 특별전시회 및 뮤지컬, 지상군 페스티벌등 26개 행사가 국군의 날을 전후로 펼쳐졌다.

국군의 날 행사 제병지휘관 김진훈 육군 중장은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비롯한 군 원로와 제2연평해전 및 해외파병 전사자 유가족 대표, 낙도 어린이 등 32명의 국민대표를 초청, 국민사열대에 앉도록 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군의 지나온 60년을 회고하면서 새로운 60년을 맞이한 선진강군의 힘찬 거보(巨步)를 내딛는 국군 장병들의 다짐과 국민들이 건군 60돌을 축하하는 뜻 깊은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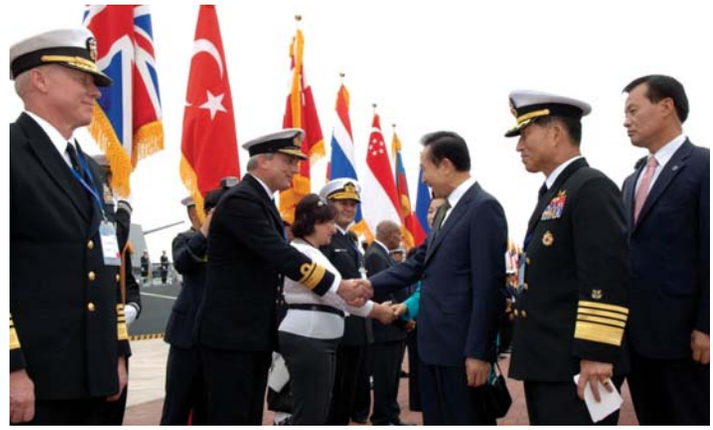
이처럼 이번 국군의 날 행사는 국난 극복과 국가발전 원동력 역할을 한 국군의 건군60주년을 국민이 축하 및 격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군의 위용을 과시함으로써 전쟁 억제 및 평화정착에 기여한 뜻 깊은 행사였다.

다시 태어난 대한민국 해군
200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모두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

〈2008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이 지난 2008년 10월 5일 일요일부터 10월 10일 금요일까지 부산 및 부산 인근 해상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해군이 건국 · 건군 60주년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등 국내 · 외 함정 50여 척과 항공기 30여 대가 참여해 열린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벌어진 세계 해군 축제였다. 이번 관함식은 지난 199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것으로 1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펼쳐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의 미국 측 참가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이번 관함식에는 미국 등 국내외 함정 50여 척과 항공기 30여 대가 참여했다.

해군참모총장 정옥근 대장은 환영사를 통해 "멋진 해양도시에서 해군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제관함식은 대한민국 건국과 건군 60주년을 기념하고, 세계의 해군이 하나가 되어 공동으로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는 축제의 한마당"이라고 선언했다. 이어서 "이번 국제관함식을 통해 대한민국을 더욱 잘 이해하고, 해양안보를 위해 상호 협력과 화합을 다질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 대한민국 해군은 미래 인류번영의 터전인 바다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국들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한민

부대 행사로 진행된 한국 해양방산전시회 개막식 장면.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국내외 방산 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국 국민들은 참전국들의 지원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여기에 보답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식 명칭이〈200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Repubic Of Korea Navy, International Fleet Review 2008)〉인 이번 관함식은 우리나라의 발전된 해군력을 대 · 내외에 알리고, 해양 안보협력과 우호 증진 및 방산수출을 목적으로 마련했다. 행사에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해군이 참여해 우리나라의 건국 · 건군 60주년을 축하해주었다.

부산 앞바다에서 실시된 관함식에는 미국의 항공모함과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해 12개국 함정 20여 척이 참가했다. 특히, 한국 해군은 2007년 국민적 관심 속에 진수한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과 대형 수송함 독도함 등 최신예 함정 30여 척도 함께 참가시켜 세계 각국의 함정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관함식과 함께 해군은 미국 등 24개국의 해군참모총장 또는 대표 장성이 참석하는〈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WPNS : 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을 개최하여 해양안보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이번 관함식의 주제어를 〈하나 되어 바다로, 세계로!〉로 정하고 모든 행사를 국민과 군, 그리고 세계 해군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7일에는 국내 · 외 초청인사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함식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 해상 사열식과

관함식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해상 사열식 모습.

부산 국제관함식에 참가한 미국 항공모함.

대함 및 대공 화력시범 등이 해운대 및 광안리 인근 해상에서 펼쳐져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7일부터 1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국내외 방산업체들이 참가한 '해양방산전시회' 가 열렸다.

8일 수요일에는 대한민국 해군이 주관하고 24개국 해군참모총장과 대표 장성이 참석하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이 개최되었고, 참가국 장병 및 시민들을 위한 '한국전통문화공연' 이 부산문화회관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9일 목요일에는 국내외 장병들이 '부산자갈치 축제' 에 참가해 시가행진을 펼쳤으며, 저녁에는 인기가수 등이 출연하는 '국군방송 특집공연' 도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열렸다.

이 밖에도 행사기간 중에 바다사진 전시회,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관함식 행사는 부산 시민의 날(10월 5일) 축제와 부산국제영화제 기간(10월 2일~9일)과 겹쳐져 최대의 문화행사가 되었다. 또한 행사 기간 중에는 '해양방산전시회' 를 통해 우리나라의 조선업과 방위산업에 직 · 간접적인 효과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관함식 경제 효과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를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 장병들은 모두 1만 1,000여 명 수준이었다고 한다. 10월 5일부터 9일까지 해군작전사령부 내에 설치된 1개 은행에서만 환전한 금액이 20만 4,200달러에 달했을 정도로 경제효과도 컸다. '해양 방산 전시회' 를 포함한 관함식 관련 행사의 직간접적 경제효과가 총 740억

관함식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 해상 사열식 장면들과 행사에 참여한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각국 해군 관계자들과 사진을 찍었다.

INTERNATIONAL
FLEET REVIEW
REPUBLIC OF KOREA NAVY

엠블럼 의미

- 파도 : 해군의 도전정신과 모험심 상징
- 교량 : 행사장소인 부산(광안대교) 상징
- "2008" : 행사 개최년도
- 색상(파란색) : 바다와 해군 이미지 표현

국제관함식 행사전경.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미 항공모함 1척을 포함한 항모전단이 부산에 입항해 지출하는 비용이 평균 6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군함 22척에 1만 1,000여 명의 외국 장병이 방문한 이번 관함식의 경우 함정의 주 · 부식 구입, 유류 등 군수지원 등에 사용된 비용을 포함해 최소한 1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관함식 기간 중 방산수출 성과도 눈부셨다.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국내외 11개국 151개 방산업체가 참가한 해양방산전시회에서는 총 323건, 7,600만 달러(약 988억 원/1,300원 환율 적용)의 계약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 효과를 떠나서라도 이번 국제관함식은 세계 각국 해군들과 우호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비약적으로 성장한 해군의 위상을 확인시켜준 성공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다.

해군의 완벽한 준비를 통해 치러진 이번 관함식 기간 중 총 6,000여 명의 민간인들이 해상사열 본행사와 예행연습을 참관했다. 여기에 함정 공개행사에도 3만여 명이 찾아 그야말로 국민과 해군이 하나 된 국민축제로 치러진 셈이다.

국제관함식을 통해 군사외교와 문화교류, 경제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얻었다. 1998년 국제관함식에는 참가하지 않았던 중국 · 러시아 함정이 이번에 참가한 것은 양국 관계가 좀 더 진전되고 한국 해군의 높아진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대표적 예라는 평가도 있었다. 또한 국제관함식은 외국 해군 장병들이 한국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한국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 주요행사 일정 |

일자	장소	주요행사	비고
10. 5(월)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시 용호동)	외국함정 입항 및 국내외 함정 공개행사	시민참여
		바다사진전시회(~10.10)	
	지정장소	부산시민의 날 행사 참가	시민/한국해군 장병
10. 6(월)	지정장소	참가국 장병 환영행사	초청인사
10. 7(화)	부산 해운대/광안리 인근해상	해상사열 / 훈련시범	시민참여
	부산 BEXCO	해양방산전시회(~10.10)	시민참여
		바다사진전시회(~10.10)	
10. 8(수)	부산, 진해, 울산, 경주 등	외국장병 산업시찰 및 문화탐방(~10.9)	외국 장병
	지정장소	친선행사(~10.9)	참가국 장명
	해군작전사령부	국 · 내외 함정 공개행사(~10.9)	시민참여
	부산문화회관	외국장병 한국 전통문화 공연 관람	시민참여
	해군작전사령부	외국함정 함상리셉션	초청인사
10. 9(목)	부산 광복로 일대	부산자갈치 축제 길놀이 행사 참가	시민/참가국 장병
10. 10(금)	해군작전사령부	외국함정 출항, 연합기회훈련	

3. 700만 해외동포 자긍심 고취 사업

지구촌 한민족이 하나로 어우러진 만남의 장
2008 세계한민족축전

살고 있는 곳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 한 민족

'2008 세계한민족축전' 이 전 세계 44개국에서 500명의 동포가 참가한 가운데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서울 및 경주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주최 · 주관하고 문화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아리랑 TV 등이 후원하였으며 건국6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세계한민족축전은 88서울올림픽을 기념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89년 창설한 이래 올해가 열여덟 번째 행사가 되며, 지금까지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1만 3,000여 명의 재외동포가 모국을 방문하였다. 세계한민족축전은 재외동포들에게 조국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한민족의 자긍심 고양과 해외 동포사회의 결속력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한민족축전은 재단법인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에서 행사를 치러왔으나, 1994년 한체위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통합되면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소관이 되었다. 행사 초기에는 초청형태로 참가했으나 현재는 항공료와 일부 자비부담 원칙으로 바뀌었다. 1995년부터 성인과 청소년으로 분리되어 축전이 개최되었으나 2001년부터 동시참가로 바뀌었다.

◉ 세계한민족축전 개최 연혁
- 1989. 9 제1회 세계한민족 체육대회 개최
- 1990. 9. 재단법인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 발족
- 1992. 8. 행사 명칭을 '체전' 에서 '축전' 으로 변경
- 1993. 7. '93세계한민족축전 청소년행사 개최
- 1994. 8.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한체위 통합(축전행사 이관)
- 1995. 8. '95세계한민족축전 개최(성인, 청소년축전 분리 결정)
- 2001. 9. '99세계한민족축전 개최(성인 · 청소년 동시참가로 변경)
- 2007. 9. '07세계한민족축전 개최(46개국 473여 명)

한민족 한마음을 위한 화합의 장 행사 장면

공연을 지켜보고 있는 참가자들.

세계한민족축전은 생활체육행사를 통한 국내외 동포들의 교류증진 및 유대강화와 이를 통한 한민족의 번영기원 및 남북화해 협력의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년의 세계한민족축전은 이러한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고국의 발전상과 향수를 체험할 수 있는 민속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한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특별 참가자로 해외 입양자들을 초청하여 진정한 세계한민족 축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9월 18일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행사 참석자들은 서울 워커힐 호텔에 여장을 풀고 숙소를 배정받는 등 등록 절차에 들어갔다. 저녁에는 워커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참가자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으며 한국 전통 음식으로 첫째 날 저녁을 들었다. 19일 오전에는 한강변 미사리잔디축구장에서 한민족 생활체육대회 행사가 열렸으며 저녁에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이강두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등 정부 · 체육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워커힐 호텔 가야금홀에서 환영 만찬이 이어졌다.

정부 · 체육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워커힐 호텔 가야금홀에서 개최된 환영 만찬(위)과 파주의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둘러보는 참가자들(아래).

방한 3일째인 20일에는 버스를 타고 단체로 파주의 오두산 통일전망대로 이동, 등산 및 통일기원 기념행사를 열었으며 오후에는 다시 호텔로 돌아와 한민족 건강세미나에 참가하는 일정이 이어졌다. 21일 오전에는 한국민속촌으로 이동하여 전통문화를(음식, 용품 만들기 등) 체험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불고기 정식으로 점식을 해결한 뒤 양화나루 선착장으로 이동, 양화나루에서 잠실까지 유람선을 타고 이동,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서울의 모습을 돌아보았다.

환송연 장면

민속 문화프로그램 통해 한민족 자긍심 일깨워

방한 5일째인 22일에는 버스를 타고 경북 문경으로 이동, 조령관문을 걸으며 문경새재 옛 길을 더듬었으며 전통세트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다시 버스를 타고 경주로 출발, 조선호텔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었다. 23일에는 본격적인 경주 답사가 이어졌다. 숙소에서 일찌감치 아침 식사를 마친 뒤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석굴암과 불국사를 돌아보고, 토속 한정식으로 점심을 해결한 뒤 경주국립박물관과 감포 문무대왕릉을 견학하며 옛 조상들의 발자취를 더듬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한국민속촌을 둘러보고 있는 참가자들.

건강세미나에 참석한 참가자들.

저녁에 열린 환송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여러분이 가슴 속에 태극기를 품고 있는 한 여러분은 고국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약진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알려 주십시오. 우리가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민족임을 세계에 일깨워 주십시오. 정부는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고국과 동포사회의 긴밀한 연대가 지속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고국을 찾은 재외 동포들을 격려하였다.

환송연 장면행사를 주최한 이강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만찬사를 통해 "재외동포 여러분이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력을 더욱 튼튼하게 키워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합니다. 각자의 터전으로 돌아가면,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축전의 규모를 키울 것이라는 말도 꼭 전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환송연이 진행되는 동안, 고국을 찾은 재외 동포들은 고국의 놀라운 발전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6박 7일간의 짧은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어릴 때 독일로 입양되었다가 뿌리를 찾아 고국에 온 김영애(38세: 출판기자) 씨를 비롯한 24명의 해외 입양자들은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발전된 조국의 현실을 두 눈으로 확인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기회가 되면 다시 한국에 들를 것을 약속하였다.

모두가 하나임을 확인한 뜻 깊은 행사의 장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변방이 아닌 세계로 뻗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국민소득 2만 달러시대를 열었으며, GDP 1조 달러, 수출액 4,000억 달러를 넘어선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다. 반도체산업과 인터넷 등 기술정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이며, 자동차산업과 선박산업 등 대한민국의 제품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다. 최근에는 베이징올림픽에서 종합 7위의 성적을 거둬 스포츠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눈부신 성과가 있기까지는, 해외에서 열렬히 성원해준 700만 재외동포들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재외 동포들은 비록 몸은 고국의 하늘을 떠나 있을 지언정 88서울올림픽 같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행사에는 성금을 기꺼이 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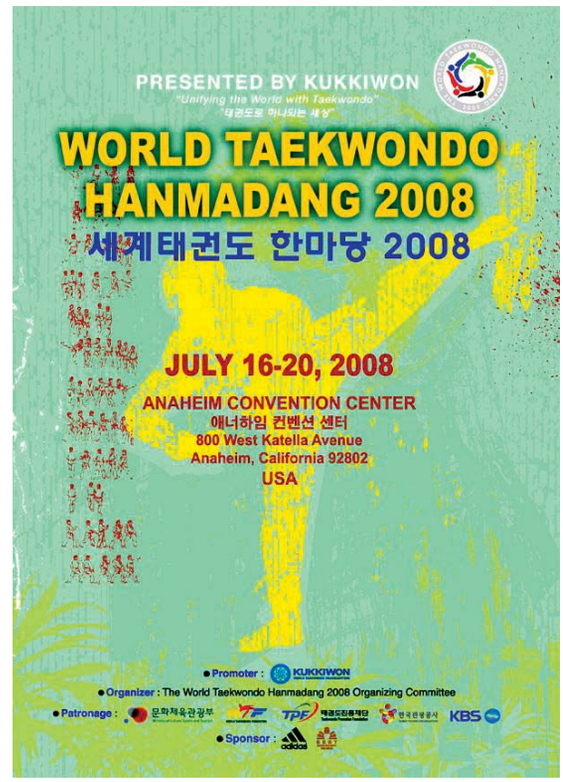
체육행사에 참석하여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는 재외동포들.

주었고, 외환위기 때에는 '금 모으기 운동' 에 동참해 주었으며 나라에 참사가 발생하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와 돕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세계 각국을 방문할 때면 이웃사촌을 맞이하듯이 따뜻하게 반겨 주었으니 그것은 바로 어쩔 수 없이 서로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핏줄의 정이었다.

세계한민족축전은 우리 겨레가 하나이며, 영원한 한 핏줄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사였다. 한국 땅을 찾은 동포들은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모국의 발전상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깊이 체험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그리하여 귀국할 때에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고국의 하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모국의 따뜻한 품에 기대어 고향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눈시울을 적셨다.

으라차차! 태권도, 태평양을 건너다
건국60년 기념 세계태권도 한마당 2008

건국6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국기원과 미국태권도연맹(U.S.T.F)이 공동주관한 '세계태권도한마당' 이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컨벤션센터(Anaheim Convention Center)에서 7월 16부터 20일까지 5일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에서 개최된 세계태권도한마당에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직업과 연령의 태권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며, 행사기간 중 약 8,000여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세계태권도한마당 기념 포스터.

세계태권도 한마당 2008은 국기원이 주최하고 The World Taekwondo Hanmadang 2008 Organizing Committee가 주관하였으며 USA Taekwondo, 캘리포니아태권도연합회, Adidas 등이 후원, LA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주)제우스포츠 등이 특별 후원하였다. 행사는 품새 경기, 격파, 시범, 호신술, 개인전 및 단체전으로 진행되었으며 미국 각 주를 포함한 한국, 일본, 중국, 이집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스페인, 덴마크, 독일, 스웨덴, 영국, 브라질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약 2000여 명의 태권도인들이 참가하였다.

세계태권도한마당은 그동안 한국에서만 진행되어 왔으나 건국60년을 맞아 해외 개최를 추진하던 중 미국태권도연맹의 유치신청을 받아들여 처음으로 해외나들이를 하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5일간의 열띤 축제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초등부, 청년부, 장년부, 여성부 등으로 나뉘어 품새와 격파, 태권체조, 호신술, 팀경연, 기록경기 등 그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각자 열심히 연마한 태권도의 다양한 기량을 보여주었다.

세계인의 태권축제, 세계태권도 한마당

2000년의 고유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무술 태권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 시범종목으로 소개된 이후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전통 무예로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올림픽은 겨루기 위주여서 태권도의 다양한 전통과 정신을 소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기원은 1992년부터 세계태권도 한마당을 개최, 격파와 개인 및 팀 대항 품새, 창작 품새, 종합 경연 등을 통한 태권도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세계 태권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정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2008년을 기점으로 17회를 맞은 세계태권도 한마당은 태권도를 연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 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부문의 경연을 통해 태권도의 무도정신과 기술을 습득하고 방어 기술과 신체 단련, 동작 등을 발전시키며 다른 사람들과 겨룰 수 있다. 매년 전 세계 50여 개국 600여 팀 이상의 태권도인들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대회이며 참가자들은 개인별, 팀 별로 미리 참가 신청을 해야 하며 전 세계 태권도 유품 · 유단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태권도 축제이다.

무도 축제이기 이전에 태권도 한마당은 나이와 성별에 제한되지 않고 가족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자신의 태권도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표현의 장이기도 하다. 상대 선수를 제압하는 것에 신경을 몰두하기 보다는 자신을 통제하고 극복하는 데 출전의 의미를 두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 한마당은 축제이자 무도 교육의 현장이다. 적을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기술 습득 차원을 넘어선, 정신을 연마하는 무도 본연의 도를 느끼는 현장인 셈이다.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의 개막식 장면. 행사기간 중 약 8,000여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위풍당당! LA를 뜨겁게 달구었던 5일간의 불꽃 함성

행사장에서 심사에 여념이 없는 심사위원들.

애너하임 컨벤션센터는 웨스트 카텔라 애비뉴 800번지, 로스앤젤레스 디즈니랜드 바로 옆에 있는, 사면이 유리로 장식된 아름다운 건물이며 LA 중심부에서 비교적 떨어져 있는 곳으로 디즈니랜드와 매우 가깝다. 세계태권도 한마당 2008대회는 컨벤션센터 안에 있는 실내 체육관에서 펼쳐졌다. 체육관 주변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로스엔젤레스 뮤지엄, LA 다저스 스타디움 등이 산재해 있으며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다.

행사는 유품자 부문(한마당경연 부문)과 유급자 부문(오픈경영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방식을 택했다. 즉 국기원 유품자는 한마당 부문에 참가하고 유급자는 오픈경영 부문에 참가하는 방식이었다. 이보다 앞선 15일에는 첫 공식행사로서 국제심판 보수교육이 있었다. 16일에는 참가자 등록확인, 국제심판 행사진행 리허설, 행사진행자 및 도우미 공식리허설,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대회 공식 행사준비를 최종 마무리했다.

드디어 본 행사의 날이 밝았다. 17일에는 오픈경영 부문에서 개인 품새와 Years Red, Blue, Green Belts 예선 및 결승전, 개인 격파와 Years Red, Blue, Green Belts 예선 및 결승전이, 한마당공연 부문에서 공인 품새(복식 :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중 · 장년부, 여성부) 예선, 종합격파(남녀 중고등부, 청년부, 여성부), 손날격파, 주먹격파, 발 격파, 연속 몸 돌려 후려차기, 창작 품새, 공인 품새(단체 :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중 · 장년부, 여성부) 등의 순서로 경연이 펼쳐졌으며, 체육관은 각국에서 파견된 참가자들과 그들을 응원하는 목소리, 또 참가자들이 내뿜는 기합소리로 들끓었다.

18일 오후 6시에 시작된 개막식에는 양국 국기 입장을 시작으로 양국 국가, 국민의례, 귀빈 소개 등으로 이어지며 본격적인 행사의 문을 열었다. 대회 관계자들은 축사를 통해 한국 태권도의 역사와 우수성, 무도로서의 태권도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KBS, SBS 등 해외 특파원과 미주 한국, 중앙일보 등 현지 동포 언론사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취재하였다. 개막식에 뒤이어 오픈경영부문의 개인 품새 12세 이상 전 체급 예선전 및 결승전이, 한마당경영 부문에서 공인 품새(복식: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중 · 장년부, 여성부) 예선, 종합격파(남녀 중고등부, 청년부, 여성부), 손날격파, 주먹격파, 발 격파, 연속 몸 돌려 후려차기, 창작 품새, 공인 품새(단체: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중 · 장년부, 여성부) 겨루기가 이어졌다.

19일에는 오픈경영 부문에서 개인 품새 예선 및 결승전이, 19세 이상 남녀 전 체급 경기, 개인격파 예선 및 결승전, 한마당경영 부문에서는 공인 품새(복식) 결승전이, 창작 품새 결승전, 손날격파 결승전, 공인 품새(단체)결승전, 주먹격파 결승전, 발 격파 결승전, 호신술 결승전 등이 차례로 열렸다. 특히 이날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은 저마다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관람객들 앞에서 유감없이 발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행사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한마당경연 부문의 팀 대항 종합경연 결승전, 몸 돌려 후려차기 중고등부 결승전, 높이 차기 중고등부 결승전, 시상식 및 폐회식 순서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결승전은 승자나 패자 모두가 하나로 어울려 진정한 무도 정신을 나눈 우정과 화합, 나눔의 장이었다. 승자는 패자를 격려했고 패자들은 더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아 다음 대회에서 멋진 모습으로 실력을 보여주리라 다짐하였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행사에 참석한 참가자들.
LA에서 열린 '세계태권도 한마당 2008' 행사는 처음으로 해외에서 행사가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태권도 한마당의 첫 해외 나들이, 아쉬움을 뒤로 하고

건국60년 기념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LA에서 열린 '세계태권도 한마당 2008' 행사는 처음으로 해외에서 행사가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세계태권도 한마당 2008' 행사는 미주 지역 한인들에게도 뜻 깊은 행사가 되었으며 미주 지역 태권도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LA한국문화원은 미국태권도연맹(이상철 회장)의 요청을 적극 수렴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연계, 한국의 4년제 정규대학 태권도학과 학생 56명을 초청하는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지원을 실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데 일조했다.

첫 해외 대회라 부족함도 많았지만 '세계태권도 한마당 2008' 행사는 여러 관계자들의 노력 속에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세계태권도 한마당 2008' 행사는 개최지를 해외로 확장함으로써 향후 미국 이외에도 유럽 및 남미,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서도 행사를 개최하여 태권도의 세계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또 경기 위주의 기존 대회와 달리 무도로서의 태권도의 본질을 해외에서 보여줌으로써 태권도 해외보급 방향에 큰 시사점을 제공한 점도 '세계태권도 한마당 2008' 이 남긴 큰 의미 가운데 하나이다.

세계 방방곡곡 한민족의 우수성을
건국60년 세계 한인의 날

달라진 세계 속 한인의 위상 확인

지난 2008년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서울에 위치한 그랜드힐튼 호텔 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제2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재외동포를 비롯하여 국내 인사 등 약 1,000여 명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세계한인의 날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700만 재외동포들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재외동포들에게는 모국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 제정되었다. 또한 이 행사를 통해 국내 국민은 물론 재외동포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양하는 것이 중요한 제정 목적이기도 하다. 특히, 2008년은 건국60년이 되는 해로 〈건국60년, 함께하는 세계한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여러 의미 있는 행사가 다채롭게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도착과 영접을 시작으로 1부 식전행사와 2부 공식행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식전행사를 알리는 사회자의 말에 따라 수묵화 퍼포먼스와 전통공연이 이어지면서 식장의 분위기를 달구기 시작했다. 이어서 주요 행사를 안내하고 참석한 국내인사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2부 공식행사는 내외 귀빈이 입장하고 개식선언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기념사와 축사가 있었다. 축사에 이어 세계한인의 날 홍보대사이자, 2008년 데뷔 40주년을 맞은 세계적인 첼리스트 정명화 씨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첼로의 은은한 울림은 행사에 참석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적셨다. 공연이 끝나고 건국60년을 알리는 주제영상이 5분간 방영되었다. 이어 세계 속에서 한인의 위상을 드높인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이 수여되었고, 치사와 폐회선언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기념식이 막을 내렸다.

세계 한인의 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비빔밥을 만드는 장면.

기념식이 끝나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관하는 재외동포 환영 리셉션이 같은 호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재외동포 약 800여 명은 자리를 옮겨 환영공연과 오찬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오전에 열린 기념식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최단 기간 내에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달성한 경이로운 나라로 국제사회에 인식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의 단합과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 장관은 "세계 방방곡곡에 뻗어나가 있는 우리 재외동포들을 우리 외교의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우리 한민족이 세계를 무대로 성장하고,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외동포들과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을 속 즐거움 나눌 수 있는 문화 공감대 마련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세계 한인의 날 행사에는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 컨베션홀에서 열린 기념식 전날인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곳곳에서 세미나와 UCC공모전, 사진공모전, 다큐멘터리 제작 및 TV방영,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세계한인회장대회, 코리안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되었다.

행사 첫째 날인 10월 1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재외동포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전남대학교 세계한상 · 문화연구단과 외교통상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는 〈재외동포와 모국 간 상호 교류협력 및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재외동포 사회의 교육과 문화에 관한 실태를 살펴보고 민족교육의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국내외 14명의 주제 발표자를 포함해 모두 50여 명의 재외동포 문제 전문가 및 디아스포라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김영웅 박사는 〈러시아 고려인의 한국역사 인식과 한 · 러 교육문화 교류방안〉을, 중국연변대 박금해 교수는 〈중국조선족 민족교육의 실태와 향후과제〉를 발표했다. 또 일본동양대 김태영 교수는 〈세계화 시대의 재일한인-디아스포라 정체성과 교육〉을, 고려대 김정숙 박사는 〈재외한인 민족교육 발전방안〉을 통해 재외동포사회의 현재를 조명했다.

재외동포사회와 모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경제교류 증진방안에 대해서는 중국 청도대 서영휘 교수의 〈대중투자 한국기업의 철수요인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고,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윤영권 원장은 〈재외동포를 활용한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경기대 김덕중 교수는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한국취업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우리가 껴안아야 할 고려인의 오늘과 내일을 진단했다. 전남대 이장섭 박사는 〈중국조선족 기업의 모국과 연계실태 및 네트워크 구축전망〉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다음날인 2일에는 기념식에 이어 재외동포 환영 리셉션이 그랜드힐튼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펼쳐졌다. 3일에는 개천절인 관계로 행사가 없었으며, 4일 토요일에는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어울림한마당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장 작 10시간 동안 열렸다. 이 행사에서 고국을 찾은 재외동포들과 내국인들이 함께 옛 추억을 떠올리며 가을의 운치를 느낄 수 있었다. 개그맨 김종석 씨의 진행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뮤지컬 '난타' 공연은 물론 가수 정수라 씨의 무대 등이 흥을 돋우었다.

또한 공연과 함께 '400인분 초대형 비빔밥 만들기' 이벤트가 열려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청사초롱에 소망의 메시지 매달기'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제공되어 한옥마을을 찾은 이들의 즐거움을 자아냈다.

특히, '추억마당'에서는 연 만들기, 탈 만들기, 떡메치기 등 '전통놀이 체험 마당'과 학교 교실, 단칸방, 만화가게, 음악다방 등 그 때 그 시절의 옛 풍경들이 재현되어 재외동포들과 내국인들 간의 화합과 공감의 장이 되었다. 이날 행사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었고, 모든 이들이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10월 초 주

사물놀이패의 공연 모습(위)과 세계 한인의 날 홍보대사이자, 2008년 데뷔 40주년을 맞은 세계적인 첼리스트 정명화 씨의 축하공연(아래).

말나들이를 즐겼다.

연일행사로는 일주일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사진전이 개최되어 행사 참가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부대행사도 열렸는데, 8일과 9일에 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IT강국의 이미지를 재외동포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역시 같은 기간 사진공모전을 열어 사진을 통해 변화한 대한민국의 오늘을 널리 알리는 역할도 담당했다. 10월 2일에는 다큐멘터리 제작 및 TV 방영이 있었다.

특히, 〈해외로 간 키다리 아저씨〉라는 다큐멘터리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외국에서 자신을 희생한 많은 한인들을 소개하였고, 세계로 나가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한인을 통해 세계에 우뚝 선 대한민국과 자랑스러운 한인들을 조명하였다.

세계 속 넓어지는 우리의 시장
제7차 세계한상대회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가는 파트너십

푸른 바다와 싱그러운 초가을 바람이 부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이자 국내 유일의 특별자치도인 제주에서 제7차 세계한상대회가 성대하게 치러졌다. 〈세계 속의 한상(韓商), 넓어지는 우리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08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재단, 제주특별자치도, 매일경제신문 · mbn이 주관하고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주최했다.

이 대회의 대회장은 승은호 동남아한상연합회 회장이 맡았으며, 공동대회장은 장석원 Korea IT Network 회장, 천용수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회장, 최종태 재일한국상공회의소 회장, 최태훈 중남미한상연합회 회장이 맡았다.

개막식에 앞서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제13차 한상대회 운영위원회가 삼다홀에서, 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이 한라홀에서 열렸고, 오후 12시부터는 2시간 동안 제주 하얏트 호텔에서 매일경제신문 · mbn 회장이 주최하는 오찬이 있었다. 그리고 2시부터 5시까지 제14차 리딩 CEO 포럼이 삼다홀에서, 그리고 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이 한라홀에서 각각 열렸다.

제7차 세계한상대회 개막식은 저녁 6시 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최하는 환영만찬과 함께 거행되었다. 개막식에는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덕룡 대통령국민통합특보, 장대환 매일경제 대표이사, 김태환 지사 등 많은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개막식에서 1993년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창설 당시 초대 이사장을 지냈던 한승수 국무총리가 치사를 낭독했다.

제7차 세계한상대회 행사장 전경. 이날 대회에서는 〈세계 속의 한상(韓商), 넓어지는 우리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동력이 국내외 동포들의 저력과 노력에 있었다며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이어 조국이 어려울 때 한상들이 힘을 모으고,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국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언급하며 이를 극복해내는 데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승수 총리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동력은 국내외 동포들의 저력과 노력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또 치사를 통해 "국내외 동포 기업인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가 될 때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해가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가 한상네트워크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인들에게도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는 한상네트워크가 재외동포사회와 모국을 이어주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와 함께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앞으로 새로운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과 FTA확대, ODA와 PKO 참여 확대 등을 통해 품격 있고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려 한다"며 700만 재외동포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튿날인 29일 오전에는 각 업종별 비즈니스 세미나가 열렸다. 삼다홀A에서는 섬유 세미나가, 한라홀B에서는 식품 세미나, 한라홀A에서는 IT 세미나가 진행됐다. 오후 2시부터는 섬유상담회와 외식 세미나 및 상담회, 식품 상담회, IT 상담회가 각각 열렸다. 저녁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주최하는 만찬이 탐라홀에서 있었다.

마지막날인 30일 오전에는 삼다홀B에서 해외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I , 한라홀A에서는 제주도 투자유치 설명회, 한라홀B에서는 영 비즈니스 리더 내부회의가 열렸다. 오후에는 역시 삼다홀B에서 해외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II , 한라홀A에서 해외취업 설명회, 삼다홀A에서 한상 CEO 멘토링이 개최되었다. 이를 끝으로 저녁 6시 탐라홀에서 폐막식과 더불어 한국무역협회 회장 주최 환송만찬이 벌어졌다.

3일간 이어진 대회 기간 중에는 상설프로그램도 운영되었는데, 이벤트홀과 1층 로비, 이어도플라자에서 기업전시회가 있었고, 3층 로비에서는 재외동포 민원상담이 이어졌다. 그리고 1층에 자리 잡은 기업IR관에서는 각 기업IR을 실시했다. 그리고 29일과 30일 이틀에 거쳐 컨벤션센터 201~203호실에서 기업들의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자리가 마련되어 많은 비즈니스맨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높은 경제효과도 기록해

이번에 열린 제7차 세계한상대회에 따른 제주도의 생산증대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회에는 35개국에서 모두 3,340명의 한상이 참가해 대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 국내외 378개 업체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기업전시회와 1대1 비즈니스 상담, 업종별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한 전체 상담은 2,293건, 5억 6,4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실제 계약이 체결된 실적은 247건에 5,900만 달러로 최종 집계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북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과 미국의 수입업체인 WIS인터내셔널 사이에 업무협약

상담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 장면(위)과 기업비즈니스전시회 전경(아래).

(MOU)이 맺어졌고, 중국 청도 한인상공회의소와 LA한인상공회의소, 한민족 IT네트워크(KIN)와 제주지식산업진흥원, 부산상공회의소와 버지니아주 한인상공인협회, LA한인상공회의소와 제주상공회의소 간 비즈니스 제휴도 이뤄졌다. 특히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은 WIS인터내셔널과 2008년부터 3년간 모두 550만 달러에 이르는 홍삼 관련 제품을 수출하기로 계약해 화제를 모았다.

이영현 캐나다 영리무역 회장은 "이번 대회 기업전시회에 참가한 국내기업 숫자만 378개에 달했다"며 "이처럼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고 한상대회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또 젊은 한상들의 해외 네트워크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브라질에서 온 이영관(46) 노다지전자 대표를 비롯한 젊은 사업가들이 '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 동창회'를 발족하는 등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영 비즈니스 리더들의 네트워크 강화의 장으로서도 이번 대회가 역할을 담당했다.

지자체들도 비즈니스 측면에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뒀다. 올해 대회를 유치한 제주도는 15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생겼다고 발표해 한상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개최지가 제주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참가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며 "이제는 한국의 기업들도 세계 진출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 한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한상대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상 달러 모으기 운동본부'를 만들어 외화통장 개설 운동을 시작한 한상대회 운영위원회는 연말까지 2,000만 달러를 국내 계좌로 송금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한상들은 세계 각지의 한인회와 함께 연말까지 '고국에 달러 보내기 운동', '외화통장 개설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29일 시작한 외화통장 개설 캠페인 결과 모두 106개 계좌에 2만 5,000달러가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환은행 제주지점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돼 있어 이번 행사 때 달러를 많이 소지한 분이 적었다"며 "비록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통장을 개설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가면 달러를 더 많이 보내겠다고 약속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처럼 세계한상대회 개최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는 대회 참가자들이 소비지출과 대회 준비 및 운영관련 투자 지출에 의한 지역경제파급효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간접적인 효과는 기업 전시회, 비즈니스 상담 등에 의한 투자 계약 실적 등이다.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참가자들은 1인당 평균 291만 6,360원, 국외 참가자는 1인당 평균 386만 3,340원을 소비했다고 한다.

비즈니스 부스. 이번 대회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뒀다. 올해 대회를 유치한 제주도는 15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생겼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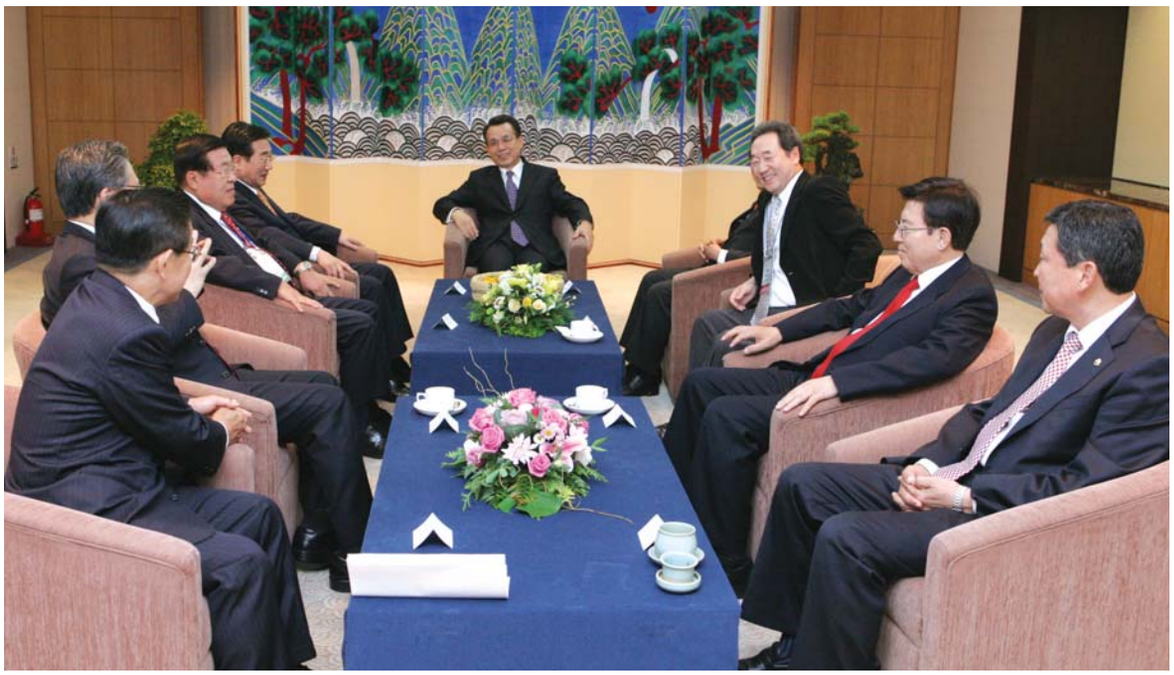
제주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외동포재단의 사업비 중 제주지역에서 소비된 사업비를 토대로 대회준비 및 운영관련 투자지출 규모는 15억 2,600만 원으로 재외동포재단은 숙박비 등을 포함해 총 7억 8,5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소임차료 등을 포함해 7억 4,100만 원을 지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계 한상대회로 인한 제주지역 내 총생산 증대효과는 물론 부가가치 증대효과는 91억 5,000만 원, 고용은 약 20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된 비즈니스 상담은 110건으로 52억의 규모로 진행됐다. 리딩 CEO 등 해외유력 한인사업가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된 투자 설명회에서 50만 달러 규모의 의료관광에 대한 투자 상담이 이뤄졌다.

세계한상대회 엠블렘

한상의 심볼 마크는 한글 글자꼴을 활용하여 역동적이며 상호 윈윈하는 흥겨운 비즈니스의 이미지를 한국적 이미지와 접목시켜 형상화한 것으로 힘차게 이어지는 듯한 라인과 원을 이루며 중심으로 모이는 형상은 세계 속의 한상과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시너지를 이루는 한상을 상징한다.

HANSANG



한승수 총리가 행사 귀빈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투자 유치에 열을 열리고 있는 장면(위)과 참가자들이 와인을 들고 건배를 제의하는 모습(아래).

한민족 공영을 위한 네트워크 확산
건국60년 기념 2008 세계한인회장대회

국경 없는 한인시대 열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10월. 전 세계 700만 동포를 대표하는 한인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08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62개국 433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개최됐다.

권영건 이사장을 대표로 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했으며 전 세계 112개국에 흩어져 있는 648개 한인회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차세대 교육은 물론 권익신장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는 동포사회의 중심적인 교류의 장이다.

교류를 통한 상생 방향 모색

2008년으로 아홉 번째를 맞는 세계한인회장대회는 〈건국60년, 함께하는 세계한인〉이란 슬로건 아래 한인회가 명실공이 한인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예년 대회보다 확대되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세계한인대회는 우리 국민이 거주하는 나라의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고 모국과의 유대 증진

2008 세계한인회장대회 행사 전경.
역대 최대 규모인 62개국 433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개최됐다.

| **대회 현황**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인원(명)	278명	213명	255명	294명	263명	216명	238명	337명	433명 국외 (383명) 국내 (50명)
국가수(개국)	47	48	48	46	48	43	51	54	62
시기	7.3~7.7	7.3~7.12	7.9~7.12	8.19~8.21	5.31~6.2	7.12~7.14	6.6~6.9	6.19~6.22	10.1~10.4
장소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 강원	서울 · 충남	서울
VIP 예방일자	7.4(화)	7.10(화)	7.10(수)	8.20(수)	6.1(화)	7.13(수)	6.7(수)	VIP 개회식 참석	–

| **지역별 참가자 현황**(단위: 명) |

구분	미국	일본	중국	CIS	캐나다	아주 · 대양주	중남미	유럽	아중동	계
2004년	109	48	30	14	5	24	9	17	7	263
2005년	74	47	31	6	6	22	5	20	5	216
2006년	86	44	24	16	5	28	7	21	7	238
2007년	117	55	55	14	11	36	6	29	14	337
2008년	157	46	53	16	16	40	11	33	11	383

※ 전 세계 한인회 수 : 112개국 648개(2005 외교부 통계)

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한인회의 상호 교류 및 공통의 관심사를 토론하고 미래 창조의 기반이 될 한인 네트워크 확대, 심화하는 것에 취지를 갖고 있다.

또한 이 대회는 한민족 공영을 위한 '한민족 공동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동포 사회와 모국과의 유대 증진에 기여하는 한인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자리다.

이번 대회는 건국6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일조하고 있는 한인회 역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동포사회와 모국과의 유대 증진에 기여하는 한인회', '국경 없는 시대 한인회의 효용가치', '전 세계 한인의 대표로서 한인회장에 대한 역할'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한인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국제적 교류 증가와 동포 수의 증가에 따라 한인회의 위상 강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8개 대륙별 한인회의 지역별 현안과 향후 발전방안이 분과회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집중 논의됐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과 참가자들의 다양한 모습들.

참가자들을 위한 국악공연 장면.

지역별 현안 토론과 리더십 특강 장면.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체회의, 주제별 토론, 정당별 정책포럼, 지역별 현안 토론과 리더십 특강, 한인회 모범 운영사례 발표, 한인의 날 기념식 등으로 이러졌다. 특히, '초청연사 강연' 에는 이어령 전 장관이 〈모국과 한인사회의 상생을 위한 미래 비전〉 에 대해 특강을 해 참석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재외동포재단 권영건 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인회가 동포사회와 모국과의 유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임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정진 재일민단중앙본부 단장과 승은호 아시아한인회연합회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았고, 김승리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김희철 재중국한국인회 회장, 이영수 중남미한인회연합회 회장, 정해명 대양주한인회연합회 회장, 박정길 아중동한인회연합회 회장, 김다현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 등이 의장단으로 활동했다.

지나간 과거 속에 천년 미래가 있다
건국60년 해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사 제대로 보기, 한국사검정능력시험

건국60년을 기념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국사편찬위원회와 중앙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미주 중앙일보(해외), 중앙일보 NIE연구소(국내)가 주관한 '건국60년 기념 해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이 2008년 9월 27일(토) 미주 6개 도시(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톤 D.C. 밴쿠버)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 미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은 재외 동포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림으로써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제고하고 캐나다, 미국에서 한국학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역시(歷試)' 라고 불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한국에서 지난 2006년부터 처음 실시됐으며, 시험 때마다 수만 명이 응시할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입시나 채용시험에서와 같이 동일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응시자의 학력수준이나 연령이 다양하게 퍼져 있는 점이 다른 시험과 달리 눈길을 끌고 있다. 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문제의 참신성으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기존 국사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단순 암기의 보편적인 문항보다는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접근 방법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이 특색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태평양을 건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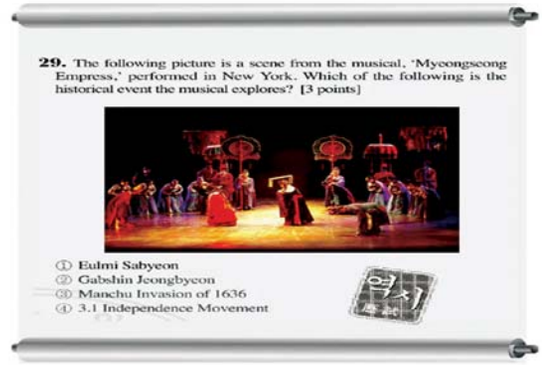
미주지역에서 처음 실시되는 한국사검정능력시험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국사편찬위원회 및 중앙일보 등과 사업 계획서를 교환하였다. 7월 8일 국사편찬위원화와 중앙일보는 해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류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시험은 초급과 중급 2종류로 실시되었으며, 문제는 객관식 35문항, 주관식 5문항,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미주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문제지는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되었다. 시험 내용은 한국사의 기본 지식, 한국의 문화 및 미주 이민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미주지역 거주 동포 및 외국인 모두에게 응시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또한 시험 전에 국사편찬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사 관련 콘텐츠를 국문 및 영문으로 제공했으며, 시험 응시자에게는 영문으로 된 〈한국의 역사와 문화〉라는 CD를 배부하여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다.

9월 27일 시행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장은 한인들의 '한국사 뿌리 찾기' 열기로 뜨거웠다. 이 시험은 세대를 뛰어 넘어 '한인 역사문화 축제' 로 거듭난 행사였다. 한국계가 아닌 현지인의 '한류 뿌리 찾기' 모습도 눈길을 끌었으며, 응시자들 중에는 교포 1세대 응시자가 많았다. 교포 1세대 이외에도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외국인들도 있었으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부터 로스앤젤레스까지 자동차로 7시간 이상을 달려온 동포도 있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미주에서 오랜 생활을 하면서 야기된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한국사 공부를 통해 풀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였으며, 이번 시험을 적극 반겼다.

교류협약서 체결식

시험장 풍경



29. The following picture is a scene from the musical, 'Myeongseong Empress,' performed in New York.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historical event the musical explores? [3 points]

① Eulmi Sabyeon
② Gabshin Jeongbyeon
③ Manchu Invasion of 1636
④ 3.1 Independence Movement

뮤지컬 명성황후를 활용한 시험문제

이렇듯 뜨거운 관심 속에 건국60년을 기념하여 미국에서 처음 치러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교민은 물론 외국인을 포함 1,132명이 응시하여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다. 한편 12월에는 시험 성적우수자 19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발전상과 문화를 체험하고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부에서는 해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재외동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국사 교재 개발을 준비하는 등 이를 지속적인 발전 모델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 서툰 젊은 세대를 배려한 한국사 교재 개발 시급

해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와 외국인에게 한국의 발전상을 바로 알리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동포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미국 UCLA 한국학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한국사 연구자 등을 참여케 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진흥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했으며, 향후 관련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새로운 과제도 안겨주었다. 시험에 응시한 1,132명 중 영어로 시험을 치른 이들은 34%에 해당하는 370여 명이었다. 이중 초급 시험을 치른 300여 명 중 영어 응시자가 76%에 달했다. 이는 한국어에 익숙하기 않아 한국사 공부가 쉽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많았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민 2, 3 세대들은 영어로 번역된 한국사 관련 서적이 부족하다며 한국사 공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해외 동포들의 눈높이에 맞게 현지 언어로 된 쉽고 재미있는 한국사 교재 개발이 시급하다는 점도 이번 행사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다.

성적우수자 모국 방문

건국60년 해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우수자 19명이 12월 17일부터 22일(4박 5일)까지 모국방문을 하였다. 19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상식을 마친 후 일행은 안동, 경주 지역 역사 문화 탐방을 하였다.

12월 20일 경북 안동에 위치한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은 온도 · 습도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되는 전동 창문 등 첨단 설비 속에 조선시대 목판 5만 8,000여 점이 보관된 곳이다.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이 '장판각' 에

한국국학진흥원의 장판각을 관람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

미주 교포 20여 명이 모여 관계자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9월 미국 · 캐나다 6개 도시에서 시행된 '역시(歷試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의 성적 우수자로 선정되어 고국을 찾은 이들이다. 한국말이 서툴러 영어로 시험을 치른 이민 2세, 20여 년 만에 고국을 찾는다는 교포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19일부터 21일까지 안동 · 경주 지역 역사문화 탐방에 나섰다.

임일빈(52 · 미국 뉴욕) 씨는 "국사 공부의 인기가 높지만 수강생의 절대 다수가 60대 이상의 노년층이다. 어린 학생들이 한국사의 기본 양식은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민 사회에서 세대 간의 문화 단절은 곧 역사의 단절이 돼 버린다. 지금이 한국어와 역사 · 문화 교육이 교민 사회에 뿌리내려야 할 결정적 시기라는 것이다. 문영주(40 · 미국 버지니아)씨는 "미국에도 한류 붐이 일면서 아이들이 한국 대중문화에 흥미를 많이 느끼고 있다"며 "한국의 역사 · 문화 교육이 교민 사회에 자연스레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사편찬위원회와 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하고 삼성전자와 GS칼텍스가 후원한 미주 역시는 첫 시험에서 1,100여 명이 응시해 교민 사회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내년에도 제2회 미주 역시가 예정돼 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韓國史能力檢定試驗)은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 ·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국사에 대해 폭넓고 올바른 지식을 공유하여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갖도록 하며 역사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6년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시험으로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 및 시행하고 있다. 시험은 연 2회 시행된다. 급수는 6급에서 1급까지 나뉘어 있으며 연령이나 직업 제한은 없다. 합격자에게는 인증서가 수여된다.

재외 청소년 한자리에
건국60년 재외동포 모국체험

모국사랑 드높여

전 세계 45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재외동포 청소년과 국내 거주하는 청소년 280명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간의 교류를 증대하고 모국을 이해하는 행사를 가져 관심을 끌었다.

건국60년을 기념하고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젊은 청소년들에게 모국을 방문하여 변화된 모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여 '재외동포 모국체험' 행사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8년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세계 한인 청소년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전통문화 체험, 농촌 체험, 유적 탐방, 단체 캠핑,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998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국내외 청소년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 '건국60년 기념사업' 중 하나로 꼽힌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살아가는 한민족 청소년들이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모국을 이해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그를 유지하고, 함께 민족유대감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주 82명을 비롯해 유럽 35명, 아주지역 37명, 아중동 13명, 러시아 권역의 13명, 새터민 10명을 포함한 국내 청소년 100명 등 15세에서 22세 사이에 이르는 총 280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민이나 입양 등 여러 원인

으로 재외동포가 된 이들 참가자들은 개개인의 처한 상황을 초월해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는 '한민족' 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그들끼리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함께했다.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째인 28일에는 산청, 안동, 완주, 공주, 이천, 안강, 제천, 철원 등 8개 지역으로 나뉘어 사물놀이, 탈춤, 판소리 등과 같은 한국 전통문화 체험과 농촌 일손 돕기, 전통요리 실습 등을 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다채로운 경험을 쌓았다.

29일 행사 3일째부터는 강원도 고성 송지호 오토캠핑장으로 장소를 옮겨 2박 3일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캠핑 기간 동안 재외동포 청소년들과 같은 또래의 국내 청소년들이 모두 함께 어울려 한국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에 대해 서로 토론하며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도 경험했다.

재외동포재단의 한 관계자는 "한인 청소년이 한민족의 자긍심과 뿌리의식을 가지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다" 면서 "국내외 한인 청소년 서로 간에 현 거주국 등의 환경 차이에서 오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는 교류의 장이 된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인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가 마련되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 행사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건국 이후 변화된 모국의 발전상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차세대 지도자 인적자원관리는 물론 서로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젊은 청소년들에게 모국을 방문하여 변화된 모국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재외동포 모국체험' 행사.

4.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호국 보훈 사업

그대들이여, 부디 편히 쉬소서!
제2연평해전 기념행사

조국을 위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자

지난 2008년 6월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해군 제2함대 사령부 내 충무동산 제2연평해전 전적비 앞에서 제6주년 제2연평해전 기념식이 열렸다. 이번 기념식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기념행사로 격상되어 진행되었다.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치러진 이날 기념식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제2연평해전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여야 정당대표 및 국회의원, 군인, 시민, 학생 등 약 1,500명이 참석했다.

전적비 앞에서 분향하고 있는 시민들.

〈조국을 위한 희생, 영원히 기억하자〉라는 메시지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조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희생자에 대한 묵념, 헌화 및 분향, 제2연평해전 경과보고, 기념사, 기념공연 등 순으로 30여 분간 진행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KBS 등 공중파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한승수 총리는 기념사에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하신 여섯 분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라며 "꽃다운 청춘을 바쳐 우리의 바다를 사수한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호국의 영웅들"이라고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이들을 기렸다.

해군 제2함대 사령부 내 충무동산 제2연평해전 전적비 앞에서 제6주년 제2연평해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한 총리는 또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그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제2연평해전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하기 위해 해군 장병들이 북한의 기습도발을 온 몸으로 막아낸 승리의 해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당시 해전의 의미를 올바로 평가하지도 못했고, 고귀한 희생을 제대로 기리지도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변한 추도 행사가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분향소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 한승수 총리.

또한 평택 시내 주요 도로변에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가로기를 게양하여 전사자들을 기렸고, 기념현판, 선전탑, 현수막 등 홍보물도 설치하여 일반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도 했다.

다시는 이런 희생 없을 것

이날 행사에는 2002년 교전 당시 부상을 입고 몸이 불편한 이희완 대위가 참석하여 연단에 서서 당시 전투 및 피해상황과 희생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경과보고를 하여 식장참석자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미국 매사추세츠 우스터시에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 연평해전 전사자 6명의 이름을 새긴 추모벽돌을 설치하는 데 기여한 매사추세츠 주 한국전 추모협회 회장 대니얼 브랜녹(Daniel J. Brennock) 씨 등 3명도 국가보훈처의 초청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축제의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일어났다.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경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 2척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우리 측 참수리 357호 고속정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선제 기습공격을 가해 남북한 해군 간에 30여 분간 치열한 교전이 이어졌다.

당시 교전으로 함장 윤영하 소령을 비롯하여 조타장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침몰하는 함정과 함께 했던 한상국 중사, 총탄과 파편에 쓰러지면서도 함포 방아쇠를 놓지 않았던 조천형 중사, 최후의 순간까지 20밀리 발칸포로 응사했던 황도현 중사, 갑판 위에서 전투를 벌이다 숨진 서후원 중사, 쓰러진 전우를 돌보다가 중상을 입고 끝내 숨을 거둔 박동혁 병장 등 6명이 전사하고 승무원 18명이 부상당했다.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이들은 흉상으로 되살아나 해군교육사령부와 해군사관학교에 안치되어 후배 장병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 및 부상한 분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희생정신을 정부와 국민이 잊지 않고 기억하며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와 국민통합을 통해 선진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전 국민과 함께 개최되었다. 이 기념행사를 위해 국방부와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유족 등과의 협의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준비가 이뤄졌다.

| 제2연평해전 관련 계기행사 |

행 사 명	행사일시	장 소	주 관
가유공자 및 유족초청 오찬 (제2연평해전 유족 및 부상자 포함)	6.4 (12:00)	청와대 영빈관	청와대
사이버 참배 · 추모관 설치 · 운영	6.20~6.30	사이버 공간(인터넷)	보훈처
전사자 천도법회	6.21	해군 제2함대사령부	해군 (2함대)
연평해전 관련 사진 전시회	6.29	해군 제2함대사령부(참수리호 주변)	보훈처
추모의 글 남기기	6.29	해군 제2함대사령부(참수리호 주변)	보훈처
전사자 유족 · 부상자 위로 격려 오찬	6.29 (12:00)	해군 제2함대사령부(독도함)	보훈처 (해군)
개별 생활실태 및 지원 필요사항 파악 (제2연평해전 국가유공자 및 유족)	6.25	전후관할 보훈(지)청	보훈처
함정 공개 행사 – 교전함(참수리 357호) 및 독도함	6.29 13:00~18:00	해군 제2함대사령부	해군 (2함대)
군 의장대 시범	6.29 13:00~18:00	해군 제2함대사령부	해군 (2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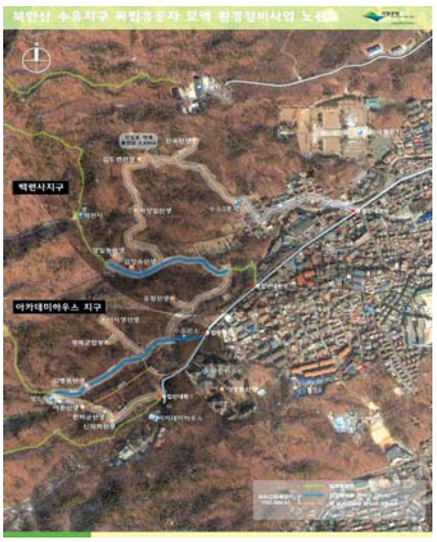
애국의 상징, 독립유공자 묘역 정비
북한산 수유지구 독립유공자 묘역 정화

숭고한 정신 기리고, 자긍심 높여

건국6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건국60년을 맞아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묘역 일대에 대한 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다.

북한산 수유지구 독립유공자 묘역에는 성재 이시형 선생과 일성 이준 열사 등 14분의 독립유공자 묘역이 산재되어 있으나 그 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축대 붕괴의 우려가 있었고 진입로가 훼손되고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했다.

2008년 5월 9일 정부에서는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환경부, 국가보훈처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건국6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수유지구 독립유공자 묘역의 환경 정비 사업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주관으로 예비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북한산 수유지구 독립유공자 묘역 환경정비사업 노선도.

북한산 수유지구 독립유공자 묘역 환경정비사업 완공식.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 5월 15일부터 사업대상지 현황조사, 유족의견수렴, 국가보훈처 북부보훈지청 합동 현지조사 및 생태전문가 자문을 거쳐 2008년 8월 29일 사업을 착공하여 2008년 11월 27일 완공하였다.

주요 사업추진내용은 북한산국립공원 수유지구에 산재된 14분의 독립유공자 묘소 연결로 약 3km를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된 포장을 철거한 후 새롭게 점토 블럭을 포설하고, 돌계단을 다시 설치하는 등 묘소 진입로 노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 성재 이시형 선생 묘역의 붕괴 우려가 있는 축대를 재축조 하였으며, 침식방지를 위해 광복군 합동묘역에 석축을 축조하였다.

또한 환경을 저해하는 펜스를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하였으며, 기존의 낡은 묘소 해설판을 철거하고 14개소를 새롭게 꾸미는 한편, 묘소안내 이정표 역시 28개소와 묘소 위치 종합안내판도 4개소도 세워 유공자 묘역 참배객이 손쉽게 묘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시영 선생 묘역 석축 정비 전(상)과 정비 후(하).

정부에서는 뜻 깊은 독립유공자 묘역 정비사업의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1월 27일 오후 4시 이만의 환경부 장관, 김양 국가보훈처장, 엄홍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일 광복회장 및 유족 대표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산 수유지구 독립유공자묘역 환경정비사업 완공식을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거행했다.

이번 정비사업으로 1912년 신흥무관학교를 창설하여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고 초대 부통령을 지낸 성재 이시영 선생과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을사조약의 무효와 일제의 침략 야욕을 규탄하다 순국한 일성 이준 열사 등 14분의 독립유공자 묘소의 진입로 등 묘역을 이번에 말끔히 정비함으로써 애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의 자긍심이 고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곳을 찾는 탐방객이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북한산 국립공원 애국선열 탐방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이준 선생 묘역 진입로 정비 전(상)과 정비 후(하)

신익희, 신하균 선생 묘역 진입로 정비 전(상)과 정비 후(하)

광복군 합동묘소 진입로 정비 전(상)과 정비 후(하)

서상일, 김도연 선생 묘소 진입로 정비 전(상)과 정비 후(하)

| 북한산국립공원 수유지구 독립유공자 현황 |

훈격	사진	성명	출생지(생존기간)	주요공적 및 경력	묘소 소재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김창숙	경북 성주 (1897~1962)	· 1905 매국5적 성토 상소, 옥고 · 1925 상해임시정부 의정원부의장 · 성균관대학 창립, 초대 학장	수유4동 산127-1
		신익희	경기 광주 (1892~1956)	· 상해임시정부 의정원 부의장 · 국민대 학장, 자유신문사 사장 · 제헌의원, 야당 대통령 후보	수유4동 산74-3
		이시영	서울 (1869~1953)	· 1911 만주 신흥무관학교 창설 · 1919 임시정부 법무총장, 의정원장 · 1948 초대 부통령	수유4동 산127-1
		이 준	함남 북청 (1859~1907)	· 독립협회 조직 항일투쟁 · 1907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고종 밀사로 참석, 일본반대로 자결 순국	수유4동 산127-1
건국훈장 대통령장		이명룡	평북 철산 (1873~1956)	· 동양척식회사의 한국인토지매입 반대 · 105인 사건으로 3년간 옥고 · 1919. 3. 1 독립운동 민족대표	수유4동 73-3
건국훈장 독립장		김병로	전북 순창 (1887~1964)	· 항일변호사단체 창설, 독립투사의 무료 변론을 맡아 무죄임을 투쟁 · 48~57 초대 대법원장	수유4동 산127-1
		신 숙	경기 가평 (1885~1967)	· 천도교 전파(상해), 농촌계몽운동 · 1931 한국독립군 참모장 · 1945 교포귀국 알선 등 권익보호	수유4동 산127-1
		유 림	경북 안동 (1894~1961)	· 부흥회, 자강회 조직 독립정신 고취 · 한중 항일군 조직, 5년간 옥고 · 상해임시정부 국무위원, 독립노동당 당수	수유4동 산127-3
		조병옥	충남 천안 (1894~1960)	· 신간회사건 등으로 5년간 옥고 · 미군정청 경무부장, 내무장관 · 민주당 창당, 야당 대통령 후보	수유5동 산127
건국훈장 애국장		김도연	경기 김포 (1867~1884)	· 1942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옥고 · 1960 민의원 부의장 · 1965 한일협정반대, 의원직 사퇴	수유4동 산127-1
		신하균	경기 광주 (1915~1975)	· 1923 상해 독립운동 가담 · 1941 광복군 총사령부 정위로 활동	수유4동 산74-3
건국훈장 애족장		서상일	대구 (1886~1962)	· 1909 대동청년단 조직, 독립운동 · 1958 제헌 국회의원 · 1960 사회대중당 창설	수유4동 산127-1
		양일동	전북 옥구 (1912~1980)	· 1935 임시정부 가담으로 옥고 · 5선의원, 통일당 당수	수유4동 산127-4
광복군 합동묘		광복군 17위	1967. 4. 27 조성	· 상해 임시정부 광복군으로 중국 각 지역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사 및 순국한 17위 합동묘	수유4동 산127-1
계			14기		

분단의 현장을 가다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마당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

통일부는 건국60년을 맞이하여 남북출입사무소 주관으로 남북분단과 교류협력의 관문인 남북출입시설 및 도라산 일대 현장을 활용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마당' 행사를 실시하였다. 새 정부의 분단 극복 노력과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상생과 공영의 남북 관계 발전을 목표로 한 이번 행사는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약 두 달 간 9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매 회당 전국의 학생과 교사 일반인 등 90명씩 도합 810여 명이 참가하였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도라산리에 있는 경의선의 최북단역인 도라산역은 서울에서 55.8㎞, 개성에서 14.2㎞, 평양에서 256㎞ 떨어져 있으며, 통일에의 염원이 깃든 상징적인 장소다.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끊어진 경의선을 잇기로 합의하고, 그해 9월 문산에서 개성 구간 연결공사를 시작했다. 남북이 해당지역 철로를 먼저 복원한 후 비무장지대 철로 공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도라산역은 2002년 4월 1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며, 임진강역까지 연결하는 4㎞ 구간이 같은 해 4월 완공되었다.

첫 행사가 열린 8월 13일에는 서울시내 개봉중, 광문고 학생 90여 명을 초청하여 분단의 현실과 현재의 남북관계 및 그 간의 통일노력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로, 철도 출입시설(경의선), 도라산 전망대, 판문점, 오두산 전망대 등 분단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북 분단의 현장을 몸소 관람한 학생들은 우리가 처한 역사적 분단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판문점에서 JSA경비병과 함께.

도라산역 국제선 플랫폼을 바라보며.

평화의 마을에서 전쟁의 상처를 씻는다
한 · 베트남 평화의 마을 건립

국가보훈처가 예산을 지원하는 '한국-베트남 평화의 마을' 이 2009년 베트남 광남성 푸닌군 탐단마을에 들어선다.

사업 당사자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베트남 광남성인민위원회는 2008년 5월 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 · 베트남 평화의 마을을 광남성 푸닌군 탐단마을에 조성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16일 건립부지에서 기공식을 갖고 2009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가보훈처가 18억 원을,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2억 원을 투입하여 총 2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며, 베트남 정부는 부지 제공 및 행정 지원, 조성 후 관리 및 운영을 맡게 된다.

한 · 베트남 평화의 마을은 베트남 광남성 푸닌군 탐단마을에 대지 32,000㎡(9,600평)에 건평 11,300㎡(3,400평) 규모로 조성된다.

주요시설은 직업교육, 의료간호, 생활클럽 시설 및 식당 등이며, 완공 후에는 베트남 중부지방과 광남성에서 베트남전쟁 당시 고엽제와 다이옥신 피해를 입은 80~100여 명의 상이군인 및 자손들의 의료지원은 물론 요양시설로 활용될 계획이다.

광남 다낭 등 베트남 중부지역은 베트남전 당시 가장 치열한 접전 지역으로 한국군이 가장 많이 투입되었던 곳이다. 그래서 고엽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곳이기도 하다. 광남성에만 약 3만여 명의 고엽제 피해자가 살고 있고, 지금까지 침출수 및 토양에서 고엽제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 또한 광남성은 베트남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으로 한 · 베 평화의 마을 조성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미래지향적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평화의 마을 조감도.

참전용사의 용기와 희생에 고마움을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행사

제8차 국제 한국전 참전 향군 연맹총회 개최에 맞춰 지난 2008년 6월 22일 일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5박 6일간에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행사가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보은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참전용사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폐허에서 우뚝 솟아난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고자 국가보훈처가 마련한 것이다.

또한 참전으로 맺어진 혈맹우호관계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번에 방한한 참전용사는 총 21명으로 회장단에는 남아공의 John E. Lello 예비역 준장(85세)과 George M. Gadd 예비역 대령(79세) 등 2명이며, 집행위원에 에티오피아의 Emlaelu Worade 예비역 대령(77세), 그리스의 Stylianos Drakos 예비역 소장(77세), 인도의 H. B. Singh 예비역 소장(82세), 뉴질랜드의 Laurence Leo. Stack(79세), 미국의 Louis T. Dechert 예비역 대령(77세, 댈러스 국제조사국장〈99~02〉) 등 5명, 그리고 각 회원국 대표 14명으로 구성되었다.

2008년 6월 22일 입국한 이들은 이튿날인 23일부터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23일 월요일에는 63빌딩 주피터홀에서 각국 대표 상견례를 시작으로 전쟁기념관 견학, 국무총리 예방(총리 공관), 보훈처장 주재 환영 만찬이 열렸다. 23일 총리 공관을 찾은 참석자들에게 한승수 국무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오늘의 한국은 UN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며 한국 국민은 여러분의 도움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다."면서 "참전용사 여러분이 그동안 연맹 활동을 통해 국제 사회에 한국을 알리고 또한 지지하는 데 앞장서 주었는데, 이제 한반도에 평화가 하루 속히 정착되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한 총리는 "연맹 활동은 아직 중단하지 말고 활동하면 좋겠다"며 "그런 활동이 더욱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24일에는 63빌딩 백제룸과 가야룸에서 각각 1차 회의 (7차 회의 검토 및 국별 활동 보고)와 (2차 회의- 안보지지 성명서 및 보도자료 발표), 그리고 한국 재향군인회장 주재 만찬이 개최되었다. 25일에는 다른 재방한 참전용사가 합류한 가운데 국립현충원 참배가 있었고, 장충체육관과 롯데호텔에서 6 · 25전쟁 58주년 기념식 및 6 · 25전쟁 리셉션에 참석했다. 26일에는 오전에 판문점을 견학하고 오후에는 캐피탈 호텔 가야룸에서 연맹회장 주재 환송 만찬이 펼쳐졌다. 5박 6일간의 공식일정을 마친 참석자들은 27일 출국했다.

국제한국전참전향군연맹 초청만찬에 참석한 귀빈들의 사진 촬영 장면.

국제한국전참전향군연맹 초청만찬.

| 6 · 25 참전국 현황 |

지원구분	참전국가	참전 현황		피해 현황					생존추정	재방한인원
		참전인원	참전규모	계	전사	부상	실종	포로	인원	(75년~)
전투 지원 (16)	미국	1,789,000	육 · 해 · 공군	137,250	36,940	92,134	3,737	4,439	520,119	14,950
	영국	56,000	육 · 해군	4,908	1,078	2,674	179	977	16,824	1,769
	캐나다	25,687	육 · 해 · 공군	1,557	312	1,212	1	32	8,001	2,159
	터키	14,936	육군	3,216	741	2,068	163	244	4,322	221
	호주	8,407	육 · 해 · 공군	1,584	339	1,216	3	26	2,467	1,045
	필리핀	7,420	육군	398	112	229	16	41	2,225	515
	태국	6,326	육 · 해 · 공군	1,273	129	1,139	5		1,886	565
	네덜란드	5,322	육 · 해군	768	120	645		3	1,584	419
	콜롬비아	5,100	육 · 해군	639	163	448		28	1,503	90
	그리스	4,992	육 · 공군	738	192	543		3	1,461	519
	뉴질랜드	3,794	육 · 해군	103	23	79	1		1,148	493
	에티오피아	3,518	육군	657	121	536			1,035	78
	벨기에	3,498	육군	440	99	336	4	1	1,036	409
	프랑스	3,421	육 · 해군	1,289	262	1,008	7	12	962	351
	남아공화국	826	공군	43	34			9	241	81
	룩셈부르크	83	육군	15	2	13			26	126
의료 지원 (5)	인도	627	야전병원						191	53
	노르웨이	623	이동외과병원	3	3				190	244
	덴마크	630	병원선						192	145
	스웨덴	160	적십자병원						53	208
	이태리	128	적십자병원						39	60
기타	스위스									116
계 : 21개 국		**1,940,498**		**154,881**	**40,670**	**104,280**	**4,116**	**5,815**	**565,505**	**24,616**

※ 생존 추정인원은 '07년 말 현재 / ※ 재방한 인원은 '08년 5월 말 현재(단위 : 명)

| 한국연맹단 명단 |

직책	성명	국가	비고
회 장	John E. Lello	남아공	준장(예), 85세
부 회 장	George M. Gadd	영국	대령(예), 79세
집행위원	Emlaelu Worade	에티오피아	대령(예), 77세
	Stylianos Drakos	그리스	소장(예), 77세
	H. B. Singh	인도	소장(예), 82세
	Laurence Leo. Stack	뉴질랜드	79세
	Louis T. Dechert	미국	대령(예), 77세 댈러스 국제조사국장(99~02)
회 원	Raymond Behr	벨기에	
	Victorino Azada	필리핀	준장(예), 82세
	Guillermo Rodriguez Guzman	콜롬비아	대령(예)
	Claus Jessen	덴마크	86세
	Patrick Beaudouin	프랑스	55세 현 하원의원, 쌩망데 시장
	Achille Ragazzoni	이탈리아	51세 이탈리아 참전협회장 아들
	박세직	대한민국	75세
	Gilbert H. Hauffels	룩셈부르크	76세 룩 · 한 친선협회 사무총장
	Leendert Comelis Shreuders	네덜란드	대령(예), 84세
	Ake J. Ek	스웨덴	83세, '71 문화훈장 수상
	Chaveng Youngcharoen	태국	대장(예), 88세
	Feridun Celenk	터키	대령(예), 82세
	John Jarrett	호주	76세
	Paul Rochon	캐나다	74세
	Nils Steen Egelin	노르웨이	소령(예), 82세
고 문	지갑종	유엔한국전 참전국협회장	
사무총장	정국본	재향군인회 국제협력실장, 소장(예)	
재무총장	박기원	재향군인회 국제부장, 대위(예)	
계	25명		

독립유공자를 추앙하는 기념사업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지역문화 축제화

대한민국 건국60년을 맞이하여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기념사업이 광복절을 전후하여 주요 현충시설과 출신지역 등 각 지역별로 문화축제와 연계하여 12월까지 개최되었다.

국가보훈처(처장 김양)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주도하신 한용운 선생 등 독립유공자 기념사업이 지역문화축제로 개최됨으로써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이 함양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16개 행사를 건국60년 기념사업으로 선정하여 예비비 등 1억 1,100만 원을 지원한 것이다.

주요행사로는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만해 한용운 선생을 기리기 위한 '만해제(9월 26일)'와 심훈(본명 심대섭) 선생을 기리기 위한 '상록문화제(10월 6일)',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여 우리민족의 위상을 떨친 '김좌진장군 청산리전투 전승기념축제(10월 24일)' 등의 지역문화축제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건국60년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기념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서대문형무소 100주년 특별전시회(8월 12일)', '부산지역 나라사랑 자전거투어(8월 9일부터 12일까지)' 등 서울 · 부산 · 전남 · 강원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광복절 계기행사 개최 · 지원 및 여성의병인 '윤희순여사 기념행사(9월 2일)'와 경북 영양 출신으로 구한말 을미의병을 일으켜 항전한 의병장 '벽산 김도현선생 추모행사(8월 14일)' 등 독립유공자 기념사업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였다.

| 건국60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지원현황 |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	행사내용
건국60년 기념 이육사 문학축전 ※이원록(애국장)	2008. 7.26~ 7.28	이육사 문학관 등	한국예총 안동지부	· 개막식, 백일장, 시낭송 대회 · 문화기행캠프 등
건국60년 기념 제5회 소안항일문화축제	8.30~ 8.31	완도군 일원	소안 배달청년회	· 문명퇴치, 항일결사조직 구성 등 항일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모제 · 송내호지사(애족장)배 마라톤대회 · 공연, 면민한마당축제, 체험행사 등
건국60년 기념 제14회 만해제 ※한용운(대한민국장)	9.26~ 10.5	홍성군 일원	홍성문화원	· 만해 추모다례 및 기념식 · 만해문학의 밤, 만해 백일장 · 만해를 찾아서, 추모 소공연 등
건국60년 기념 창의 113주년 제천의병제	9.26~ 9.27	자양영당, 문화회관 등	제천시축제 추진위원회	· 추모제, 학술세미나, 전시 · 공연 · 경연 · 체험행사 및 기타행사 등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	행사내용
건국60년 기념 제32회 상록문화제 청소년축제 ※심대섭(애국장)	10.6~ 10.12	당진군 일원	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	· 미술, 문인화, 사진, 서예전시회 · 글짓기대회, 미술잔치, 서예잔치 · 상록수와 함께하는 청소년 축제
건국60년 나라사랑 김좌진장군 청산리 전투 전승기념축제 ※김좌진(대한민국장)	10.24~ 10.25	장군생가 등	백야축제 추진위원회 등	· 전야제(풍물한마당 등) · 제향, 장군진행렬, 개막식, 공연, 읍면체육대회 등 · 6 · 25바로알리기 등 부대행사
건국60년 기념 제13회 단재문화예술제전 ※신재호(대통령장)	12.5~ 12.14	단재사당, 청주예술의 전당 등	문화예술제전 추진위원회	· 단재문화예술제전 개막식 · 탄신 128주년 마을잔치, 학술회의 · 단재역사퀴즈대회, 사적답사 등
건국60년 기념 벽산 김도현선생 추모행사 ※김도현(독립장)	8.14 11:00	영덕 영해 대진리 도해단광장	벽산김도현 선생숭모사업회	· 추모제향 · 도해단 제6집 책자발간
건국60년 기념 최초의 여성의병 윤희순여사 기념행사 ※윤희순(애족장)	9.2~ 9.28	국립춘천 박물관, 독립운동 사적지 등	강원도 여성협희회 등	· 항일운동사료 및 유적 사진전 · 미술전시회 · 윤희순 기념 한마당 · 윤희순 유적지 체험답사
건국60년 기념 김한종의사 순국 추모행사 ※김한종(독립장)	10.24	예산문예회관 사적지 등	예산모현 사업회	· 순국선열추모 웅변/글짓기 대회 · 광복사 추모제향 및 문화행사 · 김한종의사 순국 추모음악회
독립유공자 추모제	11월초	추모비 (동두천)	독립유공자 추모사업회	· 동두천 출신 독립유공자 27위 구국영령 추모제
건국60년 및 광복63주년 기념 "광복을 넘어 통일로"	8.9 19:00	강릉시 교통택지	YMCA 등	· 개회식 · 통일한마당, 골든벨을 울려라 · 광복절 제대로 즐기기 체험행사
건국60년 기념 나라사랑 자전거투어	8.9~ 8.10	부산시 일원	광복회 부산시지부	· 부산시내 자전거투어, 도서기증행사 · 자전거 퍼포먼스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	행사내용
건국60년 및 광복63주년 기념 서대문형무소 100년 그 기록과 역사	8.12~ 연중	서대문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	· 서대문형무소 100년간의 기록 전시 · 수감 독립유공자 자료, 생활상 전시 · 전시도록, 리플렛 제작 배부 등
건국60년 및 광복63주년 기념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서대문형무소 기획전	8.4~ 8.23	광주, 해남, 광양 등	광주 · 전남 백범김구선생 기념사업협회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도, 활약상 등 임시정부 재조명 · 광주, 해남, 광양 지역 순회 전시회 개최
건국60년 및 광복63주년 기념 도약하라, 대한민국이여! 광주여!	8.8~ 8.15	광주광역시 일원	광주국학원	· 도약하는 광주, 광주주간 선포식 · 바른역사정립과 평화통일기원 달리기 대회 · 태극기 몹 행사 · 광복 그러나 독도를 노리는 일본 사진전 등
16개 행사				

역사의 산실로 거듭나는 정부수반 유적
역대 정부수반 유적 종합 보전 · 관리

역사교육의 공간으로 재조명

서울시는 건국60년을 맞아 문화재급 역대 정부수반 유적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현대 헌정사의 발전과정을 집중적으로 재조명하고 국가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사업은 2008년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내용을 보면 제도적으로 보존이 어려운 유적들에 대해서는 국가사적 승격은 물론 문화재로 등록할 방침이다. 또 초대정부 조각 본부가 구성된 '이화장' 의 국가사적 승격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멸실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박정희 가옥' 과 '최규하 가옥' 등을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2008년 하반기 전에 정밀 사료조사를 통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전면 재평가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역사적 위상에 걸맞게 제도적 영구 보존체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2008년 하반기부터 2013년까지 훼손 유적들에 대해 연차 원형복원과 시대별로 특성화된 역사 교육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원방향은 유적지를 통해 지나간 시대를 반추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적 미래를 그리는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먼저 '경교장' 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김구 주석 거주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로 복원할 예정이고,

| 유적 현황 및 보존실태 |

유적명		위치	소유자	보존실태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경교장**(국가 사적 465호)		종로구 평동 108-1	삼성생명	·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이나 강북삼성병원으로 사용되며 훼손
초대정부 조각 본부 **이화장** (서울시 기념물 6호)		종로구 이화동 1	이인수 (子)	· 초대정부 조각組閣 이루어진 국가적 유적이나 문화재적 가치 저평가됨 · 조각정 · 안채 제외하고 원형 훼손, 유품 보존 상태 열악
장면 가옥 (국가 등록문화재 357호)		종로구 명륜동 36-1	종로구	· 4 · 19의 역사적 현장이나 멸실 위기에 있어 '07년 매입(현재 공가空家)
윤보선 가옥 (국가 사적 438호)		종로구 안국동 5	윤상구 (子)	· 후손에 의해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으나 별채 등 일부 복원 미진하고, 일반에 비공개
박정희 가옥 (등록 예고)		중구 신당동 62-43	육영수여사 기념사업회	· 박 전 대통령이 5 · 16 당시 거주하던 역사의 현장이나 문화재로 미등록
최규하 가옥 (등록 예고)		마포구 서교동 467-5	최윤홍 등 (子)	· 1980년 당시 유적으로 서거 이후 건물과 유품이 그대로 보존 · 유족에 의한 관리가 곤란한 상태

'이화장' 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승만 초대정부 조각 본부 구성 당시 모습으로 복원할 것이라고 한다. '장면 가옥' 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그리고 '윤보선 가옥' 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4 · 19 혁명 전후 시기 모습으로 복원할 예정이다. '박정희 가옥' 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복원하여 5 · 16 군사쿠데타 전후 시기의 정치 생활상 조명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규하 가옥' 은 암울했던 1980년대 전후시기를 조망하는 전시공간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조성할 것이라고 한다.

유적지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고려해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주변 명소와 연계한 〈정부수반 유적 투어 코스〉도 신설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이다.

| 국가 사적 승격 · 문화재 등록 추진 |

2008년	5월 2일	〈역대 정부수반 유적 종합적 보존 · 관리계획〉 수립(서울시)
	5월~6월	정밀 사료조사(서울시)
	7월 2일	서울시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5인) 합동 조사(서울시)
	7월 25일	이화장 사적 신청, 박정희 · 최규하 가옥 등록 신청(서울시)
	7월 30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등록 심의
	8월 7일	박정희 · 최규하 가옥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문화재청)
	10월 10일	박정희 · 최규하 가옥 등록문화재 등록 고시(문화재청)
	10월 13일	이화장 문화재청 사적분과 위원 조사(문화재청)

| 유적 원형 복원 및 역사교육 공간 조성 |

2008년	8월 22일	장면 가옥 보존 · 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서울시)
	9월~12월	장면 가옥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 보수(종로구)
	4월~8월	경교장 복원 협의(시 · 삼성생명 · 강북삼성병원)
	9월 5일	경교장 복원범위 확대 의사 표명(삼성생명 ⇒서울시)

| 정부수반유적 투어 코스 신설 및 유적에 대한 접근성 개선 |

2008년	8월~11월	'08.8.15/8.30/9.27/10.25/11.8 전문가와 함께 정부수반 유적 시민 탐방 실시(총 5회 231명 참가)
	8월 18일	접근성 개선 종합 실행 계획 수립(서울시)
	8월 28일	대로변 도보관광안내도에 유적 위치 표시(서울시)
	9월 11일	지하철역 접근성 개선 조치 요청 (서울시 ⇒ 서울 메트로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10월 24일	버스 정류장명(총 146개 노선)에 유적명 병기 및 하차 시 안내방송 실시(서울시)

향후계획

| 국가 사적 승격 · 문화재 등록 추진 |

2009년	2월 20일	이화장 사적 지정을 위한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심의

| 유적 원형 복원 및 역사교육 공간 조성 |

2009년~2013년	장면 가옥 · 경교장 · 이화장 등 연차 복원(서울시)

| 정부수반유적 탐방 코스 운영 및 유적에 대한 접근성 개선 |

2009년	3월~11월	정부수반 출입구명, 역 구내 주변안내도에 유적 위치 표시
2009년 2월~2009년 12월		도로유도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서울시)

5. 대한민국 건국60년 학술적 의미 고찰 사업

역사를 바로 보면 바른 미래가 보인다
건국기념역사관 설치

개관식 장면

대한민국 건국60년을 기념하는 역사 · 문화의 공간인 '건국기념역사관' 이 문을 열었다. 지난 12월 11일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관에 개관한 건국기념역사관은 국사편찬위원회가 그동안 수집한 사료를 기반으로 지난 60년간의 역사적 성과를 국민과 공감할 수 있도록 꾸미는 데 역점을 두었다.

개관식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김진현 대한민국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김정배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김영식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원장, 여인국 과천시장, 김우림 서울역사박물관 관장 등 다수의 내 · 외빈이 참석, 개관식의 의미를 더했다.

건국기념역사관은 대한민국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예산 지원을 받아 사료관 2층 566.67㎡(171평)의 공간에 대한민국실, 전통역사실, 자료전시실, 역사체험실 등 총 4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었다. 대한민국실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경제 발전 과정 등을 보여주는 연표자료 및 신문기사와 사진이, 전통역사실에는 조선시대 사관들의 실록 편찬 과정을 재현한 모형이 전시됐다. 자료전시실은 조선시대 과거(科擧) 및 공신 관련 귀중자료와 함께 개항을 둘러싼 유생들의 상소문과 국내외 수집문서를, 역사체험실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풀이, 대한뉴스 듣기 등 관람객이 직접 체험을 해보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개관식에 참석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젊은 세대들이 제대로 알고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제야말로 지난 60년 역사를 바로 보아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이룩한 성공의 역사, 창조의 역사, 희망의 역사를 더욱 드높여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건국기념역사관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자랑과 희망의 전당이 될 것이라며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국사편찬의 전통과 민족문화 창달, 그리고 올바른 역사교육에 더욱 힘써 나가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4개의 테마 전시실

건국기념역사관은 총 4개의 테마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실은 2층 상설 전시장의 상징성을 갖는 공간으로서 '위대한 민족, 기적의 역사' 를 주제로 역사와 기록이라는 의미 해석에 주력하였다. 공간 구성은 크게 대한민국 건국 전과 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일제의 항복문서 조인식 장면과 도시와 농촌, 해외에서 환호하며 광복의 기쁨을 나누는 국민들의 모습을 시작으로 미군정 당시 공보부에서 내건 전기절약('불이 또 나간다! 지금 전기를 절약하지 않이 하면 나중에는 아조 없어진다') 포스터를 비롯한 각종 사회계몽 캠페인과 국제대회에 우승한 선수단 축하 포스터, 5 · 10총선거 투표 현장 사진 등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 이전의 사회상을 사진 패널로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60년의 역사를 '건국, 6 · 25전쟁, 경제개발의 첫 삽, 고도성장과 한강의 기적, 민주주의 발전, 세계화와 새로운 세대의 등장, 21세기를 향하여' 등으로 시대를 나누어 80여 컷의 주요 사진 자료를 전시하고, 유엔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 관련자료, 이승만 대통령 서한철, 한일회담 회의록, 미 함정 프에블로호 사건, 광부와 간호사 독일파견자료 등 해외 각국 문서보관소에서 수집한 문서자료도 사진자료와 함께 전시하였다.

그리고 50년대 규장각 사서였던 백린 선생과 70년대 문화재 복원과 발굴 정책의 실무를 담당했던 정재훈 선생 등으로부터 문화재 보존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는 구술사 코너가 마련되었다. 끝으로 60년간의 경제 발전 모습을 비주얼적 효과로 극대화시킨 '영상으로 보는 대한민국' 을 통해 세계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고자 하였다.

건국기념역사관 전시관 전경. 사료관 2층 566.67㎡(171평)의 공간에 대한민국실, 전통역사실, 자료전시실, 역사체험실 등 총 4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실역사실 – 실록청 모형

전통역사실은 472년간의 객관적 역사기록인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개관을 중심으로 편찬 과정과 실록 보존의 역사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시실을 꾸몄다. 실록편찬개관은 실록 편찬의 전반적인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정리하고 사관들의 철저한 기록 정신을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으로 꾸몄으며, 어전회의에 참석하여 국왕과 신료들의 대화내용을 사초로 남기고 있는 춘추관 사관과 승정원 주서의 모습, 초초-중초-정초 등 실록 편찬 과정을 표현한 실록청, 실록 편찬 후 베풀어졌던 세초연과 세초 장면 등을 모형으로 재현한 코너가 있어 조선시대 실록편찬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임진왜란 때 실록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했던 유생 안의(安義)와 손홍록(孫弘祿)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상들의 실록 보존 정신을 매직비전으로 연출하여 교훈을 삼고자 하였으며, 아이북(I-Book)을 통해 실록 속의 그림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전시실에서는 우리나라 역사를 알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기본적인 역사서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고려사≫ 등의 역사서와 〈조선방역도〉(국보248호), 〈해동제국기〉, 〈대마도종가문서〉 등 위원회 소장 귀중자료, 논산 명재 종택과 예천 금당실 함양박씨 등

전시관을 둘러보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관계자들

의 수탁자료, 재일학자 고(故) 금병동 교수가 기증한 김옥균 족자 등을 전시하였다. 특히 명재 윤증 초상과 통신사행렬도 등은 동영상으로 처리하여 정적인 자료전시실의 분위기를 새롭게 하였다. 이외에도 독립운동가들의 수감 사진과 신문조서, 미국의 노만 소프(N. Thorpe) 교수로부터 수집한 풍물사진, 남대문 및 옛 문화재 모습을 담은 유리건판 등 다양한 역사기록물이 전시되었다.

끝으로 옛 교실로 꾸며진 역사체험실은 '확대경으로 보는 유리건판', '역사-TV속으로', '실록 사고 퍼즐 맞추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풀기'와 함께 우리나라 위성사진을 조선팔도지도와 대동여지도 등 우리의 옛 지도와 오버랩하여 살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금수강산' 등의 체험 코너를 구성하여 역사공부도 하고 의자에 앉아 이야기도 나누는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꾸몄다.

바른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

각 전시물들은 기존의 문서와 유물 등 획일화된 전시 형태에서 벗어나 비주얼을 강조한 게 특징이다. 건국기념역사관 입구인 비전실에 들어서면 각종 사건과 인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춰주다가 태극기로 마무리되는 동영상을 접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실을 비롯한 각 전시실에는 사진자료와 구술영상, 비디오 영상, 애니메이션, 모형, 아이북, 매직비전, 통신사행렬 동영상, 사고 조각 맞추기, 빛을 타고 실시간으로 흐르는 LED 텍스트 등 현대적 감각의 다양한 영상과 텍스트, 오디오가 결합된 볼거리를 만날 수 있다.

역사는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다.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건국기념역사관은 지난 60년의 우리 현대사는 물론, 전통시대의 역사기록을 재조명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우리 역사와 기록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소중함을 일깨워 줄 것이다. 앞으로 국사편찬위원회 측은 일반 관람 이외에도 국립과천과학관과 연계해 서울 · 경기 일원 각 학교의 '교실 밖 학습 · 체험 공간'으로써 적극 건국기념역사관을 활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자료전시실 전경

국토를 바로 알면 밝은 미래가 보인다!
건국60년 국토개발의 성과와 도전

대한민국 건국60년을 맞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60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건국6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였다. 국토 해양부에서는 '건국60년, 국토개발의 성과와 도전'을 '교통도로의 발전과 도전'과 함께 정부의 60개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관련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60년간의 국토개발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자원위기, 기후변화 등 정책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국토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으며 국토개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국토사랑공모전, 국토사랑 경시대회 등을 개최하여 지난 60년 국토개발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비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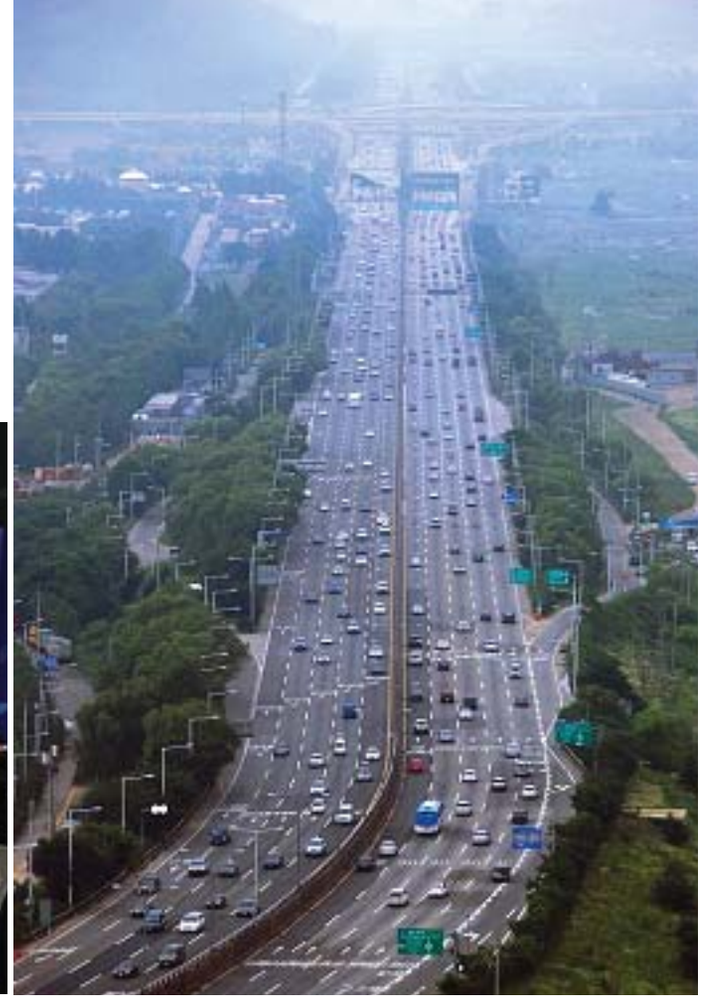
국토사랑 공모전

국토해양부는 전후(戰後)의 척박한 국토여건을 딛고 오늘날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토, 도시 공간, 주택, 수자원, 교통인프라 등 국토 전반의 계획과 개발을 담당해 온 주무부처로서, 국토개발의 성과를 돌이켜 보고 미래 국토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사랑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국토사랑 공모전은 〈건국60년 국토개발의 성과와 도전〉을 주제로 우리 국토의 수려함과 자랑스러움 및 역사성 표현, 대한민국 국토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국토를 더욱 가치 있게 하는 여러 유형의 아이디어 묘사 등의 세부 주제로 진행되었다.

◉ 국토사랑 공모전 진행 내역
공　　고 : 2008. 9.1 ~ 10. 15
방문접수 : 2008. 10. 16 ~ 10. 31(한국토지공사 본사)
인터넷 접수 : 2008. 9. 15 ~ 10. 31(공모전 홈페이지)
발　　표 : 2008. 11. 5
전　　시 : 2008. 11. 12 ~ 12. 31
(국토개발 성과와 도전 기념행사 전시관 및 홈페이지)
시 상 식 : 2008. 11. 13
(국토개발 성과와 도전 기념행사)

건국60년, 국토개발의 성과와 도전 행사장 전경.

국제세미나 진행 장면.



사진부문 금상 : 우리 국토와 웅장한 도로 – 유광모

응모작은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 개척과 보전노력, 변화와 발전과정, 글로칼(글로벌+로칼) 시대에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우리 국토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캠페인 형식의 작품으로 사진(Image)과 단편영상물(Short Film)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공모 결과 사진부문 148편, 영상부문 18편 등 총 166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심사는 관련 전문가 및 내부 전문가로 공동 구성된 심사단에 의해 실시하였다. 심사는 전시 작품의 기본적인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1차 심사와 당선작을 선정하기 위한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1차 심사에서 사진은 30점, 단편영상은 10점을 선정한 후, 2차 심사에서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가 함께 주관한 이번 국토사랑 공모전은 지난 60년간 우리 국토의 변화와 발전상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매개체를 통해 글로칼 시대에 부응하는 국토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대한민국 국토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 대 국민 국토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행사 입상작은 건국60년 기념행사 · 전시회 등 각종 관련 행사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토지공사에서 매년 실시하던 국토정보경시대회를 확대하여 일반인이 참가한 국토에 대한 지식을 겨루는 '국토 바로알기 퀴즈대회' 를 개최하여 국토 바로알기의 소중함을 알렸다. 이 퀴즈대회는 국토지리정보와 국토변천사 등 시사문제가 출제되었고, 해당 내용은 공중파를 통해 방영되어 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다.

건국60년 기념식과 국토개발 세미나

국토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토사랑 공모전 진행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는 11월 13부터 14일까지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으로 ≪건국60년-국토개발의 성과와 도전≫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 국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이어갔다.

| 국제세미나 진행순서 및 발표자 |

Time	Theme	Subjects	Speakers
11월13(목)	국토정책의 과거/현재 Past/ Present	한국 국토발전정책의 성과와 과제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National Territorial Policies in Korea	서순탁(서울시립대) Soon-tak Suh (Univ. of Seoul)
		수렴 또는 분산 : 세계적 관점에서의 균형발전의 의미 Convergence or Divergence: Placing Balanced Development in a Global Context	Laura Huntoon (Univ. of Arizona, USA)
		아시아 공간계획의 추세와 현안 Spatial Planning: Trends and Issues in Asia	Tetsuo Kidokoro (Univ. of Tokyo, Japan)
		토론 Discussion	
11월14(금)	국토정책의 미래Future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토지개발 정책의 과제 Challenges in Land Development Policies to Address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Dietwald Gruehn (Dortmund Univ. of Technology, Germany)
		도시정책에 있어서 세계화와 과제 Globalization and New Challenges in Urban Policies	Lamia Kamal-Chaoui(OECD)
		지역계획에 있어서 거버넌스 및 효과성 Governance and Effectiveness in Regional Planning	Mark Tewdwr-Jones (Univ. College London,UK)
		동북아 초국경지역의 대두와 도시간 협력 Emerging Transborder Regions and Interc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김원배(국토연구원) Won-bae Kim(KRIHS)
		토론 Discussion	

기념행사 전시장.

국토사랑 퀴즈대전 진행 모습.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건국 이후 국토발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 세계적 관점의 균형발전, 주요 선진국의 공간계획 추세와 현안 등의 전문가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화와 국제협력, 기후변화 등 미래에 우리 국토에 영향을 미칠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정책 과제도 집중 모색한 자리였다. 행사장에는 정부의 국토발전 비전을 일반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국토개발 정책의 변화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관도 운영되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열린 건국60년 기념식에서는 건국60년 이후 국토의 발전과정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고, 국토개발 연대기, GIS 기술을 접목한 국토계획 모형 등이 전시되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국토해양부는 건국60년을 맞아 실시한 본 행사를 계기로 온 국민이 행복해 하는 국토를 가꿔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세계 명사들에게 듣는 한국인, 한국의 미래
건국60년 ≪세계명사기고집≫ 발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국내외에 선포하고 헌법이 만들어진 지도 어느덧 60년 세월이 흘렀다.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은 동족간의 전쟁과 가난, 경제 발전과 민주화 운동 등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격동의 세월을 보내며 오늘 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 민족적 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건국6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한 ≪세계명사기고집≫은 이러한 역사적 현장에서 우리의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가늠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세계명사기고집≫은 세계 명사의 시각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6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분야별 세계 석학들이 예견한 한국의 미래비전 공유, 민족적 자신감 확산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지난 2008년 6월 20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작업을 마무리하고 결과물을 발간했다.

세계 명사 21인이 들려주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제명 :「Korea Impossible to possible」
주관 :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 해외문화홍보원 공동
구성 : 화보 및 기고문
기고 : 기 소르망 등 21명
언어 : 영어
부수 : 2,000부(4×6배판변형, p256)
활용 :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해외 주요도서관 등 배포

프랑스 파리정치대 객원교수이자 문명비평가인 기 소르망(Guy Sorman)은 기고문을 통해 강력한 국가 이미지, 국가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며 세계 소비자들은 프랑스 향수를 프랑스 것이기 때문에, 독일 차를 독일 것이기 때문에 구매한다. 하지만 한국 제품이 한국 것이기 때문에 팔리는 경우는 드물다는 말로 한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국가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짧은 기간에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중 하나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도입, 민주주의로의 성공적인 변신과 같은 올바른 선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역설하고 시장경제나 민주주의가 딱히 승산 있는 선택이 아닌 것처럼 보이던 때 한국의 지도자들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은 지금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지만 이는 한국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보고 한국이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핵심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마커스 놀란드(Marcus Noland) 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남한의 대 북한 포용정책을 집중 거론하며 포용정책의 장기적 목표는 북한 사람들에게 시장경제를 교육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포용정책 실행 과정에서 시장원칙을 적용하고 북한에 시장경제도 가르치려면 민간 부문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협력 사업의 경우 국가가 임의로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며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장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로 옮기는 대신 북한에 투자하는 남한 기업들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터 카젠스타인(Peter J. Katzenstein) 미 코넬대 국제학 교수는 지구상에 20세기 후반의 한국인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었던 국민도 흔치 않을 것이라며 한국전쟁은 물론 휴전 이후에도 분단의 상흔은 한국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겼다고 밝히고 이러한 한국이 세계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경제성장 달성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은 어찌 보면 지난 60년 동안의 역경이 가져다준 선물이라고도 평가했다. 또한 오늘 날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 이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자신의 강점으

로 이끌어냈기 때문이라고 한국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다.

키쇼르 마부바니(Kishore Mahbubani) 싱가포르 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장은 외교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최대한 많은 선택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으로서는 지정학적 약점을 이러한 옵션의 다양성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불행한 과거가 있는 일본과도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충고했다. 또한 많은 한국 사람들은 유럽연합(EU)만큼 아세안에 관심을 두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아세안이 EU보다 한국에 외교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한국이 주변국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적었다.

이외에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인 고르바쵸프(Gorbachev), 전 NBC 종군기자 존 리치(John Reach), 전 주한 일본대사 오구라 가즈오(Kazuo Ogoura) 등 해외 명사 21명이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지난 60년 세월을 반추하며 미래로 향하는 한국,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할 한국의 앞날을 냉철히 분석하고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 기고자별 국적과 소속, 원고주제 |

분야	기고자	국적	소속	원고주제
대한 민국 건국 60년	기 소르망	프랑스	파리 정치대 교수	대한민국 건국60년
	고르바쵸프	러시아	前 소련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대한민국 – 동남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중요한 파트너
	장원링	중국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연구학부 주임 중국 아태학회 회장	기적의 60년
	오구라 가즈오	일본	前 주한 일본대사 일본 국제교류기금 이사장	한국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성장 하는 대한 민국	피터 카젠스타인	미국	미국 코넬대 교수 미국 정치학회장	역경을 딛고 : 대한민국 건국60년
	제프리 존스	미국	前 AMCHAM 회장 김앤장 변호사	한미 경제 협력 : 열정, 갈등과 상호 이익의 60년
	스웬화	중국	상하이 푸단대 한국학연구소장	새로운 기적의 창조와 영광의 그날을 향하여
	산딥 쿠마르 미쉬라	인도	인도 델리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세계 지식 경제의 서비스 부문 : 도전과 전망
변화 하는 사회	카터 에커르트	미국	하버드대 한국사 교수	1970년대의 서울
	마이클 브린	영국	《한국인을 말한다》 저자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삶 : 60년에 걸친 한국인의 생활상의 변화

분야	기고자	국적	소속	원고주제
교육, 문화 및 예술	언더우드 4세	미국	선교사, 前 연세대교수 & 한미교육위원회 위원장	세계를 가르치다 : 한국의 교육이 세계의 교육이 되다
	멜리사 츄	미국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 미술관장	한국의 미술
	로저 가르시아	홍콩	홍콩 국제영화제 前 집행위원장	한국의 영화
외교 관계	도널드 그레그	미국	前 주한 미 대사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동구권과의 외교관계 수립 : 노태우 대통령의 업적
	키쇼르 마부바니	싱가포르	싱가포르대 공공정책대학원장	한국의 역설 (逆說) : 강하면서도 취약한 외교 정책
	펜 햄프슨	캐나다	칼튼대 국제관계대학원장	세계 질서와 지역 안보의 미래
	루이스 티 데컬트	미국	한미동맹협의회 회장 한국전 참전 미재향군인회 회장	성공적인 국가 건설
남북 관계 60년사	마르쿠스 놀랜드	미국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 북한문제 전문가	남북 경제협력 관계 60년사
	셀리그 해리슨	미국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 아시아프로그램 소장	안정적인 국가연합을 향하여
	안드레이 란코프	러시아	국민대 교수 북한 전문가	한국의 꿈 : 통일을 향한 두개의 한국
	존 리치	미국	前 NBC 종군기자	예상을 뛰어넘는 나라

자랑스러운 우리 땅, 독도를 바로 보다
영토사랑 청소년 독도 캠프 및 독도 아카데미

영토 사랑 청소년 독도 캠프

동북아역사재단은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토 주권 교육 및 평화적 영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영토사랑 청소년 독도캠프와 독도 아카데미를 실시하였다. 영토사랑 청소년 독도 캠프에는 국내외 청소년 등 180명이 해양대학교 실습선에 올라 독도를 탐방하고 선상 캠프를 실시하였다. 독도아카데미는 해외 유학생 및 교포 2세들의 참여 속에 영토 주권 이론 교육 및 독도탐방 훈련을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해양대학교가 주최하고 환동해미래포럼, 전국지리교사연합회가 주관, 교육과학기술부, 대한민국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가 후원한 영토 사랑 청소년 독도 캠프는 대한민국 건국60년을 기념하

고 국내외 청소년, 학부모, 교사들에게 영토수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독도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행해졌다. 2008년 8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2박 3일간 울릉도 및 독도 일원에서 펼쳐진 영토 사랑 청소년 독도 캠프에는 전국에서 독도지킴이 협력학교 학생과 교사, 새터민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소년소녀가장, 일본인 교사 등 180명의 학생 및 교사 등이 참여하였다.

영토 사랑 청소년 독도 캠프는 전국의 참여자들이 부산에 모여 한국 해양대학교 실습선(한바다호)에 승선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선상에서 단체 티셔츠와 모자, 태극기 등을 지급받고 독도를 향해 출발했다. 선상 캠프의 첫째 프로그램은 독도 특강이었다. 학생들은 독도본부의 김봉우 위원장과 독도 지킴이 홍성근 박사의 특강을 통해 독도의 역사와 자연, 지리적 요건 등에 대해 듣고 각자 방으로 돌아가 독도 성명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저녁을 먹은 뒤 학교별로 팀을 이루어 독도 모형 만들기와 독도 관련 개사하기 시간을 가진 뒤 고단한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단꿈에 젖어 있을 시간도 없이 다음날 새벽, 둘째 날 일정이 시작되었다. 이미 배는 독도 근처에 닿아 있었다. 참가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선상으로 몰려나가 장엄한 독도의 일출을 구경하고 독도 관련 창작/개사곡을 부르며, 독도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겼다. 참가자들은 비록 독도에 상륙은 하지 못했지만, 독도 주변 구석구석을 살피며 사진을 찍고 역사적인 우리의 땅 독도를 두 눈으로 직접 관찰했다. 이어 울릉도로 이동, 배에서 내려 독도 박물관과 독도전망대, 나리분지 등을 견학한 뒤 다시 배에 올랐다. 저녁을 먹고 독도 골든벨 행사를 가진 뒤 짧은 일정을 접고 다시 출발지인 부산으로 향하며 캠프를 마무리했다.

영토사랑 청소년 독도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청소년 등 180명이 해양대학교 실습선에 올라 독도를 탐방하고 선상 캠프를 실시하였다.

해양대학교 실습선에 오르고 있는 참가 학생들(위)과 독도에 대한 확고한 수호의지를 다지고 있는 학생들(아래).

| 행사 일정표 |

일시	장소	내용	비고
8.13	부산	선상 리셉션 전문가 초청 특강	전야제
8.14	독도(한바다호)	독도 해맞이 독도 관련 창작 활동	– 독도 시/수필/기행문 작성 – 독도 삽화/풍경화/만화 그리기 – 독도 창작/개사곡 부르기 – 독도 사진 촬영 – 독도 모형도 제작 – 독도 청소년 골든벨
8.14	울릉도	역사유적지 답사 등	독도박물관, 독도전망대 견학 등
8.15	부산	입항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수호의지를 천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외 독도지킴이 청소년 교류를 통해 차세대 인적 교류 활성화 및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되었으며 TV, 인터넷, 신문사 등 언론기관을 통하여 국민은 물론 해외동포들에게 독도 수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독도 관련 유적지 답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영토 수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새터민 및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독도 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민족의 영토, 역사 관련 정체성을 고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해외 유학생 독도 아카데미

2008년 7월 18일부터 2008년 8월 1일 사이에 실시된 독도 아카데미 제5기 해외유학생대상 서머스쿨(Summer School)은 해외 유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우리의 소중한 섬 독도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해외 유학생 독도 아카데미에는 국내 대학생 포함 해외유학생 및 교포2세 대학생 78명이 수료하였으며, 영토주권 이론교육과 독도탐방 훈련을 통하여 독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맞설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7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5기 독도아카데미 개교식에 참석한 해외 유학생들과 국내 대학생들은 비장한 각오로 결의문을 읽어 내려갔다. 독도수호국제연대가 주최하고 동북아역사재단,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등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독도에 대한 사명감과 역사의식을 갖고 독도 수호활동을 전개하고 전 세계 대학생들과 연

독도에 대한 사명감과 역사의식을 갖고 독도 수호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하는 학생들.

대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해외 유학생 독도 아카데미에는 미국 조지타운대, 프랑스 소르본대, 중국 베이징대, 러시아 모스크바대, 일본 와세다대 등 각국의 명문대에 재학 중인 유학생 51명과 외국인 2명, 국내 대학생 48명이 참여하였다.

해외 유학생 독도 아카데미는 영토 주권 이론 교육과 독도 탐방훈련으로 나뉘어 치러졌다. 제1강은 외교통상부 국제표기명칭전담대사인 김영원 대사가 독도의 전반적인 현안과 일본에게 독도를 침탈당한 역사, 그리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들과 ICJ(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설명, ICJ에서의 영토분쟁 사례에 대하여 강의했으며 제2강은 일본의 억지 주장 사례를 중심으로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의 강의가, 제3강은 전 해군사관 학교장을 역임한 김성만 제독이 독도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하여, 제4강은 독도수호국제연대의 집행위원장이자 독도아카데미의 교장 고창근 교수가 다케시마 표기 삭제를 위한 국제적 실천요강에 대하여, 제5강은 동북아역사재단 배진수 박사가 독도 문제 제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마지막 6강은 반크의 박기태 단장이 독도, 동해의 오류시정 사례에 대해서 강의했다.

이어진 독도 탐방 훈련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높은 파도를 뚫고 무사히 독도에 도착, 독도를 수호중인 경찰들의 환영을 받으며 독도에 발을 내디뎠고 30분간의 짧은 참관 뒤 울릉도로 돌아와 독도박물관과 러일전쟁 망루 등 역사 유적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다시 배에 올라 묵호로 돌아온 뒤 독도 탐방 일정을 모두 끝내고 8월 1일 국제교육진흥원 강당에서 수료식을 갖고 모든 행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 행사 일정표 |

일정	내용	비고
7월 18일	개교식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7월 26일~7월 28일	독도 관련 이론 교육 독도 탐방 훈련 교육	서울–묵호–울릉도–독도
8월 1일	수료식	국제교육진흥원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해외 유학생 독도 아카데미는 독도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수호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국내외 대학생 교류를 통한 차세대 인적 교류 활성화 및 국제적으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TV, 인터넷, 신문사 등 언론기관을 통하여 국민은 물론 해외동포들에게 독도 수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해외 교포 대학생들에 대한 독도 이론 교육 및 탐방 행사를 통하여 교포 학생들에게 한민족의 영토,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재단과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추진한 행사인 바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학생들이 독도 탐방 훈련 행사에서 특강을 듣고 박수를 치고 있다.

건국60년을 한눈에
≪대한민국사 연표≫ 간행

대한민국 건국60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정옥자)는 ≪대한민국사 연표≫를 간행했다. ≪대한민국사 연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까지 대한민국 60년간의 역사를 총 3권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분량은 총 2,779쪽에 달한다. 제1권은 1948년부터 1967년까지의 사건을 863쪽 분량에 담았고, 제2권은 1968년부터 1987년까지의 역사를 919쪽 분량에 담았으며, 제3권은 1988년부터 2008년까지로 997쪽 분량이다.

지난 60년 역사에서 우리가 이룩한 정치, 경제적, 문화적 성과는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대한민국사 연표≫의 한 줄 한 줄에는 우리 민족의 고뇌와 땀, 좌절과 희망이 들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우리 민족이 걸어온 경제 성장의 역사,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모든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연표를 간행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사 연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최근까지의 역사를 정리함으로써 대한민국사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정본(正本) 연표를 지향하였다. 둘째로, 작성과정에서 1차 사료와 신문 자료 등을 참고하는 한편, 전국 1,300여 개의 정부기관, 정당, 사회단체, 기업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기존 연표의 사실적 오류를 바로 잡는데 힘을 기울였다. 셋째로는 항목 위주의 평면적 연표 서술 방식에서 벗어나 사진과 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하였다. 사진과 자료는 역사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한편 폭넓은 역사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까지 대한민국 60년간의 역사를 총 3권으로 구성한 《대한민국사 연표》.
전체 분량은 총 2,779쪽에 달한다.

해방정국의 위대한 9명의 지도자들
건국60년 기념학술대회,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지도자들〉

해방정국의 정치사를 통합의 시각에서 재검토해보는 뜻 깊은 자리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가 주관하고 건국6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후원한 '건국60년 기념학술대회' 가 2008년 11월 26일 명동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그 지도자들〉이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다루어진 주요 지도자들은 김구, 김규식, 신익희, 이승만, 김성수, 이시영, 서재필, 조소앙, 안재홍 등 총 9명이었다. 학술대회는 4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부터 3부까지는 주요 지도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지도자들〉이라는 주제로 기념학술대회를 펼치고 있는 연구진들.

들에 대한 발표로 이루어졌고, 4부는 종합 토론이었다.

학술대회는 정윤재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정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3년 기의 모든 민족세력들의 경쟁과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번 학술대회는 "해방 3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에서 활동했던 주요지도자들의 통일민족국가 및 제1공화국 수립을 위한 정치적 노력에 대한 그간의 진지한 연구와 그 결과들을 상호 공유하여 해방정국의 정치사를 통합의 시각에서 재검토해보는 매우 의미 깊은 자리가 될 것" 이라고 말하며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해방 정국을 수놓은 9명의 지도자들

발표의 첫 문은 연세대학교 박명림 교수가 열었다. 박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 김구, 한국 민족주의의 문제〉를 주제로 삼았다. 박 교수는 발표를 통해 김구 선생은 "자주성, 선명성, 민족성, 의지성, 변화성, 진정성, 이상성, 권력의지는 강력하였으나 국제성, 융합성, 일관성, 현실성, 적응성, 객관성은 매우 허약했다" 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 김구 선생은 "비판과 존경, 사랑과 비난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위치에 존재한다" 고 말했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김구의 노선은 이승만에 비해 궁극적 대안이나 안전한 피신처가 될 만한 건국구상

이나 통일방략을 포함하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건국 전후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수시로 변하였던 김구의 노선에서 우리가 무엇을 비판하고, 무엇을 가려 배울 것인가"에 한국의 민족주의의 이상적 대안과 현실적 탈출구가 존재한다고 결론 맺었다.

부산대학교 이철순 교수는 〈정치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김규식〉을 주제로 삼았다. 이 교수는 김규식을 "명분이나 동기를 중시하는 매우 이상적인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남북협상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김규식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였고 정세에 따라 현실에 적합한 판단을 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김규식은 이상주의 일변도의 정치가가 아니라 현실주의적 측면도 지닌 사람"이라고 결론 맺었다.

김용달 독립기념관 수석연구위원은 〈신익희와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대해 다루었다. 김 연구원은 신익희에 대해 "임시정부 수립이나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산파역으로 대한민국 건국의 핵심 주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신익희를 "원칙보다는 현실, 명분보다는 실질, 형식보다는 내용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독재 민주화 역정을 안목에 넣고 경제번영과 민주발전을 이룬 현재적 관점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에 끼친 신익희의 공적은 더욱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이 연구진의 발표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

충남대학교 차상철 교수는 〈이승만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대해 발표했다. 차 교수는 이승만에 대해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로서, 이념갈등이 심각했던 해방공간의 정치지도자로서, 그리고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하는 동서 양대 진영의 이념대결인 냉전이 고착되고 심화되어 갔던 건국 초기의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의 역할과 공헌은 실로 지대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승만의 단정노선은 비록 최선은 아닐지 몰라도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해도 좋다"고 말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완범 교수는 김성수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김성수를 "인내력 있는 현실주의자이며 통합을 도모했던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반목과 대립으로 표상되는 현재의 정치 상황에 포용과 화합, 통합의 의미를 반추할 수 있게 만드는 정치지도자"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김성수가 정권의 핵심인물이 됐었다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보다 이른 시기에 꽃을 피웠을 것이고 군사독재도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정하며 끝을 맺었다.

안동대학교 김희곤 교수는 이시영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시영에 대해 "광복 이후의 행보를 보면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우국지사라고 평가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시영의 삶이 바로 "대한제국이 망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과, 대한민국을 세워 나가는 과정이었다"며,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보다는 겨레의 삶을 먼저 생각한 인물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서재필에 대해 발표했다. 백 연구원은 서재필을 "84세의 고령으로 귀국해 1년 2개월 동안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활동한 최후의 봉사자"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자주독립 국가를 수립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남북한이 통일정부를 이룩하여 민족이 살아나야 한다"는

서재필의 주장을 오늘날에 비추어 볼 때 이제 대한민국이 힘써야 할 것은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순천향대학교 김기승 교수는 조소앙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조소앙은 일관되게 민주주의와 독립운동을 지지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정치적 세력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해방 이후, 조소앙의 정치 활동은 김구와 이승만 사이에서 동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 민주, 삼균주의(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화)라는 원칙에서 보면 나름대로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는 중앙대학교 김인식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안재홍에 대해 "남북 총선거를 위해 노력했지만 차선으로서의 5 · 10 선거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분단정부를 거부하고 통일정부를 주장하며 실천한 민족지도자는 많았으나 이에 대응하여 분단국가에서 통일국가로 나가야 할 비전과 구체안을 제시한 예는 많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안재홍은 이 점에서 "그와 정치노선을 함께 했던 많은 지도자들과 차별성을 지닌다"고 말했다.

청중의 열기와 진지함으로 가득 찬 학술대회

발표를 모두 마친 뒤에는 이택휘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마무리 대화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는 손세일 청계연구소장, 김호일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심지연 경남대학교 교수, 김기승 순천향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마무리 대화 시간을 통해 발표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 및 발표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이처럼 학술대회는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됐지만 이날 참석한 200여 명의 청중들은 시종일관 진지하게 발표를 들었다. 한 청중은 "평소 이름만 들었지, 잘 알지 못했던 인물들에 대해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라고 이번 학술대회를 평가했다. 그리고 또 다른 청중은 "새로운 시각에서 정부수립과 관련된 지도자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유엔의 승인
대한민국 유엔 승인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 과정을 되돌아보다

2008년 12월 12일 오전, 서울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대한민국 유엔 승인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서강대 유시찬 이사장,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강우일 의장, 노일린 헤이저(Noeleen Heyzer) 아시아 · 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 에르윈 조세프 엔더(Erwin Josef Ender) 교황청 대주교, 서강대 손병두 총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유엔 승인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한 귀빈들.

회의를 주최한 서강대학교 손병두 총장은 개회사에서 "12월 12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의 승인을 받은 지 6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서강대학교가 이 학술회의를 개최한 것은 "유엔이

대한민국을 승인할 때 장면 박사가 유엔 총회를 마치고 교황청을 방문하여 교황을 알현하고, 한국가톨릭교회가 발의한 가톨릭대학의 설립을 청원하여 설립한 대학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손 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강우일 한국천주교교주회의 의장과 한승수 국무총리의 축사가 있었다. 그리고 노일린 헤이저 아시아 · 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헤이저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60년 전 대한민국의 건국을 국제적으로 공식화한 유엔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향후 대한민국과 유엔의 긴밀한 관계 유지 및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조연설이 끝난 후 본격적인 발표가 시작됐다.

학술회의 행사 전경(위)과
발표자로 나선 에르윈 조세프 엔더 교황청 국무부 대주교(아래).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 과정에서의 장면의 역할

첫 번째 발표자는 에르윈 조세프 엔더 교황청 국무부 대주교였다. 엔더 대주교는 〈대한민국 승인에 미친 바티칸의 역할〉을 주제로 삼았다. 엔더 대주교는 발표를 위해 2018년 이후에야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한 바티칸 문서를 공개했다. 그리고 이 문서를 토대로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 당시 바티칸이 맡은 외교적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엔더 대주교는 특히, 정치가이자 외교관이었던 장면 박사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엔더 대주교는 장면 박사가 "수석대표로 활동하며 외국 정부의 고위 관료 및 외교관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맡은 바 책임을 완수"했고, 이와 함께 "가톨릭 신자로서 교회 성직자 계층과의 유대 관계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선문대학교 박홍순 교수가 〈건국과 유엔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에서 유엔이 여러 가지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생 한국이 주권국가로서의 기반과 그 후 정치, 경제적 번영을 통하여 오늘날의 세계중견국가로서 성장하는 초석을 놓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역시 유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유엔은 당시 신생국제기구로서 그 창설 목적인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말한 뒤, "유엔이 한국의 건국을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국제평화를 위한 유용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와 권위, 그리고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발전과 번영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는 여전히 유엔과 국제사회의 커다란 과제로 남아있다"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여러 문제 해결과 세계평화를 위한 유엔의 여러 가지 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건국을 위한 유엔의 역할이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발표는 점심식사를 가진 뒤 이루어졌다. 세 번째 발표자는 덴마크 코펜하겐대학교 칼 작서(Carl Saxer) 교수였다. 작서 교수는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건국과정과 6 · 25전쟁 기간에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3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관계를 소개했다. 작서 교수는 "외교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북유럽 국가들

과 한국과의 첫 번째 관계는 한국 전쟁"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나눈 후, 북유럽 국가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작서 교수는 분석을 통해 "미국과 나토(NATO) 동맹국들의 관계가 한국에서의 유엔의 행동을 지지하기 위한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자는 경희대학교 허동현 교수였다. 허 교수는 〈대한민국 승인을 위한 수석대표 장면의 활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허 교수는 장면 박사에 대해 "구한말에 태어나 일제치하에서 교육운동과 종교운동에 헌신하였고, 해방 공간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이념과 제도의 보편화 작업에 적극 참여한 정치가"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특히 "신생 조국에 대한 유엔의 승인을 이끌어내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우고 지키는 데 공헌한 발군의 외교관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허 교수는 대한민국 승인을 위한 장면의 외교활동에 대해 분석한 후 다섯 가지 사실을 밝혀냈다. 첫째, 1948년 대한민국은 단독 정부 수립을 선포했지만 고립을 면하기 위하여 국제적 승인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둘째, 장면이 유엔 파견 수석대표로 임명된 이유는 그가 미국유학파로 출중한 영어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입법위원 시절부터 외교적 경험을 쌓은 제헌국회의원 중에서도 드문 외교통이었다는 것이다. 셋째,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제적 승인 과정에서 미국이라는 보이는 손의 직접적 지원과 바티칸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넷째, 장면은 초대 주미대사 시절 워싱턴 주재 각국 대사관의 접촉을 통해 30여 개국의 개별적 승인을 얻어냄으로서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초석을 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주미대사로 재직 중 발발한 한국전쟁도 남북한군의 전력상 격차로 인해 외부 지원이 없었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허 교수는 마지막으로 "장면은 정치가로서만이 아니라 외교관의 세계에서도 초심자였지만,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를 훌륭히 해결함으로써 차후 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부상했다"고 결론지었다.

대한민국 정부 승인 과정에서의 주요 문서 공개

이번 학술회의는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 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건국의 역사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대한민국 정부 승인 과정에서의 주요 문서들이 공개됐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1948년 12월 12일 오후 5시 15분에 실시된 제3차 유엔총회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에 대한 표결 결과를 정리한 〈Voting Check List〉,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외교관 여권 제1호, 수석대표 장면이 남긴 1949년도 수첩과 친필 연보, 1948년 12월 7일(화) 하오 3시 파리 '샤이요' 宮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제3차 총회 제1(정치)분과위원회에서 한국독립문제에 관하여 대한민국 장면 수석대표가 행한 연설의 개요 등이다.

| 학술회의 세부 일정 |

일시		내용
12월12일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사(손병두 서강대학교 총장)
	10:10~10:20	축사(강우일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10:20~10:30	축사(한승수 국무총리)
	10:30~11:00	기조연설 Noeleen Heyzer (ESCAP사무총장)
	11:00~11:30	제1발표 Erwin Josef Ender 대주교(교황청 국무부)
	11:30~12:00	제2발표 박흥순 교수(선문대학교)
	12:00~13:30	오찬
	13:30~14:00	제3발표 Carl Saxer 교수(덴마크 코펜하겐대학)
	14:00~14:30	제4발표 허동현 교수(경희대학교)
	14:30~15:00	커피브레이크
		종합토론
	15:00~17:00	· 사회자 : 유영익(연세대), 최기영(서강대) · 토론자 : 김기승(독립운동사 연구소장) 김진현(세계평화포럼 이사장) 김학준(동아일보 회장) 유석진(서강대) 이인호(서울대)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조광(고려대)
	17:30~19:30	만찬

법이 바로 서면 나라가 올곧다!
건국60년,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추진

건국60년을 기념하여 법무부는 2008년도를 '법질서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먼저, 법질서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을 세우고, 광역지방자치 단체와 법질서 확립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지난 4월 23일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를 발족하여 전국적으로 국민생활 현장중심의 법질서 운동을 펼쳐왔다.

3월 12일에는 법질서 운동의 이론적 바탕 마련 및 추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1회 법질서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핀란드 대법원장 뻬까 할버그, 서울대 조동성 교수 등 국내외 유수 학자들의 강연과 토론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법질서 수준을 진단해보고, 법질서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계층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국민친화형 법질서 운동을 전개하고, 친근한 이미지 제고 및 국민들의 참여 폭을 확대하고자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이라는 슬로건과 로고, 로고송을 제작하였고, 네티즌을 대상으로 법질서 운동을 널리 홍보하고자 법질서 캠페인 홈페이지(www.lawNorder.go.kr)를 4월 23일 개설하였다.

광복절에 즈음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선 선진 일류국가는 작은 약속부터 지키고 실천하는 데서 시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법질서 광고 동영상(40초 분량)을 제작하고, 방송 3사 · 케이블TV · 지하철PDP 등을 통해 방영하였다. 최근 어려운 경제 ·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밝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화면을 구성하였고, 직접적 계도보다는 긍정적이면서 간접적인 메시지 전달로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KBS, YTN과 함께 법질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아름다운 기본, 법과 질서' 다큐멘터리는 11월 25일에 1편이, 12월 1일에 2편이 각각 YTN DMB를 통해 방영되었으며 다큐는 편당 30분 분량으로, 일반인이 사회적 자본과 법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고, 법질서 준수 선진국인 호주와 싱가포르, 핀란드의 구체적 사례와 관계자 인터뷰를 풍부하게 담았다. 12월 26일 KBS 1TV를 통해 방영된 "함께가는 길 - 법이야기" 다큐멘터리는 건국60년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생각해 보고, 그들의 어려움에 법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그 법은 국민의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함께 사는 사회의 중요성을 다함께 생각해보자는 의도로 제작(60분 분량)되었다.

이외에도 어릴 때부터 법질서를 체질화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 청소년의 체험위주 법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시민을 위한 '법률콘서트' 등 다양한 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신설된 법질서운동 전담부서인 법질서 · 규제개혁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 언론 등과 연계하여 범국민 캠페인을 역동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법질서 바로세우기 행사 장면.

다양한 시각 통해 여성의 미래 아젠다 모색
한국 여성의 삶의 변화와 미래 아젠다

학자들이 〈한국 여성의 삶의 변화와 미래 아젠다〉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건국 이후 정부가 추진한 복지, 권익증진, 차별금지, 남녀평등 등 정책의 추진과정과 이에 따른 여성 삶의 변화 모습을 분석하고 향후 여성정책 추진 방향을 진단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이 11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여성부가 건국60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렌즈를 통해 여성의 미래 아젠다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 여성 삶의 변화와 미래 아젠다〉를 주제로 여성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사회학회, 한국여성경제학회, 한국여성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젠더법학회와 공동으로 연구에 참가, 연구결과를 이날 심포지엄에서 공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변도윤 여성부장관을 비롯해 관련 학계 전문가, 여성단체 회원,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모두 3부로 나누어 부별 주제에 따라 각각의 학회가 학문분야별 시각과 분석방법을 통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 토론함으로써 한국여성의 삶의 종적변화를 일방적 시각이 아닌, 다학제적 접근방법(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이 그 범주를 넘나들며 서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주제에 접근하는 연구)을 통해 입체적으로 재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1부는 〈여성의 시각에서 본 건국60년의 변화〉라는 주제로 안상수 · 민현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의 〈지표를 통해 본 한국여성 삶의 변화〉, 최샛별(이화여대 사회학과), 이명진(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의 〈한국사회 문화예술 세계의 변화와 여성〉, 이재경 · 박혜경(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가 〈한국여성연구 60년의 회고와 여성학의 아젠다〉에 대하여 각각 발표했다. 한준(연세대 사회학과), 조주현(계명대 여성학과) 교수 등이 기 발표된 글을 중심으로 발표자들과 함께 여성의 시각에서 본 건국60년의 변화에 대하여 토론했다.

2부에서는 〈한국사회의 구조변동과 여성의 참여〉를 대주제로 정진화(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한국경제와 여성: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김엘림(방송대 법학과) 교수가 〈헌정 60년의 법과 여성의 관계〉를, 김형준(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가 〈한국여성의 삶의 가치와 변화: 정치참여와 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성효용(성신여대 경제학과), 양현아(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등이 기 발표된 글들을 중심으로 발표자들과 토론했다.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된 제3부에서는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은실(이화여대 여성학과), 서경교(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이인실(서강대 경제대학원), 정봉협(여성부 여성정책국장), 황정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각 분야 학문영역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여 〈미래여성아젠다〉를 모색했다.

그동안 한국 여성의 지위는 크게 향상되었고 여성정책의 제도화 및 법제화에도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그 결과 여성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더 높은 기대에 부응해야 할 과제 또한 안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여성부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여성정책 및 여성 관련 사회적 쟁점'에 대한 심화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학문 공동체로의 관심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여성의 역할과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해 관련 정책과 연구를 적극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국60년은 세계사에 빛나는 하나의 혁명
'대한민국 건국60년, 과거 · 현재 · 미래' 학술회의

연구진들이 대한민국이 걸어온 고난과 역경의 60년 역사를 각 방면에서 되돌아보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가 후원한 '대한민국 건국60년 과거, 현재, 미래' 학술회의가 지난 7월 11일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각계각층에서 약 300여 명의 관계자 및 일반인들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건국60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이 걸어온 고난과 역경의 60년 역사를 각 방면에서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박찬승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대한민국 건국60년, 과거 · 현재 · 미래' 학술회의에서 정옥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근현대사는 엘리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승리와 성공의 역사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는 역사의 부정적 측면도 보듬고 나가야 한다고 개회사에서 강조했다.

김진현 대한민국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1945년 이후 독립한 140개 가까운 나라 즉, 전 세계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5,000만 국민만이 근대화의 열매를 성취했다는 것은 분명 하나의 혁명이라고 강조하고, 서양근대국가에서 시민의 등장, 민주주의, 공화주의, 근대산업, 대중사회 실현과정에서 각각의 '혁명' 이 있었듯 대한민국 건국 이후 오늘의 '60년사' 는 20세기 근대 인류사에 있어 하나의 혁명이며 이러한 혁명 정신을 잘 계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영우 이화학술원 석좌교수가 〈대한민국 건국60년의 인과적 이해〉를 주제로, 김학준 동아일보 회장이 〈국제정치의 전개와 대한민국의 건국〉를 주제로 각각 주제 발표에 나섰고 이어진 본 행사에서는 박찬표 목포대 교수가 〈건국, 48년 체제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에 대하여, 조석곤 상지대 교수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그 빛과 그림자〉에 대하여,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가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전쟁에서 평화로〉에 대하여 각각 발표했고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성보 연세대 교수, 김광운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등이 기 발표된 주제를 대상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한국 현대사, 건국60년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균형 잡힌 학문적인 토론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절감했다고 밝히고, 한국 근현대사는 기본적으로 복수의 세력이 경합과 경쟁을 통하여 역사의 씨줄과 날줄을 교직해간 복합적인 과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연속과 단절, 부정과 긍정을 함께 살피고 보듬어 고난과 역경 속에 일구어낸 자랑스러운 60년 역사를 바탕으로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줄 빛나는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남 · 북 수립 시기 다양한 안팎의 인식 파악
학술회의, '1948년 남북한 건국과 동북아 열강들의 인식'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연구소(소장 정태헌)와 공동으로 2008년 5월 16일 고려대학교 100주년기념관 원격회의실에서 〈1948년 남북한 건국과 동북아열강들의 인식〉을 주제로 건국60년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남 · 북한 건국과 동북아열강들의 인식을 주제로 한 본 학술대회의 취지는 1948년 남한과 북한 건국의 역사적 의의를 동북아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하는 데 있었다. 그 동안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논의는 국제정세와 함께 내부 구조적 모순 해결의 귀착점으로 파악, 평가하는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즉, 건국 논의를 미소 분할 점령 이후 진행된 분단화 과정의 귀결점으로 파악하는데 집중하여 남 · 북한 신생국가의 수립에 대한 안과 밖의 다양한 동시기 인식을 파악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남 · 북한 건국' 시점에 대한 동북아 열강들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검토, 규명한 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던 그간 학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1948년 남북한 건국과 동북아 열강들의 인식〉이라는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학계에 새로운 화두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사와 중국사, 일본사 전공자들이 발표와 토론에 나선 것 외에도 국문학 전공자가 토론에 나서 최근 학계에서 강조되는 학제적(學際的) 연구를 일부 수용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과거사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이번 학술대회는 시의적절한 주제를 새롭게 고찰하기 위해 제1부 〈남북한 건국과 열강에 대한 인식〉, 제2부 〈남북한 건국에 대한 열강의 인식〉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으며 고정휴(포항공대) · 임종명(전남대) · 기광서(조선대) · 임상범(성신여대) · 이규수(성균관대) 교수와 이주철(KBS연구원) 박사 등 한국현대사 전문가들이 대거 발표에 나섰다. 종합토론 사회는 한국현대사 연구의 권위자인 김성보(연세대) 교수가 맡았으며 이신철(성균관대) · 정병준(이화여대) 교수와 김광운(국사편찬위원회) · 서종진(동북아역사재단) · 이재령(단국대) 박사, 국문학 전공의 김현주(연세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남북한 건국과 동북아열강들의 인식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의 장면.

이 대회에서는 특히 제2부 '한반도 주변 4대 열강의 남북한 건국에 대한 인식' 에 발표된 고정휴, 기광서, 이규수, 임상범 교수의 논문들이 주목을 받았다. 국내외 학계에서 검토된 적이 없는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의식을 담은 논문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의 정부수립과 열강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를 ≪정로≫ · ≪로동신문≫ · ≪근로자≫를 중심으로 정리한 이주철(KBS 박사연구원), 〈대한민국 수립 전후 한국인의 아시아 · 구미(歐美)인식〉이라는 주제로 기행기에 나타난 관련 내용을 검토한 임종명(전남대 사학과) 교수의 논문도 관심을 끌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1948년 남한과 북한의 건국 전후시기에 남한과 북한 주민들의 열강과 아시아, 구미인식 문제를 비롯하여 미국과 소련,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4대 열강들의 남북한 건국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고찰하는 보기 드문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김용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학술대회의 목적이 1948년 '건국' 의 의미를 '동북아' 라는 틀 속에서 검토해 '건국' 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탈냉전 이후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고 있는 동북아 각국의 이해 추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학술 토론회는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과 남북한 건국을 지켜보는 열강의 인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건국을 단순한 한반도의 관점이 아닌, 국제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영토와 주권 점검
'건국60년 우리의 영토와 주권' 학술대회

한국국제정치학회와 동북아역사재단은 대한민국 건국60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성숙한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 재점검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기에 우리의 영토와 주권에 관한 총체적인 점검과 검토를 목적으로, 현재 동북아에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 간에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영토문제를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향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기 위해 〈건국60년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술회의 장면.

8월 12일 서울 프라자호텔 메이플 홀에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제1부, 동북아 각국의 영토정책 60년사, 제2부 식민역사와 영토문제, 제3부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및 국가전략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장공자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 김용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은 각각 개회사와 환영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동북아의 영토문제는 역사학적 접근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문제의 본질 및 향후의 방향에 대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였다고 강조하고 본 학술회의를 통해 이러한 역사학적 접근법의 성과를 기초로 하면서도 국제정치학의 이론 틀과 분석을 가지고 동북아의 영토문

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향후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하였다.

〈동북아 각국의 영토정책 60년사〉를 주제로 열린 1부 행사에서는 황병무 국방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독도 영유권 논쟁에 대한 한국 역대 정부의 대응정책〉, 아나톨리 코쉬킨(러시아 동양연구소)의 〈러시아 역대 정부의 영토정책〉, 야마다 요시히코(일본 토카이대학교)의 〈일본 역대 정부의 영토정책〉, 장 티에준(중국 상하이 국제관계연구소)의 〈중국 역대 정부의 영토정책〉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후 이신화(고려대학교), 박수헌(경희대학교), 배정호(통일연구원), 서상문(군사편찬연구소) 등의 참석자들이 발표자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식민역사와 영토문제〉를 주제로 한 제2부에서는 김달중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폴 헨슬(북 텍사스대학교)의 〈식민역사와 영토문제 : 이론적 고찰〉, 리차드 킬로이(버지니아 군사대학교)의 〈남미의 식민침탈 관련 영토분쟁 사례〉, 윤미영(미국 하노버대학교)의 〈아프리카의 식민침탈 관련 영토분쟁 사례〉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후 강성호(경희대학교), 김희민(플로리다주립대학교), 레베카 엠부(숙명여자대학교) 등의 참석자들이 발표자들과 함께 식민역사와 영토문제를 주제로 토론했다.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및 국가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3부에서는 안청시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병렬(국방대학교)의 〈영토/영해 문제와 국가주권〉, 최종건(북한대학원대학교)의 〈영토분쟁의 국제정치학 : 국제정치이론은 동북아 영토분쟁에 해법을 제공하는가?〉, 진창수(세종연구소)의 〈동북아 영토분쟁의 일본 국내정치적 조건〉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이용권(에너지경제연구원), 배진수(동북아역사재단) 등의 참석자들이 발표자들과 함께 토론을 벌였다.

대한민국 건국60년을 맞아 우리의 영토와 주권에 관한 총체적인 점검과 검토를 목적으로 한 '건국60년 우리의 영토와 주권' 학술회의는 한국 역대정부의 영토정책 60년을 다시 조망하는 시도가 되었다는 점, 한국 역대 정부의 영토정책 60년의 고찰과 더불어 비교적인 관점에서의 동북아 각국의 영토정책 60년을, 러시아 · 일본 · 중국 역대정부의 영토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했다는 점, 이를 통하여, 동북아 4국 영토정책 60년의 비교적인 고찰과 더불어, 각국의 영토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보다 중요한 미래의 영토정책에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행사였다.

특히, 식민침탈 관련 세계의 영토분쟁 사례를 소개한 패널은 그간 국내외에서 거의 처음 시도된 주제로서, 향후 유사한 주제의 계속적 국제학술행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독도 침탈사'를 부각하는 국제적 담론 주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립운동과 건국의 의미
'한국독립운동과 대한민국' 학술회의

건국60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이 대한민국 건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자 지난 2008년 9월 29일 월요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독립운동은 물론 광복 이후 독립유공자들이 건국에 이바지한 활동상을 재조명하는 자리였다. 또한 이를 통해 독립운동이 남긴 유산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건국의 이념에 걸맞은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기도 했다.

발표자들이 발표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는 독립운동이 대한민국 건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독립운동과 대한민국〉이라는 대주제를 전제로 하여 7개 소주제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소주제는 첫째,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이념. 둘째,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현재의 대한민국. 셋째, 사회주의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넷째, 신간회와 통일 민족국가 건설운동. 다섯째,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 건국. 여섯째, 독립운동세력의 건국방략과 대한민국. 일곱째, 광복 이후 독립운동가와 건국 등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독립운동의 유산과 건국이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반도의 내일을 준비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미래' 국제학술회의

통일연구원이 주최하고 통일부와 조선일보가 후원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미래 국제학술회의가 지난 2008년 9월 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동 학술회의는 한·미·일·중·러 등 6자회담 참여국 한반도 전문가 20여 명이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참여하고, 국내외 전문가, 주한 외교공관 관계자, 내외신 기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21세기 동아시아 비전과 한반도(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건국60년 동안의 통일노력을 회고하는 가운데, 변화한 통일환경 속에서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남과 북이 상생·공영할 수 있는 통일정책 방

향 모색을 목표로 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21세기 미 · 일 · 중 · 러의 동아시아 비전과 한반도〉, 〈이명박 정부의 동아시아 비전과 한반도〉 등을 주제로 한 2개 세션을 통해 진지한 의견교환을 가졌다.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국60년이 되는 올해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그간의 산업화 · 민주화의 성과를 발판으로 이제 한반도 상생과 공영의 비전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한 신뢰구축,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창조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반도 상생과 공영의 비전을 동아시아 선진화의 청사진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사에 이어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이 기조연설에 나섰다. 김하중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 간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조건 없고,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수적"이라며 "대화가 열리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포함하여 과거 남북 간에 있었던 모든 합의의 이행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전폭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오늘날 아시아는 세계의 중심축이 되었다"면서 "민족주의, 경제위기, 영토문제 등이 있기는 하나, 지난 30년 사이 평화와 안보의 질서가 크게 진전되고 민주주의와 유교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하면서 "따라서 한 · 미 · 일 · 러 4개국은 북핵문제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하며, 너무 지나치게 절충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맥케인과 오바마 후보 중 누가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의 관여적 아시아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1차 회의는 이상우 한림대 국제대학원대 총장이 사회를 맡아 〈21세기 미 · 일 · 중 · 러의 동아시아 비전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 이노구치 다카시 일본 주오대 교수, 판천장 중국 개혁개방포럼 상임이사, 알렉산더 파노프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원장 등이 발제하고, 토론에는 이춘근 미래연구원 연구처장, 김국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호섭 중앙대 교수, 배정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흥호 한양대 교수, 최춘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태익 북한대학원대 초빙교수, 정은숙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제2차 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동아시아 비전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안병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발제는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박찬봉 한나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이 했으며, 천해성 통일부 국장,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유호열 고려대 교수, 김규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지난 60년간의 한반도 통일노력을 돌아보고,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새로운 미 행정부의 등장을 앞두고 우리의 대북정책을 가다듬는 한편, 더욱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한 토론에서 북핵문제의 해결 방안 및 향후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상생공영 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에도 일조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
'한국을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 국제학술회의

각국 교과서와 매체에 나타난 한국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대한민국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후원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 - 각 국 교과서와 매체에 나타나는 한국 관련 서술의 변화〉라는 주제로 2008년 8월 13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학술회의에는 한국과 역사, 경제적으로 관련이 깊은 미국, 러시아, 독일, 호주, 중국의 학자들이 참여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국제한국연구원 최서면 원장은 강연을 통해 일본의 강제 합병부터 오늘날의 한일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최 원장은 우선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해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합병이 아닌 병탄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해방 직후의 신탁통치에 관해 설명한 뒤 1948년, 남한의 정부수립은 "국제적 감시 하에서 자기 영토 안에서 자유로운 정부를 세우니 일제가 만든 식민통치를 쫓아내고, 그 고지에서 광복된 정부를 세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측 발표자인 다와라 요시후미 사무국장은 교과서 내 한국 관련 기술이 일본 내 정치의 우경화와 맞물려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의 마크 피터슨 교수는 미국 교과서 내 한국 관련 서술의 개선과 오류시정을 위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활동을 보고했다. 서중석 교수는 호주 정부의 다문화강조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이, 호주 내 한국의 이미지 개선을 저해하는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 밖에도 중국의 첸샹셩 교수와 러시아 세르게이 쿠르바노프 교수는 발표를 통해 자국사의 기술과 관련하여 대학 교재에 한국 관련 서술이 변화해 온 점을 언급했다. 그리고 베르너 사세 교수는 독일 교과서가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잘 소개한 반면, 정치에 대해서는 단편적 언급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교과서 속의 한국은 아직 미온적

브리검영대학의 마크 피터슨 교수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더디긴 하지만 분명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속의 한국 경제와 정치적 위상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또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대중매체에서도 드러나지만 교과서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의 교과서들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프렌티스 홀의 《세계사(2007)》는 2005년 판의 일본해 표기를 2007년 판에서는 동해로 바꾸었다. 또한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교류를 이어주는 나라로 묘사했으며 19세기 후반도 잘 다루었고 한국 전쟁에 대한 설명에 이어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까지 다루었다.

세르게이 쿠르바노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대 초 러시아에서는 거의 동시적으로 3종류의 대학교용 한국사 '교재' 들이 출판되었다. 그는 전체적으로 3종의 한국사 서적들은 여러 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한국사 - 고대부터 1876년까지》는 체계성이 부족하며, 《한국사》는 공동 집필이기 때문에 책 속에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된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 특강 -고대부터 20세기말까지》는 잘못 인쇄된 부분이 너무 많고 세부적 부분들에서 조금씩 틀리는 부분이 보인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 3종의 책들을 준비한 저자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러시아에서 대학교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역사책들을 러시아 한국학 역사 최초로 출간해낼 수 있었던 것은 성과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베르너 사세 한양대 석좌교수에 따르면 독일 역사 교과서에서 한국 관련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며 서술 분량도 그리 많지 않다. 더구나 내용 자체도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 중심의 시각에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독일에서 한국학의 입지가 아직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출간된 독일 지리교과서에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매우 상세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어 독일이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분석하는 한편, 당시의 정치 · 사회적 배경에 대한 설명까지 곁들여 경제현상의 분석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여러 교과서에서 도표를 통해 반도체와 조선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다와라 요시후미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워크21' 사무국장의 분석에 의하면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한국을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다. 1990년대 이후로는 조선통신사에 관해 자세히 다루는 책이 늘어났으며, 개항에서 식민지 지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중반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거의 모든 역사교과서에 3 · 1 독립운동에 대해 다루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창씨개명 등의 황민화 정책과 강제연행 역시 다루고 있다. 그러나 1996년 이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이나 일본 의회의 우익 정치가에 의해 유감스럽게도 2002년도판, 2006년도판은 1997년 판에서 상당히 후퇴하게 되었다. 이것은 일본의 정치 · 사회의 우경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매체 속의 관심사는 일본과 중국에 편중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외국 대중매체를 통해 바라본 한국의 이미지도 관심을 끌었다. 첸샹셩 중국 산뚱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지만 냉전으로 인하여 1992년 8월 24일에서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행 중국 교과서 중 대학교의 한국어 전공 교재 외에는 초 · 중등학교 교재부터 대학 교재까지 한국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교재가 없다. 그러나 일반 매체에서는 지난 16년간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소개하고 있다. 중국의 매체 중에는 신문잡지 같은 간행물이 많은데, 《신화통신》, 《런민르바오》, 《중궈르바오》, 《졔팡르바오》 같이 전국적 영향력이 있는 대형 언론사 소속 간행물과 웹사이트에서는 한국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나닷컴》, 《소후닷컴》, 《163.com》 등 대형 포털 사이트도 한국에 대한 정보가 많이 소개되고 있다. 주요 매체는 이성적인 보도로 사회 대중을 정확하게 인도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다.

서중석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호주는 정부뿐만 아니라 현지인들까지 아시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주로 중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대중매체에서 한국을 다루는 경우 주로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 다루고 있다. 호주의 대표적인 일간지(The Australian과 Sydney Morning Herald)가 한국을 다루는 태도는 극히 제한적이고 편협하다. 내용이 부정적일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관한 기사내용에 약간 포함되어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방송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호주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일상생활, 일상적인 스토리, TV나 신문을 통한 간접적인 한국문화체험, 그리고 호주 현지 한국인들의 생활에 관심이 많다. 따라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충족시켜 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6.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문화축전

영상으로 만나는 건국둥이의 삶
건국60년 한국인의 얼굴

우리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건국둥이'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는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8월 15일부터 '건국60년: 한국인의 얼굴-동영상으로 보는 건국둥이의 삶'을 인터넷 홈페이지(www.aks.ac.kr/60)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했다. 1948년생 건국둥이들 가운데 60명을 선별하여, 그들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이야기와 개인적으로는 환갑, 국가적으로는 건국60년을 맞는 감회를 들어보고, 그것을 동영상 자료와 기록으로 담은 것이다. 구술대상 건국둥이 60명은 직업과 역사적 사건이란 대범주로 나누어서 선정했으며, 성별과 지역 등도 고려하여 선정함

홈페이지 메인 화면

으로써 최대한 다양한 분들을 아우르고자 노력하였다.

1948년에 태어난 이른바 '건국둥이' 들이 2008년을 기점으로 환갑을 맞았다. 건국둥이들의 삶은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수립되던 바로 그 해에 태어났다는 점과 예순 번째 되는 해를 맞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건국둥이의 출발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과 질곡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전쟁은 분단된 한반도를 가난과 폐허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산가족, 전쟁고아, 전쟁미망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다. 빛바랜 사진첩 한 귀퉁이의 기억처럼 아이들이 먹을 것을 찾아 구걸을 했던 시절이 건국둥이들의 유년기였다.

1960년 4월 19일. 한 어린 학생의 주검 앞에 사회는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고, 사람들은 피해갈 수 없는 전염병처럼 일상을 휘감았던 가난을 누군가가 해결해 주길 내심 바랐다. 이를 반영하듯 60년대 한국사회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무서운 속도로 내달렸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부고속도로 건설, 수출입국 그리고 새마을운동. 사람들은 장미 빛 희망을 꿈꿨다. 건국둥이들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해외로 나아갔다. 산업전사라고 불렸던 건국둥이들은 베트남, 중동 그리고 독일로 떠나갔다. 이들은 죽음과의 사투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기 위해 청춘을 버렸다.

성장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건국둥이들도 있었다. 또한 그들은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던 근대화의 그늘 속에서 최소한의 기본권, 자유, 인권을 무시당한 사람들이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끼니를 굶던 여공들, 삶의 자리를 송두리째 빼앗긴 도시민들, 말할 자유와 표현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들은 성장의 환호 속에서 소외되었다. 한 시인의 말처럼 독재 반대, 민주노조, 생존권 등을 위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 를 외쳤고 이후 이들의 목소리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강물이 되어 1987년 6월 항쟁이란 장강으로 모였다.

민주화는 진전되었고, 1988년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산업화의 성공으로 과거에 비해 생활수준은 나아졌다. 그러나 세기 말에 다가온 외환위기는 50대에 들어선 건국둥이들에게 씻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안겨다 주었다. 명예퇴직과 실직, 고용불안, 경기불안 그리고 무한경쟁 시대의 돌입은 환갑을 맞는 건국둥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건국둥이 60년의 삶은 그 길이만큼이나 다양한 빛깔과 결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 그 수많은 경험과 기억 그리고 고통마저도 우리에게는 모두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빛바랜 사진첩 속 감춰진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기억과 목소리를 되살려내고자 한 것이다.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60인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다

건국둥이 선별 작업은 직업 범주와 역사적 사건 범주로 나뉘었다. 직업 범주는 ①정치와 경제(정치인, 경제인, 관료 등), ②학문과 사회(교수, 사회운동 및 시민운동가), ③예술과 문화 그리고 스포츠(문인, 예술가, 운동선수, 방송 · 영화인), ④가족과 여성(각계각층의 여성), ⑤봉사의 한 길(교사, 집배원, 의사, 군인, 등대지기, 언론인, 중소자영업, 소방관 등), ⑥전통의 현대화(봉산탈춤, 도예가, 가야금, 무속인 등) 등의 6가지로 나누었다.

◉ 주요 면접 내용 : 한국 현대사의 경험과 일상적 삶
- 역동적인 한국현대사의 흐름과 사건에 대한 체험과 견해
- 개인적으로 환갑을, 또 '건국둥이' 로서 건국60년을 맞는 감회
- 한국의 민주화 · 산업화에 대한 경험과 생각
-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기대

역사적 사건 범주는 ①전쟁과 가난을 넘어서(제주 4.3,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②근대화를 향하여(노동자, 중동건설, 수출포상, 파독노동자, 어민, 농민, 국제기능올림픽수상자), ③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70~80년대 민주화운동, 광주항쟁, 부마항쟁, 노동운동), ④인간답게 살고 싶다(각계각층의 노동자, 서민), ⑤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미래로(월드컵, 올림픽, 다문화가족, 화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등의 5가지로 나누었다.

① 건국둥이의 다양한 직업군

강지원(변호사), 강창희(탄광), 고승하(산업화 · 민주화), 고양명(재계) 권용석(한국전력/베트남전), 김석호(전문경영인) 김근영(체육), 김순곤(광주항쟁), 김용택(교사 · 시인), 김운철(철도기관사), 김의중(중동건설), 김재규(부마항쟁), 김재한(축구선수), 김정두(국제기능올림픽), 김종기(지하철 건설), 김종학(경부고속도로), 김준태(시인 · 교수), 김호진(종부), 김창희(교사 · 주부), 나병식(출판), 남동환(인쇄), 도법(시민운동), 민병훈(집배원), 박상운(봉산탈춤), 박영준(운수), 박용학(태권도), 박재신(파독), 박철수(영화감독), 백명현(교수), 백운용(노숙자), 서광수(도예가), 안부근(여론조사), 양길승(의사), 양승희(무형문화재), 예병주(육군공병장교), 오점숙(비정규직), 오준익(등대지기), 유의준(버스), 유인태(정치인), 유재충(핸드볼), 유정숙(노동자), 이강백(극작가), 이동걸(금융), 이병철(귀농운동), 이영환(관료), 임구호(인혁), 이중흥(4 · 3), 임주환(IT), 장사익(가수), 정덕구(관료), 정상모(언론인), 정영자(중소자영업), 정윤광(사회운동), 정의화(정치인), 조휘명(소방서), 진사의(화교), 최열(환경운동), 최윤희(방송인), 최종태(어민), 하진순(무속인), 한대수(가수), 한재동(교도관), 허명원(새마을운동), 허영구(조선), 홍세화(언론인)

② 역사적 사건 범주

◇ *전쟁과 가난을 넘어서*

건국둥이에게 가난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식민 지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건국둥이들은 이산가족이 되거나 전쟁고아가 되기도 했다. 폐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려운 시절을 견뎌야만 했다. 이들의 삶에서 가난은 떨쳐내야 할 숙제 같은 것이었다. 한편 시간이 흘러 1960년대 갓 스무 살이 넘었던 건국둥이 가운데 일부는 베트남전쟁이란 또 다른 전쟁을 겪어야만 했다. 최근 개봉된 〈님은 먼 곳에〉에서 그려졌듯이 베트남전쟁은 건국둥이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아픔과 헤어짐을 남겨준 시간이었다.

- 건국둥이 : 권용석(베트남전쟁 참전), 김운철(월남인 가족 · 베트남전쟁 참전), 박영학(베트남전쟁 참전), 예병주(베트남전쟁 참전), 이중흥(제주 4 · 3유가족)

◇*근대화를 향하여*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 찬 때였다. '조국근대화' 라는 당시 슬로건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청년에서 성년이 되어가는 건국둥이들에게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은 지상명제였다. 도시에서는 대규모 공장이 세워졌고 농촌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가난의 땅에서 탈출하기 위해 이들은 중동과 독일로 떠나갔다.

- 건국둥이 : 강창희(탄광), 권용석(한국전력), 김석호(수출포상 · 중동진출), 김의중(중동건설), 김정두(국제기능올림픽), 김종기(서울지하철건설), 김종학(현대건설), 남동환(인쇄), 박영준(운수 · 화물), 박재신(파독 간호사), 유의준(버스기사), 최종태(울릉도 어민), 허명원(새마을운동)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민주주의만큼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희구해오던 갈망도 없었을 것이다. 건국둥이들은 열세 살 때 4 · 19를,

스물다섯 살 때 10월 유신을, 서른세 살 때 광주항쟁을, 마흔 살에 6월 항쟁을 경험했다.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마흔 살이 될 때까지 권위주의를 일상에서 체험하며 자라난 세대이다. 동시에 10대, 20대, 30대 그리고 사십대에 민주주의를 향한 능선을 넘어갔다.

- 건국둥이 : 김순곤(광주항쟁), 김재규(부마항쟁), 김준태(민주화운동), 나병식(민청학련사건), 양길승(녹색병원 운영), 유인태(민청학련사건), 임구호(인혁당 사건), 이병철(민청학련 사건), 정상모(87년 국민운동본부), 한재동(87년 박종철 사건), 홍세화(남민전 사건)

◇ *인간답게 살고 싶다*

요즘 세대와 달리 건국둥이들은 '인간다운 권리'를 많이 누리고 살지 못했던 세대이다. 보릿고개가 싫어서 도시로 왔지만, 인간다운 대우보다 장시간 노동과 차별이 오히려 자연스러웠던 때가 존재했다. 1948년생 건국둥이였던 청년 전태일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던 것은 그만의 고통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건국둥이들은 더 인간답고 평등한 세상을 위한 발자취를 남겨왔던 것이다.

- 건국둥이 : 고승하(마산수출자유지역노동자 · 전교조해직교사), 김의중(중동건설노동자), 김운철(철도기관사), 유정숙(섬유산업 · 여성노동자), 정윤광(지하철노동조합민주화), 허영구(조선업 노동자)

◇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미래로*

불혹(不惑)에 접어든 건국둥이들에게 올림픽 개최는 설레는 사건이었다.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상징처럼 올림픽 개최는 그들에게 다가왔다. 더불어 한국 사회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었고, 경제성장에 묻혀 눈에 잘 띄지 않던 생태, 이주, 세대, 문화적 다양성 등이 점차 눈에 띄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이 쉰 살이 되는 해인 1997년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세기 말에 다가온 외환위기는 50대에 막 들어섰던 건국둥이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줬다. 이제 환갑을 맞는 건국둥이들의 미래는 복잡한 교차로에 서 있다. 이들의 가슴 속에는 사회 · 문화적 상황과 가치의 변화, 무한경쟁 시대의 돌입 등으로 희망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온 수많은 경험과 기억은 다양한 빛깔과 결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건국둥이 : 김근형(올림픽 조직위원회), 김재한(월드컵), 박재신(다문화가족), 백운용(노숙자), 오점숙(비정규직 노동자), 유재충(핸드볼대표팀 올림픽 은메달), 임주환(IT산업), 진사의(화교)

건국둥이 1948년과 2008년

1948년에 몇 명의 건국둥이들이 태어났을까, 또 그들은 2008년까지 어떻게 자라났을까? 해방과 전쟁이라는 격변의 사이에 끼어 있었던 1948년의 한국의 인구를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매우 어렵다. 해방 직후 정치적, 사회적 격동은 한반도의 인구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해방과 함께 일본인들은 본국으로 귀환했고, 20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반도로 귀환했다.

1948년 남과 북에는 별도의 정부가 수립되었고, 38선의 분단은 더 굳어졌다. 1949년 5월 1일을 기해 정부는 인구센서스(제1회 총인구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시점의 남한 인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게다가 이듬해 한국전쟁의 발발로 상세한 결과가 집계되지 못하고 총인구를 파악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 외에도 1950년에는 한국전쟁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생존을 위해 월남이나 월북 형태의 이동을 하기도 했다. 비교적 소수이지만, 그 이후에 해외이주의 길을 택한 사람들도 있었다.

건국둥이의 셀 수 없는 경험만큼이나 복잡한 역사적 사건과 인구이동, 사망 등을 고려해보면 정확하게

1948년생이 한국에 얼마나 생존하고 있는지 가늠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서울대학교 은기수 교수의 추계에 따르면 1948년에 태어난 출생아 가운데 인구이동이 없었고, 오직 영아사망율의 영향을 받아 인구가 감소했다고 가정한다면, 남성은 364,364명, 여성은 343,463명으로 총 707,827명이 출생하였다. 그리고 예순 해가 흐른 현재 남성은 227,559명, 여성은 234,698명이 생존해서, 전체 462,257명이 2008년을 맞이하고 있다. 60년의 세월 동안 남자는 136,805명, 여자는 108,765명으로 전체 245,570명에 달하는 인구가 죽거나 해외로 빠져나간 것이다.

건국둥이를 통해 우리의 건국60년을 돌아본 소중한 계기

건국60년을 기념하여 건국원년인 1948년에 태어나 대한민국과 함께 올해 환갑을 맞는 '건국둥이' 들을 중심으로, 각 분야를 대표하거나 가장 평균적인 삶을 살아온 인물 60명의 생애와 현대사의 경험을 구술면접을 통해 기록으로 남긴 이번 작업은 그들을 통해 굴곡 많았던 우리의 건국60년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로써,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출생하여 현재 환갑을 맞이하는 여러 건국둥이들의 종(계층, 직업, 성별 등) · 단(시대)적 삶의 전체상을 역사적 사료로써 조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개인적 삶을 통해 건국6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생활사 측면에서 대한민국 현대사 재조명 계기를 마련(구술생애사로 보는 한국현대사)하게 되었다. 연구 결과는 웹문서와 동영상으로 정리되어 일반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면접결과물을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의 '구술사 아카이브' 의 일부로 소장, 활용할 계획이다.

21세기 대한민국 비전을 공유한다
대학생 사이버 건국내각

건국60년의 자긍심과 대한민국 미래비전 공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8년 8월 11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건국60년 기념 '대학생 사이버 건국내각' 활동 보고대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을 비롯하여 서영훈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고문, 그리고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학생 사이버 건국내각은 건국60년의 역사를 되새기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대한민국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가 후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가 주체하여 기획되었다. 지난 2008년 6월 11일(수)부터 6월 21일(토)까지 전국 대학생을 상대로 지원을 받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6월 26일(목)에 44명의 대학생이 사이버 건국내각으로 최종 선발되었다.

대학생 사이버 건국내각은 사이버 문화에 익숙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활용하여 '사이버 건국내각'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건국60년에 대한 젊은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추진목적이었다.

선발된 44명의 대학생들은 건국내각의 재연을 위해 1948년 건국 당시 출범한 주요 부처명을 그대로 사용해 온라인상에 블로그를 개설했다. 또 각 부처별로 4명씩 배정하고, 사이버 건국내각을 구성했다.

이렇게 구성된 학생들은 각 부처의 60년 역사와 소관 정책 등을 소재로 한 개 부처당 한 개 팀으로 나뉘어 건국60년 홍보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참가한 팀들 간에 경쟁적 활동을 유도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했

다. 더불어 홍보 활동을 어느 정도 했는지, 온라인상에서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등을 평가해 우수팀을 가린 뒤 그들에게 해외탐방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대학생 사이버 내각에 포함된 학생들 중에는 약관 19세에 경남 김해군 '진영읍 제1차 기미년 독립운동' 의 주동자로 일경에 체포돼 대구교도소에서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1982년 독립운동 공로로 대통령표창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등을 수상한 독립유공자 김정태 옹의 증손자인 김창규(외무부, 중앙대) 씨도 끼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11개 부처 사이버 내각에 발탁된 대학생 44명은 지난 2008년 7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도봉숲속마을 연수원에서 발대식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발대식에는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김진현 집행위원장이 참석해 참가 대학생들을 격려하고, 건국60년의 기적과 역사에 대해 강연했다.

이들은 발대식을 가진 뒤 한 달간 건국 당시 출범한 11개 부처의 명칭(외무부-외교/통상/재외교민 보호/통일, 내무부-치안/지방행정/토목/소방, 법무부-검찰/형정/사법인사행정, 재무부-회계/출납/국채/조세/화폐/금융, 국방부-육/해/공군, 상공부-상업/수산/공업/전기/특허/무역, 문교부-교육/과학/기술/예술/체육/문화, 농림부-농산/산림/축산/잠업/식량/농지, 교통부-육운/수운/항공/건설, 사회부-노동/보건/후생/여성/환경, 체신부-우편/전신/전화/보험/통신)으로 인터넷상에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하며 현장을 돌면서 홍보행사를 열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이룬 변화와 성과들을 연구 조사하여 국민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벌였다. 또 각 부처에서 장관, 정책보좌관, 대변인 등으로 활동한 학생들은 문헌 속 자료뿐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살아온 생생한 이야기를 찾아내 위대한 국민이 만들어낸 기적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 역할도 담당했다.

대학생 사이버 건국내각 발대식 장면.
대학생 사이버 건국내각은 건국60년의 역사를 되새기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활발한 활동으로 건국60년 알려

이처럼 대학생 내각은 7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부처별 블로그 활동을 벌인 것은 물론, 8월 11일에는 정부청사 별관에서 건국내각 활동보고대회를 열어 그동안의 활동 내역을 발표했다. 또한 이들은 8월 15일 정부가 주최하는 건국60년 기념식에 참가해 '국정비전 선포' 현장을 체험하기도 했다.

대학생 내각은 지난 8월 7일 PT대회를 통해 활동내용과 활동성과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했는데, 이 대회에서 우수그룹으로 선정된 2개 팀은 사이버 내각을 대표하여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중국을 탐방하는 기회를 가졌다. 중국을 방문한 대표단은 중국의 인재양성기관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현장인 상해를 찾아 민족적 자긍심을 되새겼다. 또 이들은 우리 민족의 영산(靈山)인 백두산 탐방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에 있는 현장도 둘러보았다. 그리고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한국인들과 면담을 하는 등 다양한 학습기회를 가졌다. 이들은 탐방 과정과 그 후기를 건국60년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시해 많은 네티즌들과 공유했다.

이들 대학생 내각 블로그에는 각 분야별 변천사를 주제로 제작한 430여 건의 콘텐츠와 다양한 현장 홍보활동 내용이 게시되어 이곳을 방문한 네티즌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했다. 재무부의 경우 우리나라 경제발전사를 시대별로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이 이뤄낸 경제적 풍요로움' 에 대해 일일수업을 진행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을 벌였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모습을 UCC로 제작해 블로그에 올려 많은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대학생 사이버 건국내각' 공식카페에 가입한 회원은 지난 8월에만 1,700여 명에 이른다. 또 카페 및 각 11개 블로그 방문자 수만 해도 한 달간 12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8월 11일 건국내각 활동보고대회는 '건국내각 기념식' 형태로 행사를 개최해 1948년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하기도 했다.

이날 대회를 참관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사이버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때만 되면 불거지는 독도에 관해 이야기하고 관련 서적인 《독도의 자연》(경북대 출판부)을 선물했다. 이 자리에서 사이버 건국내각 외무부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한 최승은(이화여대) 씨는 "대한민국의 주인공으로서 가슴 뛰는 경험을 했고, 지난 60년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자랑인 것처럼 앞으로 60년은 전 세계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그동안의 감상을 피력했다. 또한 재무부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한 고승희(경희대) 씨는 "고유가, 물가상승 등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지난 60년간 보여준 대한민국의 저력으로 볼 때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견해를 밝혀 관심을 모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사이버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학생에게 독도와 관련된 서적인 《독도의 자연》을 선물하고 있다.

21세기를 더 나은 내일로

'대학생 사이버 건국내각' 은 대학생들에게 건국60년의 역사를 직접 되돌아보게 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최종 선발된 44명은 4인 1조로 구성되어 건국 당시의 11개의 부처들을 그대로 재현한 사이버 건국내각 학생들은 각 부처별로 나뉘어 각각 지정된 미션을 수행했다. 이들이 수행한 미션은 온라인 부문과 오프라인 부문으로 나뉘어 실시됐는데, 특히 돌발미션이 좋은 반응을 불러 모았다.

이들은 온라인 미션을 통해 소속된 각 부처의 시각으로 부처와 관련된 대한민국 60년 역사를 바로 알고 되돌아볼 수 있는 콘텐츠를 직접 제작했다. 그리고 제작된 콘텐츠는 팀별로 운영되는 블로그와 대학생 사이버 건국내각 카페에 업데이트하여 실시간 평가를 받았다. 오프라인에서 수행한 미션은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 실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계획서를 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홍보하는 체험도 가졌다. 가장 주목을 받은 돌발미션은 말 그대로 활동 중에 주어지는 미션의 형태였다. 이것은 운영사무국에서 팀 별로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션을 제공했다.

DMZ를 생태와 평화의 땅으로
'제1회 DMZ 보전의 날' 행사

인류 보편의 보금자리로

2008년 9월 26일 금요일 강원도 철원평화전망대에서 '제1회 DMZ 보전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건국6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2일 확정된 뒤 국정과제인 〈DMZ 생태 ·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DMZ 관리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와 철원군이 후원하고 환경부와 강원도가 주최하여 열렸다.

이 행사는 환경부장관을 비롯해 강원도지사, 경기도 행정2부지사, 철원군수, 사단장, 건국60년기념사업단장, 접경지역 공무원, 환경 · 시민단체, 일반시민, 군인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

이날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DMZ 생태 · 평화 비전〉선언문을 낭독했는데, 이 장관은 선언문을 통해 "DMZ는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이었던 6 · 25 전쟁의 산물로서 국토 분단의 아픈 기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현장"이라면서 "하지만 각종 희귀한 야생 동 · 식물이 서식하며 우수한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

DMZ 생태 · 평화 비전 선언

인되고 있다"고 DMZ의 오늘을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는 DMZ를 백두대간, 도서연안과 함께 한반도 3대 핵심 생태계의 축으로 설정하였다"며 "우리가 자연환경조사 등을 통해 이 비무장지대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생태계를 대한민국은 물론이요, 인류사회의 공동유산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다는 것을 모두 공감할 줄 믿는다"고 밝혔다.

선언문에 의하면 남북 간 평화가 도래하고 도시화가 가능한 시대로 간다 할지라도 DMZ를 사랑과 생명, 평화와 번영의 상징적인 보금자리로 지켜나가고, 인류사회에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쟁이 얼마나 아픈 상처를 주는 것인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의 한반도 통일국가를 대비해서 DMZ를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전할 것인가, 또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하면 거기에 공감하면서 협력해주고 참여할 것인가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역사적인 과제요, 책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환경부가 비무장지대의 친환경적인 관리와 보전을, 인류사회의 사랑과 평화를 위한 〈DMZ 생태 · 평화 비전〉을 밝히는 이유라는 것이다. 선언문에서 밝힌 비전은 다음과 같다.

첫째, DMZ가 한반도 전체의 생태계를 아우르는 동 · 식물의 서식처로, 남북 간 화합의 장(場)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 DMZ의 생태 · 산림 · 문화자원을 연차별로 조사하여 생태적, 역사적 가치를 발굴한다. 단절된 한반도의 생태축을 연결하고 멸종위기 동 · 식물과 문화유적을 복원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간다.

둘째, 생태계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쳐 DMZ와 그 일원지역을 앞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반도의 생태적 고유성과 그 가치를 전 인류 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한다. 생태계가 우수한 핵심지역(Core Area)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조사 · 연구만을 허용하는 등 생태자산으로 보전을 기하고, 핵심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완충지역(Buffer Zone)에 대해서는 환경교육 · 연구, 생태관광 등 환경친화적 활동에 적합하도록 관리한다. 그리고 신축성이 있는 전이지역(Flexible Transition Area)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관할 행정기관, 그리고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모두 협력해서 지속가능한 발전 이른바 Sustainable Development 또는 녹색성장(Green Growth) 방향에 맞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생태계가 우수하고 평화를 상징할 수 있는 DMZ의 대표지역을 선정하고, 2012년까지 생태 · 평화공원을 조성해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관광과 생태이해, 평화의 필요성을 각성하는 명소로 발전시킨다. 이를 위해서 DMZ 생태 · 평화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강원도와 경기도가 민통선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 역시 이와 연결시켜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세계적인 사명도 수행해 나간다.

넷째, 민통선 지역에서의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토지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무농약, 유기농 등 친환경 농업을 장려해서 민통선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관리한다.

DMZ는 생태계의 보고

DMZ와 민통선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생태계 부분 조사결과, 67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2,716종의 야생 동 ·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국제적인 보호와 관심을 받고 있는 두루미, 저어새 등의 서식지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그동안 DMZ를 백두대간, 도서연안과 함께 한반도 3대 핵심 생태축의 하나로 설정하고, 자연환경조사 등 생태계 보전대책을 연차별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DMZ 및 일원지역 현황 설명 청취

이번 행사에서 환경부는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DMZ를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관리하고 세계적 평화의 상징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DMZ 생태 · 평화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자원과 분단의 역사가 공존하는 DMZ를 한반도 생태축인 백두대간과 연결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또 환경부는 〈DMZ 생태 · 평화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여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DMZ 생태 · 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2009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전 내용에 따르면 DMZ를 한반도 생태계의 보고 및 세계적 평화 상징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분단의 역사가 공존하는 DMZ를 한반도 생태축 연결과 평화적 이용의 거점지역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무장지대는 세계 유일의 분단 현장으로서 생태계가 우수하여 역사 및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생태 · 평화공원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계적 생태관광 명소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세계적인 자연유산으로

DMZ 생태 · 평화비전 추진계획은 3단계에 거쳐 진행될 전망이다.

1단계는 DMZ와 민통선 일원지역에 대한 생태계 조사의 선행이다. 계획에 따르면 DMZ를 서 · 중 · 동부로 구분하여 생태계조사를 착수한다는 것이다. 또 DMZ에 대한 남북 공동의 생태계조사가 어려울 경우 망원관찰, 위성사진을 활용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 참석한 귀빈들이 야생동물들을 풀어주고 있다. DMZ와 민통선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생태계 부분 조사결과, 67종의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2,716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는 DMZ와 일원지역에 생태 ·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생태계가 우수하고 역사적 가치, 평화적 상징성이 큰 지역을 핵심 또는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생태 · 평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우수경관지역 주변의 완충구역에는 생태탐방로, 관찰데크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국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경기도, 강원도 등 지자체의 평화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한다.

3단계는 DMZ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남북 합의하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IUCN, UNESCO, UNDP 등 국제기구, 해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개요에 따르면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 제도는 생물자원의 보전과 이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2004년 말 현재 전 세계에 97개국 459개소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82년 설악산이, 1989년에 백두산이, 그리고 2003년에 한라산이, 2004년 구월산이 각각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Transboundry Biosphere Reserve)은 2개국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 지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6개소만이 지정된 상태라고 한다.

기적의 60년을 넘어 '與民同樂'을 꿈꾸다
건국60년 기념 특별공연 '여민동락'

국립국악원은 8월 15일 오후 7시30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여민동락'(與民同樂)이라는 주제를 건국60년 기념공연을 펼쳤다. 공연에는 국립국악원 정악단, 민속악단, 무용단, 창작악단 등 150여 명의 단원이 출연했다. 관현합주를 시작으로 종묘제례악, 민속무용, 민속합주, 창작 관현악이 이어질 때마다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환호했다.

이번 공연은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 국민통합의 시대,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는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에 대한 축하의 의미와 더불어 이러한 기적의 역사와 함께한 우리 전통음악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고 향후 문화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 세종의 '여민동락' 정신과 함께 태평성대의 시대를 다시 바라는 마음을 담았으며 국립국악원 전 단원이 출연, 웅장하고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공연에는 '백성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여민동락의 정신을 새겨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평소 문화생활을 접하기 어려운 차 상위계층 주민들을 각 지역 구청 복지정책과와 연계하여 초청하고, 또한 이·탈북하여 새로이 터전을 마련한 새터민들, 다문화가정의 가족들을 초청하여 진정한 여민동락의 정신을 구현하였다. 일반 관람은 선착순 200명에 한해 국립국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아 1인당 2매의 좌석을 배부했다.

관현합주 장면. 건국60년 기념 특별공연 '여민동락'은 관현합주를 시작으로 종묘제례악, 민속무용, 민속합주, 창작 관현악이 이어질 때마다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환호했다.

여민동락은 조선 세종의 태평성대를 회상하는 제1장 관현합주 '여민락'을 시작으로 제2장 역사의 힘을 모아, 제3장 한마음 한뜻으로, 제4장 건국! 한판 대동의 축제, 제5장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까지 총 5장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장과 장이 바뀔 때마다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대한민국 건국6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관련 영상을 선보여 공연의 의미를 더욱 배가시켰다.

◉ 공연 프로그램
제1장 : 회상 · 세종의 태평성대 - 관현합주 : 여민락
제2장 : 역사의 힘을 모아 - 종묘제례악 : 정대업
제3장 :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낸 시련 - 민속무용 : 시나위와 살풀이, 강강술래
제4장 : 건국! 한판 대동의 축제 - 민속합주 : 남도굿거리, 성주풀이, 경기민요
제5장 :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 창작관현악 : 대지, 우리 비나리

전통음악은 우리와 더불어 지난한 역사의 현장을 함께해왔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전통 음악이 박물관에나 전시될 진부한 것으로 여겨져 온 것도 사실이다. 이번 공연은 지난 60년, 민족사의 고비마다 시련을 이겨내고 당당히 세계사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현대사에 있어 우리의 전통 음악이 없어서는 안 될 민족의 혼이자 새로운 미래를 밝혀줄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산임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나라를 사랑하고 환경을 생각한다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에 참석한 김문수 경기도지사.

건국60년을 기념하며 나라의 상징인 무궁화 사랑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산림청이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한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가 지난 2008년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매년 장소를 옮겨가며 열리던 무궁화축제는 이번에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에서 열렸다.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는 무궁화 관련 축제 중 가장 권위가 있고 오래된 축제이기도 하다.

이번 무궁화 축제의 메인행사로는 전국 우수 무궁화 분화 품평회를 통해 뽑힌 1,100점이 전시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건국60년을 기념하고 무궁화 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무궁화 조형물 제작 · 설치와 무궁화 분화 전시회, 무궁화 백일장, 무궁화 심포지엄, 무궁화 골든벨 퀴즈 및 페스티벌, 무궁화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특히, 한반도 모형 대형 조형물 설치는 관람객들의 인기를 모았다. '무궁화 조형물'은 무궁화 화분으로 만든 가로 8m, 세로 12m 크기의 한반도 모형과 4m 높이의 무궁화 꽃탑이 설치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

아내기도 했다.

전국의 무궁화가 한자리에 모이는 '무궁화 분화 전시회' 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품한 1,145점의 무궁화 분화작품을 비롯해 무궁화 품종 80여 점 및 분재 160여 점 등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다. 또 전국의 초 · 중 · 고교생이 참가하는 '무궁화 백일장' , '기후변화와 국제화시대의 무궁화' 란 주제로 무궁화 전문가들의 열띤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 '무궁화 심포지엄' , 푸짐한 경품과 함께 재미있는 퀴즈도 풀고 신나는 공연도 감상할 수 있는 '무궁화 골든벨 퀴즈 및 페스티벌' 도 펼쳐져 재미를 더했다. 또한 2,500그루에 달하는 무궁화가 무료 분양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무궁화 그림전과 사진전, 그리고 무궁화 종이접기 · 차마시기 · 탁본뜨기 ·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열렸다. 이번 나라꽃무궁화전국축제는 건국60년의 의미를 살린 한편 환경과 생태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평가된다.

페스티벌 장면

체험행사 장면

민족의 정기를 찾아 떠난 여행
건국60년 기념 임정프로젝트

한국과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 12월 19일 금요일부터 12월 27일 토요일까지 8박 9일 일정으로 중국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를 방문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국내는 물론 중국 현지에서 생활하는 한국인 청소년들에게 임시정부가 있던 현장을 방문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들이 함께한 사진. 건국60년 기념 임정프로젝트 행사는 한국과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 12월 19일부터 12월 27일까지 8박 9일 일정으로 중국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를 방문했다.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된 청소년들은 국가보훈처에서 국내에 거주하고 독립유공자 후손 가운데 추천을 받아 선발한 50명과, 중국 화북지역, 산동지역, 동북지역, 화동지역, 화남지역, 기타지역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학생 수 비율에 따라 선발한 학생 50명으로 구성된 전체 100명이었다. 신청서를 제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리아센터 기관과 한인회를 통해 공정하게 추첨 선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탐방에는 북경, 천진, 대련, 청도, 연변 등 국제학교 강사 5인과 독립기념관 수석연구원 등 지도교사 2인이 참여하여 더욱더 의미가 깊었다.

이들이 이번에 방문한 중국 내 임정 유적지는 상해, 가흥, 항주, 남경, 광주, 유주, 중경, 북경 등 총 8개 지역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들이 활동하던 무대이다. 이들 지역에서 학생들은 임정 요원들이 활동하던 당시의 시대상과 그들이 어떤 희생을 통해 민족 독립에 역할을 담당했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탐방에서는 유적지 방문 외에도 상해 총영사, 베이징 한국문화원장 특강을 비롯하여 지도교수 특강과 조별토의가 수시로 진행되었으며, 독립유공자 후손과의 만남, 기념음악회 등도 개최되었다.

이번 탐방 현장을 생생하게 영상물과 사진으로 기록하여, 다큐멘터리 〈8박 9일간의 기록〉을 제작하여 언론사에 배포하고, 임정지역 및 탐방사진 등은 크게 출력하여 중국내 한국국제학교에서 전시하기도 하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각종 특강과 체험을 통해 건국이념에 대한 존중과 선진 시민의식에 관해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교민들에게도 건국의 이념과 시민의식 향상과 관련한 언론활동도 벌여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이들은 임시정부 유적지를 도는 과정에서 한인 청소년 간 글로벌 리더십 확대는 물론이고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고취하는 기회가 되었다.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를 방문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유적지 현판(위 아래)

국어로 세상을 품다
국어사랑 큰 잔치

국어의 가치를 깨달아야

대한민국 건국 이후 사상 처음으로 국어 관련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대한민국 건국이 우리말과 글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는 '국어사랑 큰 잔치'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건국60년을 기념하여 국어의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펼쳐질 국어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보는 자리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립국어원이 주관한 이번 '국어사랑 큰 잔치'는 지난 2008년 8월 22일과 23일 이틀간에 걸쳐 서울 홍은동에 위치한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국어사랑 큰 잔치에 참여한 국어 관련 종사자는 대학에서 국어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들을 비롯해 언론과 출판인, 그리고 교사와 국내외 거주하는 한국어 교원 등 600여 명에 이른다. 이 행사는 초청 강연, 분임 토의, 어울림 마당, 국어사랑 선포식 등 다채로운 순서로 열렸다.

국립국어원 이상규 원장은 이번 행사와 관련해 "건국60년을 맞아 국어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국어의 가치를 확인하고 국어가 더욱 풍요롭고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바탕이 되도록 다짐하는 자리"라며 국어사랑 큰 잔치의 의의를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한글은 이제 한민족의 언어일 뿐 아니라 언어 사용자 수 기준으로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와 비슷한 세계 10위권의 국제 공용어"라며 "한글에 대한 관심은 대내외적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풍요롭고 창조적인 문화와 지식을 창출하는 수단으로써 국어를 갈고닦아 언어 강국의 위상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 주제 발표 및 분임 토의 |

구분	주제	발제자	토의 내용
삶의 국어	민족 문화와 국어	민현식(서울대)	– 국어와 한글의 민족적 가치 공유 – 인터넷 시대의 건강한 소통과 국어 – 미디어 시대를 선도하는 품위 있는 국어
		안용순(배명중)	– 청소년 언어 실태 – 국어 교육의 나아갈 길
나눔의 국어	세계 속의 한국어	조항록(상명대)	– 한국어 · 한글의 세계화 – 다문화 시대의 국어
창조의 국어문화	창조의 동력, 국어	김중순(계명대)	– 국가 문화 브랜드, 한글 – 미래의 문화와 지식을 창조하는 국어 – 산업화 및 창작 자원, 한글 – 정보화를 선도하는 한글

국어는 문화와 지식의 산실이 되어야

국어사랑 큰 잔치 행사 장면.

〈국어로 세상을 품다〉를 주제로 삼고, '삶의 국어', '나눔의 국어', '창조의 국어'를 구호로 내건 이번 행사는 22일 금요일 개막식과 서울대 권영민 교수의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연사로 나선 권영민 교수는 〈민족과 언어-한국어 현실과 새로운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발판으로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힘쓸 것을 주장하였다. 이어 그랜드볼룸, 에메랄드홀(1층)에서 열린 분임 토의에서는 '삶의 국어: 민족 문화와 국어', '나눔의 국어: 세계 속의 한국' '창조의 국어: 문화 창조의 동력, 국어' 등 각 주제에 따라 4개 분임조로 나뉘어 토의가 진행됐다.

이후 컨벤션홀 4층에서 환영 만찬이 있었다. 실내악단 다스름의 연주와 전통 무용의 오프닝 공연으로 시작된 환영 만찬은 남상일의 한글사랑 시사난타, 북밴의 축하공연과 음악그룹 나비야, 비보이가 피날레 합동 공연을 펼쳐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다.

이튿날인 23일 토요일에는 컨벤션 홀 1층에서 어울림 마당으로 꾸며졌다. 참가자들은 각 분과별로 국어 사랑과 관련한 주제 문구와 이미지를 마음과 정성을 담아 완성했다.

그랜드볼룸으로 자리를 옮긴 참가자들은 분임 토의와 종합 토론을 거쳐 완성된 '국어사랑 선언문'을 선포하는 자리를 가졌다. 선언문에는 국어를 갈고 다듬어 국어의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국어가 새로운 문화와 지식의 산실이 되도록 하며, 나라 안팎의 다채로운 언어문화가 공존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어사랑 선포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문화계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선포식의 '참가자 기념 촬영'을 끝으로 이틀간의 '국어 사랑 큰 잔치' 행사는 아쉽게 마무리를 지었다.

분임 토의를 통해 도출된 국어사랑 실천 방안은 행사 후에도 꾸준히 국어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데 활용하고 향후 국어 정책 수립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국어사랑 큰 잔치는 건국60년을 맞아 국어사용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외국어 학습으로 위축된 국어사용 환경을 정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 행사 일정 |

22일(금)		23일(토)	
시간	행사 내용	시간	행사 내용
13:00~13:30	개막식(국립국어원장 환영사)	9:00~11:30	어울림 한마당(선언문 작성2)
13:30~14:20	초청 강연(권영민 서울대 교수)	11:30~12:30	선언문 선포식
14:30~16:45	분임 토의	12:30~14:00	중식
17:00~18:20	분임 토의 정리 및 종합 토론	14:30	폐회
18:30~20:30	만찬(초청 공연)		
20:30~21:30	선언문 작성1행사 일정		

한글, 피어나다
한글 해외 순회전

일본에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다

'한글' 을 소재로 한 본격적인 국외 전시가 2008년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오사카와 동경에서 열렸다. 건국 60년과 훈민정음 반포 562돌을 맞아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일본에 알리기 위한 이번 전시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동경과 오사카문화원이 주최하고, 한글학회(대표 김승곤)가 주관했다. 이번 행사는 오사카 한국문화원 전시실과 동경 신주쿠 파크타워 1층 갤러리에서 전시됐는데, 한글을 문자로서만이 아니라 디자인과 조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일본인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오사카와 도쿄에서 열린 한글 해외 순회전 포스터.
이번 행사는 훈민정음 반포 562돌을 맞아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일본에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한글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전시 행사

이번 전시는 양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 손글씨를 중심으로 일본 현지 단체와 유명 작가를 초청하여 양국 간 비교와 참여를 중심으로 우호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리고 관람 층을 현지 일본인 주류계층을 중심으로 하되, 재일 교포 및 교포학생들의 교육적 측면도 고려했다. 전시규모는 동경과 오사카 모두 비슷하게 마련했다. 다만, 오사카의 경우 교민들의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한글의 교육적 효과를 좀 더 강조했다.

전시 내용은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단면들이 다섯 개의 한글 이야기로 짜여졌다. 우선 관람객들이 전시장에 들어서면 한글의 창제 역사, 한글정신(철학성, 과학성, 자주성, 실용성, 애민정신), 한글의 제작원리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한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생기면, 다양한 예술 작품과 디자인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글 피어나다
OSAKA / TOKYO
ハングル展
美しき韓国の文字、ハングルの世界へようこそ!

젊은 상상,
그리고 이야기

若い想像力、
そして物語

言語はそれ自体が文化であると同時に、文化を納める器でもあります。現在、人類が数多くの言語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多様な文化的想像力と数多くの物語が地球に存在するということなのです。

文字はこのような言語を納める器です。文字はこのような言語を貯蔵し、さらに拡張させます。文字なしに言語、すなわち人類の文化が時空間的に拡張することは不可能です。

韓国にも韓国人が使用する韓国語があり、これを納める器であるハングルがあります。「ハングル展」はハングルについての展示です。韓国と韓国文化の断面がハングルの中に込められています。韓国と韓国文化について、5つのハングルの物語で構成しました。

언어는 그 자체가 문화인 동시에 문화를 담는 그릇입니다. 현재 인류가 수많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문화적 상상과 풍부한 이야기들이 지구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문자는 이러한 언어를 담는 그릇입니다. 문자는 이러한 언어를 저장하며 확장합니다. 문자 없이 언어, 곧 인류문화의 시공간적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에도 한국인이 사용하는 한국어가 있고 이를 담는 그릇인 한글이 있습니다. [한글 피어나다]는 한글에 대한 전시입니다. 한국과 한국문화의 단면들이 한글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섯 개의 한글 이야기로 구성했습니다.

1
共有_物語の始まり　나눔 _ 이야기의 시작
ご訪問の皆様を歓迎して、韓国の美しい文字ハングルを紹介します。展示の内容を含んだ短いメッセージを届けます。
방문객을 환영하고, 한국의 아름다운 문자, 한글을 소개합니다. 전시의 내용을 함축한 단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
創造_ハングルは創造する　창조 _ 한글은 창조한다
ハングルの美を再発見し、ハングルに新しい意味を与えます。ハングルのさまざまな美を表現した芸術作品を展示します。
한글의 미를 재발견하고, 한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한글의 다양한 미를 표현한 예술작품을 전시합니다.

3
想像 _ ハングルは想像する　상상 _ 한글은 상상한다
ハングルの創造と構造の基本原理を基にデザインされた、ハングルのデザイン作品を展示します。
한글의 창조 및 구성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디자인된 한글 디자인 작품을 전시합니다.

4
文化 _ ハングルは文化だ　문화 _ 한글은 문화다
映画、広告、ミュージックビデオなど、さまざまな媒体の特性に合わせて使われるハングルの多彩な表現を紹介します。
영화, 광고,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의 특성에 맞춰 활용되는 한글의 다채로운 표현을 소개합니다.

5
進化_ハングルは進化する　진화 _ 한글은 진화한다
ハングルの科学的構造を表した展示空間です。
한글의 과학적 구조를 반영한 전시 공간입니다.

다섯 개의 한글 이야기로 구성된 전시회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안내서.

손글씨 디자인은 한일 우호, 한글, 평화 등을 소재로 삼았다. 그리고 이것을 한복, 일본 기모노, 한지, 모시옷 등에 찍어서 전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글 디자인, 손글씨가 들어간 다양한 분야의 문화상품도 전시하였다. 의상, 문구, 액세서리, 의류, 넥타이, 생활용품, 장난감, 패션용품 등 다양한 한글 문화상품을 전시했다. 그리고 한글 디자인 소재 영상, 전각 애니메이션 등 영상 작품과 컴퓨터 폰트의 다양함까지 소개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승곤 한글학회 회장은 "한글은 정보화시대에 가장 알맞은 글자이면서 예술성을 띤 문자이기에 모든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문자라고 보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친밀성을 갖고 한 · 일간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공동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이번 전시를 통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소개함으로써 한글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늘어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글을 문화와 결합하여 소개함으로써 한글에 대한 친숙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한글의 과학성, 심미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글을 국가의 대표브랜드로 완성해 가는 출발점이 됐다고 자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에도 해외에서 한글 순회전시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글의 우수성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 전시 내용 |

전시 주제별 영역	주요 전시 내용
나눔 : 이야기의 시작 방문객을 환영하고 한국의 아름다운 문자, 한글을 소개	• 전시 행사 소개 • 훈민정음 영인본 • 한글 창제원리 소개 영상(국립중앙박물관) • 한글문화상품 30점(산돌티움)
창조 : 한글은 창조한다 한글의 다양한 미를 표현한 예술작품을 전시	• 정영훈, 김수정, 노승관의 영상 작품 • 민병걸의 육면체 나무 이용 입체글자 • 이상봉의 한글 의상
상상 : 한글은 상상한다 한글이 구성원리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작품을 소개	• 서주원, 독불디자인, 정영웅의 한글소재 작품 • 김민, 최정호 작품 타이포그래피 10점 • 안상수, 한재준, 이용제의 타이포그래피 작품
문화 : 한글은 문화다 영화, 광고, 비디오 속에 나타난 다채로운 한글의 표현을 소개	•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컨텐츠디자인랩 – 국민대 노승환 교수 및 대학원학생 12명의 영상작품 • 한글문화 오브제 15점
진화 : 한글은 진화한다 한글의 과학적 구조를 반영한 디지털시대 속의 한글	• 21세기 디자인 환경에서의 한글 – 핸드폰, 네비게이션 등 전자매체 속의 디자인 한글 • 디지털 한글(컴퓨터, 핸드폰) 오브제

7. 대한민국 6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보는 전시회

빛바랜 필름 속에 어린 땀의 역사
한국현대사진 60년 1948-2008 展

작가 106명 참여, 작품 380여 점 공개

한국현대사진의 60년 역사를 돌아보는 '한국현대사진 60년 1948-2008' 展이 8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국립현대미술관 제1, 2 전시실 및 중앙홀에서 열렸다. 건국60년 기념사업과 맞물려 기획된 '한국현대사진 60년 1948-2008' 展은 사진전으로는 보기 드문 대규모 전시로 1948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사진의 역사를 '한국현대사진 1948-1960', '한국현대사진 1970-1980', '한국현대사진 1990-2000' 등 세 시기로 나누어 보여주었으며 총 106명의 작가들 작품 380여 점이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세계사에서 '현대'라고 정의하는 시기로부터 지금까지의 한국사진 즉, 1948년부터 2008년까지 60년 동안의 한국현대사진을 정리하였으며, 순수사진, 창작사진, 예술사진으로 불리는 사진작품과 대표 작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한국현대사진의 초기인 1948년부터 1960년대는 생존했던 원로사진가들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당시 사진의 역사와 환경을 정리했으며, 1970년부터 1980년의 사진을 재조명하며 잊혀졌던 작가를 찾아내 정리하고자 했다. 2000년대 이후의 사진들은 새로운 시대와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된 측면을 살피는데 더 큰 비중을 둔 의미 있는 전시회였다.

한국현대사진의 60년 역사를 돌아보는 〈한국현대사진 60년 1948-2008〉의 개막식 전경.

전시의 기획을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은 최승훈 학예연구실장을 주축으로 외부 사진 원로 및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과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작가선정과 전시의 골격을 완성하였다. 이번에 참여한 외부 운영위원은 김영수(작가, 민족사진가협회장), 정범태(작가), 양성철(대구산업정보대학 디지털 사진영상과 교수), 오상조(광주대학교 예술대학 사진학과 교수), 최민(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등 5명이며, 전시 실행 및 진행은 박영택(경기대학교 교수), 정인숙(작가)으로 구성되었다. 그 외 사진계 원로들이 전시에 대한 자문과 구성에 많은 도움을 준 뜻 깊은 행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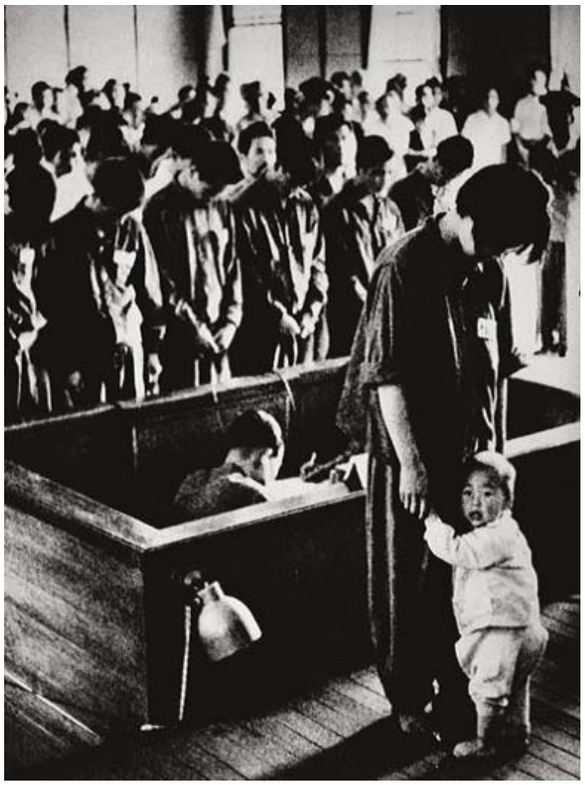
60년 역사를 세 시기로 나누어 전시

① 한국현대사진 1948-1960

이 시기의 작품들은 전쟁과 분단, 빈곤 등 고난의 시기로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고단했던 생활상을 보여주었다. 또 1960년대 후반의 경우 시기적으로 군사독재정권이라는 시대적 배경 때문에 공모전 위주의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특징이다. 신건이, 안종칠, 이해문 ,임응식, 정범태, 주명덕, 최민식, 한영수 등의 작품 80여점이 소개되었다. 이 시기는 6 · 25 전쟁과 민족 분단, 전후의 극심한 빈곤 등이 한국 사진계에 '생활주의 리얼리즘' 의 붐을 일으킨 시기로, 포토 다큐멘터리적인 성격이 강했다. 전후 다시 돌아와 본 서울 곳곳의 풍경과 유세장, 소싸움터, 한강 강변, 청계천의 모습 등이 주종을 이루지만, 눈밭 위의 사람들을 원경으로 찍은 강상규의 '설목' , '설원지대' 등은 예술과 기록의 경계를 해체하는 후대의 사진미학을 선취하였다.

② 한국현대사진 1970-1980

강운구, 배동준, 한정식, 홍순태, 김기찬, 김영수, 양성철, 오상조, 육명심 등의 작품 120여 점이 선보였다.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와 1980년대의 정치적 문제를 다룬 이 섹션에서는 작가의 개인적인 시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후 1980년대 후반이 되면서 자유로운 표현방식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현대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과감한 클로즈업을 통해 강렬하고도 극적인 인물사진을 만들어내는 육명심,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찾아다니며 갈등과 단절의 문제를 파인더에 담아낸 강운구의 사진들을 눈여겨볼 만하다. 1980년대로 들어서면 부조리한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사진예술이 등장하는 한편 구본창, 배병우, 김대수, 김장섭 같은 작가들에 의해 미술작품 같은 사진들도 한 경향으로 자리잡는다.



정범태, 1961, 〈결정적 순간〉

③ 한국현대사진 1990-2000

1990년대는 젊은 작가들의 다양한 실험활동이 눈에 띄는 시기. 전문적인 사진교육을 받은 젊은 작가들에 의해 주도되는 이 시기는 다양한 매체를 혼합하고 기존의 사진의 개념을 파괴하는 등 실험적인 작품들이 양산됐다. 구본창, 김대수, 김중만, 민병헌, 배병우, 오형근, 이갑철, 이정진, 정인숙, 최광호, 김수강, 김아타, 김옥선, 방병상, 정연두 등의 작품 170여 점이 전시되었다. 여러 매체의 혼합을 통해 기존의 사진 개념을 파괴하는 이들의 장르 해체 · 혼성은 디지털 혁명과 만나 사진의 개념을 획기적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나무 사진을 열 폭 병풍처럼 이어 붙인 배병우의 〈만남과 헤어짐〉, 양수리의 뿌연 안개사진으로 유명한 민병헌의 작품들, 이미지 중첩을 통해 움직이는 듯한 희미한 사진을 만들어내는 김아타의 〈온에어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인 작품들로 통한다.

사진이 들려주는 우리 역사의 생생한 목소리

현대 예술에서 사진의위상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것과 달리, 그동안 한국현대사진의 전개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자리는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시는 한국현대사진 60년 역사를 조망하고 미래의 한국사진이 지향해야할 지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무척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온 우리 현대 역사를 60년 사진사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사진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활자나 영상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와는 다른 감동을 주었다.

전시장 입구

특히 이번 행사는 한국현대사진을 역사적으로 조망하면서 동시에 '한국사진이란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던지고 한국현대사진의 특성과 정체성, 한국사진의 미학적 가치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의도된 전시였다. 과거에 개최된 사진전들이 대부분 역사전의 성격이 강한 사진전이었으나, 금번 전시는 역사 정리에만 치중하지 않고 한국사진의 특성을 살피고, 한국현대사진의 흐름을 몸소 체험한 사진가들의 작품을 통해 한국사진의 구체적인 정체성과 특징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자 하였다. 한국사진을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관점' 의 측면보다 전체를전시장 입구 조망하면서 '한국현대사진의 개념' 을 정립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한국현대사진 60년 1948-2008' 展은 본 전시회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연계되어 관람객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8월 29일 오후 3시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소강당에서 박주석 명지대 교수와 박평종 사진평론가가 〈한국현대사진을 묻다 1〉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으며 9월 26일(금)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박영택 경기대 교수, 신수진 선생 등이 초빙되어 〈한국 현대자신을 묻다 2〉라는 주제로 관람객들과 만났다.

이외에도 8월 15일과 22일, 29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포토프린터로 가족앨범 만들기' 행사가 열려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포토프린터로 가족앨범 만들기' 는 사진작가가 찍어준 사진을 출력하여 가족 앨범을 만드는 행사로 국립현대미술관 중앙홀, 야외조각장 등에서 사진 촬영이 이루어졌으며 미리 이메일로 신청 · 접수한 가족들에 한해 이루어졌다.

〈한국현대사진 60년 1948-2008〉展은 전시 기간 동안 매일 천 명 이상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아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전시 기간 동안 총 103,106명이 전시장을 찾아 사진 6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사진 속에 얽힌 건국60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인재대국! 과학기술 강국건설!
2008 대한민국 과학축전

오프닝 행사 '빛의 숲'

개막식 행사.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현 한국과학창의재단), 광주광역시 등이 주관한 우리나라 최대 과학축제 '2008 대한민국과학축전' 이 8월 1일부터 6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서 개최되었다. 건국60년이며 교육과학기술부 통합 원년인 2008년을 맞아 12번째로 열린 대한민국과학축전은 〈인재대국! 과학기술강국 건설〉이라는 주제로 건국 이후 과학기술발전 발자취뿐만 아니라 21세기 인류와 지구 현안인 우주, 환경, 에너지, 생명, 신기술 중심의 테마별 기획 전시 및 과학기술 체험관 등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루 평균 3만 명의 관람객이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한국과학문화재단이사장,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영된 오프닝 영상에는 2008 대한민국과학축전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역대 대한민국과학축전 소개, 건국60년에서 교육과 과학기술의 발자취, 교육과학기술부 출범 원년의 의미 등이 화면에 담겨 상영되었다.

이어진 빛 퍼포먼스 '빛의 숲' 은 현대예술을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아트와 빛 고을 광주의 특성을 살린 빛의 예술과 예술 활동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인간의 움직임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연출을 통해 1948년 건국 이래 숨차게 이어져온 대한민국의 역사와 2008년 건국60년을 맞이하여 그 새로운 기점의 기틀을 마련하는 분기점을 기념하면서 교과부 출범 원년을 축하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선보였다.

| 테마별 주요 프로그램 |

	구분	구성 프로그램
전시관	지구관	· 지구의 해를 맞아 특별 프로그램 운영
	해외관	· 해외 참가단체 부스 운영
	과학과 예술관	· 과학과 예술이 조화를 이룬 작품 전시
	출연연구소관	· 정부출연연구소와 관련 기관들의 연구성과 전시 및 체험 · 재단 부스 운영
	산업관	· 첨단 과학기술기업 부스 운영(광주광역시 소재 기업 중점 참가유도)
체험관		· 초등학교~고등학교 각 학교와 시민단체, 기업 등 약 80여 개의 단체에서 준비한 신기하고 재미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동시 진행 행사	사이언스 북페어	· 국내 우수과학도서 전시 및 판매
	과학기술앰배서더 특별강연	· 일반인 및 청소년 대상 유명과학자 Flagship 앰배서더 특강실시
	청소년이공계진로엑스포	· 이공계 전공과 관련한 진로상담, 전망, 사회 진출 현황 등 소개 및 청소년직업흥미검사
	국제로봇올림피아드전국대회	· 지역예선을 거친 600여 개 초 · 중 · 고 · 일반팀, 약 1,000여 명 참가

다양한 볼거리,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각종 테마관 설치

'2008 대한민국 과학축전' 에서는 한국 최초 우주인 탄생을 기념하여 우주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집중 소개되었다. 개막식 첫날인 8월 1일, 한국인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의 특별강연을 열어 우주인 선발, 훈련, 우주선 탑승, 착륙까지의 생생한 체험을 전해 주었으며 인공위성, 우주식량, 우주복 등 항공우주 연구 성과물을 전시하고, 행성저울과 비행 시뮬레이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대한민국 건국60년과 교육과학기술부 출범 원년을 기념하여 특별주제관을 설치, 다양한 전시물을 선보였다. 대한민국 건국 원년인 1948년에서 2008년까지 10년 단위로 교육 · 과학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와 교육과학기술부 출범의 의의와 비전을 동영상으로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교과서 변천사를 소개하면서, 첨단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디지털 교과서를 관람객들이 직접 시연할 기회를 특별히 제공했으며 기후변화/환경관, 에너지관, 생명관, 신기술관 및 광주광역시의 특화산업인 광산업전시관 등을 운영하였다.

아울러, 인도, 쿠웨이트, 미국, 홍콩, 일본 등 해외 6개국이 참가하는 '해외 과학 체험관' 인 특별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익스플로라토리움(Exploratorium)의 현지 스텝이 참여해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청소년의 이공계 진로 상담과 직업 흥미검사도 할 수 있는 '청소년 이공계 진로안내 엑스포' , 국내 우수 과학도서를 전시 · 판매하는 '사이언스 북페어' 운영, 과학기술앰배서더 특별강연, 과학연극 · 과학마술 공연 등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2008 UN이 정한 지구의 해' 를 기념하여 '하나뿐인 지구, 인류의 건강한 미래' 라는 주제로 남 · 북극 빙하 및 심해 생물 표본을 전시하였고, 세종기지와의 전화 이벤트를 마련해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볼 수 있도록 했으며, 독도 주변 해저 지형 및 생물 관찰 프로그램을 제공, 독도의 주변 환경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전반적으로 이번 과학축전은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한 테마위주 전시품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한층 더 과학기술에 친근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시장 입구.

| 전시장별 주요 프로그램 |

구분		내용
김대중 컨벤션 센 터	1F 전시관	· 특별주제관 – 건국60년 대한민국의 위상, 교육과학기술부 출범 원년 · 정부출연연구소 테마전시관 및 지구의 해 기념관 · 청소년 이공계 진로안내 엑스포 · 사이언스 북페어(전시장 로비)
	2F 강연장	·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과의 만남 · 과학기술앰배서더 특별강연 · 과학 관련 영상물 상연
	4F	· 과학연극 및 마술공연 ·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전국대회
염주 · 빛고을체육관		· 초 · 중 · 고 과학동아리 과학체험 프로그램(96개) · 해외특별 체험프로그램(6개국)

다양한 부대 행사 운용

또한 부대 행사 프로그램으로, 2008 대한민국 과학축전의 붐업(Boom up)을 위한 사전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행사장 모습 스케치를 UCC로 제작하여 출품하는 UCC공모전이 열렸고 부대 행사로서 컨벤션센터 주변에서 과학의 뜰 퍼포먼스를 펼쳤고 관람객들에게 막대 풍선을 제공하는 키다리 삐에로를 투입, 관람객들을 즐겁게 하였다. 우주인 복장을 한 캐릭터와 함께 찍은 사진을 제공한 즉석 인화 서비스 역시 좋은 반응을 얻었다.

| 다양하게 치러진 부대 행사 |

구분	주제	내용	비고
과학의 뜰	2008 대한민국과학축전의 과학의 뜰	· 사랑하는 지구에게(낙서판) · 지구 환경을 위한 학생들의 의견 및 메시지 작성 공간	김대중 컨벤션 센터 외부
		· 매직 퍼포먼스 · 이국적인 휴식 공간(파라솔, 야자수)에서 펼쳐지는 매직 퍼포먼스	
키다리 삐에로	키다리 삐에로와 함께	· 키다리 삐에로가 행사장을 순회하며, 행사장을 찾은 참여 관람객에게 막대 풍선을 이용하여 예쁜 모양의 풍선을 제공	
앗! 우주인이다	우주인 복장을 한 캐릭터와 함께 사진도 찍고 즉석 인화 서비스	· 사전행사 2일 – 시내중심가 야간시간을 이용하여 운영 · 행사 기간중 : 우주인 복장을 한 캐릭터 요원들이 행사장을 순회하며, 참여 관람객들과 인사하며 사진촬영 서비스 진행	(사전 홍보 이벤트와 연계하여 진행)

성공적인 개최, 과학 기술 강국의 디딤돌 마련

이번 행사는 주 전시관인 김대중컨벤션센터 이외에도 광주광역시 소재 염주체육관, 빛고을체육관에서 동시에 치러졌다. 염주체육관에서는 학교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국 초, 중, 고등학교의 과학 동아리 10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과학실험 체험 프로그램 행사가 열렸으며(체험프로그램 참가자:1차-338명 2차-333명 전체:671명) 빛고을체육관에서는 해외 특별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도 National Council of Science Museums(Making science accessible to People) 등 해외 참가 단체의 부스가 운용되었다.

2008 대한민국 과학축전에는 하루 평균 3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특히 수도권에 비해 과학문화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서남권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여 지역별 과학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 학생들 이외에도 여름휴가와 맞물려 광주 지역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 전국에서 많은 일반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이번 과학축전에는 출연연구소 19개, 96개 학교, 6개 해외기관, 조선대 생활교실 등 관련기관 35개소 등 총 156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전시 프로그램 250개, 체험프로그램 270개 등 총 520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풍성한 과학 한마당을 연출했다.

고난을 넘어 천 년, 영광의 시간으로
특별 전시, '그 고난과 영광의 순간들'

우리들 삶의 모습을 되짚어

2008년 7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건국60년 기념 '그 고난과 영광의 순간들' 특별전이 열렸다. '그 고난과 영광의 순간들' 특별전은 건국60년을 기념해 건국 후 60년이라는 세월과 그 시간 속을 생생히 근 · 현대사의 주인공으로 살아온 우리들 삶의 모습을 되짚어보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되찾은 나라에 이름을 붙이고, 전쟁과 폐허의 시공간 속에서 나라의 기틀을 닦고, 어렵고 고된 시절을 살아내며 견딘, 기쁨과 슬픔 속에서 흑백 사진처럼 지나간 일련의 과정이 순서대로 '우리나라', '우리의 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추억' 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① 첫 번째 주제: 우리 마음속의 나라 '우리나라'

국가는 흔히 국민 · 영토 · 주권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전제로 한다. 실존하는 것은 국민 · 영토 · 주권이지만 이 세 가지가 만들어 낸 국가 개념은 우리에게 실존 이상의 의미로도 그리고 제각기 다른 의미로도 존재한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내 나라의 땅 위에서, 내 나라의 주인으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

자수태극기 | 1910년대 말~1920년대 초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수를 놓아 만든 태극기

동일한 국가개념과 동일한 시대를 공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내 나라' 를 느끼는 실존 이상의 그것은 서로 다른 이미지로 존재하기 마련이다. 일제 강점기, 독립된 나라의 문지기가 소망이었던 이들, 일제의 식민으로 태어나 대한민국을 건설한 이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온 이들, 그들에게 '나라' 는 어떤 의미였을까. 이렇게 1부에

서는 새 나라의 시작을 공간적으로 구성한 '문'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가슴 속에 품고 있어야 했던 태극기, 1948년 헌법을 제정하고 그 참여자들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 정부수립을 기념하며 벌인 축하 기념식 장면 등을 통해 당시인들이 생각한 나라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라는 과연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② 두 번째 주제: 수출 백억 불 기념탑을 세우다 '우리의 땀'

〈잘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가꾸세〉. 1960년부터 1970년대를 살았던 이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노래들이다. 또한 복지 수준이나 삶의 질이 아니라 당위와 희망을 힘주어 외치던 노래들이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은 잘살아보자는 눈물겨운 외침이다. 대부분의 개인들에게 그 시절은 고난과 가난과 역경의 세월이었으면서도 동시에 국가적 견지에서는 발전과 영광의 세월이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이 만들어낸 땀의 가치는 100억불 수출의 거대한 기념탑으로도, 배고픔과 가난을 이겨내려던 가슴 저린 기억으로도 공존한다. 2부 '우리의 땀'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던 절약, 새마을운동, 농업장려 등의 캠페인 관련 자료와 함께 현재는 사용되지 않아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도구들의 용도를 알아보는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섹션, 60년간의 갖가지 이야기를 도표와 사진으로 꾸민 정보그래픽 패널로 구성되었다. 또한 100억불 수출 기념탑 재현과 시대 영상 등을 통해 '우리의 땀'이 만들어낸 가치와 풍경을 되돌아보았다.

똥바가지 | 196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철모를 재활용한 재래식 화장실용 똥바가지

③ 세 번째 주제: 단벌신사 아버지와 말표 사이다 '우리의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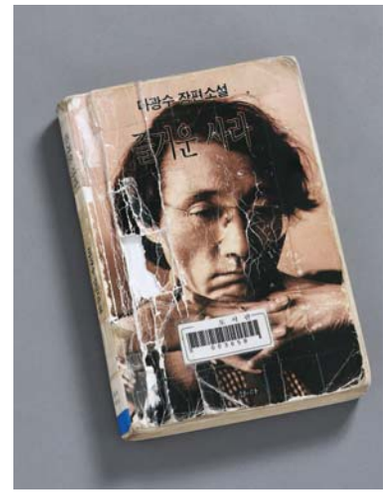
우리 모두가 수출의 역군이었으며, 우리 모두가 내 나라를 움직이게 하는 톱니바퀴였을 무렵, 100억불 수출 기념만으로 기억되지 않는 개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항상 누군가를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만 보아야 했던 시절, 이제와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활은 비록 행복과 안락의 기억은 아니었을지라도 담담하게 미소 지을 정도의 기억으로 남겨져 있다.

2부 '우리의 생활'에서는 단벌 신사 아버지가 월급날 사오기로 한 말표 사이다, 자린고비 어머니가 쌈짓돈을 모아 처음으로 마련한 작은 냉장고, 가볍고 저렴하지만 오래 쓰다보면 구멍이 나버리는 양은 냄비, 닳아 없어질 새라 등교 때만 신던 학생 운동화, 우리 동네에서 가장 부자인 철수네 아버지가 타고 다니던 포니 승용차 등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보아 왔던 기억 속의 생활용품들과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모습으로 구성되었다.

말표 사이다병 | 197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④ 네 번째 주제: 사라진 것, 그리고 남은 것 '우리의 시간'

60년간의 이야기, 그리고 60년 전의 이야기를 이제와 새삼 꺼내드는 것은 그것이 지나가버린 과거의 시간이나 기억이기 때문은 아니다. 60년의 시간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살아 있는 그리고 현재를 만들어낸 시간이다. 어린 시절 골목길에 나타난 뻥튀기 아저씨를 쫓아다니던 일이 과거 속의 이야기처럼 기억되지만, 2008년 현재에도 뻥튀기 아저씨는 존재한다. 사진 속에서만 보았던 외국 대도시의 마천루가 2008년 현재 우리의 생활 속 일부분으로 자리했으면서도 우리 주변에서 1960년대에 지어진 집과 건물의 풍경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즐거운 사라 | 1991 | 정독도서관 소장

시간은 현재에서만 존재하지만 그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모두 현재 속에서 공존한다. 2008년 7월 오늘의 모습은 60년의 시간 모두가 모여진 공존의 모습이다. 4부 '우리의 시간' 에서는 현재 속에 남아 있는 과거와 현재를 만들어낸 과거의 모습을 주제로 삼았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금성 TV와 벽돌만한 휴대전화, 어릴 적 아버지가 사 오신 사진기, 동네 골목 어귀에서 옹기종기 모여앉아 만들어내던 뽑기, 못이 튀어나와 바지를 찢어놓던 학교 교실의 작은 의자와 책상, 지금의 자가용보다도 귀했을 것 같은 오래된 자전거 등 지금도 있지만 과거에도 있었던 지나간 시간 속의 물건들이 공간별로 전시되었다.

⑤ 다섯 번째 주제: 그 음악다방의 DJ가 돌아왔다 '멀티미디어로 보는 우리의 추억'

기획전시실 I의 마지막 부분인 4부 '우리의 시간' 을 지나가면 연이어 기획전시실 II에서의 멀티미디어 체험공간을 만난다. 5부 '우리의 추억' 은 영상과 음향으로 구성된 70-80년대의 추억거리들이 모여 있다. 추억의 만화영화, 60년 감동의 스포츠, 동영상 매직아이, DJ가 되어보자, 이렇게 4가지 코너로 구성되었다. '추억의 만화영화' 는 70년대 인기를 끌었던 로봇 태권브이와 똘이장군, 마루치 아라치 등의 만화영화를 전자오락실의 오락기 조이스틱을 이용한 선택을 통해 관람할 수 있는 작은 영화관이다.

'60년 감동의 스포츠' 는 60년간의 대표적인 스포츠 순간영상들을 모아 터치스크린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코너이며, '동영상 매직아이' 는 정지된 화상 속에서 새로운 화상이 보이도록 한 기술을 응용하여, 움직이는 스포츠 화상 속에서 움직이는 스포츠 동영상이 튀어나오게 한 영상물이다. 끝으로 'DJ가 되어보자' 코너는 70-80년대 음악다방의 DJ 박스를 재현해 그 안에서 흘러간 과거의 노래들을 선택적으로 들어볼 수 있게 만든 음향 청취 공간이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60년, 우리의 이야기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 의 60년간 이야기이인 동시에 그 60년간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다. 60년의 이야기는 기억이나 추억이란 몇 가지 단어로, 달력에 새겨진 붉은 색 글씨로, TV에서 중계되는 기념식의 한 장면으로서가 아니라 2008년 현재를 만들고, 2008년 현재에 공존하는 수많은 '우리' 의 일상이며 그 소박한 일상이 만들어낸 우리의 모습이다.

60년의 시간은 1948년에 태어나 올해 환갑을 맞은 건국동이만의 것은 아니다. 독립과 광복을 그토록 염원했으면서도 광복과 건국의 그 날을 채 맞기도 전에 스러져간 이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나라를 되찾고 전쟁의

영화 자유부인 포스터 | 1956 | 김영준 소장

소용돌이를 헤치고 살아온 이들, 열악한 봉제공장의 한 귀퉁이에서 쉼 없이 재봉틀을 돌리던 이들, 그리고 2002년 광화문 거리를 온통 붉게 물들이던 이들, 바로 그들 모두가 만들어낸 역동적인 시간의 역사였다.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49일 동안 계속된 이번 '그 고난과 영광의 순간들' 특별전은 바로 그러한 역사의 기록이었다. 전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수 천 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은 가운데 특별 기획전은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번 전시를 통해 건국 이후 60년간에 걸친 한국인의 생활문화사를 재조명하고, 근현대 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전시자료 및 연구결과 축적, 현대적 전시기법 및 기술 구현을 통한 현대 주제 전시의 다변화 시도 등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전체적으로 건국60년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천 년 미래로 발전된 조국을 안내할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건군60년의 발전사가 한눈에
건국 · 건군60년 특별 전시회

건군60주년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국군의 업적을 통한 국방의 중요성을 확인,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건국 · 건군60년 특별 전시회가 2008년 9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쟁기념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렸다. '눈물과 통한(痛恨), 피와 땀, 꿈과 희망' 이라는 주제로 국방부가 주관하고 전쟁기념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진흥회 등이 주최한 이번 전시회는 정부수립과 국군창설, 한국전쟁 등 수많은 위협 속에서 미래 동북아의 평화를 선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으로 거듭난 대한민국 국군의 사기를 드높이고 건국60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특별전은 단순한 물품 전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테마를 통해 관람객과 만났다. 먼저 전시장 중앙에 건군60년 대표인물 15인으로 구성한 16m 높이의 입체상징물과 자체기술로 개발한 국내 최초의 초음속 T-50 고등훈련기를 배치하여 분위기를 돋웠으며 광복군, 건군, 6 · 25전쟁, 전쟁피해복구 및 재건, 국방체제의 조직 · 제도화, 국방체제의 기반 조성, 국방체제의 발전, 2008 국군에 이르기까지 국군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60년의 발전상을 돌아보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와 번영의 60년을 보여주었다.

또한 70년대, 90년대, 2008년 현재의 내무생활관을 구성하여 막사와 시설, 개인 먹을거리와 놀거리의 변천을 보여주고 다양한 군대이야기를 소개하여 병영생활과 병영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토록 했으며 군 위성통신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

체계 아나시스, 휴대용 대공무기 신궁,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 차기전차와 차기보병장갑차, 국방로봇(견마로봇), 한국형 기동헬기 전시 등의 전시를 통해 첨단화, 과학화되는 선진강군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아울러 평화와 번영 민족 통합을 주제로 구성한 에필로그영상을 통하여 전쟁 없는 나라, 이산 없는 민족, 분단 없는 조국을 향해 다 같이 전진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체험 이벤트 행사로써 국군 사진전 관람, 얼굴 위장한 군인 되어보기(기념촬영), 군 장비 콜렉션 관람, 황금마차 PX에서의 군대음식 체험, 군에 남기고 싶은 말 쓰기, 기념품 구입 등이 다채로운 코너를 마련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이번 특별전엔 다양한 무기와 과거의 군 관련 자료가 전시되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K21 보병전투장갑차와 T-34 탱크 등의 실물 전시와 함께 광복군이 쓰던 한글암호표, 정훈대강, 국문철자, 교련구령 규정표, 천기관찰 보고법 등이 전시되었으며 김포비행장에 내린 맥아더 사진, 존무초 미국대사 김포 도착사진, 건국 축하육해군 시가행진 초청장, 육군창설 기념 포스터, 창설당시 군복(실물) 광복군, 국방경비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여군의 군복, 6 · 25 기간 중에 사용된 작전통제권 이양문서, 유엔군 안전 보장증명서, 격전의 상흔, 밥솥, 3.5인치 로켓 포, B-29 폭탄, 압록강 수통, 평양1위 입성메달, 중공군이 심리전에 사용한 피리, 나팔, 꽹가리, 전단, 베트남전에 사용된 이인호 소령 전투복, K-레이션, C-레이션, 정글화강재구 소령 편지, 노트 등도 전시되었다.

건국 및 건군 60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전시회는 건국60년을 맞이하여 국민과 함께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진강군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이번 특별전은 건군 이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건군 역사를 소개한 최초의 전시였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미공개 전시자료 다수 확보 및 전시한 점, 실용적인 현수막 천에 의한 전시장 조성으로 예산 효율성을 제고했다는 점, 다양한 테마를 통해 군의 역할의 기능을 각인시킨 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길은 곧 국력이다
건국60년 도로교통의 발전과 도전

2008년 7월 7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 및 2층 가야금 홀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 도로교통 관계자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국60년 및 경부고속도로 준공 38주년 기념 제17회 도로의 날 행사가 열렸다. '도로의 날' 은 1992년부터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년 7월 7일)을 기념하여 제정한 날로서 도로가 우리나라 발전을 선도하여 경제성장에 공헌한 것을 자축하고, 올해 건국60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되새기며 그 의미를 더욱 뜻 깊게 새기는 행사로 추진되었다.

기념식 장면

이날 행사는 기념식 및 학술행사, 사진전 등으로 나뉘어 열렸으며 국내 산업종사자의 기술개발과 연구의욕을 촉진하고, 도로건설 ·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 분야 기여방안 모색 및 공감대 형성, 정부의 물류 및 SOC 네트워크 구축 정책에 대한 지원역할 모색,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역할을 맡아 온 도로교통인의 사기진작 등을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외부 공연팀의 축하 공연과 경과보고 영상물 상영, 기념사 및 축사 등으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는 도로교통발전에 공헌한 30인(개인 27명, 단체 3명)이 특별히 초청되어 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기념식과 동시에 경부고속도로 건설당시 순직한 77명에 대한 위령제가 유가족, 건설참여업체, 도로공사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휴게소(위령탑)에서 개최되어 국토 건설을 위해 산화한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기념식이 끝나고 오후에는 학술행사의 일환으로 정책토론회와 도로기술토론회가 열렸다. 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가야금 A홀 거문고 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고유가 시대의 도로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황상규 박사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오영태 아주대 교수,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유경수 한국ITS학회장, 유인상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장 등이 참여하여 동 주제로 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일호 박사가 〈국도업무 조직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였고 서영찬 한양대 교수, 성낙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동 주제로 토론 시간을 가졌다.

같은 시간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 B,C홀에서 벌어진 기술토론회에서는 장승필 서울대 교수의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을 통한 신뢰받는 토목기술인' 이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오흥운 도로교통연구원의 〈대도시 고속도로 네트워크 강화방안〉, 박창호 도로교통연구원의 〈공용수면 100년 교량 유지관리 전략〉, 한승환 도로교통연구원의 〈에너지 절감형 포장 및 재료기술〉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기념식과 함께 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가야금 홀 로비에는 〈길 사진 및 연구성과 포스터 전시회〉라는 주제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사진과 '길 50선 사진 및 연구성과 포스터' 가 전시되어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 "도로의 날" 의의

1970년대 비약적인 국가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된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을 기념하고 도로 · 교통인의 도전과 창조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992년부터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을 '도로의 날' 로 지정, 기념식 · 기술세미나 및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여성사60년의 발자취를 더듬다
여성60년사, 그 삶의 발자취

여성부는 건국60년을 맞아 존재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여성의 역할과 활동상을 조명하는 '여성 60년사, 그 삶의 발자취' 특별전시회를 8월 15일부터 약 한 달간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를 시작으로 지방 자치단체 5개 지역에서 순회 개최했다. 이번 특별 전시회는 건국 이후 60년 동안 산업화, 민주화 등에 기여해온 여성의 업적을 재조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여성사자료전', '시민참여전', '여성작가전과 상영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기념전 부로슈어

'여성사 자료전'에는 1948년 이후 분야별 최초 여성 70명의 사진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법조계, 행정부처 등 공직분야의 최초 여성으로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여성장관인 고 임영신(상공부 장관), 최초 여성대사 이인호 등이 소개됐다. 사회 · 문화 · 예술분야에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서향순(양궁, 1984년), 중앙 일간지 발행인 장명수(1999년), 미국여자 프로골프에서 우승한 박세리, 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경제 · 사회 등 기타 분야에서는1989년 국내 첫 여성보험계리인 자격을 취득한 조의주(45), 1995년 경찰대학 졸업 후 동대문 외사계장을 거쳐 1998년 인터폴 요원이 된 박선영(36),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최초의 여성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 특수용접사가 된 정수점 등이 소개되었다. 이외에도 1948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한국현대사의 부침 속에서 여성들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삶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성관련 주요정책과 법 · 제도의 변화부터, 여성들의 직업 활동 및 의복생활까지를 연표로 제작하여 전시하였다. 건국 이후 50년대 플레어스커트와 맘보바지, 60년대의 미니스커트와 70년대 핫팬츠에 이르기까지 패션 트렌드와 여성사 60년을 연도별로 정리한 여성연표는 특히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시민참여전'에는 시민 60인이 참여하여 60인의 기억(내가 갖고 있는 역사 공개하기 : 48년생 여성 60인이 자신의 60년사에서 가장 소중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기록물을 사연과 함께 전시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역사를 보고 구성하는 새로운 시각과 방식을 체득하게 함)과 킹왕짱! 60(나의 역사 기획하기 : 청소년들이 자신의 60살을 상상하며 연출사진을 찍어 봄으로써 현재 자신의 꿈과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생각해보고 미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회를 제공함) 등의 코너로 이루어져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이외에도 시 · 도별 자체전시물로써 여성작가미술전, 여성작가 상영회 등 시 · 도별 자체 실정에 따라 다양한 부대행사가 실시되었다.

여성부는 이번 '여성 60년사, 그 삶의 발자취' 특별전시회가 지난 60년 동안 국가발전과 사회 변화에 기여해온 여성의 역할과 현주소를 조명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시기간 중 여성부는 전시회에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여 양성 평등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여성의 삶의 발자취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시회 관람 소감문을 심사하여 전시가 끝난 뒤 시상하였다. 관람 소감문을 에세이 형식의 자유로운 글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받았으며 전시기간과 맞춰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접수된 작품을 별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우수상(1명), 우수상(4명), 장려상(10명)에게 여성부 장관상과 소정의 부상을 수여하였다.

전시장 풍경

민주화 정신을 재조명하다
2008 국립묘지 설치예술제

건국60년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화의 동력인 4 · 19혁명과 5 · 18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고, 성숙한 민주발전과 평화를 염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와 공동으로 역사상 최초로 '국립묘지 설치예술제' 를 개최했다.

지난 2008년 8월 9일부터 31일까지 국립 4 · 19묘지와 5 · 18묘지에서 동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전시명을 건국60년 기념 '2008 국립묘지 설치예술제' 로 하고 9일 토요일 국립 4 · 19민주묘지에서 이종정 국가보훈처 차장을 비롯하여 김종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4 · 19혁명 관련단체장, 보훈서포터즈와 국립묘지를 찾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가졌다. 그리고 개막식을 전후하여 경내에서는 '문화마을 들소리' 의 대북공연, 극단 '솔마루' 와 '한국실험예술정신(KoPAS)' 의 이미지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2008 국립묘지 설치예술제 전경.

이번 행사는 건국60년 동안의 민주화 성과를 뒤돌아보는 등 건국60년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위대한 국민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 선진한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그동안 추모와 경건한 분위기만을 강조하던 국립묘지의 기존 관념을 넘어 국립묘지가 자긍심과 더불어 시민들이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립 4 · 19민주묘지(강북구 수유동)에는 경내 입구와 연못 및 잔디광장에 무궁화와 태극기 등 대한민국의 상징물과 색을 이용한 대형 설치작품이 전시되었으며, 국립 5 · 18민주묘지(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에는 바람을 모티브로 추모와 치유, 그리고 조화라는 주제의 작품을 통해 희망과 염원, 그리고 민주의 바람을 형상화한 예술작품이 전시되었다.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 '2008 국립묘지 설치예술제' 참여 작가는 국립 4 · 19민주묘지에 김혜영, 정명교, 최문수 작가, 국립 5 · 18민주묘지에 강술생, 김해곤, 최승훈 작가 등이었다.

▲ 강술생, 김해곤, 최승훈 작품

▲ 김혜영 작품

▲ 정명교 작품

국가기록물에서 찾은 희망 메시지
건국60년 기념 국가기록 특별전, '대~한민국'

건국60년을 맞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건국60년 기념 국가기록 특별전 대~한민국' 전시회를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에서 개최하였다.

| 전시장소 및 기간 |

지역	기간	장소	형태
서울	8.5(화)~8.31(일)	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실내전
대전	9.8(월)~9.26(금)	정부대전청사 2동	순회전
광주	9.22(월)~10.10(금)	광주시청 1층 시민홀	순회전
부산	10.7(화)~10.24(금)	부산시청 1층 로비	순회전

이번 전시회는 건국60년을 맞아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경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과정을 되돌아보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시기록물은 제헌헌법과 중요사진 등 200여 점에 이르며, 주로 대통령기록물 등 국가 주요정책 기록물 원본이 전시되었다. 전시기록물 가운데 '해양평화선 옹호에 관한 지령' (1953)은 최근의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주목받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해양평화선 공표 이후, 일본의 평화선 침범이 계속되자 "우방 모든 관계자들이 알도록 일일이 기록해서 … 일본인들이 사실이 아닌 보고로 해외에 선전해서 오해(를)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해양평화선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시기록물 중 대한민국 전 · 현직 대통령의 원본기록물과 사인을 볼 수 있는 것도 관람의 재미를 더했다. 새마을운동과 월남파병 관련 문서 등에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원고와 지시사항 등이 메모되어 있다. 남북 최초 7 · 4공동성명을 비롯한 그 간의 남북공동성명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었다. 또한 1980년대 프로야구, 88올림픽 및 2002 월드컵 등 스포츠 관련 기록도 관람객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전시기록물 가운데, 첩(妾)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 제정을 추진한 문서를 비롯해 국민체조, 가족계획 관련 문서 등 생활사 기록과 영상도 관람 포인트 중 하나였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UN에서 수집해 온 한국관련 사진도 만나 볼 수 있었다. 한국은 유엔의 대표적인 피원조국이었으나, 최근에 UN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고 사무총장을 배출한 유엔 원조국가로 거듭났다. 한국과 유엔관계를 볼 수 있는 역사적 장면 60컷에 대한민국의 발전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전시회 개최 결과 약 1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으며, 국가기록 대국민 서비스 모범사례 창출로 타 기관 벤치마킹 및 전시장이 구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한민국을 바로 알리자
외국교과서의 한국이미지 기획 전시

지난 2008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지하 1층 전시관에서 '외국교과서의 한국이미지 기획전시' 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건국60년을 기념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한국과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이미지를 비교하여 세계 속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현재의 모습을 조망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전시는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 후원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김정배) 주최로 열렸다.

이번 전시의 구성은 해외 60여 개 국가의 교과서에 수록된 대한민국 건국60년사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한국문화교류센터의 연구 활동 및 성과가 홍보 콘텐츠로 활용되었다. 또한 기획전시는 학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전국 중고등학생은 물론 관련 전공자 등 각계각층의 일반인들을 그 대상으로 했다. 관람객 수는 12일간 총 7,724명이었다.

이번 기획전시의 전시물들은 연대별로 나열되어 건국60년의 발자취를 고찰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의 시각을 대변하는 외국 교과서를 실물로 전시하여 실증적 자료전시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교과서 왜곡이나 오류의 수정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인의 민족적 기상을 고취시켜 한국적 가치를 제고하는 행사였다. 무엇보다 교과서를 통한 참된 교육의 목표인 자아실현과 한국인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여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전시회가 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서 오늘에 이르는 60년 동안의 한국의 역사와 현재를 외국 교과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관람객들은 이렇듯 외국 교과서에 기술된 한국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와 시각을 실물을 통해 직접 경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변화상과 한층 높아진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전시회의 주요 콘텐츠 구성은 먼저 프롤로그에서 '교과서와의 만남' 을 통해 교과서가 지식을 통해 세계관이 형성된다는 면에서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교과서가 갖는 의미와 함께 건국60년이 지닌 의미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자취' 를 살펴봄으로써 건국 이후 한국전쟁을 비롯해 군부지배와 민주화운동,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아시아의 호랑이로서의 한국, 그리고 남북관계와 통일을 전망하였다. '도전받는 진실' 에서는 정보부족으로 인해 벌어지는 오류, 즉 한국의 언어와 종교, 인구, 교육, 주요수출품이 소개되었고, 또한 오류가 개선된 외국 교과서의 사례도 소개되었다. 특히 일부 외국 교과서에서 동해를 '일본해' 로 잘못 표기한 것을 바로잡고,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에도 주력했다.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에서는 한국을 알리

외국교과서의 한국이미지 기획 전시 행사 안내지

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영상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파워코리아' 에서는 한국의 비상(飛上, 한국의 달라진 위상, 세계 속 한국인 등)과 2002월드컵이나 한류 등의 리얼코리아, 기술 한국의 꿈이 펼쳐졌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인 '희망의 대한민국' 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그려보는 순서였다.

이번 전시회는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부여하고, 기성세대에게는 세계 속 한국의 발자취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 그림 및 글짓기 공모전

건국의 의미를 되새기는 작품들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는 2008년 8월 11일,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그림 및 글짓기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건국60년을 맞아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상에 대해 기성세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2008년 6월 30일부터 7월 25일까지 4주간 작품을 접수한 결과, 그림 663편, 글 402편 등 총 1,065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초 · 중등별로는 초등학생 작품이 783편, 중고등학생 작품이 282편 접수됐다.

행사 포스터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담은 작품들

접수된 작품은 2008년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심사위원회를 거쳐 국무총리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포함한 그림 부문 51편, 글짓기 부문 51편의 입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인 국무총리상에는 그림 부문에 경북 경산 옥곡초등학교 1학년 이민호 학생의 〈거북선 로켓타고 우주가기〉가, 글 부문에 경기도 양서고등학교 1학년 최민정 학생의 '푸른 언덕 위에서 당신을 그리며' 가 각각 선정됐다. 그 외 최우수상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4편, 우수상인 한국교원단체연합회장상 16편, 장려상 80편 등도 함께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총평을 통해 "응모 편수에 비해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적인 표현이 돋보인 작품이 많았으며, 아이들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깊고, 작품 속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찾아낸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이 잘 녹아 있다" 고 평하였다.

그림 부분의 대상작인 〈거북선 로켓타고 우주가기〉에 대해서는 "거북선으로 대표되는 우리 전통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주 시대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감각적이면서도 거침없이 활달하게 표현한 점이 돋보였다" 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대상작 〈거북선 로켓타고 우주가기〉

글 부문의 대상작인 〈푸른 언덕 위에서 당신을 그리며〉는 대한민국을 '언덕'에 비유하고 정부를 '당신'에 비유하여 나라 사랑의 마음을 독백체로 표현한 글이다. 글쓴이는 화자의 입을 빌어 우리나라가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섰듯이 머지않아 통일된 조국, 즉 '푸른 언덕'에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날이 꼭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세상과 소통하는 작품들

시상식은 2008년 8월 11일 오후 2시에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시상식에는 대상과 최우수상, 그리고 우수상 입상자가 참여하여 상장 및 부상을 받았다. 장려상 입상자는 학교장을 통해 별도로 상장 및 부상을 받았다.

입상자는 2008년 8월 15일 경축식 당일 예정된 청소년 미래희망 인터뷰 활동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기자단 활동 등에도 참가했다. 그리고 그림의 경우, 2008년 8월 25일부터 1주일간 3호선 경복궁역 안에 있는 서울메트로미술관에서 전시되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시상식에서 그림 그리기 대상을 받은 이민호 군이 상장을 받고 있다.

8. 산업발전 조명 및 미래 산업 제시 사업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
경제60년 학술세미나

경제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2008년 8월 20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지난 60년을 회고하고,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며, 이를 통해 향후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바를 모색하기 위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행사는 KDI(한국개발연구원) 현정택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건국 이후 60주년의 경제발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2차대전 이후 독립국가 중 우리나라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국가임을 밝혀 국민의 자긍심 고취시키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 그리고 개도국에게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정리하고 그것을 제공한다는 취지도 살렸다.

이 자리에서는 거시경제, 산업 및 무역, 사회개발, 국토개발과 남북경협, 종합평가 등 5개 분야별로 각각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KDI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0년 동안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일구어낸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대내외적으로 강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격화,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글로벌 경기침체 및 신용경색, 고용창출 둔화와 같은 대내외 환경의 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국 이후 우리나라는 정치 · 사회적 격변 속에서도 부단히 경제발전에 매진해 온 결과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루어냈다"고 평가하면서 "거시경제, 산업 · 무역, 사회개발, 국토개발 및 남북경협 등 제반 경제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과거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경제정책의 새로운 변화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이번 세미나의 의미를 피력했다. 그리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책 및 그 공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공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된 거시경제 분야는 김병주 서강대학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거시정책에 관련해서 남상우 KDI 정책대학원 교수가 〈건국60년의 거시경제정책〉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고, 이어서 조세 및 재정정책에 관해 김경수 금융경제연구원 원장이 〈한국의 금융 60년: 금융정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금융정책에 관해서는 곽태원 서강대학교 교수가 〈재정조세정책 60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거시경제 분야 토론에는 박원암 홍익대학교 교수와 강문수 KDI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유일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11시 20분부터는 산업 및 무역 분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송병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산업 및 무역 분야에서는 산업정책에 관해 안충영 중앙대학교 교수가 〈건국60년 한국의 산업발전: 성

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무역정책에 관해서는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무역정책의 전개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는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과 성극제 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 원장이 나섰다.

오후 1시 40분부터는 사회개발 분야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김수곤 한국노동교육원 명예교수의 사회로 이뤄진 이 시간에는 김상균 서울대학교 교수가 복지와 분배정책에 관한 〈60년 복지 및 분배정책 평가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로, 노동시장과 인적자원개발에 관해서는 배진한 충남대학교 교수가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개발로 본 한국의 경제발전〉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임했다. 토론에는 이혜경 연세대학교 교수와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오후 3시부터는 연하청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국토개발과 남북경협 분야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국토개발과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가 〈건국60년 경제정책: 국토와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남북경협(북한경제)에 관련해서는 고일동 KDI 선임연구위원이 〈남북경협: 상생과 공존의 길〉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 토론에는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와 이승훈 서울대학교 교수가 자리했다.

오후 4시 20분부터는 종합평가와 비전 분야에 있어 주제발표와 라운드테이블 토론이 있었다. 종합평가와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에 관해 현정택, KDI 원장이 발표했고, 이어서 라운드테이블 토론에는 김병주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송병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수곤 한국노동교육원 명예교수, 연하청 명지대학교 교수, 최우석 삼성전자 비상임고문, 어윤대 고려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종합평가와 비전

건국 이후 한국 경제는 국민소득 2만 달러, 교역규모 7,300억 달러의 경제규모로 성장했고, 수출은 농산품에서 제조업품목으로, 경공업제품에서 중화학제품으로 주력상품이 변화하여 2005년 현재 중화학공업제품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3.1% 기록했다.

• 한국의 주된 수출상품인 고기술상품 시장에서 중국 등 신흥 경제대국들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한국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먼저 차세대 첨단기술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주력 산업기술의 강점을 기반으로 제조업 첨단화의 선두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고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식형 산업기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능력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공급업체 간 경쟁 촉진을 유도하며, 현장수요에 적합한 인력 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제조업에 국한된 국가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서비스업으로 확장해야 한다. 또한, OECD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 · 제도 및 준수 수준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 한국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변화의 요구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주도의 발전에서 탈피하여 소프트웨어의 변화를 통한 선진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OECD 헌장 1조가 선언한 시장경제의 창달, 다원적 민주주의의 확립, 인권존중을 통한 선진사회 구축을 위해 제도의 질적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제도의 정비 및 준수를 통해 경제효율성을 개선하고, 창의성을 제고하며,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민간주도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고 경제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영화와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시장질서에 어긋나는 정부보호와 지원을 축소함으로써 정부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행정 · 경제 · 사회규제 전반에 걸쳐 원점기준에서 규제개혁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력수급의 질적 불일치와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저조 등 인적 자원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여성의 고용률 제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성장 소프트웨어를 확충해야 한

다. 고도성장의 부작용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향후 빈곤감소적 성장전략에 집중해야 하며 빈곤계층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대외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의 FDI 잠재력이 17위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의 미비와 폐쇄적 이미지 등으로 인해 실제 실적은 115위에 머무는 상황이다(UNCTAD, 2007).

•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은 세계 경제의 블록화 추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FTA 체결과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개방의 궁극적 목표는 시장확대, 제도적 개선, 생산성 증대를 통한 국민 후생 증대이다.

다이내믹 코리아, 신화를 만들다
건국60년, 산업방송 관련 방송기획

'건국60년, 산업발전 관련 방송 기획' 은 건국60년을 맞아 단기간에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룩해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를 홍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기획된 건국60년, 산업발전 관련 방송 기획은 2008년 8월 13일과 8월 20일 양일에 걸쳐 KBS 1TV 〈수요기획〉에 제1부 신화를 만든 사람들, 제2부 한국인이 불루칩이다! 라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로 각각 방영되어 시청자의 호응을 얻었다.

'제1부 신화를 만든 사람들' 은 지난 60년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전쟁 후,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던 폐허 위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인력밖에 없었던 그 시절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시작했던 제조업에서 자동차, 건설, 조선업에 이르기까지, 기적과도 같은 성장속도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대한민국을 조명하고 오일쇼크 등을 비롯한 경제 위기 속에서 더욱 눈부시게 빛났던 역사 속 사건과 사람들, 위기의 순간에 기적을 만들어 냈던 과거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지금의 우리를 되돌아보도록 했다.

특히 꽃다운 나이 스무 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무작정 독일행을 선택한 파독 간호사 하순열, 오성욱 씨를 통해 60년대 외화벌이의 1세대로 살았던 파독간호사의 탄생비화와 고난의 시간을 들여다보았고 1974년, 전 세계를 덮친 오일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중동으로 내달았던 우리의 건설 근로자들, 당시 세계 최대의 공사였던 사우디 주베일항 건설 과정과 현장 기술과장이었던 황재천, 이길재 씨가 건설기간을 맞추지 못할 뻔 했던 아찔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시청자의 눈물샘을 젖게 했다.

이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속도를 높였던 산업화의 시절과 반도체 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 승승장구하던 한국에 찾아온 최대 외환위기 IMF,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과 도산이 줄을 잇던 어려운

방송 화면

순간들, 그러나 2년 만에 최고의 외환위기 탈출에 성공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고 세계 최초로 CDMA 기술을 상용화하기에 이르며 IT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한국인의 도전 정신을 오롯이 담아냈다.

'제 2부 한국인이 블루칩이다! 는 다시금 위기 앞에 선 대한민국, 우리의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희망을 찾는 시간을 가져 보았다. 60년 전, 식민의 폐허와 전쟁의 상처 속에서 자원도 자본도 없이 출발해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선 나라, 대한민국, 이제 또 다시 치열한 국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시험대 앞에 선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보고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우리, 한국인임을 부각시켰다.

특히 2부에서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통해 이어령이 말하는 한국인의 기질, 늦은 출발에도 뒷심을 발휘하는 한국인의 의지를 집중 분석해보고 한류 열풍을 주도했던 드라마 〈겨울연가〉의 윤석호 PD를 통해 윤석호가 말하는 한국인의 기질,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국인의 창의력에 대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사로 유명한 안철수 씨를 통해 안철수가 말하는 한국인의 기질,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 한국인의 도전정신에 대하여, 경영전문가 공병호 씨를 통해 공병호가 말하는 한국인의 기질, 세계 1위에 만족하지 않고 신기록을 갱신하는 한국인의 역동성을 주제로 각각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무궁화에 얽힌 이야기

1. 무궁화가 피고 지는 군자의 나라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무궁화(無窮花)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옛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 이전부터 하늘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고, 신라는 스스로를 근화향(槿花鄕 : 무궁화나라)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리고 고려 예종 때에도 근화향으로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오래 전부터 무궁화가 피고 지는 군자의 나라라고 칭송했다. 고대 중국의 지리서인 〈산해경〉에는 물론 〈고금주〉 등에 우리 한반도가 무궁화가 많은 나라로 기록되어 있다.

서양인이 기록한 것도 있는데, 영국인 신부 리처드 러트가 쓴 〈풍류한국〉에 보면 프랑스, 영국, 중국 등 세계의 모든 나라꽃이 그들의 황실이나 귀족의 상징이 전체 국민의 꽃으로 만들어졌으나 우리의 무궁화만은 유일하게도 황실의 꽃이 아닌 백성의 꽃 무궁화가 국화로 정해졌고 무궁화는 평민의 꽃이며 민주전통의 부분이라 쓰고 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무궁화는 조선말 개화기를 거치면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란 노랫말이 애국가에 삽입된 이후 더욱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무궁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사랑은 일제 강점기에도 계속되었으나 일제의 탄압이 만만치 않았다.

일제는 만주, 상해, 미국, 구라파로 떠난 독립지사들이 광복 구국정신의 표상으로 무궁화를 내세우자 여기에 당황한 나머지 무궁화를 보는 대로 불태워 버리고 뽑아 없애 버렸다. 일제는 나라꽃 무궁화를 '눈에 피꽃' 이라 하면서, 보기만 해도 눈에 핏발이 선다고 거짓 선전하였다. 또한 '부스럼 꽃' 이라 하여 손에 닿기만 해도 부스럼이 생긴다고 하는 등 갖은 거짓말로 무궁화를 깎아내렸다.

그러나 나라꽃 무궁화에 탄압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 민족은 더욱 우리의 정신을 대변하는 무궁화를 사랑하고 숨겨가면서까지 지켜왔다. 그리고 광복이 되자 무궁화는 자연스럽게 나라꽃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 무궁화의 특징 및 분류

학명 : Hibiscus Syriacus L
영명 : Rose of Sharon
분포 :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품종 : 약 200 여종
※ 국내품종은 약 100여종
※ 정부지정 보급품종 : 단심계 홑꽃
개화시기 : 7월 초순~10월 하순(100여일)

현재 우리나라에는 1백여 품종의 무궁화가 자라고 있는데, 꽃 색깔에 따라 단심계

(홍, 백, 청), 배달계, 아사달계 등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이들 중 꽃잎 중앙에 붉은 꽃심이 있는 단심계(丹心系) 홑꽃을 보급 품종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무궁화는 7월 초순에서 10월 하순까지 매일 꽃이 피고 보통 한그루에 2천~3천여 송이가 핀다. 또한 옮겨 심거나 꺾꽂이를 해도 잘 자라고 공해에도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민족의 근면과 끈기를 잘 나타내 준다.

3. 무궁화는 어디에 활용할까

■ 국가상징에 활용

- 국기를 게양하는 깃대의 깃봉.
-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기타 시설물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으로 사용하는 나라문장.
- 대통령의 관저, 집무실 등과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 기차, 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대통령 표장의 중심 부분.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배지

■ 국가기관의 기(旗)에 활용

각급 국가기관을 상징하는 기, 즉 국회기, 법원기, 정부기 등의 경우에는 무궁화 꽃 도안의 중심부에 기관 명칭을 넣어 사용하고 있고, 이외에 정부의 각 부처기도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 훈장 상장 등에 활용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배지, 장 · 차관 등의 배지가 무궁화 꽃을 기본 도안으로 하고 있으며, 군인과 경찰의 계급장 및 모자챙 그리고 모표 등에도 무궁화가 쓰이고 있다.

■ 국경일 행사 등에 활용

정부에서 주관하는 국경일 등 각종 행사에서도 무궁화를 활용하고 있다. 행사장을 장식하는 데에 무궁화 화분과 경축현판도안에도 무궁화를 이용하고 있고, 일부 행사참석자에게 무궁화 리본을 달아주고 있다.

Part 5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평화의 합창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평화의 합창
건국60년 민간 기념사업

건국60년을 기념하는 민간사업은 경축, 학술, 문화 행사 등 3개 분야에서 총 26개의 사업이 진행됐다. 민간사업은 철저하게 민간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에서는 로고 사용 승인, 물품 지원, 사업비 지원 등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을 했다.

민간사업의 가장 큰 의의는 정부 주도의 행사가 아닌,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국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에 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과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뜻 깊은 행사였다.

으랏차차,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 범국민 대축제

축제가 열리기까지

2008년 10월 3일, 하늘이 열린 날에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건국60년 기념 범국민 대축제'가 열렸다. 축제는 오랜 기간 동안 착실히 준비해온 덕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이번 축제는 대한민국건국회,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대한민국 헌정회 등 20여 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큰 행사였다. 대규모 행사인 만큼 준비에도 오랜 기간이 걸렸다.

건국60년 범국민대축제 유관 단체 대표자 간담회 장면.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고 간 것은 2008년 4월 19일에 열린 '건국60년 범국민대축제 유관 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였다. 이날은 주관 단체인 대한민국건국회의 손진 회장을 비롯하여 강영훈 전 국무총리, 건국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고문인 이인호 교수,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3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 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60년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화합과 염원을 모으는 각종 행사들에 대한 계획이 확정됐다.

2008년 6월 12일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건국60년 범국민 대축제 추진본부 및 20여개 민간단체에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국민 대축제 선포식이 있었다. 이날 공동 대회장을 맡은 대한민국건국회 손진 회장은 "진보와 보수의 벽을 넘어 애국의 정신으로 건국60년을 기념하고,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범국민적인 축제의 한마당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행사의 취지를 이야기 하였고, 참가자들은 "앞으로 더 많은 민간 애국 단체들이 참여하여 진정한 범국민대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결의를 모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2008년 8월 1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기로 했던 범국민 대축제를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여 2008년 10월 3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했다.

범국민 대축제 선포식이 진행되고 있다.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

이날은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우선 식전 행사로 페이스페인팅, 민속놀이, 걷기 대회 등이 열렸고 본행사에서는 건국60년 동영상쇼, 헌다례, 효행건국등이 표창, 자랑스러운 애국인 기장 수여식 등이 열렸다.

이날 6시부터 시작된 본행사에는 대한민국건국회 손진 회장과 공동 주최 애국 단체장들이 참석하였고 정부를 대표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건국60년 기념사업

위원회 추진기획단 우기종 단장과 이원식 부단장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경상북도 개발공사 윤태현 사장과 강현석 고양 시장, 이익진 계양 구청장 등 베이징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육성한 단체장들도 대거 참석하였다. 또한,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에 떨친 장미란, 이배영, 차동민, 박경모, 윤진희, 임수정, 황경선, 진종오 선수 등이 참석했다.

범국민대축제 행사장면.

손진 회장은 기념사에서 "오늘 대한민국 건국60년과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태극기를 앞세워 올림픽에 출전한지 60년이 되는 올해 개천절 날, 역사의 애환이 담긴 이곳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범국민대축제' 의 한마당을 열게 됨에 있어 기쁨과 감회에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힌 뒤 "우리는 본래 '신바람' 있는 민족이라, 이 신바람으로 어려운 걱정거리는 날려버리고 오늘 저녁 이 '범국민대축제' 를 마음껏 신바람 나게 즐기면서 내일의 조국번영을 서로서로 손잡고 다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건국60년을 빛낸 자랑스러운 애국인 기장 수여식이 있었는데 한국체육대학의 이승국 총장이 기장 수여를 했고,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장인 김준교 교수와 박이제 교수, 대한민국사랑회 김길자 회장, 국가대명전사협회 박부서 회장, 국가참전경찰 유공자회 문인주 회장과 김을로 사무총장등이 기장을 수여받았다.

이어진 대축제 행사에는 현미, 이은미, 유진 박, 클로드 김, 유다현 등 인기 가수와 성악가들이 출연하여 흥겨운 공연을 펼쳤다.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진행된 범국민대축제 행사 전경

축사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건국회의 손진 회장

애국인 기장 수여식 장면

사업 개요

- 일시 : 2008년 10월 3일
- 주관 : 대한민국 건국회
- 장소 :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및 주변 일대
- 내용
  - 주간행사
    - 사전문화행사 : 포토제공서비스, 페이스페인팅, 퀴즈서비스 등
    - 민속놀이 : 석궁, 널띄기, 그네띄기 등 거리축제
  - 야간행사
    - 헌다례, 효행건국둥이 표창, 건국60년 동영상 쇼, 불꽃놀이 등

지나온 60년, 다가올 60년
건국60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건국정신의 재조명

국가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개최된 공동학술회의.

건국60년 기념 공동학술회의가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세계지역학회의 공동 주관으로 2008년 8월 21부터 23일까지 속초 마레몬스 호텔에서 열렸다.

〈지나온 60년, 다가올 60년 : 새로운 도약을 위한 건국60년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동학술회의에는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그리고 일반 참여자 등 총 4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한국 정치학회가 이번 공동학술회의를 마련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이념을 재조명함으로써 국가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회의 내용은 지난 60년간의 정치제도 및 외교정책의 변화과정에서 건국정신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재조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건국정신의 진정한 발현은 국가발전의 원동력

2008년은 우리나라가 건국60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다. 대한민국은 냉전질서의 이식, 정치세력들의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3년간의 정치적 난관을 거쳐 1948년 탄생하였다. 정치이념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는 건국정신의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건국정신은 지난 60년간 지속적으로 발현되지 못했다. 즉, 건국정신은 한국전쟁, 군의 정치개입 등 수많은 정치변동으로 인하여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망각되기도 했고, 4 · 19혁명, 그리고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통해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현되어 왔다.

이렇듯 대한민국 건국정신은 현대 한국정치의 출발점이며, 미래 정치를 이끌어가는 방향타가 되어왔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건국정신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보완되고 확장될 때 비로소 현재의 정치적 삶 속에 빛을 발한다.

건국정신의 진정한 발현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이번 공동학술회의는 세계화 이후 약화되고 있는 국민적 정체성에 직면하여 건국정신의 현재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데 주목했다.

다양한 준비, 다양한 성과

이번 공동학술회의는 12개의 기획패널과 30개의 자유공모패널로 구성됐다. 특히, 기획패널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건국이념이 정치문화, 제도, 국제관계, 남북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구현되었고, 미래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지니는 의미를 조명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기획패널은 12개의 주제로 나뉘어 40여 개의 심층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자유공모 패널은 3대 정치학회에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12개의 주제로 나뉘어 40여 개의 심층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소속되어 있는 연구협력단체 및 대학교, 연구소 등에서 주제별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패널과 개별연구자들의 자유공모 발표패널로 구성됐다. 자유공모패널에서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수행하여 왔던 연구결과를 통해 학문적 수준의 제고와 정치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공동학술회의는 준비를 많이 한 만큼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대한민국 건국이념을 재조명함으로써 국가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3개 학회의 공동학술회의를 통해 학회 간 정보교류는 물론 상호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학술적 논의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주제를 토의함으로써 현실문제에 대한 대안제시 또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공동학술회의를 속초에서 개최함으로써 강원도 정치학계와의 학문적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음은 물론 강원도의 친근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학술회의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던 강원도 도민 그리고 강원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과 정치학계의 유대는 이번 공동학술회의가 얻은 예상치 못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학술회의의 결과물은 정부산하 단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요 대학의 도서관 및 연구기관에 배포되어 홍보와 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 개요

- 일　　시 : 2008년 8월 21~23일
- 주　　관 :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세계지역학회
- 장　　소 : 속초 마레몬스 호텔
- 인　　원 : 국내외 정치학자 400여 명
- 문화행사 : 건국60년 기념 자료 및 관련 서적 전시회 / 전통 및 현대 문화행사 / 속초지역 관광

| 12개 패널 주제 |

패널	주　　제
1패널	건국의 역사적 의미
2패널	한국인의 정체성과 정치의식의 변화
3패널	헌정체제의 진화과정: 개헌과 권력구조
4패널	의회/선거/정당정치의 진화
5패널	민주화의 여정
6패널	건국 이래 대외정책의 변천
7패널	외교정책 결정체계의 변화
8패널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변화
9패널	한국 정치경제 모델의 변천
10패널	한국군의 발전과 대외군사관계 변화
11패널	건국60년과 한중관계
12패널	건국60년과 재외한인, 그리고 디아스포라

정치, 경제, 사회 등 7개 분야별 연속 토론회

건국60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가올 60년을 위한 건국60년의 궤적 반추

2008년 3월 21일부터 2008년 6월 27일까지 포럼 굿 소사이어티가 주관하여 〈건국60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총 7회에 걸쳐 토론이 벌어졌다. 포럼 굿 소사이어티는 법무법인 태평양 명예대표변호사 김인섭 씨와 정진홍 서울대 명예교수를 공동대표로 하는 NGO이다.

이번 연속기회 대토론회는 정권교체와 함께 건국60년이라는 시대사적 의미가 있는 2008년을 맞이하여, 많은 기대와 우려가 혼재한 현재의 상황과 우리 사회가 거쳐 온 지난 60년의 궤적을 반추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

이번 연속기획 대토론회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교육, 법치 등 7개 영역의 석학과 전문가가 나서서 각 분야별로 건국60년의 궤적에 대한 성찰적 평가를 바탕으로 장래의 전망을 모색했다.

각 분야별 발표자는 정치 분야 진덕규 교수, 역사 분야 한영우 교수, 교육 분야 권대봉 교수, 사회 분야 임희섭 교수, 경제 분야 좌승희 원장, 문화 분야 유재천 교수, 법치 분야 김인섭 변호사로 구성됐다. 이들 발표자는 각각 해당 분야에 대해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들로, 지나온 60년을 성찰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다가올 60년에 대한 전망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됐다.

또한 각각의 주제 발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중견 학자를 복수로 초청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되기도 하는 세계관과 분석틀, 학문적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은 것은 발제자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가감 없이 토론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의 기획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1차 발표자인 진덕규 교수는 〈한국정치 60년의 궤적과 성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진 교수는 한국정치의 미래는 시민의 존재성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유사시민사회가 자리하는 현실 사회가 참된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공선에 바탕을 둔 시민의 존재성이 확립 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차 발표자인 한영우 교수는 〈한국의 역사적 위상과 선진화의 과제〉를 주제로 정했다. 한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60년의 역사를 절반의 성공으로 정의하고, 미래를 위해서는 4가지 문제가 해결 돼야 한다고 했다. 첫째, 남과 북이 한시라도 빨리 경제공동체와 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갈 것. 둘째, 남남통일을 이룰 것. 한국은 '절차적 민주화'는 비교적 진전되었으나, 사회경제적, 문화적 민주화는 아직도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셋째, 이념의 양극화를 극복할 것. 넷째, '법고창신(法古創新 :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의 전략을 발휘할 것이다.

3차 발표자인 권대봉 교수는 〈한국교육 60년의 반성과 선진화 기본과제〉를 주제로 삼았다. 권 교수는 발표를 통해 "한국교육 60년의 반성을 통해 얻은 교훈은 포퓰리즘적 접근은 지양되어야 하고,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하며, 문화와 사회정책이 뒷받침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4차 발표자인 임희섭 교수는 〈건국60년, 한국사회 발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삼았다. 임 교수는 "오늘의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급속한 속도의 사회발전을 성취" 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배태된 사회적 갈등의 요인들을 해소하고 민주적인 시민사회에의 적합성을 갖는 잘 통합된 현대적 가치관을 내면화하여, 세계화시대를 이끌어 가는 선진국의 일원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5차 발표자인 좌승희 원장은 〈지난 50년간 한국경제발전의 성과와 향후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우리 경제가 더 큰 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평등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좌 원장은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해법으로 '차별화를 통한 무한 경쟁' 을 제시했다. 그는 "중소기업, 농민, 근로자, 지방, 지방 대학, 낙후지역 혹은 약자라야 대접받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며 "홀로 서서 성공하는 사람을 더 우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6차 발표자인 김인섭 변호사는 〈선진화 문턱에서 본 한국 법치주의의 현주소〉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국정 운영을 '헌법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 이라고 정의했다. 이어서 우리 사회는 아직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 예로 사면권 남발, 공무원의 신분보장 무시, 위헌적 헌법 개정, 불법 선거운동 등 을 들었다.

7차 발표자인 유재천 교수는 최근 우리 문화는 대중문화와 전통문화가 대결하는 구도를 형성해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유 교수는 "문화를 대중문화와 전통문화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 며 "이분법적으로 나눠선 대중문화와 전통문화가 융합하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특히 대중문화가 나름대로 거둔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무조건적인 대중문화 비판은 자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 발표 주제 및 일정 |

순서	분야	주제	발표자	일시	장소
1	정치	한국정치 60년의 궤적과 성찰	진덕규	2008. 3. 21	나인키친
2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적 위상과 선진화의 과제	한영우	2008. 4. 15	프레스센터
3	교육	한국교육 60년의 궤적과 선진화의 과제	권대봉	2008. 4. 29	남촌 리더쉽센터
4	사회	한국사회 발전의 성과와 과제	임희섭	2008. 5. 9	프레스센터
5	경제	지난 50년간 한국경제발전의 성과와 향후 발전 전략	좌승희	2008. 5. 30	프레스센터
6	법치	선진화 문턱에서 본 한국 법치주의의 현주소	김인섭	2008. 6. 27	나인키친
7	문화	인쇄문화에서 영상문화로	유재천	2008. 7. 18	프레스센터

대한민국 기업의 역사, 국제적 시각 고찰

일본에서 본 한국 기업 60년의 역사와 미래

일본 학자의 눈을 통해 한국 기업의 60년 역사에 대해 재조명

'일본에서 본 한국기업 60년 역사와 미래' 국제세미나는 한국기업경영학회 주최,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후원으로 2008년 7월 5일, 일본 게이오 대학교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한국기업경영학회 김신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김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60년을 맞이하여 일본에서 한국기업의 60년 역사를 재조명해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한국 기업의 역사에 대해 귀중한 의견을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본 한국기업 60년 역사와 미래' 국제세미나.

한국적 기업경영의 역사와 일본적 기업경영의 역사 비교검토

김 회장의 인사가 끝난 뒤 한국 학자의 논문 8편, 일본 학자의 논문 4편을 가지고 토론에 들어갔다. 세미나는 한국적 기업경영의 역사와 일본적 기업경영의 역사를 상호 비교검토하고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더불어 공동연구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제일 먼저 발표에 나선 학자는 게이오 대학의 야나기마치 이사오 교수였다. 야나기마치 교수는 〈창업기업가 이병철의 성공과 좌절〉이라는 주제로 기업 활동가의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역사적 연속성 속에 실패와 성공의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했다. 특히, 삼남인 이건희 회장의 승계문제는 동족기업으로서의 이미지 탈피를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혼다와 소니가 혈통 계승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삼남의 계승은 한국 재벌 중에서 특별하면서도 성공적인 사례라고 했다.

돗토리 대학의 밤바 카오리 교수는 〈일본 이온그룹의 자스코와 한국 이마트의 경영전략 비교〉를 통해 구미의 하이퍼 방식 위에 각국의 독특한 관습을 가미한 전략의 사용이라는 가설을 검증했다. 이온그룹은 전자화폐의 도입, 이업종 연계 등을 성공 전략으로 들 수 있으며 한국의 이마트는 삼성의 계열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교외지역, 역 주변, 신흥주택지, 재개발지역으로의 진출에 성공했다고 진단했다.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는 참석자들.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선 경희대학교의 박우성 교수는 〈삼성전자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의 역사적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1987년 민주화, 1997년의 구조조정 등의 외부적 충격이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숭실대학교 정월순 교수는 〈한일 소상공인 지원

제도 비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원 기관, 지원의 종류와 내용, 지용 규모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지역적 서비스, 자금지원의 조건 개선, 지원 센터의 운영 독립화 등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이후, 강원대학교 안종태 교수, 충북대학교 김병기 교수, 중앙대학교 김창봉 교수, 숭의여자대학교 신용재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고 한일 학자들의 열띤 토론을 마지막으로 오전 세미나는 끝이 났다.

새로운 이론과 경영모델을 모색

이어서 오후에는 동경의 뉴오타니인 호텔로 장소를 옮겨 종합토론을 가졌다. 경희대학교 김성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 된 이날 토론에서는 극동정보대학교 전형구 교수, 와세다 대학교 이홍무 교수, 경희대학교 이호창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학자들은 이날 토론을 통해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양국기업의 역사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새로운 이론과 경영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업의 역사적 문화적 측면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지한 토론과 정보교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리고 기업경영에 관계된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정기적으로 국제 세미나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김신 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자축하며 "한국과 일본, 양국의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경쟁도 하고 상호 제휴도 하며 큰 발전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며 종합 토론을 마쳤다.

| 토의 진행 |

순서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논문제목
1	고승희(단국대)	야나기마치 이사오(게이오대)	이재춘(극동정보대)	창업기업가 이병철의 성공과 좌절
2	허귀진(경희대)	이유(강원대) 밤바 카오리(돗토리대)	이웅호(진주산업대)	일본 이온그룹의 자스코와 한국이마트의 경영전략 비교
3	유성기(총신대)	박우성(경희대) 이병하(도쿄대 대학원)	김선왕(경북외국어대)	삼성전자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의 역사적 변화와 시사점
4	구본열(충북대)	정월순(숭실대) 박준엽(동국대)	정일수(중국 남개대)	한일 소상공인 지원제도 비교연구
5	한한수 (경희대)	안종대 (강원대)	허남일 (강남대)	고성과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6	임재화 (상지대)	김병기 (충북대)	이봉주 (경희대)	연구개발투자 증가기업의 장기성과에 관한 연구
7	김태명 (세명대)	김창봉 (중앙대)	김희철 (청운대)	글로벌 공급체인 시스템 구축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8	이해영 (강남대)	신용재 (숭의여대)	감형규 (청운대)	증권사의 정보기술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요 일정

- ▶ 경영현장 사례 연구
  - 날짜 : 2008년 7월 3일
  - 장소 : 도요타 자동차 모도마치 공장
- ▶ 국제회의
  - 날짜 : 2008년 7월 5일(오전)
  - 장소 : 게이오 대학교
  - 환영사 : 아가와 나오유끼(게이오대학교 종합정책학부 학부장)
  - 기조연설 : 김신(한국기업경영학회장, 경희대학교 교수)
- ▶ 종합토론
  - 날짜 : 2008년 7월 5일(오후)
  - 장소 : 동경, 뉴오타니인 호텔
  - 사회 : 김성수(경희대학교 교수)

건국60년, 통일코리아를 바라보다

2008 평화재단 심포지엄

민족적 염원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국내 갈등을 치유

2008 평화재단 심포지엄 포스터.

평화재단이 건국60년을 맞이하여 마련한 '건국60년, 통일코리아를 바라보다' 학술세미나가 2008년 7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심포지엄에는 최원식 인하대학교 교수, 김학준 동아일보 회장, 조민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장, 법륜 스님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건국60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넘어 민족적 염원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국내 갈등을 치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됐다. 따라서 이번 학술세미나는 남북 화합과 상생, 공존의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을 이루어가는 통일코리아의 의미를 고찰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학술세미나는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 스님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법륜 스님은 인사말에서 "분단 63년, 한국은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어 정보화 사회의 최첨단을 걷고 있으나,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주의로 내부갈등이 심화되고, 다문화사회로 가면서 모두를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법륜 스님의 인사말에 이어 1마당과 2마당으로 나뉘어 토론이 진행됐다. 1마당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최원식 교수는 〈동아시아 공동의 미래를 찾아 : 한중일 삼국의 민족주의를 넘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

수는 발표를 통해 "한중일 세 나라의 민족주의를 냉철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세 나라가 현실에 따라 차별된 형태로 드러나는 민족주의의 생태를 실사구시적으로 추구함으로써 그 안에서 극복의 싹을 탐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남북 화합과 상생, 공존의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을 이루어가는 통일코리아의 의미를 고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마당 두 번째 발표자인 김학준 회장은 "대북 정책의 핵심은 북한을 붕괴의 대상으로 보느냐, 평화통일의 협상 대상으로 보느냐에 있다"며 "통일의 방향에 대해 국민적 합의는 있지만 정치지도자들과 사회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관련해 때로는 말을 바꾸면서까지 접근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 진단했다.

2마당 첫 번째 발표자인 조민 연구위원은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 체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그는 '선(先)평화, 후(後)통일' 이라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논리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국가로서의 북한의 실상을 감안하면 통일은 한국의 관점에서 '들이닥치는 통일' 이나 '떠안는 통일' 이 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법륜 스님은 "지금 우리가 문명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펼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북녘 동포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우리가 아무리 가치 있는 사회운동을 하더라도 북녘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는 현실적 문제를 외면한다면 그 어떤 운동도 보편적 도덕성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이어서 "고통 받는 북한 동포들이 수혜를 받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발표와 토론이 끝난 뒤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건국60년과 통일코리아의 비전' 에 대해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심포지엄은 끝을 맺었다.

행사 개요

- 일시 : 2008년 7월 10일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 주관 : 평화재단
- 발표 주제
  - 제1마당 : 세계 속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21세기
    - 발표1 : 동아시아 공동의 미래를 찾아 - 한중일 3국의 민족주의를 넘어
      최원식(인하대 인문학부 교수)
    - 발표2 : 한국현대사의 성찰과 한민족의 미래
      김학준(동아일보 회장)
  - 제2마당 : 통일 코리아가 나아갈 길
    - 발표1 : 한반도 통일프로세스와 통일비전 - 통일, 왜 지금 말하는가?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2 : 한반도 통일을 넘어 - 한반도 통일의 문명사적 의의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

건국60년, 현대미술 60년

건국60년 기념 2008 골든아이 아트페어

건국60년 현대 미술의 발자취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가 후원하고 오픈옥션에서 주최하는 '2008 골든아이 아트페어가'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코엑스 인도양 홀에서 개최됐다.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아트페어가 화랑 위주로 섹션을 구성하는 것에 비해 골든아이 아트페어는 작가를 위주로 한 섹션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화랑, 해외문화 소개, 미술 관련 매거진 섹션 등 다양한 구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아트페어는 건국60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더했다. 20대 작가로부터 90대 작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현대미술의 역사와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를 통해 건국60년을 맞이한 문화예술 발전의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었다.

2008 골든아이 아트페어 포스터.

미술 저변 확대

'2008 골든아이 아트페어' 는 한국미술의 저변 확대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따라서 한국을 대표하는 참여 작가 외에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95명의 신진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또한 20여 개의 화랑이 함께 참여하여 미술계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데 동참하였다.

해외 작가 섹션에는 중국의 '신생대 작가' 작품과 프랑스 작가 샤흘르 벨(Charles Belle)의 작품, 일본의 전통 목판화 우키요에(Ukiyoe)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었다. 특히 관람객들에게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중국미술의 '신생대 작가' 로 불리는 2, 30대 젊은 작가들의 새로운 작품 세계를 만나보는 뜻 깊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 페어는 미술의 대중화를 위해 페어를 찾은 모든 이들이 쉽게,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섹션도 마련했다. 그 중 하나가 소품 그림 쇼핑전으로, 화가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소품 작품을 모아 전시하고 판매까지 하였다. 소품은 화가의 작품세계가 잘 드러나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처음 그림을 구입하는 관람객들에게 미술품을 소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초대형 작품전을 통해 일반인들이 평소에 접하기 힘들었던 대형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보통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는 최대치의 그림이 200호 정도로, 500호, 1000호 크기의 작품을 실제로 접해보는 기회는 흔치 않다. 그러나 이번 페어에서는 초대형 작품 섹션을 마련, 500호 이상 초대형 작품들의 실물을 관람객들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다.

이번 페어 기간 중에는 특별한 이벤트도 열렸다. 바로 골든아이 경매다. 8월 3일 오후 2시, 전시장 내에 설치된 경매장에서 열린 골든아이 경매에는 국내의 젊은 유망 작가들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관람객들은 이 경매를 통해 미술품 경매의 진행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또한 직접 참여도 해보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이처럼 '골든아이 아트페어' 는 많은 작가와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즐겁고 편안한 행사가 되었다. 건국60년

이 지난 오늘, 이제 예술은 특정인들만을 위한 예술이 아닌 예술에 관심을 갖고 가까이 접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예술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린 뜻 깊은 행사였다. 그리고 전시판매된 수익금의 일부를 자폐아동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기부하여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였다.

행사 개요

- 일　　시 : 2008년 7월 30일~8월 3일
- 장　　소 : 코엑스 인도양홀
- 구　　성 : 국내 초대작가 섹션/국내 공모작가 섹션/해외초대작가 섹션/오픈옥션 주주작가전/화랑 섹션/이벤트 존(초대형작품전/소품전)/매체 섹션 등 미술에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섹션으로 구성
- 참여작가 : 국내외 작가 200여 명
  대표 원로작가: 민경갑, 박광진, 이두식, 정치환, 김영재, 김종하 등
  대표 중진작가: 김경렬, 장이규, 김재학, 김일해, 류영도 등
  대표 신진작가: 낸시 랭, 김명곤, 김성엽, 박경범, 전봉열, 최경문 등

최정상급 성악가 오페라 카르멘 공연

건국60년, 한국오페라 탄생 60주년 기념공연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오페라단의 공연

서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 홀에서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건국60년과 오페라 탄생 6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오페라 축제가 열렸다. 이번 오페라 공연은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후원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오페라단으로 손꼽히는 김자경 오페라단이 열연했다.

한국오페라 탄생 60주년 기념공연 장면.

공연은 1,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됐다. 1부에서는 4명의 성악가들을 중심으로 대중에게 익숙한 가곡을 선보이며 국민과 하나 되는 음악회를, 2부에서는 세계 공연 역사상 최고의 명품 오페라로 인정받는 그랜드 오페라 〈카르멘〉이 4,000석 규모의 올림픽 홀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공연에는 카르멘의 전설 메조소프라노 김학남 씨와 세계적인 테너 박기천 씨, 바리톤 김동규 씨 외에 최정상급 성악가들이 출연하여 절정의 기량을 과시했다. 또한, 공연 전 건국60년, 오페라 60주년의 역사를 회고할 수 있는 전시회를 열어 관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렇듯, '오페라 대축제'는 건국60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공연이었다. 평소 대

중들에게 어렵게만 인식되던 오페라를 친숙한 무대로 재설정하여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대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더불어 오페라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도 담겨져 있었다. 1948년 1월 베르디의 오페라 〈춘희〉로 시작된 한국의 오페라는 여러 오페라단의 생성과 발전을 거듭하며 이 자리까지 왔다. 하지만 대중의 관심을 적게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공연은 오페라의 60년 역사를 돌아봄과 동시에 새로운 발전성을 보여주는 자리라는 데 의의가 있었다.

초호화 캐스팅

이번 공연은 역사적 의미와 예술성, 그리고 대중성을 모두 살리기 위해 최정상급과 중견, 신예 성악가들이 어우러지는 무대로 국내외의 초호화 캐스팅으로 선보였다.

그랜드 오페라로는 보기 드물게 6회 연속 공연인 〈카르멘〉은 카르멘의 전설이라 불리는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이 예술총감독과 주인공 '카르멘' 역할을 맡아 출연했다. 그리고 김소영, 백재은, 최승현 등이 자유로운 사랑의 화신으로 하바네라와 세기디야 등 귀에 익숙한 명곡들을 부르며 열연했다.

카르멘과 운명적 사랑에 빠지는 돈호세 역에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의 주역 테너로 활동하며 세계 최고의 테너로 인정받는 박기천 씨가 오랜만에 고국 오페라 무대에 섰다. 그리고 박기천 씨와 같은 독일무대에서 활약했으며 한국 무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달진 씨가 출연했다.

또한, 국내 무대에서 높은 기량을 펼치고 있는 황태율과 한국인 최초 러시아 볼쇼이오페라단 전속 성악가

이번 공연은 최정상급과 중견, 신예 성악가들이 대거 참여해 국내외의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하는 무대였다.

카르멘을 유혹하는 멋쟁이 투우사 에스까미요를 맡은 바리톤 김동규 씨 공연 장면.

였던 손성래 씨가 꽃노래 등을 부르며 돈호세를 열연했다.

카르멘과 돈호세 사이에 끼어들어 카르멘을 유혹하는 멋쟁이 투우사 에스까미요역에는 국내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는 바리톤 김동규 씨와 송기창, 최영일이 출연하여 투우사의 노래 등을 불렀다. 돈호세의 약혼녀인 미카엘라역에는 최근 오페라 무대에서 활약이 돋보이는 박남연, 송미향과 프랑스 무대에서 활약하며 최근 귀국한 소프라노 윤유정과 박성화 등 신예 실력파들이 출연했다.

오케스트라는 많은 연구로 국내외에 잘 알려진 로망스오케스트라가 카르멘의 격정과 사랑, 그리고 투우장의 열기와 광기를 풀어내었다. 지휘는 한국의 주요 무대는 물론이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립오케스트라 상임지휘 등 세계무대에서 기량을 인정받은 지광윤씨가 맡았다.

연출은 연극무대에서의 기본기를 바탕으로 정통 오페라의 예술성과 뮤지컬의 리드미컬한 화려함을 두루 섭렵하여 오페라 연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최종률 씨가 맡아 원작의 예술성과 재미를 살리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공연 개요

- 일시 : 2008년 10월 16~20일
- 주관 : 김자경 오페라단
- 장소 : 잠실 올림픽 홀
- 내용
  - 정통 오페라 〈카르멘〉
  - 관객과 함께 하는 〈Big3 Concert〉
  - 건국60년, 오페라60년 기념사진 및 유물 전시회
- 출연진
  - 카르멘 : 김학남, 김소영, 백재은, 최승현
  - 돈호세 : 박기천, 김달진, 황태율, 손성래
  - 에스까미요 : 김동규, 송기창, 최영일
  - 미카엘라 : 박남연, 송미향, 윤유정, 박성화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학
세계한국학대회

한국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의 새로운 임무와 그 역할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자 '제4회 세계한국학대회'를 2008년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워커힐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학〉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학술대회는 해외 한국학의 흐름과 전 세계 한국학의 현재 위상을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자리가 됐다. 세계한국학대회는 200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한국학 관련 학술회의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가 주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한민국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그리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후원했다. 세계한국학대회는 2002년 이후 서울, 북경,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세계한국학대회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학〉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계한국학대회.

특별 분과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는 학자들. 이번 대회에서는 기존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예술 등 14개 지정분과와 함께 특정 주제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특별 분과도 마련됐다.

한국학을 세계에 알리다

해외에서의 한국학은 한국에 대한 바른 인상과 한국의 품격을 형성해 주는 주요 통로이자, 한국의 국력과 문화력을 과시하는 척도의 하나가 된다. 아울러 해외에서의 한국학은 한국과 관련된 교과서 내용의 왜곡이나 영토분쟁과 같은 국가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관련 당사국과 세계 각국에 제공하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한국의 국력 신장으로 인해 최근 국제사회에서 한국 전반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해외한국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국학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학과 중국학과 비교해 본다면, 절대적으로 열세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세계한국학대회는 건국60년을 맞이하여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세계에 한국학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의도로 개최됐다.

특히, 이번의 서울 세계한국학대회는 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의 주요 한국학회 및 관련기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치렀다. 즉 국제고려학회(ISKS), 유럽한국학회(AKSE), 대양주한국학회(KSAA), 아시아태평양지역한국학국제학술회의(PACKS), 아시아학회-한국학위원회(AAS-CKS), 규슈대학교

제4회 세계한국학대회 기조연설자 : UCLA의 로버트 버스웰(Robert Buswell, 세계 아시아학회 회장, 한국 불교 전공)교수

한국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Kyushu Univ)가 공동주최 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의 제4회 세계한국학대회는 한국학과 관련된 국내외의 분야별 학문적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별, 전공별 한국학 연구동향 파악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성을 할 수 있는 한국학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학문적 교류와 상생을 위한 장이 됐다. 세계 한국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 이번 대회는 과거의 인문학 중심이었던 한국학 연구 경향을 넘어서 한국과 관련된 다방면의 연구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인 학문 세계의 이모저모를 보여줌으로 한국학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학문으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모임이 됐다.

기성학자와 젊은 학자의 소통의 창

이번 제4회 세계한국학대회에는 개막일인 9월 21일 저녁 6시, UCLA의 로버트 버스웰(Robert Buswell, 세계 아시아학회 회장, 한국 불교 전공) 교수가 〈동아시아의 문화적 상황에서의 한국 불교(Korean Buddhism in East Asian Context)〉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 발표를 시작으로, 전 세계 20여 개국의 학자 135명이 참여,

13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기존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예술 등 14개 지정분과와 함께 특정 주제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특별 분과도 마련됐다. 이들 특별 분과에서는 '각국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외국인(재외동포)을 위한 한국어 교육', '한일 문화교류사' 등의 문제에 대한 발표와 집중적인 토론이 마련됐다. 이외에 9개의 자유분과를 통해 자유로운 학문적 논의와 새로운 학문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장도 마련됐다.

이번 대회의 특징적인 점은 한국학을 이끌어갈 차세대 한국학자 육성을 위해 심사를 통해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의 우수한 논문을 선발하고 시상하여 젊은 학자들을 발굴 및 격려하고, 기성 한국학자와 새로운 학문적인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토론회 장면.

대회 개요

▸ 일　　시 : 본 대회 2008년 9월 21~23일, 초청학자 한국문화체험-24일
▸ 장　　소 : 서울 워커힐 호텔 컨벤션센터
▸ 공동주최 :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고려학회(ISKS), 아시아태평양지역한국학국제학술회의(PACKS), 대양주한국학회(KSAA), 유럽한국학회(AKSE), 아시아학회-한국학위원회(CKS-AAS), 규슈대학교 한국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Kyushu University)
▸ 후　　원 : 교육과학기술부,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한국국제교류재단
▸ 참 가 자
- 해외참가 : 주요 해외한국학회, 해외대학 한국학과 및 한국학 연구소 관계자
- 국내참가 : 관련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학 연구기관, 문화교류/학술지원기관, 한국관련자료 출판기관 관계자

▸ 학술대회 일정
2008년 9월 21일
16:00-18:00　등록
18:00-19:00　개회식 (워커힐 호텔 컨벤션센터 4층 아트홀)
- 사 회 : 이완범 교수 (조직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
- 환영사 : 김정배 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
- 기조강연 : Robert Buswell (UCLA)
- 문화공연 : 숙명가야금연주단
19:00-21:00　환영만찬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주최)

2008년 9월 22일
08:00-09:00 등록
09:00-10:30 분과별 발표 및 토론 (Session 1)
10:30-11:00 휴게
11:00-12:30 분과별 발표 및 토론 (Session 2)
12:30-14:00 오찬 (워커힐 컨벤션센터 4층 아트홀)
14:00-15:30 분과별 발표 및 토론 (Session 3)
15:30-16:00 휴게
16:00-17:30 분과별 발표 및 토론 (Session 4)
18:00-20:00 만찬 (국재교류재단 주최, 워커힐 컨벤션센터 3층 코스모스홀)

2008년 9월 23일 (화)
09:00-10:30 분과별 발표 및 토론 (Session 5)
10:30-11:00 휴게
11:00-12:30 분과별 발표 및 토론 (Session 6)
13:00-15:00 폐회식 및 환송만찬 (워커힐 호텔 컨벤션센터 3층 코스모스홀)
- 사회 이완범 교수 (조직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
- 대회경과보고 신대철 교수 (조직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
- 폐회사 김정배 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년 9월 24일 (수)
전일 문화체험 프로그램 (DMZ 투어/선택사항)

독립 정신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 고취

이승만 박사 제43주기 추모식 및 《독립정신》 봉정식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추모하다

강영훈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회장은 2008년 7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이승만박사 43주기 추모식 및 《독립정신》봉정식을 거행했다. 추모식은 서울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목사의 집례로 진행됐다. 추모식에는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김진현 집행위원장 등 각계 인사와 광복회원 및 유족들이 참석했다. 이번 추모식과 봉정식은 건국60년을 맞이하여 건국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를 추모하고 새롭게 풀어 쓴 《독립정신》을 통해 우리나라 독립의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2008년 7월 19일 오전 10시, 국립 서울 현충원 현충관에서는 비가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500여 명의 추모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만 박사 43주기 추도식' 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강영훈 기념사업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협회 사건으로 투옥당시 옥중저서인 《독립정신》해역서 봉정식과 김진현 집행위원장의 추념사, 그리고 분향 및 유족 대표 이인수 박사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승만 박사 제43주기 추모식 장면.

이날 봉정된 ≪독립정신≫은 1904년 초 러 · 일 전쟁이 발발할 기운이 돌자 이승만 박사가 그동안 만들던 ≪한영사전≫을 중단하고 대한의 독립이 위태롭게 되자 백성들의 경각심을 깨우치기 위해 집필한 책을 오늘날에 맞게 쉽게 풀어쓴 책이다. 이 책은 구한말 혼란의 극치에 다다랐던 국내외 정세는 물론 개화운동, 독립보존운동, 한국 근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태동 움직임 등을 담고 있다.

봉정식에 이어 추념사가 있었다. 김진현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추념사에서 "대한민국 건국60년을 맞는 해 우남 이승만 대통령 43주기를 맞아 우리가 할 일은 한없는 추모의 념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신부터 제2의 새로운 우남, 21세기의 우남이 되는 행동, 즉 공덕, 공동선, 나눔, 희생의 실천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 성공의 원류인 우남의 이념과 도덕력이 21세기에 더욱 활짝 피어 민족통일, 인류평화의 원류로 그리고 대한민국이 21세기 지구촌 인류사회의 모범공동체로 승화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강영훈 전 총리, 이홍구 전 총리, 송인상 전 상공부 장관 등 각계인사들이 참석하여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 작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참석자 중 일부는 이승만 건국대통령과 박정희 근대화대통령의 기념관은커녕 추모행사조차 제대로 못하는 실정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강영훈 기념사업회장의 분향과 개회선언에 이어 참석자들이 이승만 박사의 뜻을 기리며 묵념을 하고 있다.

추모식 개요

- 일　　시 : 2008년 7월 19일
- 장　　소 : 국립현충원 현충관
- 참여인원 : 약 500명
- 순　　서
  - 개회선언
  - 《독립정신》 봉정식
  - 추념사
  - 분향 및 유족대표 인사
- 주　　관 :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축제도 즐기고 건강도 지키고
-건국60년 기념 한강 횡단 수영대회

궂은 날씨 속에서도 성황리에 마쳐

'건국60년 기념 한강 횡단 수영대회'는 건국60년을 널리 알리고 전국의 수영 동호인들과 함께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청소년생활체육협회가 주관하고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가 후원한 이 행사에는 수영 동호인 등 약 5,0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수영 동호인들은 본격적인 한강 횡단에 도전하기 전에 대회를 기념하는 축하공연을 관람했다. 오전부터 날씨가 흐려 많은 참가자들이 걱정을 했지만, 공연을 보며 서서히 축제 분위기에 빠져들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수영 동호인들이 조별로 모여 준비 체조를 했다. 준비 체조를 하면서 참가자들의 얼굴은 진지하게 변했다. 그 모습에서 반드시 완영을 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볼 수 있었다.

대회를 기념하는 축하공연 장면.

참가자들이 준비 체조를 하는 모습.

준비 체조가 끝난 뒤에는 조별로 출발선에 집합하여 코스에 대한 설명과 주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설명을 듣는 동안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완영에 대한 걱정과 긴장이 감돌기도 했다.

설명이 끝난 뒤 드디어 한강 횡단 도전이 시작됐다. 코스는 한강 잠실지구에서 출발하여 뚝섬 지구까지 도착하는 편도 1.6㎞ 코스였다. 코스에는 안전을 위해 부표가 설치됐고, 안전 요원들이 보트를 타고 대기했다.

흐린 날씨였지만 참가자들의 열기는 뜨

참가자들의 얼굴에 완영에 대한 걱정과 긴장이 감돌고 있다.

부표를 따라 참가자들이 수영을 하고 있는 모습.

거웠다. 물살이 예상보다 빨라 참가자들이 수영을 하는 데 애를 먹었지만 힘들면 부표를 붙잡고 쉬거나 안전 요원의 도움을 받아 한강을 건넜다. 그러나 오후에 들어서는 장대비가 내리고 유속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50여 명의 참가자가 물결에 떠밀려가 안전 요원들이 이 사람들을 보트에 태우느라고 행사가 1시간 이상 중단되기도 했다. 게다가 안내 부표를 연결하는 로프가 두 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자 주최 측에서는 대회 진행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했다.

그러나 대기하고 있던 참가자들이 한결 같이 대회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자 주최 측은 대회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행히 이후로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대회가 진행되었다.

비록 날씨는 안 좋았지만, 이번 대회는 참가들에게 건국60년의 의미를 되살리고 미래에 대한 도전과 고난 극복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보람 있는 대회가 되었다.

대회 개요

- ▸ 일　　시 : 2008년 8월 15일
- ▸ 장　　소 : 한강 잠실지구 ~ 뚝섬지구(1.6㎞)
- ▸ 참여인원 : 약 5000명
- ▸ 일　　정
  - 개회식 및 기념 공연
  - 준비운동
  - 주의 사항 전달
  - 한강 횡단 수영
  - 완영 메달 수여
- ▸ 주　　관 : 한국청소년생활체육협회

한민족 역사의 의미와 소중함

바른 역사 정립과 평화와 통일 기원 전국 달리기

국민의 뜨거운 염원을 하나로 잇는 달리기

'바른 역사 정립과 평화와 통일 기원 전국 달리기' 행사가 국학운동시민연합 주최,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후원으로 2008년 8월 4일부터 8월 15일 까지 전국에서 열렸다.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에서 막을 내린 이번 달리기 행사는 약 1,200㎞의 거리를 48,900여 명의 인원이 이어 달렸다. 이번 행사에는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지역 단체장, 군인, 학생, 일반인, 공무원 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참가하여 평화와 통일 및 바른 역사 정립을 위한 국민적 염원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잘 보여주었다.

이번 행사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교과서 파동 등 동북아시아 주변국들의 연이은 역사왜곡을 바로잡고, 국민들이 우리나라 역사의 정체성과 뿌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따라서 이번 행사는 전 국민이 함께 국토산하를 이어 달리면서 한민족 역사의 의미와 소중함을 함께 호흡하고 체험함으로써 바른 역사 정립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바른 역사 정립은 남한과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존속시키는 길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역사가 주는 교훈과 의미를 살려 '통일과 민족 화합' 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태극기를 들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

지역별로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열띤 모습들. 이번 행사는 2008년 8월 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4개 대도시를 일주하였으며 48,900여 명의 국민들이 직접 참여했다.

따라서 이번 행사는 국민들이 바른 역사를 접하고 그것을 토대로 한민족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 및 국민 대단결의 희망과 함께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 우뚝 서는 자랑스러운 계기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화합과 애국 애족의 마음을 담은 행사

이번 행사는 2008년 8월 4일부터 15일까지의 행사를 통해 전국 14개 대도시를 일주하며 48,900여 명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였고, 그 외 수많은 국민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과 평화통일의 염원을 위해 달리는 주자들을 성원함으로서 100% 이상의 홍보 효과를 거두었다.

달리기 주자가 지나가는 해당 지역에서는 시 · 도별 기관장들이 식전행사장에 직접 참가하여 통일기원 헌화 및 퍼포먼스를 했다. 식전행사에서는 항상 '바른 역사 정립과 평화 통일을 위한' 축원문이 낭독되었다. 축원문에는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8천만 한민족이 서로 도우며 화합하게 하소서. 남과 북 어느 쪽도 우리 것이 아닌 외세의 이념에 의해 갈등하여,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일이 없게 하소서"라며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대립을 치유하는 약이 되게 하소서. 이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그 약이 되고자 합니다"라며 통일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대한 염원도 담았다.

행사 기간 중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리기도 했지만, 민족의 통일과 바른 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이처럼 이번 행사는 우리는 하나라는 화합과 애국 애족의 마음을 한껏 느끼게 한 행사였다.

행사 개요

- 일시 : 2008년 8월 4일 ~15일
- 장소 : 전국 14개 시 · 도
- 주최 : 국학운동시민연합
- 참여 인원
  부산 - 4,500명, 울산 - 2,400명, 대구 - 6,000명, 구미 - 3,300명,
  순천 - 1,500명, 광주 - 4,500명, 전주 - 2,400명, 대전 - 5,100명,
  청주 - 3,600명, 천안 - 2,400명, 수원 - 3,000명, 인천 - 3,300명,
  강릉 - 1,500명, 서울 - 5,400명 총- 48,900명
- 행사 진행
  8월 4일 : 부산
  8월 5일 : 울산
  8월 6일 : 대구, 구미
  8월 7일 : 순천
  8월 8일 : 광주
  8월 9일 : 전주
  8월 11일 : 대전, 청주
  8월 12일 : 천안
  8월 13일 : 수원
  8월 14일 : 강릉
  8월 15일 : 인천, 서울

무궁화사랑 나라사랑 마음 함양

무궁화사랑 나라사랑 가족체험 2008

가족사랑, 무궁화 사랑, 나라 사랑

'무궁화사랑 나라사랑 가족체험' 행사는 한국고유문화콘텐츠진흥회 주최로 2008년 4월 26일부터 2008년 7월 21일까지 매달 격주로 토요일에 열렸다. 〈가족사랑, 무궁화사랑, 나라사랑〉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무궁화의 고장인 강원도 홍천에서, 일제강점 시절 무궁화를 통해 민족정기를 일깨우며 독립운동을 펼쳤던 남궁억 선생님의 유적지를 탐방하고, 내 가족 이름으로 무궁화를 직접 심고 가꾸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우선 홍천의 무궁화기념관을 답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무궁화기념관은 우리 꽃 무궁화를 지키기 위해 한평생을 바친 남궁억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곳이다. 남궁억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민족의 상징인 무궁화를 통하여 자긍심과 국권을 회복하려고 독립운동 비밀 결사대인 〈십자당〉을 조직하여 활동하다 투옥되어 옥고를 치르신 분이다.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은 안내인의 설명을 들으며 무궁화 기념관을 둘러보았다.

무궁화기념관을 둘러 본 후에는 '무궁화사랑 나라사랑'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남궁억 선생의 삶과 우리 꽃 무궁화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무궁화사랑 나라사랑 가족체험 2008.

강연이 끝난 뒤에는 무궁 마을에 들러 기념식수를 하였다. 참가자들은 무궁화 나무를 심으며 우리 꽃 무궁화에 대해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졌다. 기념식수에 참가한 한 참가자는 "무궁화를 평상시에 별로 중요하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무궁화 정신의 고귀함과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 무궁화를 항상 깊게 생각하고 전국에 무궁화가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연을 듣고 있는 학부모들과 학생들.

기념식수가 끝난 뒤에는 점심을 먹고 굴렁쇠 굴리기, 떡매치기, 사물놀이 등 민속놀이 체험을 했다. 그리고 이번 행사의 후원을 맡은 하이트 맥주의 공장을 둘러보고 무궁화사랑 가족증서와 기념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쳤다.

무궁나라 김수기 팀장은 "이번 행사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나라꽃 무궁화와 우리 것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며 "독립운동가 남궁억 선생의 자취를 통해 애국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궁 마을에 들러 기념식수를 하고 있는 참가자들.

떡매치기, 페인팅, 사물놀이 등 놀이 체험을 하고 있는 어린들. 이번 행사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참가했다.

행사 일정

- 일시 : 2008년 4월 26 ~ 2008년 7월 21(격주 토요일)
- 장소 : 홍천군 모곡 '무궁화 동산'
- 주최 : 한국고유문화콘텐츠진흥회
- 세부일정

서울 출발(8:00) → 강원도 홍천 한서기념관 도착(10:00) → 한서기념관, 보리울 학교 탐방(10:20) → 무궁화사랑 나라사랑 특별강연(~11:10) → 무궁화 식수 안내(~11:20) → 무궁화 식수 및 가꾸기(~12:00) → 중식, 민속놀이체험(~13:50) → 하이트 공장 도착(~14:50) → 공장견학(~15:50) → 무궁화 사랑 가족 증서, 기념품 전달(~16:30) → 서울도착(~18:30)

국새에 얽힌 이야기

1.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 국새(國璽)

● 명칭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印章)의 명칭은 새(璽), 보(寶), 어보(御寶), 어새(御璽), 옥새(玉璽), 국새(國璽)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어져 왔다. 여기서 새(璽), 보(寶)는 인장(印章)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어보(御寶), 어새(御璽)는 왕실의 인장을 의미하는 말이다. 옥새(玉璽)는 재질이 옥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현대적 의미에서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의 이름으로는 국새(國璽)라고 표기하는 것이 알맞다.

● 의미

국새는 왕조시대에는 왕권의 상징으로, 오늘날에는 국가의 상징으로 나라의 중요 문서에 사용하는 도장이다. 오늘날 국새는 대통령령 제6조의 국새 사용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헌법 공포문, 훈 · 포장증,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외교사절의 신임장, 중요 외교문서 등에 날인되고 있는데 관리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연간 2만여건 정도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2. 파란만장한 국새의 역사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고려 국새를 명나라에 반납하고, 새 국새를 내려주도록 여러 차례 청하였으나 실현되지 않다가 1403년(태종 3년)에 성조에 의해 비로소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 이 수여되었다. 이를 대보 혹은 어보라 하여 1636년(인조 14년)까지 대중국 외교문서에만 사용하였다.

이밖에도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어보들이 제작, 사용되었는데 교서 · 교지 등에 찍는 '시명지보(施命之寶)' 유서에 찍는 '유서지보(諭書之寶)', 과거시험의 문서에 찍는 '과거지보(科擧之寶)', 교린문서, 특히 대일본관계에 찍는 '소신지보(昭信之寶)' 등이 있었고 소신지보는 조선 후기에 '이덕보(以德寶)' 로 고쳤다.

1636년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나라에서 만들어준 국인을 공식 대보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숙종 때 명나라에서 준 옛 국인의 도장 자취를 찾아 별도의 것을 만들어 감추어 두고 왕위 계승의 의식 때만 사용하게 하였다.

이외에도 세자시강원 관원의 교지에 쓰는 '준명지보(濬明之寶)' 가 있으며, 기타로 '흠문지보(欽文之寶)' · '명덕지보(明德之寶)' · '광운지보(廣運之寶)'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인장들은 모두 도승지의 책임 하에 상서원(尙瑞院)에서 제작 · 보관 · 관리하였다.

1894년 갑오경장 후에는 중국과의 사대 관계를 종식함으로써 이전의 대보를 폐지하고,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 와 '대조선대군주지보(大朝鮮大君主之寶)' 를 제작해 사용하였다.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대한국새(大韓國璽)' · '황제지새(皇帝之璽)' · '황제지보(皇帝之寶)' · '칙명지보(勅命之寶)' · '제고지보(制誥之寶)' · '시명지보(施命之寶)' · '대원수보(大元帥寶)' · '원수지보(元帥之寶)' 등의 국새를 제작, 사용하였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4개의 국새가 제작 사용되었다. 1대 국새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듬해인 1949년 5월 제작되었다. 사방 두치(약 6㎝)의 정방형 도장 형태에 한자 전서(篆書)로 '대한민국지새(大韓民國之璽)' 라 새기고, 총무처에서 관리하게 하였다.

2대 국새는 1963년에 새로운 국새 규정에 따라, 사방 7㎝의 정방형 도장 형태에 한글 전서체로 '대한민국' 넉자를 가로로 새겼고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 모양의 손잡이를 달았으며, 이를 내각사무처처에서 관리하게 하였다. 2대 국새는 1999년 1월 31일까지 사용되었다.

3대 국새는 1999년 2월 1일 글자를 훈민정음체로 바꾸고 성군(聖君)을 상징하는 봉황을 얹은 형태로 만들어졌다.

4대 국새는 중요무형문화재 등 33인으로 국새제작단을 구성하여 전통적 방식으로 만들었으며, 국새의장품 16종을 제작하여 2008년 2월 22일부터 사용하고 있다.

국새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는 총무처에서 관장하여 왔으나, 정부조직 개편으로 2008년 2월 29일부터는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에서 국새와 함께 대통령직인, 국무총리직인을 관리하고 있다.

제2대 국새

제3대 국새

제4대 국새인문

제4대 국새인영

제4대 국새

Part 6

지방화 시대와 미래로 가는 길

지방화 시대와 미래로 가는 길

건국60년 기념 지방자치단체 사업

건국60년을 기념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주로 중앙경축식 행사와 보조를 맞춰 진행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전야음악제, 기념식, 독립유공자 초청 및 방문 행사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음악제, 영화제, 지역 축제 등 총 292개의 행사가 진행됐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중앙사업에 발을 맞추면서도 각 지역의 특색을 잘 살렸으며 축제 형태의 행사가 많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가장 큰 성과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국민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있다. 건국60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한 국민들은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조국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을 이뤄낸 것은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건국60년의 의미를 되돌아보다

서울시, 건국60년 기념 역사 탐방

정부수반 유적 순례

서울시에서는 정부 수립 60주년을 맞이해 역대 정부수반의 유적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 및 복원을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2008년 8월 15일 광복절에 서울시사편찬위원회 및 전문가들이 시민들과 함께 경교장, 이화장, 윤보선 가옥 3곳을 둘러보며 그 장소들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경교장은 광복 이후 김구 선생이 약 3년 동안 거주하고 집무하다 서거한 곳이다. 이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회의가 개최되고 신탁통치 반대운동과 남북 정치지도자 회담이 추진되는 등 우리나라 현대사의 주요 현장으로서 실질적인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 역할을 한 장소이다. 따라서 신탁통치 반대운동과 단독정부 수립 반대운동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다.

경고장은 김구 선생이 거주하고 서거한 장소인 동시에 대한민국이 그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 지정 문화재인 사적 제465호가 됐다. 이곳은 백범기념관과는 차별성을 두어 집무실 원형을 복원하고 서거 당시 모습을 재현했다. 책상 등 집기류, 창문의 탄흔, 안두희 발자국 등을 재현했으며, 경교장 축소모형과 김구 선생 흉상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화장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2번째 사저로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방안을 정초한 곳이며, 건국 초대 내각을 조각한 산실이다. 광복 이후부터 정부 수립 전까지는 김구의 경교장과 김규식의 삼청장 등 당시 정세를

김구 선생이 약 3년 동안 거주하고 집무하다 서거한 곳인 경교장 건물. 이곳은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 역할을 한 장소이다.

이화장 전경. 이화장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2번째 사저로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방안을 정초한 곳이며, 건국 초대 내각을 조각한 산실이다.

이끌어가던 세 구심점 가운데 하나로서 특히 남한 중심의 단독정부 수립론의 근거지였다. 이곳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5 · 10 총선거에서의 승리 및 대통령 당선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뒤에는 1948년 8월 15일 출범한 초대 정부의 '조각본부' 이자 대통령 집무공간으로 쓰였다.

윤보선 가옥은 제2공화국 대통령 윤보선의 사저로서 4 · 19혁명 당시 반자유당 세력의 집결지였고, 민주당 구파의 본산이며, 제3공화국 때 윤보선 대통령이 연금당했던 장소이다. 현재 후손이 거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으며 평소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탐방은 내부 관람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다.

나라 사랑, 겨레 사랑, 단합된 힘

부산시, 국기게양 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 계승

부산시는 대한민국 건국60년을 맞아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및 발전시키고 전 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기 위해 전 시가지에 태극기가 휘날리도록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시 소속직원에 대하여 태극기 달기 솔선수범을 비롯하여 자녀와 함께 이웃집 태극기 달기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태극기 청결상태 등을 점검했다. 특히, 각 구와 군에서는 때가 묻거나 훼손된 태극기는 즉시 교체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산하기관과 단체 및 기업

시민들을 상대로 국기게양 운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

체까지 전파하는 등 태극기달기 캠페인을 적극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8월 8일부터 15일까지 지역 방송매체, 시·구·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사이버 태극기달기, 부산시보 게재, 부산시 홈페이지 전 회원에게 EMS 메일 발송 등 가능한 모든 홍보 기능을 동원하여 전 가정에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2008년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은 시내(마을)버스 3,400여대에 대하여 소형 태극기를 차량 전면 상단에 부착, 운행토록 했다. 국기사랑회는 이를 위해 2008년 8월 8일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및 마을버스조합을 방문해 시내(마을)버스 부착용 태극기 3,400매를 전달했다. 한편, 시청사와 서면교차로 등 대형 건물에는 대형 태극기 현수막을 설치하여 경축분위기를 조성했다.

부산시가 이렇게 태극기 게양운동을 펼친 것은 대한민국 건국60년을 맞아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 낸 기적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여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시민적 공감을 다지기 위해서였다. 이번 운동은 부산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참여로 전 시가지에 태극기의 물결을 연출하여 경축분위기 조성에 큰 몫을 담당했다.

태극기의 물결이 연출되고 있는 아파트 전경.

건국60년, 젊은 상상력에 길을 묻다

대구시, 2008 올해의 청년작가 초대전

대구 미술의 미래

2008 올해의 청년작가 초대전이 2008년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1~10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건국60년을 맞이하여 대구 미술의 새로운 미래를 활짝 열어줄 30대 젊은 작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를 통해 지금까지 배출된 109명의 작가들은 지역 미술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는 공모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응용미술 분야 10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서예 박세호, 임봉규, 장인정, 김현미, 목공예 문영준, 도자공예 김순희, 섬유공예 정유지, 사진 장용근, 김창섭, 정혜윤 등의 작가가 전시를 가졌다.

박세호 작가는 파격적인 형식으로 고전을 재해석했다. 그리고 임봉규 작가는 자연의 본질을 느끼게 하는 문인화, 김현미 작가는 여성적인 서예의 맛을 추구했다. 문영준 작가는 예술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를 동시에

지닌 목칠공예, 김순희 작가는 질박하고 정감 있는 도예, 정유지 작가는 커피라는 재료를 섬유와 결합시킨 신선한 작품을 선보였다. 또 장용근 작가는 기계 미학과 삶의 기록이 담긴 대단위 산업단지 광경을, 김창섭 작가는 옛 명성을 잃어버린 송도해수욕장을 통해 정체된 풍경을, 정혜윤 작가는 입양아, 해외이민자 등의 정신적 혼란을 카메라 앵글에 담았다.

대구시에서 개최한 '2008 올해의 청년작가 초대전'.

김현미 씨는 "전각의 독자적인 영역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의 중심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작품은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문영준 씨는 "목공예품은 쓰면 쓸수록, 손때가 탈수록 더 빛을 발한다. 배 아픈 손자를 어루만지던 따뜻한 할머니 손길처럼 마음을 담아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순희 씨는 "화가들이 캔버스에 자신이 추구하는 생각을 담아내듯 내가 추구하는 생각을 흙이라는 매체를 통해 표현했다"고 강조했으며 김창섭 씨는 "우리의 삶을 담고자 쇠락해버린 포항 송도해수욕장을 주제로 했다. 시간이 멈춰버린 송도해수욕장의 풍경과 옛 추억을 생각하며 그 곳을 찾은 여행객의 모습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이번 초대전을 통해 젊은 작가들이 건국6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다가올 60년을 꽃 피워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시회에 출품된 다양한 작품들.

참전용사에 대한 추모와 자유의 참 의미

인천시, 건국60년 및 건군60년 기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성대하게 열려

인천시는 2008년 9월 9일, 인천 자유공원과 월미도 일대에서 참전용사와 시민, 장병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천상륙작전 제5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실제 상륙작전일인 15일이 추석 연휴일인 관계로 인천상륙작전 미 의회 승인일을 기념하여 이 날 실시된 이번 기념행사에는 정옥근 해군 참모총장, 이홍희 해병대 사령관, 토마스 로우든(Thomas S. Rowden)주한 미 해군사령관,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하여 역대 해군참모총장, 역대 해병대사령관, 해병대전우회 중앙회 총재를 비롯한 참전용사 등 예비역들이 참가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전경.

자유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운 행사

이날 행사는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동상 헌화를 시작으로 상륙작전 당시 주 공격로였던 월미도 앞 해상에서의 헌화와 상륙작전 재연, 기념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기념식 전 · 후 행사로는 사물놀이와 군악대 퍼레이드, 태권도 시범, 의장대 시범 등이 진행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 장면 등을 담은 사진 31점과 해병대 관련 사진 전시회도 열렸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재연식에는 해군 수송함인 독도함과 상륙함(SST), 향로봉함, 한국형 상륙장갑차(KAAV)26대, 헬기 10대 등의 장비와 해병대, 육군, 해군 장병 등 375명이 참가했다.

재연식이 진행되자 월미도 앞마다는 순식간에 군함과 살육장비에서 뿜어내는 연막탄, 폭발음으로 가득 찼다. 하늘에서는 헬기가 비행을 하고 바다에서는 해안선으로 돌진해 나가는 한국형 상륙장갑차가 한국전쟁당시 긴박했던 상륙작전의 상황을 실감나게 재현했다.

이날 행사를 지켜본 시민들은 "말로만 들었던 인천상륙작전의 실제를 볼 수 있어 다시 한 번 국가안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상륙작전에 참여했던 참전용사들은

재연식 장면. 재연식이 진행되자 월미도 앞마다는 순식간에 군함과 살육장비에서 뿜어내는 연막탄, 폭발음으로 가득 찼다.

행사를 지켜보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는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모든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자유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물과 함께하는 환상여행
-대전시, H2O페스티벌

인간과 물의 융합

대전광역시는 건국60년을 맞아 2008년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대전엑스포과학공원과 남문광장 일대에서 물을 주제로 '대전 H2O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대전광역시는 도심에 3대 하천이 흐르고 있는 지역으로서 물과 친근한 도시이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이러한 도시의 특성을 살리고 시민들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축제를 마련했다.

'H2O 페스티벌'은 물을 뜻하는 하이드로(Hydro)의 'H', 인간을 뜻하는 휴먼(Human)의 'H', 그리고 이를 융합하는 오거나이즈(Organized)의 'O'를 뜻하며, 과학적 의미 '물'과 문화예술의 주체인 '사람'을 합체해 만들어가는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는 축제다.

건국60년을 맞이하는 8월 15일 오후 7시 30분에 펼쳐지는 개막공연은 대전시립미술관 야외 상설무대에서 장대퍼레이드, 모듬북 퍼포먼스, 레이저 및 불꽃쇼, 연합합창 등 좀처럼 보기 힘든 환상적인 공연이 펼쳐졌다.

이번 축제에서는 물 구역(H_2O Zone), 물 예술구역(Water Art Zone), 물 과학구역(Water Science Zone), 물 스포츠구역(Water Sports Zone) 등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 구역에는 물과 관련된 게임과 과학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물 구역에서는 '물벼락'이라는 대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물총에 천연염료를 장착해 워터맨과 시민들이 신나는 물 전쟁을 하는 것으로, 물벼락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흰 티셔츠 등 헌 옷을 입고 게임을 즐겼다. 이외에도 흥겨운 퍼포먼스와 시원한 물대포로 몸을 씻을 수 있는 워터로드쇼, 어린이들의 전용프로그램인 과학적 원리를 체험하는 물 놀이터도 운영됐다.

물 예술구역은 물의 태동, 물의 꿈, 물의 상생 등 3가지 주제로 매일 밤, 물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의 표현과 물 관련 공연, 물사랑 효사랑 미술실기대회, 미술체험 및 벼룩시장, 거리공연, 깜짝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다.

대전광역시에서 펼쳐진 H2O페스티벌.

물 과학구역은 KAIST에서 주관하는 유비쿼터스 게임인 물방울 터트리기, 나무와 물, 영차! 영차! 등이 있으며, 물 과학 체험장에서 물 로켓, 물자동차, 물의 표면장력, 헤론의 물 분수, 물 피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됐다.

물 스포츠구역은 갑천에서 신나는 하루를 보내는 인력선 축제로 국내외 32개 대학팀이 참가했다. 2008년 8월 17일에는 시민들이 직접 인력선에 승선하는 체험행사를 열 예정이었으나 안타깝게도 기상이 안 좋아 행사가 열리지 못했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이번 축제는 유관기관이 참여해 더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즐길 수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차례에 걸쳐 대청댐 물문화관 견학과 댐 투어, 축제현장에서 대형 벽화 그리기, 물 사진전시회를 진행했다.

엑스포과학공원에서는 매일 자정까지 한빛광장 음악 분수쇼, 전국학생 과학발명품 전시, 공룡페스티벌,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노벨 탐험전, 화폐박물관에서 나만의 화폐 만들기 등 다양하고 신비로운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물은 대전의 지역여건과 친숙한 소재로 모든 시민들이 물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갑천 등 3개 하천 중심으로 친환경 정책비전을 표출하기 위해 대전 H2O페스티벌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 H2O페스티벌에 사용되는 물은 대전 지하철 8개역에서 분출되어 흘려보내는 지하수 1일 8,000여 톤 중 대전월드컵경기장역과 현충원역에서 분출된 지하수를 받아 소방용 물탱크차량으로 축제장에 옮겨졌다. 하루 평균 200여 톤의 물을 사용했다.

체험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들.

경기도의 역사를 되돌아보다
경기도, 60년사 사진전

경기도 관련 사진 40여 점 전시

경기도는 건국60년을 기념하기 위해 '경기도 60년사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번 사진전은 2008년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수원시 애경백화점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사진전에는 경기도 60년사를 담은 사진 40여 점과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사진 10여 점이 전시됐다.

'경기도 60년사 사진전' 행사장 전경.

경기도는 경기도의 발전상과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진전을 마련했다. 특히 방학기간 동안 전시하여 학생들이 방학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전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둘러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사진은 크게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정됐다. 첫째, 경기도사를 기준으로 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진을 선정했다. 이 기준을 통해 선정된 사진은 역사적 인물, 경기도 역사, 시청 사진, 고속도로 개통사진 등이다. 둘째,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경기도정 중 희소가치가 있는 사진을 선정했다. 이 기준을 통해 선정된 사진은 과거의 팔당댐, 전곡항, 평택항 등이 있다. 셋째 경기도민의 발자취를 알 수 있는 사진을 선정했다. 이 기준을 통해 신도시 개발 전 경기도 시군에서 살던 도민들의 모습 등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이번 사진전을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전시회가 끝난 뒤에도 경기도 박물관이나 경기관광공사에 기증을 하여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이 전시된 사진을 관람하고 있다.

플라워 파워 옛 노동당사 공연

강원도, '플라워 파워' 평화기원 페스티벌

분단의 현장에서 열린 공연, 반전과 평화의 외침

2008년 5월 3일, 강원도 철원군 옛 노동당사 특설무대에서 '플라워 파워(Flower Power)' 공연이 열렸다. 이 공연은 휴전협정 55주년과 대한민국 건국60년을 맞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도(道)인 강원도가 평화를 염원하는 포크가수들과 함께 비무장지대의 현실과 도의 평화정책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5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은 무대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으로 옮겨 공연을 진행했다.

평화공연에 앞서 참가자들은 평화전망대, 옛 월정역, 옛 철원시가지, 옛 노동당사 등을 둘러보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뒤 평화선언문을 채택했다. 김진선 도지사는 이날 멜라니 사프카와 함께 낭독한 평화선언에서 "우리는 모든 이념을 벗어나 순수한 인류애로 살아간다. 또 모든 종교와 이해를 초월해 전쟁에 반대한다. 생명의 공간인 비무장지대를 인류의 자산으로 보전한다. 세계의 모든 분쟁이 종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참가 가수들을 비무장지대 명예평화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공연에는 멜라니 사프카(Melanie Anne Safka-Schekeryk), 주디 콜린스(Judith Marjorie Collins), 브라더스 포(Brothers Four), 닥터 후크(Dr Hook) 등 세계적인 포크 뮤지션 등 7팀 13명이 참가했다. 그리고 5월 4일과 5일에 유료로 열리는 서울 공연에는 9팀 23명이 무대에 올랐다.

'플라워 파워'는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병사들을 환송하러 나온 여자들이 무사귀환을 바라는 뜻에서 병사들의 머리에 꽃을 꽂아주었던 것에서 유래했다. 이후 몇몇 포크 가수들은 '플라워 파워'라는 단체를 만들어 반전 및 평화를 노래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정신을 살려 세계 각지에서 반전 및 평화에 관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프카는 2006년 10월에도 임진각을 찾아 간이 콘서트를 열고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기도 했다.

'플라워 파워(Flower Power)' 공연이 개최된 철원군 옛 노동당사 특설무대.

공연장면. 이날 공연에는 멜라니 사프카, 주디 콜린스, 브라더스 포, 닥터 후크 등 세계적인 포크 뮤지션 등 7팀 13명이 참가했다.

몸으로 느끼는 모국 문화

전라북도, 재외동포 모국방문단 홈스테이

모국문화 체험

전라북도는 건국60년을 맞이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학생들에게 모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재외동포학생 모국방문단 전통문화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는 2008년 7월 11일 중앙아시아 방문단을 시작으로 2008년 8월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개최됐다.

전라북도에서 개최한 재외동포 모국방문단 홈스테이 장면.

한 핏줄의 동질감을 느낀 홈스테이

이번에 전라북도를 찾은 모국방문단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4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학생들로 구성되었다.

모국방문단은 홈스테이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거쳤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재외동포학생(게스트)과 홈스테이가정(호스트)간 첫 만남의 시간, 홈스테이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등이 이루어졌다.

모국방문단 대부분은 일제강점기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고려인 3, 4세들로서 이주의 역사가 오래된 탓에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며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매우 생소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한국문화체험은 학생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더불어 홈스테이를 통해 우리 자녀들은 외국어와 외국문화를 체험하여 국제 감각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이번 행사는 중앙아시아 방문단을 시작으로 2008년 7월 25일에는 일본지역 방문단 95명, 2008년 8월 10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 고교생 150명이 잇따라 참가했다. 그리고 2008년 7월 15일에는 평일인 관계로 홈스테이를 실시하지는 못했지만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동포학생 130명이 전라북도를 찾아 전통문화센터에서 문화체험을 하고 새만금방조제 견학을 포함하여 부안지역 투어에 나섰다.

전라북도는 이번 재외동포학생 홈스테이를 계기로 세계소리축제, 전주국제영화제 등 다양한 국제행사에도 홈스테이를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국제화마인드 함양을 도모하고 아울러 만성적인 숙박시설 부족 문제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재외동포학생 모국 방문단 전북방문 일정 |

단별	방문 일시	대상(인원)	비고
2단	7. 11(금)~7. 12(토)	중앙 아시아 고교생 (150명)	홈스테이 실시
3단	7. 15(화)~7. 16(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고등학생 및 대학생 (130명)	홈스테이 미실시
4단	7. 25(금)~7. 26(토)	일본지역 중 · 고생 (150명)	홈스테이 실시
7단	8. 10(일)~8. 11(월)	러시아 고교생(150명)	홈스테이 실시

독도 사랑, 나라 사랑

경상북도, 중 · 고교생 독도탐방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독도 탐방 프로그램

경상북도는 건국60년을 맞아, 독도사랑과 국토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독도교육과 독도탐방을 실시했다. 행사는 2008년 8월 13일 부터 8월 15일까지 울릉도와 독도 현지에서 중, 고교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행사의 주관은 경일대학교 독도 · 간도 교육센터에서 맡았다. 이번 탐방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독도 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중고교생 독도탐방.

독도 체험 행사의 전국적 확대

탐방 첫날은 울릉도에 도착하여 도동, 저동, 봉래폭포, 내수전 등 유적지를 탐방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탐방이 끝난 후에는 숙소에 도착해 저녁식사를 마치고 경상북도 김종호 사무관이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의 시책을 소개했다. 이어서 경일대의 이범관 교수가 독도의 현황 및 최신 동향에 대해 특강을 했다.

둘째 날은 오전에 이규원 감찰사가 울릉도를 답사한 행로를 더듬어 보고,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세운 망루터 현장을 둘러보는 유적지 탐방 행사를 가졌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직접 독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서 저녁식사를 한 후 독도수호국제연대 박창우 기획실장이 〈동해의 우리 땅 독도〉 알리기에 대한 특강을 했다. 이어서 '독도 골든벨' 퀴즈 대회를 열었다. 퀴즈 대회에서는 초전 중학교 정순형 군이 금상을 차지했다.

셋째 날은 오전에 독도 모형 만들기 행사와 독도 평가회를 가졌다. 오후에는 안용복 충혼비와 독도박물관을 둘러본 뒤 해단식을 가졌다.

김남일 경상북도 독도수호대책본부장은 "중 · 고교생들의 독도교육은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독도현지 교육이 아주 중요하며, 청소년들이 독도에 대해 바로 알고 이해 할 때, 비로소 자신을 갖고 동해의 우리 땅 독도를 세계에 올바로 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번 탐방의 의의를 설명했다.

특강을 듣고 있는 학생들.

경상북도는 이번 행사가 주관하는 측의 일방적인 진행, 퀴즈 문제의 평이함, 독도 현황 오류 등 미숙한 점이 많았다고 평가하며 다음 행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이와 같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독도 탐방 행사가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되기를 바랐다.

섬, 그 바람의 울림
제주, 국제관악축제

건국60년의 뜻을 축제에 담아

'제13회 제주국제관악제, 제5회 국제관악콩쿠르' 가 2008년 8월 12일 부터 8월 20일까지 제주해변공연장, 한라아트홀, 서귀포 천지연 야외공연장 등 제주 일원에서 열렸다. 한국과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헝가리 등 6개국에서 17팀 1,3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축제였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의 뜻도 더했다. 이에 따라 축제 기간 중 14일 오후 8시 제주해변공연장에서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 전야제-제주의 밤' 환영 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국제관악제에 앞서 10일과 11일 2일 동안은 제주관악제 행사가 관악향연의 서막을 알렸다. 모두 10개 팀 6백여 명이 참가했다. 10일에는 광주학생관현악단의 식전공연 후 막이 올랐다. 이어서 광양교관악대, 제주클라리넷앙상블, 대정교관악대, 사대부고관악대, 제주여상관악대의 공연이 펼쳐졌다. 11일에는 화북교관악대와 제주여중윈드앙상블, 성산고콘서트밴드, 한림공고관악대, 제주고관악대 등이 출연했다.

개막식은 12일 오후 8시 제주해변공연장에서 열렸다. 첫날에는 체스트넛브라스컴퍼니와 피닉스파운데이션의 연주가 펼쳐졌다. 개막식에 앞서 오후3시부터 문예회관 대극장에서는 '악기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 마련됐다. 고전부터 현대까지 세계 50여 나라의 악기 100여 종을 소개하고 연주하는 독특한 형식의 음악회였다.

제주시에서 개최한 국제관악축제 행사 전경.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는 시가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제주목관아지를 출발해 관덕정~중앙로터리~칠성로~제주해변공연장까지 이어지는 퍼레이드였다. 오후 8시에는 제주해변공연장에서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 전야제-제주의 밤' 환영음악회가 열렸다. 음악회에서는 프랭크 티켈리가 작곡한 〈트롬본 협주곡〉이 연주됐다. 18일에는 그가 직접 지휘를 하는 연주회와 〈티켈리의 작품세계〉가 조명되는 자리도 마련됐다.

관람객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15일에는 제주도립무용단의 축하공연무대가 마련돼 참가자들을 제주 설화 속 설문대할망에게로 안내했다. 이어 마에스트로 콘서트 '비상'이 오후 8시 한라아트홀 무대를 채웠다. 트롬본의 자끄 모저, 튜바의 롤랜드 스챈트팔리, 트럼펫의 에릭 오비이르, 피아노 마끼 야마모토와 에그라티나 그라시가 출연했다.

제5회 국제관악콩쿠르도 이번 앙상블축제 기간 동안 펼쳐졌다. 세계 17개국 관악꿈나무 180여 명이 11~20일 한라아트홀에서 부문별 기량을 겨뤘다.

특별행사와 보조행사도 풍성했다. '트롬본 캠프'와 '플루트 캠프' 등 전문캠프가 11일 부터 16일까지 뉴코리아 리조트에서 열렸고 관악기 무상 수리 코너는 12일부터 19일까지 문예회관 로비에서 마련됐다. 그리고 관악기 전시회와 제6회 초등학교합주경연대회 최우수 입상팀 공연과 오카리나체험도 마련됐다.

참가팀의 열띤 합주 장면.

나라문장에 얽힌 이야기

1.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 나라문장

나라문장 규정은 〈1970. 7. 3 대통령령 제 5151호〉에 근거하고 있다. 나라문장을 만든 목적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및 기타 시설 ·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2. 표준규격

나라문장은 아래 그림과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문서에 사용할 때에는 문서의 중앙 상단부에 오도록 한다.

3. 사용대상

나라문장은 다음과 같은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 외국 · 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 1급 이상(상당) 공무원 임명장
- 훈장 및 훈장증과 대통령 표창장
- 국가공무원 신분증
- 국 · 공립 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 재외공관건물, 정부 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화폐
- 기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문서 · 시설 또는 물자

4. 나라문장의 역사

가문(家門) · 단체 및 국가의 계보, 권위 등을 상징하고 장식적인 마크로서 주로 서양에서 발달하였다. 국가나 왕의 심벌(Symbol)은 고대국가 시대에 이미 등장하였다. 오늘날 볼 수 있는 서양문장은 12세기 초, 기사의 창 시합이나 전쟁터에서 방패 또는 코트에 단 마크가 시초다.

그 밖에 영주로부터 허락된 문장, 성직, 도시, 대학, 길드 등의 문장, 장원(manor) 가문의 세습적 문장 등이 있다.

- 각국의 대표적인 나라 문장

아시리아 : 황소	러 시 아 : 독수리
로 마 : 독수리 → 용	프 랑 스 : 백합
그 리 스 : 아테네의 올빼미	
영 국 : 사자	

대한민국 문장

러시아 문장

영국 문장

프랑스 문장

Part 7

역사, 미래와 만나다

역사, 미래와 만나다
건국60년, 60일 연속강연

건국60년을 기념하는 60일 연속강연은 2008년 7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렸다. 건국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 강연은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 60인을 초청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정원에서 진행됐다. 강연 내용은 요일별 주제에 따라 정해졌다. 월요일은 '지나옴과 다가옴', 화요일은 '뒤섞임과 고유함', 수요일은 '소통과 가능성', 목요일은 '함께 사는 지구', 금요일은 '21세기 한국의 도전', 토요일은 '부드러움과 단단함', 일요일은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주제였다. 요일별·주제별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건국60년의 역사를 7개의 테마로 나누어 각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 60인을 초청해 60일 동안 강연을 펼친 〈역사, 미래를 만나다〉는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궁극적으로는 미래를 향한 방법론을 살펴보는 자리였다.

월요일에 진행된 강연은 '지나옴과 다가옴' 이라는 주제로 역사 안에서 길을 찾고 우리 안에서의 자부심을 되찾는 기회를 제공했다. 화요일 강연의 키워드는 '불에 의한 뒤섞임 혹은 어울림' 이었는데,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경험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용과 융합이 조망되었다. 수요일의 주제는 '소통과 가능성' 이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를 짚어보는 자리였고, 소통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했다.

목요일 강연은 '함께 사는 지구' 를 주제로 삼았는데, 지구촌과 한국 사회가 함께 풀어갈 수밖에 없는 갈등들은 함께 손을 맞잡는 데서 비로소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결론을 산출했다. 금요일에 진행된 강연은 '21세기 한국의 도전' 을 주제로 삼았으며,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의 엔진을 켤 수 있는 해답은 무엇인지 경제 현장의 기업인들과 경제 정책을 일궈낸 학자들을 통해 그 열쇠를 찾아보았다. 토요일 강연은 점유의 문화가 아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의 지평이 넓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일요일 강연은 '도전과 열정' 을 메인 슬로건으로 인재강국 코리아를 위한 제언들로 이루어져 있다.

월요일 : 지나옴과 다가옴

일자	강연자	주요 경력	강연내용
07월 14일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	우리는 어디까지 왔나. 문명사적으로 본 한국의 이상
07월 21일	정종섭 교수	서울대	헌법 만들기와 나라 만들기
07월 28일	이철우 교수	연세대	한국인은 누구인가? 한국인의 법적 경계와 정체성
08월 04일	노재봉	전 국무총리	대한민국 건국60년의 세계사적 의미
08월 11일	정옥자 교수	국사편찬위원장	건국60년, 우리 역사를 보는 눈
08월 18일	강석훈 교수	성신여대	한국인에게 시장은 무엇인가?
08월 25일	최완수 연구실장	간송 미술관	겸재의 진경 산수화
09월 01일	김학준 회장	동아일보	국제적 시각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건국
09월 08일	박세일 교수	서울대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월요일에 진행된 강연은 '지나옴과 다가옴' 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달이 가진 거듭남의 의미를 건국의 역사와 연계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월요일 강연은 건국6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역사 안에서 길을 찾고 우리 안에서의 자부심을 되찾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됐다.

건국 60년, 60일 연속 강연
미래와 만나
주최 :

건국 60년, 60일 연속 강연
역사,
미래와 만나다
(재)세종문화

60일 연속강연의 첫 테이프를 끊은 사람은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으로 〈문명사적으로 본 한국의 이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고문은 강연을 통해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옮겨가며 끊임없이 역설과 모순을 뚫고 나가는 힘이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게 한 원동력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도약할 때라고 강조하며 "넓은 하늘과 바다를 건너는 조나단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종섭 교수와 이철우 교수는 법에 관련된 주제로 강연을 이끌어 나갔다. 정 교수는 〈헌법 만들기와 나라 만들기〉라는 주제를 통해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 10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진다는 조항은 감동적이다. 내가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으면 남도 존중하면 된다는 것을 법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모든 국민이 헌법을 한 번쯤은 꼭 읽어보기를 당부했다. 이 교수는 〈국민의 법적 경계와 정체성〉을 주제로 삼아 국적에 관한 얘기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혈통주의 대신 출생지주의에 따라 국적을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옥자 국사편찬위원장은 정통론부터 시작하여 최근의 좌·우파 논쟁에 이르기까지 조목조목 짚어가며 정치와 역사의 관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 우라는 것은 방법론이지 목적일 수 없다. 한쪽으로 편향된 역사인식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로 당부의 말을 대신했다.

김학준 회장은 〈국제적 시각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 강연했다. 김 회장은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사의 엄혹한 질서 속에서 탄생한 만큼, 대한민국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의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건국될 당시 세계의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의 독립에 관심이 없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아직 많은 문제가 있지만 현재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긍지를 지키면서 책임감을 증폭시켜 병폐를 고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요일 : 뒤섞임과 고유함

일자	강연자	주요 경력	강연내용
07월 15일	이참	방송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답답한 나라 한국
07월 22일	류석춘 교수	연세대	유교 윤리와 한국자본주의의 발전
07월 29일	윤평중 교수	한신대	담론과 관용
08월 05일	함인희 교수	이화여대	양성평등과 다양한 가족제도
08월 12일	윤인진 교수	고려대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08월 19일	배 영 교수	숭실대	정보화 사회의 명암
08월 26일	홍성욱 교수	서울대	학문의 융합과 미래의 대학
09월 02일	전상인 교수	서울대	도시화와 아파트 문화
09월 09일	이재열 교수	서울대	한국 사회의 안전과 위험

화요일 강연의 키워드는 불에 의한 뒤섞임 혹은 어울림이다. 강연에서는 지난 60여 년 동안 불같이 뜨겁게, 그리고 불같은 속도로 이루어진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경험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용과 융합이 조망되었다. 그리고 한국인의 정체성, 유교자본주의 논쟁, 이념적 분화와 갈등, 가족제도의 변화, 다문화 및 다인종 사회의 도래, 정보화 사회의 명암, 학문의 분화와 통합, 한국적 주거문화, 삶의 질 영역의 변화 등이 해당 전문가들에 의해 심도 있게 분석되었다.

화요일 강연의 첫 문을 연 것은 독일계 한국인 이참 씨다. 이참 씨는 2차 대전 이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놀라운 발전을 한 것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 말했다. 그 이유로 한국인의 열정과, 퓨전 문화가 발달한 점을 꼽았다. 특히 퓨전 문화에 대해 얘기하며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세계와 섞여 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돗개처럼 지기 싫어하고, 혼자서 이길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협력하여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 내는 사람은, 바로 한국인이다"라는 말로 강연을 끝맺었다.

두 번째는 류석춘 교수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류 교수는 '효'를 주제로 효의 종교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을 했다. 류 교수는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된 효가 사회적으로 확산된다면 양적 경제성장은 물론 질적인 인간됨까지 적절히 담보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효가 구시대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살아있는 공공적 가치"로 보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함인희 교수는 〈양성평등과 다양한 가족제도〉에 대해 얘기했다. 함 교수는 "다양한 가족제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가족은 희생과 양보를 함께 공유해야 건강해질 수 있다"며 변화하는 가족제도와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가족이란 것은 누군가의 양보가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며 강연을 끝마쳤다.

배영 교수는 〈정보 사회의 명암〉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배 교수는 일상생활 속에서 인터넷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주로 설명을 했다. 배 교수는 인터넷 공간을 일상과 여가 생활의 변화, 관계 방식의 다양화, 지식과 정보의 확산, 공사영역의 혼재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공간은 이제 가상세계가 아닌 현실세계라는 것을 인식해야한다"고 당부하며 끝을 맺었다.

화요일 강연의 마지막은 이재열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한국사회의 안전과 위험〉을 강의 주제로 삼았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가 "산업화, 근대화의 과정을 빠른 시간에 압축해서 이루다 보니 많은 위험들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재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사회조직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직면한 문제로는 "과거의 유산으로부터 생겨난 위험을 어떻게 해소해나갈 것인가, 앞으로 우리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위험의 요소를 잘 관리하면서 조금 더 혁신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인가"를 꼽으며 "그동안 우리가 해온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요일 : 소통과 가능성

일자	강연자	주요 경력	강연내용
07월 16일	최인철 교수	서울대	생각의 지도 : 동양과 서양의 프레임 차이
07월 23일	최재천 교수	이화여대	호모 심비우스, 21세기형 인간
07월 30일	정재승 교수	카이스트	로봇에게 말걸기 : 기계와 인간의 소통
08월 06일	조지형 교수	이화여대	지구 밖에서 세계사 보기
08월 13일	이덕일 박사	한가람 역사연구소	한국사 속에 나타난 소통과 화합
08월 20일	정진홍 교수	이화여대	인문학적 상상력과 종교 문화
08월 27일	오준호 교수	카이스트	로보 사피엔스 : 휴보의 진화
09월 03일	박진영	JYP 대표	한류를 넘어 세계로
09월 10일	장대익 교수	동덕여대	유전자와 더불어 살기 : 자연과 인문의 공생

수요일의 주제는 '소통과 가능성' 이다. 물의 흐름은 소통과 화합을 의미하고, 그 물이 모인 바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일 강연은 물의 이러한 속성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를 짚어보는 것으로 진행됐다. 특히 수요일 강연은 소통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했다. 동양과 서양, 인간과 동물, 기계와 인간, 글로벌과 로컬, 종교와 과학, 과학과 인문, 인간과 우주의 소통을 통해 향후 60년을 대비하고자 했다.

수요일 첫 강연은 최인철 교수가 맡았다. 최 교수는 〈동양과 서양의 프레임의 차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최 교수는 동서양의 가장 큰 차이로 개인에 대한 생각을 얘기했다. 서양인은 '나'를 위주로 생각하고, 동양인은 '우리'를 위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 교수는 동양과 서양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관계 지향의 동양문화와 개인 지향의 서양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재천 교수는 '소통과 화합'을 환경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다. 최 교수는 호모 심비우스(공생인간 : Homo symbious)야말로 21세기에 적합한 인간이라고 주장했다. 21세기의 과제는 다음 세대가 이 지구에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구를 보전해야 할 것인데, '공존하는 지혜'를 가진 호모 심비우스가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호모 심비우스의 또 다른 특징으로 '통섭(Consilience)'을 꼽았다. 통섭은 세상과 사물을 넓고 깊게 보는 능력이다. 따라서 오늘날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호모 사피엔스보다는 공존과 통섭의 지혜를 지닌 호모 심비우스가 되어야 한다고 최 교수는 강조했다.

정재승 교수는 〈기계와 인간의 소통〉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풀었다. 정 교수는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로봇 팔, 미국의 슈퍼솔져 프로그램 등을 예를 들면서 가상공간이 아닌 현실에서도 사이보그를 볼 날이 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사이보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므로 그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일 박사는 〈한국사 속에서 나타난 소통과 화합〉에 대해 얘기했다. 이 박사는 조선시대의 사간원, 사헌부 제도 그리고 불교와 성리학의 충돌, 당파싸움 등을 예로 들며 소통을 가로막으면 역사는 퇴보하고, 역사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역사 속의 진정한 소통은 백성과 시대와 소통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소통과 화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와 소통하고 역사와 화해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대표는 한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박 대표는 현재의 한류는 언제든지 멈춰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음악 수준차가 좁혀지면서 우리나라 가수가 외국 가수들보다 더 인기를 얻게 되었듯, 동남아 지역에 불고 있는 한류도 그 지역의 수준이 올라가면 언제든지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만 문화콘텐츠를 수출할 것이 아니라 미국 같은 문화 선진국에 수출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아시아에서 더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요일 : 함께 사는 지구

일자	강연자	주요 경력	강연내용
07월 17일	김현진 교수	서울과학종합대	에너지 위기시대를 넘어라
07월 24일	최열 이사장	환경재단	기후변화협약시대 위기인가, 기회인가?
07월 31일	김태우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글로벌 위험사회, 테러와 평화
08월 07일	박원순 변호사	희망제작소	21세기 한국사회 희망 만들기
08월 14일	조동성 교수	서울대	착한 기업의 시대가 온다
08월 21일	윤창현 교수	서울시립대	Global Imbalance
08월 28일	인세반 회장	유진벨 재단	사람을 돕는 북한 지원
09월 04일	김순권 교수	경북대	식량위기와 세계의 책임과 연대
09월 11일	이소연 박사	한국최초 우주인	대한민국 최초우주인의 선발에서 귀환까지

목요일 강연은 '함께 사는 지구'를 주제로 삼았다. 태양의 기운을 받아 생명을 이어가고, 그 기운을 주변에 아낌없이 나눠주는 나무가 가진 '공존의 지혜'를 모색하고자 하는 의미이다. 이러한 '공존의 지혜'는 속도의 시대, 경쟁의 시대에서 가장 절박한 생존의 법칙이다. 지구촌과 한국 사회가 함께 풀어갈 수밖에 없는 갈등들은 함께 손을 맞잡는 데서 비로소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첫 강의는 김현진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에너지 위기시대를 넘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20세기형 에너지 경제시스템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오늘날 화석연료는 초고유가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두 가지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클린에너지 시스템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21세기 한국사회 희망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박 변호사는 바람직한 사회를 "인간적인 사회, 합리적인 사회, 민주적인 사회, 더불어 행복한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가 담보되며 누구나 자신의 인격과 삶을 풍요롭게 실현하는 사회"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이런 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작고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 현실에 대한 열정, 감성과 인간성 등 다양한 인간적 가치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성 교수는 〈착한 기업의 시대가 온다〉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조 교수는 우선 기업의 변천 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조 교수는 "70~80년대는 기업이 이익보다 매출액을 중요시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익과 매출액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익과 매출액보다는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기업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어서 "오늘날 좋은 기업이란,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사회로부터 부여 받은 역할, 즉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자선사업, 사회봉사,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 사회기업, 지속가능 기업"의 5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좋은 기업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강조하며 강연을 끝맺었다.

김순권 교수는 〈식량위기와 세계의 책임과 연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 교수는 우선 "지금 이 시간도 10억의 세계 인구는 굶주리고 있고, 또 다른 10억의 세계 인구는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하고 있다"며 굶주리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김 교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량 생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저개발 국가들이 친환경 농업발전(녹색 성장)으로 선진 경쟁국들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고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옥수수와 콩을 심는 것이 식량, 축산 발전, 사료 및 바이오 에너지 생산에 더 경제적일 것"이라고 제안하며 강연을 마쳤다.

목요일 강연의 마지막이자, 60일 연속 강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강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였다. 이 박사는 〈대한민국 최초우주인의 선발에서 귀환까지〉라는 주제로, 우주인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느낀 점에 대해 강연했다. 이 박사는 우주인으로 선발되기까지의 어려움, 힘든 훈련, 우주에서의 생활 등에 대해 차례로 설명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주라는 것을 멀게만 느끼고, 우주개발이 우리의 삶과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다고 설명했다. 등산복과, 내비게이션 등 우주개발을 통해 파생된 기술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세기를 지배하는 나라는 우주를 지배하는 나라여야 한다. 이제는 우리도 다른 우주로 뻗어가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금요일 : 21세기 한국의 도전

일자	강연자	주요 경력	강연내용
07월 18일	김경훈 대표	점프제작자	문화로 점프한다
07월 25일	김종인	전 청와대경제수석	한국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08월 01일	차석용 사장	LG 생활건강	소프트 파워로 무장하라
08월 08일	김기범 대표	초록뱀 미디어	문화전쟁시대, 콘텐츠로 승부하자
08월 15일	조순	전 부총리	한국경제여, 비상하라
08월 22일	성창모 원장	효성기술원	기술강국의 지도를 그려라
08월 29일	이승한 대표	삼성 테스코	창조경영, 잠자는 창의를 깨워라
09월 05일	구자영 사장	SK에너지P&T	에너지 독립의 꿈

금요일에 진행된 강연은 '21세기 한국의 도전' 을 주제로 삼았다. 자본주의는 금속문명을 바탕으로 급속히 발전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바탕위에서 또 다른 경제적 도약을 꿈꾸고 있다. 따라서 강연을 통해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의 엔진을 켤 수 있는 해답은 무엇인지 경제 현장의 기업인들과 경제 정책을 일궈낸 학자들을 통해 그 열쇠를 찾아보았다.

금요일 강연의 첫 문은 김경훈 대표가 열었다. 김 대표는 〈문화로 점프한다〉라는 주제 아래 뮤지컬 〈점프〉와 꿈을 이루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점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꿈을 꾸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꼽았다. 김 대표는 "꿈이 간절하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언젠가는 이뤄진다" 고 말했다. 그리고 꿈을 세우는 과정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당부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다. 김 대표는 이 과정을 통해 목표를 세우면 무한한 전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전 경제수석은 〈한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에 대해 진단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변화해온 모습을 설명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6 · 25를 겪은 50년대는 최악의 경제 상태, 60년대는 재벌의 태동, 70년대는 경제 확장기, 80년대는 경제 안정기로 보았다. 그리고 80년대의 경제 상태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김 전 수석은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나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나아가려면 정부가 지금이라도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구조를 제대로 진단하고서 국제 경제 상황을 엄밀하게 파악한 뒤, 새로운 프레임 북을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을 설득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기 힘들다" 고 하였다.

조순 전 부총리는 〈한국 경제여, 비상하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우선 지난 60년을 되돌아봤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기초를 마련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고도성장을 이루었고, 전두환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하였고, 노태우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와 수교를 하는 등 전체적으로 리

더십이 훌륭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IMF의 성과로 경제체질이 개선되었으나 구심점이 없어져 성장 동력은 훼손되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이 각자 맡은 바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방향설정을 확실히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고, 기업은 현재 위치에서 좀 더 열심히 해야 하고, 국민들은 과거와 같이 절약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부탁하며 강연을 마쳤다.

마지막 강연은 구자영 사장이 〈에너지 독립의 꿈〉이라는 주제로 맡았다. 구 사장은 에너지 자급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에너지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꿈과 도전에 대해 얘기했다. 구 사장은 에너지 독립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석유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청정에너지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즉,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연료개발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해조류를 이용해 바이오 부탄올을 만들면 풍부함, 경제성, 저공해, 안정성을 모두 지닌 청정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 발생량의 21%를 차지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 휘발유를 쓰지 말고 전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사장은 끝으로 "21세기 인류의 최대 과제는 에너지와 환경이고, 세계의 최대 관심은 에너지 다원화 시대를 주도하는 것이며, 우리 정부의 새로운 비전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 독립의 꿈은 에너지 공급과 소비의 기술혁신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연을 정리했다.

토요일 : 부드러움과 단단함

일자	강연자	주요 경력	강연내용
07월 19일	이인화 교수	이화여대	디지털 한국, 이야기의 힘
07월 26일	이수희 교수	영국 런던대	디지털 기술과 21세기 문화도시
08월 02일	홍사종 소장	미래상상연구소	이야기 혁명시대, 이야기가 부를 창조한다
08월 09일	탁석산	철학자	인문학의 씨앗을 뿌려라
08월 16일	주철환 사장	OBS사장	TV와 대중문화
08월 23일	김용택	시인	김용택의 삶과 문학
08월 30일	지 박	음악가	클래식과 대중의 접점은 어디인가?
09월 06일	오세훈 시장	현 서울시장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라

토요일에 진행된 강연의 주제는 '부드러움과 단단함' 이었다. 무기의 시대에서 문화의 시대로, 볼륨의 시대에서 벨류의 시대로, 확장의 시대에서 심화의 시대로, 지구촌은 이제 소프트 파워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땅은 딱딱하지만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이처럼 토요일 강연은 점유의 문화가 아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의 지평이 넓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첫 강연은 이인화 교수가 〈디지털 한국, 이야기의 힘〉이라는 주제로 열었다. 이 교수는 앞으로 인터넷 세상은 3차원 입체(3D, three-dimensional) 가상세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교수는 미래의 3D 가상세계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목적감, 장소감, 공동체감을 줄 수 있는 기술이 가상 세계에서의 스토리텔링기술" 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현실적 가상세계, 초자연, 포춘, 판타스틱 세계 등 가상세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 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3D 가상세계 시장을 앞서가기 위해서는 기술과 자본 그리고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슬기롭게 대처해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고 당부하며 강연을 마쳤다.

철학자 탁석산 씨는 〈인문학의 씨앗을 뿌려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탁 씨는 우선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인문학이 뿌리 내린지 60년이 지났지만 인문학을 수확하는 기간이기는커녕 이제야 씨앗을 뿌리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 며 우리나라의 열악한 인문학 풍토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탁 씨는 그 이유로 '한 번 뿐인 인생, 즐겁게 지내자' 라는 한국인의 인생관을 들었다. 즉, 재미를 추구하는 나라이지, 진지하게 기초를 따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탁 씨는 오히려 인문학을 하지 않으면 교양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언론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지,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인문학의 본질이 다만 순수한 호기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때야 비로소 인문학은 발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고 했다. 따라서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주철환 사장은 〈TV와 대중문화〉에 대해 강연했다. 주 사장은 오늘날의 TV 환경을 "3초 안에 터지지 않으면 돌아가는 채널 전쟁 시대"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스타를 동원하여 벗기기, 베끼기, 겹치기를 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주 사장은 이보다는 아이디어, 설득력, 순발력으로 재미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재미의 가장 높은 이상인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제작자, 시청자, 모니터그룹의 삼권분립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사장은 마지막으로 "한 프로그램을 유심히 보고 분석하고 나에게 미친 영향력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면 한 권의 책을 읽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텔레비전이 건강성을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택 시인은 자신의 삶과 문학에 대해 강연을 했다. 김용택 시인은 교사로서의 자신의 삶이 굉장한 복이었다고 얘기하며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청난 부가 아니라 자기 삶을 귀하고 소중하게 가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가꾸어서 인생에서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나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이고, 현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우리 모두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귀하고 소중하게 잘 가꿀 때에 귀하고 소중한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고 말하며 강연을 마쳤다.

토요일 강연의 마지막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맡았다. 오 시장은 〈서울을 디자인하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끌어 나갔다. 오 시장은 서울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문화 소프트웨어개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외국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 창조, 감동을 주는 서비스, 창의적인 일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 등 다섯 가지를 들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을 견인한다. 그러므로 서울을 문화도시로 디자인화하고 브랜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일요일 : 사람이 희망이다

일자	강연자	주요 경력	강연내용
07월 20일	한비야 팀장	월드비전국제구호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07월 27일	김덕수	사물놀이	즐거움으로 승부하라
08월 03일	최성환 상무	대한생명경제연구소	글로벌만이 살 길이다
08월 10일	유순신 대표	유앤파트너즈	기업은 이런 인재를 원한다
08월 17일	정운찬 교수	서울대	인재 엑소더스를 막아라
08월 24일	김용아 이사	맥킨지컨설팅	우먼 코리아로 가는 길
08월 31일	천호균 사장	쌈지	크리에이티브형 인재를 육성하라
09월 07일	공병호 박사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미래의 인재 조건

일요일 강연은 '도전과 열정'을 메인 슬로건으로 지식사회와, 글로벌화로 사람들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자신의 영역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희망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일요일 강연은 인재강국 코리아를 위한 제언들로 이루어져 있다.

첫 강의는 한비야 팀장이 맡았다. 한 팀장은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한 팀장은 사람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주문했다. 첫째는 머릿속에 세계 지도를 넣으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글로벌 리더는 세계와 소통하고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가슴이 뛰는가 점검하라는 것이다. 한 팀장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마음속에서 '누가 시켰어? 그럼 그만둬' 라는 질문과 함께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불평이 사라진다"고 하였다. 마지막은 한 손은 자신을 위해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는 것이다. 한 팀장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만져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 사랑과 은혜의 법칙에 손을 많이 빌려주기로 했다. 여러분도 내 손에서 줄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는 손이 되길 바란다"고 부탁하며 강연을 마쳤다.

국악인 김덕수 씨는 〈즐거움으로 승부하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 씨는 전통에 대해 "우리의 전통이란 무엇인가? 외형적으로 지켜지고 형식화된 것은 전통이 아니다. 전통은 가장 근본적인 핵심을 지키면서 세상에 변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이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계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세계인들과 공감할 수 있는 퓨전을 통해 변화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찬 교수는 〈지속적 경제성장과 교육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정 교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 존 로크의 '교육에 관한 몇 가지 단상'을 예로 들며, 교육은 체력, 위기극복능력, 창의력, 적응력, 지력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에 덧붙여 과학기술(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창조적 인적 자원을 형성하기 위해 암기식 교육보다는 토론식, 세미나식으로 진행해야 한

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해 각 학교에 자율성을 많이 허락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키워진 인재들이 "지속적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 나아가 민주주의 문화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로 강연을 마쳤다.

천호균 사장은 〈크리에이티브형 인재를 육성하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천 사장은 "내 인생의 기적은 사랑을 통해 이뤄졌다"며 "어머님에 대한 사랑으로 명문 중고등학교를 가게 됐고, 배우자를 만났고, 쌈지를 이만큼 키우게 됐고, 쌈지 길을 만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시골에 있는 농부사랑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천 대표는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이 습관이 되도록 한다면, 그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는 혁신,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것은 효율 중심이다. 이 때문에 과거를 가능한 차단하고, 획일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잘하는 것보다는 포용과 다양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창조가 훌륭한 것이 아닌가 한다"는 말로 강의를 끝마쳤다.

일요일 강연의 마지막은 공병호 박사가 맡았다. 공 박사는 〈미래의 인재 조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했다. 공박사는 미래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건강한 생각, 좋은 습관, 계획성, 실력, 문제 설정 능력, 창의적 사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자기 혁신 능력, 성취 동기, 외국어 구사 능력 등 10가지 조건에 대해 얘기했다. 공 박사는 이를 간추려 "미래의 인재란 현재의 성과와 그리고 미래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강연을 정리했다.

국호, 연호에 얽힌 이야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이라는 국호는 대한민국 헌법 제1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호를 표기할 때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고 표기하지만, 편의상 대한(大韓) 또는 한국(韓國)으로 약칭하여 쓸 수 있다. 영문표기는 'THE REPUBLIC OF KOREA' 로 쓴다.

2. 제헌국회, 표결로 대한민국 가결

'대한민국' 이란 국호는 1948년 7월 1일, 제헌국회 제21차 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당시 제헌국회 헌법 기초위원회에는 고려공화국, 조선공화국, 한국 등의 이름도 후보에 올렸다. 열띤 토론에 이은 표결 결과는 대한민국(17표), 고려공화국(7표), 조선공화국(2표), 한국(1표) 순이었다. 제헌국회는 이를 표결에 붙여 188명 중 163명의 찬성을 얻어 '대한민국' 을 국호로 채택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대한민국' 이란 이름의 국호를 쓴 것은 좀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의정원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국호 · 관제 · 국무원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자는 현순의 동의와 조소앙의 재청이 가결되어 토의가 벌어졌고, 국호를 '대한민국' 이라 칭하자는 신석우의 동의와 이한근의 재청을 통해 가결되었다.

그러나 반대를 한 사람도 있었다. 여운형은 "대한은 우리나라에서 오래 쓴 역사가 없고 이조 말에 잠깐 쓰다가 망한 이름이니 부활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하지만 신석우는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고 반박했고, 다수결로 '대한민국' 을 채택했다고 한다.

3. 연호 관련 근거와 연혁

대한민국의 연호는 연호에관한법률(1961. 12. 2 법률 제775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연호는 크게 단군기원을 사용한 시기와 서력기원을 사용한 시기로 나뉘는데, 1948년 8월 15일에서 1948년 9월 24일까지는 서력기원을, 1948년 9월 25일부터 1961년 12월 31일까지는 단군기원을, 그리고 196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서력기원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의 서력기원은 공문서 등에 공용연호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종교계, 학계 등 민간에서 단군기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력기원 연호의 사용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서력기원과 자국의 특수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西紀 1998년의 경우, 일본은 平成 10년, 태국은 佛紀 2561년, 사우디아라비아는 HEGIRA 1418년으로 사용하고 있다.

4. 중국 연호를 버린 것은 갑오개혁 전후

조선 왕조 개국 이후 우리나라는 줄곧 명(明) 나라의 연호(年號)를 썼다. 인조(仁祖) 때, 청(淸)에 굴복한 이후 대외적으로는 '청' 의 연호를 사용했으나, '명' 에 대한 향수에 젖은 사대부들은 명나라 최후의 연호인 숭정(崇禎)을 계속 사용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연호를 버리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것은 갑오개혁을 전후한 즈음인데, 이 때 공문서를 한문이 아닌 우리말로 적도록 하고(국한문혼용) 대조선개국(大朝鮮開國)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여 고종 31년(1894)년을 '개국 503년' 이라 하였다.

고종 33년이 되는 1896년은 개국 505년으로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쓰기 시작하였는데 이 또한 조선의 독자적인 연호이지만 조선에 대한 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일본의 입김으로 만들어진 연호였다. 이어 개국 506년인 1897년에는 광무(光武)라는 연호로 바꾸었는데, 이 일은 곧 고종(高宗) 황제가 칭제건원(稱帝建元)을 함으로써 독자성을 가지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의미가 되었다.

1907년 순종(純宗)이 즉위하면서 순종 즉위년을 융희원년(隆熙元年, 순종원년)으로 삼았는데 이는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 삼아 일제가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 정상적인 황위 계승이 되지 못한 아픈 역사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이후 국권을 빼앗기면서 일본의 연호를 사용하는 치욕을 겪기도 하였으나, 기미독립선언서에 단군기원(檀君紀元)을 사용하여 '조선 건국 4252년 3월 1일' 이라는 연도 표시를 한 데에 이어 독립 운동 단체에서는 대한민국 독립을 선언한 1919년을 원년으로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해 왔다.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공용 연호는 초기에 잠깐 서력기원을 사용했으나, 1948년 9월 '연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4호)' 의 시행과 함께 단군기원을 사용하였다가, 1962년 서력기원으로 바꾸었다.

부록

위원회 통신

위원 소개

❀ 민관공동위원장(3명)

현승종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남조	숙명여대 명예교수
한승수	국무총리		

❀ 고문(21명)

백선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자문위원	서영훈	한우리 공동선 실천연대 이사장
정진경	신촌성결교회 목사	강영훈	평화의 숲 이사장
이철승	헌정회 회장	김국주	전 광복회장
남덕우	전경련 원로 자문단 좌장	정의채	서강대 석좌교수
채명신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윤주영	전 문화공보부 장관	이윤구	결핵제로 운동본부 총재
송월주	대한불교 조계종 영화사 회주 스님	이인호	카이스트 초빙 석좌교수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광운학원 이사장	김상하	(주)삼양그룹 회장
김영일	광복회 회장	김태길	대한민국학술원 제30대 회장
예춘호	전 국회의원	이종찬	우당기념관 관장 우당장학회 명예이사장
조용기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		

❀ 집행위원장(1명)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 민간위원(52명)

- 외교, 안보, 통일분야 : 10명

공로명	동서대 석좌교수	권오기	성곡언론문화재단 이사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
박재규	경남대 총장	신효헌	이북5도 함북지사
정세현	이화여대 석좌교수	정정섭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	김재호	(주)남양항운 회장

- 경제 발전 분야 : 10명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손경식	상공회의소 회장	안윤정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유지창	전국은행엽합회 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 사회통합분야 : 8명

정옥자	국사편찬위원장	김석좌	천사의집 원장
강신석	우리민족 서로돕기 광주, 전남 상임공동대표	부만근	제주도공직자윤리위 위원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윤장형	광주 YMCA 이사장
이재후	김앤장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진강	대한변협 회장

- 교육, 과학분야 : 8명

이원희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회장	김영길	한동대학교 총장
박영식	한국연구원 이사장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손병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오 명	국가미래정책포럼 이사장
어윤대	산학협력 총연합회 대표	이기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 문화, 체육분야 : 14명

김성환	시사만화가	박범훈	중앙대 총장
김열규	서강대 명예교수	양정모	한국올림픽 챔피언클럽 회장
엄기영	MBC 사장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
이종상	서울대 명예교수	이에리사	태릉선수촌 선수촌장
임권택	동서대 석좌교수	장대환	한국신문협회 회장
정명훈	서울시 교향악단	한영우	이화여대 석좌교수
황병기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황석영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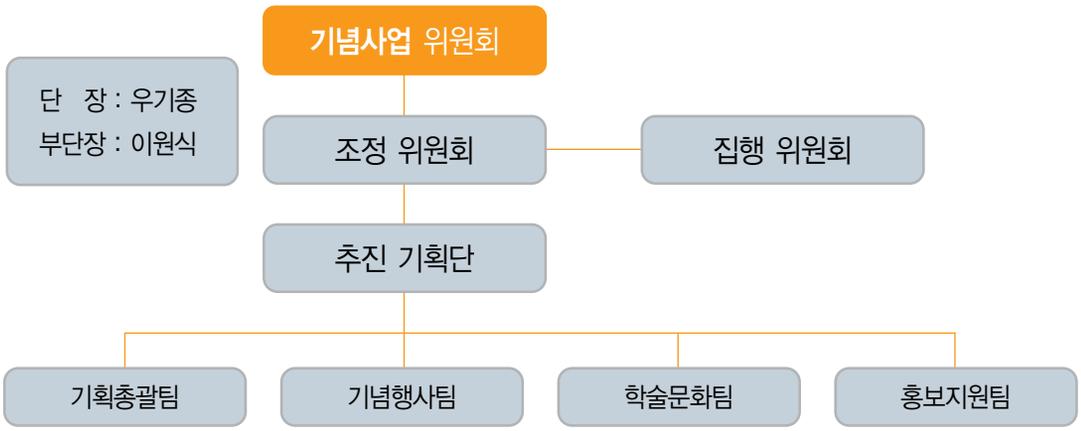
❀ 정부위원(30명)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하중	통일부 장관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상희	국방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변도윤	여성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조중표	국무총리실 실장	김 양	국가보훈처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진선	강원도지사	정우택	충청북도지사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김태호	경상남도지사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민간조정위원(10명)

강규형	명지대 교수	남궁연	대중음악 작곡가
설광언	KDI 부원장	손진책	극단 미추 대표
유창무	무역협회 부회장	이대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이소영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국가경영연구소 소장	정 윤	과학문화재단 이사장

추진기획단 조직도



기획총괄팀

주요업무	위원회 관리 및 대외협조, 예산편성 및 집행, 추진종합계획 수립 등
직원	유희종 팀장, 최형주, 이영호, 김준경, 유혜영, 이은영

기념행사팀

주요업무	행사 기획 및 지원, 호국선양 행사 및 해외행사 지원 등
직원	김상돈 팀장, 양상수, 이재교, 강재하

학술문화팀

주요업무	학술과 출판 사업 발굴 및 지원, 문화 행사 발굴 및 지원 등
직원	정원영 팀장, 이달형, 하은경, 이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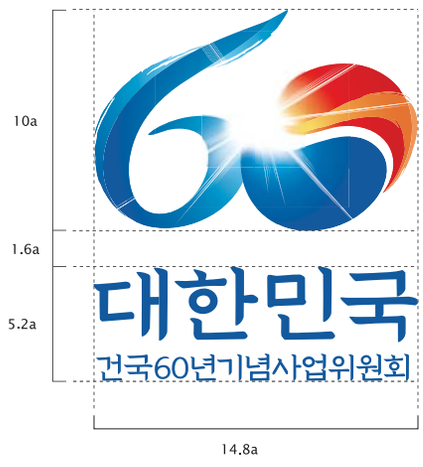
학술문화팀

주요업무	홍보계획 수립 시행, 홈페이지 운영 및 언론지원 등
직원	박용철 팀장, 이영호, 강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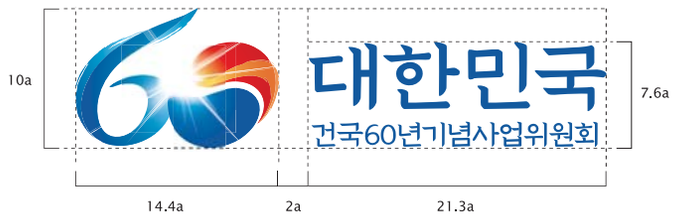
엠블럼 안내

힘찬 붓 터치와 태극 문양은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태극에서 분출되는 빛은 새로운 시대와 미래를 상징합니다.

상하조합



좌우조합



주제어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 건국이후 60년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기적의 시간
- 그 주역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

로고

- 힘찬 붓 터치와 태극문양은 국민의 역동성을 상징
- 태극에서 분출되는 빛은 새로운 시대와 미래를 상징

대한민국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대한민국 건국60년이 되는 2008년을 맞아 건국이후 호국,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한 역사를 평가하고,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비전의 제시,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 시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대한민국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를 둔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건국60년기념사업"이란 대한민국 건국60년이 되는 2008년을 범국가 차원에서 경축하고, 선진 일류 국가로 출발하는 전환점으로 삼기 위한 각종 기념행사, 국내외 학술대회, 문화 · 예술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능) 대한민국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국60년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의 결정
2. 건국60년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3. 건국60년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계획의 종합 · 조정
4. 건국60년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의 지원
5. 그 밖에 건국60년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35명 이내의 정부위원과 60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9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정부위원
   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국가보훈처장 및 대통령이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민간위원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는 건국60년기념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의2(명예위원 등) ① 위원회는 해외동포 관련 사업과 독립운동 관련 사업에 대한 특별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명예위원과 명예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위원은 해외동포로서 국가발전에 헌신 또는 기여한 자 중에서, 명예고문은 대통령장 이상의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되, 그 수는 각각 50명 이내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된다.

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차장이 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 조정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되, 조정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위원 : 국무총리실장, 국무차장,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환경부차관, 여성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국가보훈처차장, 국사편찬위원장
2. 민간위원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③ 조정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과 민간위원인 조정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공동으로 된다.
④ 조정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6조의 규정은 조정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전문위원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 · 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①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에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고, 단장 · 부단장 · 팀장 · 팀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기획단의 단장, 부단장, 팀장 및 팀원은 관계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된 임 · 직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단장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2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조사 · 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여론의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세미나의 개최,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와 조정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과 기획단에 파견된 임 ·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 조정위원회 · 자문위원회 및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사업 관련 회의

개최 일자	회의	회의 내용
2008.04.16	제1차 조정위원회(정부위원)	· 기념사업추진 현황보고 · 각 부처 추진현황 보고 및 의견 수렴
2008.05.01	제2차 조정위원회(정부위원)	· 기념사업추진 현황보고
2008.05.21	제3차 조정위원회(민간+정부)	· 기념사업추진 현황보고 · 주요 60개 기념사업 보고
2008.05.22	제1차 위원회 전체 회의	· 위원장 · 고문 · 위원 위촉 · 기념사업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 60개 보고
2008.06.19	국무총리, 위원장 오찬 간담회	· 기념사업 관련 위원장 등의 의견 수렴
	민간 조정위원 간담회	· 주요사업 추진 계획 검토
2008.07.03	제4차 조정위원회(민간+정부)	· 부처별 주요사업 추진 현황 보고 · 전야제 · 경축식 · 한강축제 추진 계획 보고 · 기념사업 추진 협조 사항 등
2008.07.09	고위당정협의회	· 기념사업 추진 현황 보고
2008.07.11	국무총리, 고문 오찬 간담회	· 기념사업 추진 현황 보고 · 전야제 · 경축식 · 한강축제 추진 계획 보고 · 기념사업 관련 고문 의견 수렴
2008.07.16	국무총리, 위원 오찬 간담회	· 상동
2008.07.30	총리실장, 관계부처 조찬 회의	· 기념사업 추진 현황 보고 · 각 부처 추진 상황 점검 및 협조 사항 등
2008.07.31	국가정책조정회의	· 기념사업 추진 현황 보고
2008.08.04	제2차 위원회 전체 회의	· 전야제 · 경축식 · 한강축제 추진 계획 보고 · 고문 및 위원 추가 위촉 등
2008.10.01	국무총리, 고문 오찬 간담회	· 기념사업 추진 결과 보고
2008.10.09	국무총리, 위원 오찬 간담회	· 기념사업 추진 결과 보고

건국60년기념사업 2차조정위원회

◉ 회의 개요

- 일시 : 2008년 5월 1일
- 장소 :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정부중앙청사 10층)
- 회의 주재 :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조정위원장)
- 참석자 : 18명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외교통상부 차관, 통일부 차관, 법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지식경제부 차관, 환경부 차관, 여성부 차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국가보훈처 차장, 국사편찬위원장, 서울시 부시장, 대통령비서실 미래비전행정관

- 회의 안건
  - 건국60년기념사업 추진경과보고(추진기획단)
  - 각 부처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 및 협조사항 토의

◉ 주요 논의 사항

- 주요사업 중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은 통합 추진
- 다음 회의 시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 발굴, 정제된 사업 논의

◉ 부처별 주요발언 요지

〈지식경제부〉

- 행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전체적인 판을 짜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 이에 따라 학술분야, 역사분야, 경제 분야 등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건국60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취약함. 60이라는 숫자에 대해 동양권에서는 의미를 두지만, 서양에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로고와 슬로건을 제작함에 있어 "60"이란 숫자를 강조하기 보다는 숫자는 계속 교체해서 쓸 수 있는 영구적인 로고를 만드는 것도 고려할 필요.
- 현대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장소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現 기무사 부지는 교통편, 접근성 등을 고려 시 문제가 없는지 고려할 필요.

〈환경부〉

- 로고와 슬로건을 정함에 있어 한국의 Identity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 현재 제시된 슬로건과 로고는 취약한 측면이 있으며 보다 Active한 Identity를 정립하여 추진할 필요.
  - Active Korea가 보다 실용적이라 생각함.
- 너무 60년을 강조하면 한국이 신생국가라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 슬로건은 우리말 사용을 전제로 외국어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복궁 민속박물관은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경복궁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현 기무사 부지가 적합.

〈외교통상부〉

- 8 · 15 경축행사시 해외동포 초청에 있어서 대통령취임식, 8 · 15, 10 · 5 해외동포의 날 등 3번씩이나 중복될 수가 있어 어느 정도 교민을 초청할지 고민이 있음.
  - 어느 정도 초청할지 실무협의를 거쳐 참석대상자를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초청할 계획임.

〈행정안전부〉

- 향후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발굴할 예정, 행사 전야제는 서울시 협조, 식후 행사 준비는 문화부 협조를 받을 예정.

〈국가보훈처〉

- 6 · 25 참전 해외용사를 초청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음.
- 행사도 중요하지만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해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후손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사편찬위원장〉

- 조선시대 양란이후에도 충신, 열사에 대한 예우는 대단하였음. 충신, 열사의 후손들의 결혼식까지 올려주고 비용도 지원하였음.
  - 독립 및 건국 유공자 후손 예우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기획재정부〉

- 재정당국입장으로서는 한정된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현대사박물관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으로 굳어지기 전에 관련기관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 제시된 사업 중에는 건국60년과 연관성이 크지 않은 사업들도 있음. 새로운 Idea 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
  - 사업 확정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되 재정당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
- 건국60년사업은 대통령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선포하는 도약과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각 부처는 적극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길 당부.
- 이번 회의는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토론한 것에 불과, 다음 회의 시 새로운 사업을 발굴, 정제된 사업을 논의할 것임.

건국60년기념사업 3차조정위원회

◉ 회의 개요

- 일시 : 2008년 5월 21일
- 장소 :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정부중앙청사 10층)
- 회의 주재 :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조정위원장)
- 참석자 : 정부위원 및 문화재청장, 서울시 부시장, 민간조정위원

  ※ 정부위원 :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국가보훈처차장,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외교통상부 제외동포영사대사, 행정안전부 의정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여성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서울시 문화국장

  ※ 민간위원 : 손진책, 이대영, 남궁연, 이소영, 강규형, 정윤재, 정병철, 유창무, 정윤, 서중해(대참)

- 회의 안건
  - 제1차 위원회 개최계획(기획단)
  - 기념사업 추진계획 보고(기획단)
  - 건국60년 기념주화 도안 보고(기획단)
  - 건국60년 중앙경축식 개최장소 검토 보고(행안부, 문화재청)

◉ 주요 논의 사항

▶ 기념사업 추진 계획 관련

- 국민적인 축제라고 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수 있음(손진책).
  - 국민의 공감을 얻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방안 고민 필요.
  - 예산이 많이 필요한 행사보다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
- 청소년의 청년층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행사 필요.
  - 현재의 60개 행사에도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행사가 적음,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함(남궁연).
  - 대규모 가장행사 경연 등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로 8 · 15의 브랜드화가 필요(손진책) .
  -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행사 보강 및 대한민국 과학 축전과 건국60년 기념사업의 연계 등 필요(정윤).
- 선정된 60개 주요사업은 60년 기념행사의 목적에 부합해야함.
  - 현대사 아카이브 사업, 독립유공자 예우증진 사업 등은 일상적 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유창무).
- 언론 홍보 강화 방안 필요.
- 다양화 시대에 맞게 중앙이나 수도권만의 행사가 아닌 지방 소도시, 산간벽지, 농어촌 참여행사도 중요(이대영).

▶ 역사 재조명 관련

- 긍정적 역사 재조명 필요.
  - 잃어버린 10년간 역사의식이 부정적으로 형성, 역사 재조명이 필요,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진지한 학술적 접근이 필요(강규형).
  -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조명(우남 기념관 건립 등) 필요.
- 균형 잡힌 시각 필요(정윤재).
  - 지난 60년 역사는 건국세력, 근대화 세력, 민주화 세력이 함께 노력하여 일구어낸 역사임, 온 국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3세력의 역사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행사를 준비 필요.
- 선진국과 비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
  - 축제행사에는 소외계층의 참여.
  - 역사의식의 빈곤, 국토를 자원으로 인식하는 지나친 개발위주 인식, 정치 사회적 통합 빈곤 등에 대한 성찰이 필요.
-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 특히 60일 국민대강좌의 주제 및 강사 선정 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

▶ 슬로건(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에 대한 의견

- '위대한 국민' 이라는 표현은 맞지만 '기적의 역사' 는 다른 표현을 모색해 보아야 함.
  - 기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의미인데, 위대한 국민이 이룬 역사라면 기적의 역사라는 표현은 적당치 않음.
- 지나친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손진책).

▶ 기념주화 발행 관련

- 화폐종류 다양화 검토 필요(액면가 1만 원, 2만 원, 6만 원 등)(정윤).
- 화폐 도안 중 1948-2008 가운데 위치로(이소영).

▶ 중앙경축식 행사 장소 관련

- 건국60년의 의미 등을 감안할 때 중앙경축식 장소는 옛 중앙청 광장(광화문 내부, 홍례문 앞 광장)이 적합(전체 위원).
- 다만 경복궁 복원사업이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공기연장 및 별도의 예산 확보 등 대책 필요(문화재청).

▶ 기타 토의사항

- 건국60년 기념사업은 단순한 1회성 행사보다는 기념사업 정신에 맞는 제도개선이 더 의미가 있음(보훈처).
  - 건국 기여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강화 등.
- 건국60년 기념사업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나 60개 사업에 일상 사업도 포함되어 있음(기획재정부).
  - 기획단에서 각 부처와 협의하여 건국60년 기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기 바람.
  - 사업예산 확정시 기획단, 각 부처, 기획재정부와 협의 필요.
  - 사업예산은 가급적 기존예산과 절감 예산 활용방안 모색.

▶ 맺는말(위원장)

- 60년 행사는 한 라이프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새정부의 선진일류국가 선포를 앞두고 지난 60년을 총정리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함.
  - 다만 시간이 짧고 아이디어가 부족한 부문 해결에는 모든 위원들이 도와야 함.
- 중앙경축식 장소는 1안으로 추진.
- 기념주화 관련 의견은 반영되도록 노력.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 제1차 회의

2008년 5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세종실에서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제1차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현승종 · 김남조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42명, 강영훈 전 총리등 고문 12명, 한승수 국무총리 등 정부위원 16명이 참석했다.

◉ 이명박 대통령

- (모두 발언) 오늘 이 자리에 경청하러 왔음. 건국 60년 동안 각 분야에서 애써 오신 분들이 모두 모이신 것 같음. 위원, 고문을 수락해 주신 것에 감사함.

- (마무리 발언) 지나간 60년 역사에 순간순간 부끄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자랑스러운 역사였다고 생각함. 과거 60년을 잘 점검해서 새로운 60년으로 다함께 잘 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과 고문들께서 지혜와 경륜을 나누어 주시기 바람. 또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젊은 세대에게도 잘 고취될 수 있도록 지속적 사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김진현 집행위원장 발제

- 대한민국의 60년은 우리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현대 세계사적 관점에서도 성공한 근대화 혁명임
- 우리가 지향해야 할 21세기 국가의 모습은 「Global Korea, 선진일류국가」임.
- 이러한 「Global Korea, 선진일류국가」로의 승화를 위해 안으로는 항일민족운동, 반공과 호국, 민주화, 산업화, 다원화, 개방화의 각 발전 단계마다의 주역승계가 갈등적이었던 과거를 정리하고 각 주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 성찰하고 나눔과 희생의 모범을 보여야 하고, 밖으로는 '근대화와 세계화' 로 인해 근본적으로 바뀐 생존조건(에너지, 식량, 물류, 자본거래 패턴 등)에 충실하게 우리의 마음과 규범을 외부와 통합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성공조건임.

◉ 주요 토론 내용

〈현승종 민간위원장〉

- 급작스런 해방으로 이념적으로 갈등을 겪으며 건국을 맞이함. 경제적으로 가장 빈곤한 국가였지만, 국민들의 슬기로운 노력으로 극복하고, 이러한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이룸.

• 선진국 문턱에 이른지 여러 해지만, 아직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 국민적 화합을 이루고 세계무대에서 선진국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김남조 민간위원장〉

• 식민지 아이로 자라면서 평생 지워지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살았지만, 건국60년 동안 조국에 대해 한 번도 실망해 본적이 없음.
• 마음의 일부분에는 건국60년을 축제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광복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본식 이름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글만 조금 쓸 수 있는 저로서는 나라의 글과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데 매우 감사함.
• 조국에 대한 열망, 조그만 땅에서 60년밖에 안된 현대국가가 경제 문화 대국으로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겠지만, '인격 대국' 은 우리가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이룩할 것으로 보이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함.
• 존경하는 대통령께서 길을 터주시면 우리가 언젠가 무엇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 이런 장에 불러 주신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의 무게감으로 다가오지만 제 일생의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함.

〈백선엽 고문〉

• 이승만 대통령 이후 우리의 60년 역사는 평탄하지 않음. 국민의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날의 우리나라를 만들었음. 이 나라가 한국전쟁에서 공산화되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내 자신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함. 이대통령께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이 나라를 더욱 발전시켜주시길 바람.

〈이철승 위원〉

•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법률로 보상하고 있으나, 건국유공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음. 이번 기회에 건국유공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도 통과되기를 바람.

〈송월주 위원〉

• 이번 정부는 건국60년을 통해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함. 행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학자들과의 세미나 및 연구 활동 등 필요.

〈박세직 위원〉

• 이번 사업은 국민통합 및 국민 자부심 고취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해서 국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해야 함.

〈이어령 위원〉

• 젊은 사람들은 건국의 의미를 모르고 있음. 젊은이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감동을 주는 전략이 필요함. 특히 온라인을 통해, 의도를 갖지 말고 겪어온 그대로를 젊은 세대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노력이 긴요함.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 제2차 회의

2008년 8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2차 회의에는 현승종, 김남조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54명, 강영훈, 남덕우, 서영훈 등 고문 21명,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시도지사 등 정부위원 22명이 참석했다. 회의 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만찬과 환담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김영일 광복회장,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이사장, 김상하 삼양그룹회장, 김태길 대한민국학술원회장, 예춘호 전 국회의원, 이종찬 우당기념관장, 조용기 한국사학법인협의회회장을 고문으로 추가 위촉하고 김재호 (주)남양항운회장과 유장희 이화여대명예교수를 민간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 이명박 대통령

-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림. 세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대한민국의 원로분들께 감사드리며, 16개 시 · 도지사분도 바쁜 와중에 참석해 주셨음.
- 광복63주년 · 건국60년 기념사업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참여하여, 지방에서도 활발하게 함께 해 주기를 희망함. 지방 행사에 관해 뜻을 밝혀주시고, 8 · 15 행사 이전에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므로, 8 · 15 전후한 행사에 관하여 기탄없는 의견 개진을 희망함.
- 건국60년 기념하여 성공적 역사를 후손에 보이고, 세계에 알릴 기념관이 필요함. 현재 (가칭)현대사박물관이 장소 물색 등 추진 중에 있는데, 경복궁 옆 기무사 부지 대통령 전용병원 등을 다른 용도로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고, 광화문~숭례문까지 기념비적인 거리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 보고 내용

건국60년기념사업 추진현황 보고(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서울시 건국60년기념사업 추진계획 보고(오세훈 서울시장)
건국60년 기념사업 및 8 · 15 전야제 준비 보고(박성효 대전시장)
건국60년 나라사랑 독도함 콘서트 보고(이상희 국방부 장관)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건국60년 중앙경축식(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건국60년 한강축제 기본계획(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주요 토론 내용

〈현승종 위원장〉

- 준비 기간이 짧고, 국내 여론이 복잡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하였으나, 대통령님을 비롯, 국무총리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셔서 안심이 되는 방향으로 잘 추진되어 기쁘게 생각함.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 관심 보여주기를 희망함.

〈김남조 위원장〉

- 날마다 시간마다 어려운 일이 닥치지만, 건국60년이라는 우리 역사의 현실이 거룩한 탑으로 존재하고 있음. 모든 분들이 힘 잃지 않으시고 8 · 15까지는 잘 되겠지만, 그 이후 추진될 건국기념관 사업이 대통

령 재임기간 내에, 세월이 지나면 흩어질지 모르는 귀중한 자료를 보존, 600년 6,000년 이어질 기념비적인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람.

〈남덕우 위원〉

- 짧은 시간 안에 거대한 행사가 잘 준비될까 걱정하였는데, 오늘 보고 내용을 보고 감동하였음. 이제 되었다는 생각이 듦.
- 이번 건국60년 행사는 국민 통합이 강조되고 있는데, 국민 통합은 국민의 정신적 구심점 없이는 불가능하며, 국민의 정신적 구심점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민주주의와 시장원칙이 합쳐진 자유민주주의일 것임. 자유민주주의를 추진하는 과정에 전쟁 · 좌절 · 눈물 등 어려움이 많았음.
- 어느 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다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래도 긍정적 측면이 더 많았고, 세계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함. 이를 축하하며,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이념을 가르쳐줄 수 있는 계기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림.

〈김태환 제주도지사〉

- 최근 제주도는 좋은 기후에 힘입어 어느 때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안을 정부안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 예정임.
- 앞으로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접근성 문제 해결 및 고급 인력 문제를 위한 영어교육도시로의 육성인 바, 대통령의 많은 관심을 바람. 더불어 제주도에서도 건국60년기념사업을 확실하게 하여, 성공적인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겠음.

〈김상하 위원〉

- 각자가 서 있는 장소에서 최선을 다 하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며,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 하여 사회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철승 위원〉

- 통일이라는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이어나가, 그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고히 해야 하는 바, 광복회 등에서 건국일을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함.
- 건국은 누군가가 선물로 준 것이 아니며, 독립운동만큼이나 치열하게 건국을 했으며, 건국기념일이 없는 나라가 없음. 건국유공자 등도 법률을 통해 정부가 그 공을 치하해야 하며, 건국기념일도 없이 건국60년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김국주 위원〉

- 건국60년은 어디까지나 경축해야 할 일이고, 광복이든 건국이든 다 같은 의미로, 분열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됨.
- 3년 전 광복회장을 지냈는데, 그 해는 을사늑약 100주년,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로써, 광복 60주년을 의미 있는 행사로 국민이 단합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국민정신 운동이 필요했음. 건국60년도 하나의 국민 정신적 도약을 위한 계기로 만들어야 좋을 것임.

〈채명신 위원〉

- 지난 60년을 돌아보면 2차 대전 후 130개 신생국가 중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성취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이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빼놓을 수 없음. 또한 6 · 25 및 베트남 전쟁의 희생자 눈물, 피와 땀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음.
- 이명박 정부를 지지한 우리가 앞으로 4년 반 동안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광복절이며 건국절 논의보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함.

〈박세직 위원〉

- 건국60년을 기념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이 다행스럽고 옳았다는 일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웠다는 애국심임. 경축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건국60년 동안 어떤 자랑스러운 일을 성취했는가를 국민에게 보여주어, 국민에게 자랑스러움을 고취시키는 것이 필요함.
- 6 · 25 남침에도 불구하고 남한을 수호했고, 새마을 운동으로 대표되는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한마음으로 단결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 특히 단결과 화합의 극치가 서울올림픽이었음.
- 산업화에 헌신하셨던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이 정부에서 흐지부지된 것이 아쉬움.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봄. 올해는 서울올림픽 20주년 행사도 전국적 성화 행사 등으로 성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60년이라고 생각함. 대한민국의 43%가 진보라고 하고, 북한의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는 시나리오 등의 문제의식이 있는데, 오도된 국민에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줘야 하는 바, 교과서 바로세우기 운동이 필요하다고 봄.

〈송월주 위원〉

- 과거 김영삼 정부 당시 광복 50주년 행사를, 노무현 정부 당시 광복 6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치른 바 있음. 이제 이명박 정부는 건국60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향을 잘 잡은 것으로, 정부는 흔들리지 말고 광복 63주년 및 건국60년 행사를 강력히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만찬회 주요 내용

〈서영훈 위원〉

- 나라사랑 동호회를 통해서 재외동포 300여명을 초청한 행사, 국가 원로 200여분을 모시고 바른 역사와 밝은 미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민간 차원에서 몇 가지 사업을 해 왔음.
- 대한민국 60년은 굉장한 역사로, 해방 후, 정전 후 독립된 100여개 국가 중 우리만큼 발전한 나라, 피와 땀을 흘리고 고난을 겪은 나라도 없음.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국민이 뽑은 지도자, 밝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사기, 역사에 대한 자부심, 미래에 대한 자신감 등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음. 정부의 좋은 계획 잘 들었고, 중앙 · 지방 정부 모두 계획보다 더 훌륭히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이신 각계 대표,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민들, 국민의 뜻을 모은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건배사를 제의함.
  "(선창)빛나는 우리 역사, (후창)광명한 미래"

〈안희정 위원〉

- 여러분을 모시고 건배사 제의하게 되어 영광임. 이는 아마도 60년간 이름 없이 헌신하여 온 여성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우리 위원회에 모이신 한 분 한 분이 역사이며 발자취이고, 그간 눈부신 경제성장, 유엔사무총장 배출한 국가, 비전이 확실한 대통령을 모시고 경제대국으로, 세계를 리드할 수 잇는 기념사업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함. 다음과 같이 건배사를 제의함.
  "(선창)세계로, (후창)나가자"

〈황석영 위원〉

-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본인도 처음에 파리나 베를린 등에서 촛불 시위를 처음 접하였을 때 당황스러웠으나, 이것도 하나의 문화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함. 조직화와 무관하게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집단이 하나의 명제 아래 자유롭게 이합집산하여 잠시 놀다가 헤어지는 것일 뿐임. 촛불도 우리도 안고, 문화로 분출되도록 지도해야 함. 잘만 하면 문화적 집중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임.
- 원로들께서 해방 공간에서의 광복, 건국 이슈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이런 미묘한 입장 차이는 자제하고, 건국을 이루어낸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함. 이명박 정부는 성공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저렇게 그냥 흘러가다가, 다음에 준비 안 된 보수 혹은 진보 정당이 나오게 될 것을 우려해서임. 여러 역량을 모아서 나아가야 할 것임.

〈강영훈 위원〉

- 건국60년은 상당히 중요한 일임, 당시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건국 자체가 대단한 것이며, 건국 정신은 그때 불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이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이상이 만들어낸 것임. 이런 이상을 국가의 목표로 삼고 정진해온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음. 이제까지 본인은 조선 민족임을 긍지를 갖고 살고 있으며, 나라를 이만큼 건설하고 지도해 온 여러분들을 만나고 보니 본인이 사랑스러울 정도임.

〈이명박 대통령〉

- 오늘 와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원로 분들의 목소리가 쨍쨍하신 것에 다시 한 번 놀랐음, 훌륭한 말씀에 감사드림.
- 많은 토론들이 있었으며, 건국 없는 광복 없고, 광복 없는 건국 없다고 생각함. 60년의 역사에는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한 6 · 25전쟁, 서울올림픽 등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음.
- 1년에 한 번씩 현충일에 국립묘지에 갈 때마다, 이름이 적힌 큰 봉우리도 보지만, 이름 없는 무명용사의 묘지도 보게 됨. 무명용사 없이는 저 큰 봉우리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함.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서 이 자랑스러움도 있다고 생각함. 한 영역만이 훌륭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림. 산간벽지의 촌로들도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내어 대한민국 역사에 기여하셨음.
- 건국60년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앞으로의 60년을 더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기 위함임. 앞으로의 60년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준비가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음. 여기서 우리가 분열하고 갈등하면 앞으로 60년은 어두워질 것임. 오늘 이 88분의 위원, 공직자 모두 함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 모두가 하나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함. 이승만 초대 대통령, 김구 선생 등도 계셨고, 역사마다 응어리도 있었지만, 건국60년을 맞은 이 마당에 털어내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함.

- 남북통일도 남쪽이 화합하고 국력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함. 우리가 분열되면 북한은 더욱 변화하지 않을 것이고, 북이 남의 분열된 모습을 보고 자신을 가져서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할 수 있음. 융합 · 통합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함. 우리 끼리만이 아니라 모두가 융합 · 통합되도록 부탁드림.
- 오늘 16개 시 · 도지사도 참석을 해 주셨는데, 이런 행사는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흔히 생각하기 쉬우나, 이번 60년 행사는 우리 시 · 도지사께서 나름대로의 의미도 부여하여 독자적 행사도 해 주시고, 중앙 정부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람. 그러면 5천만 국민 모두에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한 가지 섭섭한 것이 있다면, 이번 60년 행사에 북한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점이나, 언젠가는 그런 날도 올 것이라고 생각함. 위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오늘 안녕히 돌아가시고, 늘 건강하시고, 8월 15일 경축일 당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음.

건국60년 기념사업 총괄

◉ 주요 사업(총 63건)

사업명(사업수)	사업기간
□ 교육과학기술부(10개)	
· 건국기념 역사관 설치	~2008연말
· 건국60년 해외한국사능력검정시험	9.27
· 대한민국사 연표 간행	~2008연말
· 2008 대한민국과학축전	8.1~8.6
· 국제학술대회 및 기획전시	8.4~8.16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	8.13
· 건국60년, 한국인의 얼굴	8.10
· 건국60년, 과거 · 현재 · 미래 세미나	7.11
· 1948년 건국과 동북아 열강들의 인식	5.16
· 건국60년, 우리의 영토와 주권	8.12
· 영토사랑 청소년 독도캠프	7.18~8.16
□ 국토해양부(2개)	
· 건국60년 국토개발의 성과와 도전	11.13~14
· 건국60년 도로교통의 발전과 도전	7.7
□ 문화체육관광부(14개)	
· 건국60년 미래비전 캠페인 홍보	8.15~9.14
· 건국60년 세계명사기고집 발간	6.13~10.31
· 경축식 야간행사(큰 울림 한강축제)	8.15
· 2008 세계 한민족축전	9.18~9.24
· 지구촌 콘텐츠 노마드(한글 순회전)	미정
· 건국60년 기념 임정프로젝트	12월
· 건국기념역사관/국립대한민국관 건립	~2012년
· 건국60년 우리말사랑 큰잔치	8.22~8.23
· 건국60년 기념특별공연(여민동락)	8.15
· 특별전시 그 고난과 영광의 순간들	7.29~9.15
· 한국 현대사진전 60년	8.15~10.26
· 대학생 사이버 건국내각	6.9~8.20
· 세계 태권도 한마당 대회	7.17~7.20
· 그림 및 글짓기 공모전	8.11

사업명(사업수)	사업기간
□ 법무부(2개)	
· 다문화가정 및 외국근로자 한마당축제	10.11
· 법에 비춰본 대한민국 건국60년 발자취 다큐 방영	12월
□ 여성부(2개)	
· 건국이후 정부정책과 여성 삶의 변화	11.3
· 건국60년, 여성의 역할	8.15
□ 외교통상부(6개)	
· 재외동포 명예위원 초청	8.13~8.17
· 건국60년 기념 세계지도자 포럼	10.30
· 건국60년 세계한인의날 행사	10.2
· 건국60년 재외동포 모국체험	7.28~8.2
· 세계한인회장 대회	10.1~10.4
· 세계한상대회	10.28~30
□ 지식경제부(2개)	
· 건국60년 산업발전관련 방송 기획	8.13, 8.20
· 건국60년 우표발행	8.14
□ 통일부(2개)	
· 한반도 평화와 통일미래 국제학술회의	9.9~9.10
·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마당	8~10.23
□ 행정안전부(2개)	
· 건국60년 중앙경축식	8.15
· 건국60년 특별전 대한민국 성장보고서	8.5~10.24
□ 환경부(2개)	
· 제1회 DMZ 보전의날 행사	9.26
· 북한산수유지구 독립유공자 묘역 정화	8.26~11.10
□ 국가보훈처(6)	
·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행사	~11.19
· 제2연평해전 기념행사	6.29

사업명(사업수)	사업기간
·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학술회의	9.29
· 건국60년 민주화성지 설치예술전	8.5~8.31
·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지역문화 축제화	8~12.14
· 한-베트남 평화의마을 건립	~2009년
ㅁ **국방부(3개)**	
· 건군60년 국군의날 기념행사	10.1
· 건국 · 건군60년 특별전시회	9.26~12.31
· 건국 · 건군60년 국제관함식	10.5~10.10
ㅁ **산림청(1개)**	
·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8.12~8.17

사업명(사업수)	사업기간
ㅁ **기타(9개)**	
· 경제60년 학술세미나(기획재정부)	8.20
· 정부수반 유적 종합 보존 · 관리	~2013
· 대한민국 건국60년 전야축제(서울시)	8.14
· 60일 연속 국민대강좌(기획단)	7.14~9.11
· 바른역사 정립을 위한 전국 달리기(민간)	8.4~8.15
· 한국현대사 아카이브 구축(기획단)	~2008.12
· 기념주화 발행(한국은행)	8.14
·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지도자들	11.26
· 유엔승인 60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	12.12

◉ 민간 사업(총 26건)

순번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주관기관	시기 / 장소
1	행사	건국60년기념, 범국민 대축제	• 건강걷기 대회, 범국민놀이마당, 범국민대축제, 효행건국둥이 시상식 등	대한민국 건국회	8.15 상암 월드컵경기장
2	행사	무궁화사랑 나라사랑 가족체험 행사	• 무궁화유적지 탐방 • 무궁화심기 체험 및 특별강연	무궁나라	4.26~7.12
3	학술	대한민국 건국60년기념 국제 학술회의	• 주제: 민주공화정의 탄생	민간건국 60년기념사업 위원회	7.23~24 국립중앙박물관
4	학술	한국기업60년의 역사와 미래	• 건국이후 60년의 한국기업사 정리, 초일류기업 CEO상 선정	한국기업 경영학회	4.25 대한상공회의소
5	학술	일본에서 본 한국기업 60년의 역사와 미래	• 국제학술세미나 – 대한민국 기업의 역사를 국제적 시각에서 고찰	한국기업 경영학회	7.5 일본 게이오대학
6	학술	2008 전기 사회학대회	• 주제 : 건국60년의 사회화 〈세계속의 한국, 한국속의 세계〉	사회학회	6.20~21 경북대
7	학술	건국60년,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정치 · 경제 · 사회 등 7개 분야별 연속토론회 개최	포럼 굿 소사이어티	3.21~7.18
8	학술	무궁화 5천년사 출간	• 무궁화 서적 및 도록 제작 편찬	무궁나라	8월
9	학술	전국역사학대회	• 주제 : 역사상의 공화정과 국가만들기	역사학회	5.30~31 서강대
10	문화	전국순회 역사 사진 전시회	• "동북아 3국의 바른 역사정립을 통한 평화 구축" 주제로 공공시설 및 관공서 전시	국학운동 시민연합	6월~10월
11	문화	8.15 대한민국 만세 태극기 몹	• 온라인 : 메신저 · 블로그등 태극기 게양 오프라인 : 지역별 태극기 관련행사 추진	국학운동 시민연합	8.15 / 전국, 해외
12	문화	바른 역사정립을 위한 전국 달리기	• 부산~서울까지 국민 전국이어달리기 행사	국학운동 시민연합	8.4~8.15
13	문화	슈퍼코리안데이	• 관람객을 위한 3D 입체 포토존 운영, 행복, 희망, 도약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연	한국예술문화 단체총연합회	10.3 / 스테이 플스 센터

14	문화	"2008 골든아이 아트페어" 작품 전시	• 건국60년을 맞아 세계 미술시장을 선도할 유만작가를 초대하여 국제교류를 증진, 국민의 문화산업 비젼을 제시	한국예술문화 단체총연합회	7.30~8.3 / 코엑스 인도양홀
15	문화	2008 뉴욕 세계 한민족 문화엑스포 "건국60년 기념 특집방송"	• 건국60년과 한미55주년 포럼, 민족산물전 및 예술제, 한마음 손잡기 대회 등 대한민국 건국60년 특집방송	한국예술문화 단체총연합회 /문화엑스포 조직위	10.11~12 / 뉴욕 UN 함마슐트광장
16	문화	건국60년 오페라 60년 "Classic Festival"	• 오페라 60년을 맞아, 오페라를 통해 대국민 화합을 이루는 공연을 개최	김자경 오페라단	10.16~19 / 잠실올림픽홀
17	행사	건국60년 기념 백만명 한마음 걷기대회	• 건국60년 기념 60개 지자체 백만명 한마음 걷기대회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 협의회	10.11 / 전국 60개 자치단체
18	학술	'지나온60년, 다가올 60년' 학술회의	• 지나온 60년, 다가올 60년 : 새로운 도약을 위한 건국60년에 대한 성찰	한국정치학회	8.21~32 / 속초 마레몬스 호텔
19	학술	이승만 박사 추모식 및 '독립정신' 재발간	• 7.19 이승만박사 추모식/ 김진현위원장 추모사 • '풀어쓴 독립정신' 발간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7.19 / 현충원
20	문화	건국60년 공식 음반 제작 · 발매	• 건국60년 공식 음반 제작 · 발매를 통해 건국60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건국60년 축하	(주)지피 워크샵	7.10~ 8.10
21	문화	건국60년기념 한강횡단 수영대회행사	• 건국60년기념 한강 횡단 수영대회 개최, 청소년 및 일반 시민, 수영 동호인 포함 약 5,000여명 참가 예정	한국청소년생 활체육대회	8.15 / 한강(잠실 –뚝섬지구)
22	학술	건국60년, 통일코리아를 바라 본다	• 평화재단 '건국60년 심포지엄 개최(김학준 동아일보 회장, 조민 통일정책연구실장, 법륜 스님)	평화재단	7.10 / 한국 프레스 센터
23	행사	나라꽃 무궁화 축제 2008	• 국민 참여행사 (무궁화심기, 무궁화 그리기, 먹거리체험, 역사체험 등), • 무궁화전시회 및 학술심포지엄	(사)한국고유 문화콘텐츠 진흥회	8.8~8.15 선유도공원
24	학술	자유민주주의 헌정 60년 –과거 · 현제 · 미래	• 헌정 60년을 객관적으로 평가, 국내외 학자들과 선진 한국을 위한 국정과제 모색–국제학술회의	한국자유 총연맹	8.20 / 한국 프레스 센터
25	문화	대한민국–이스라엘 60년 음악회	• 건국60년을 맞아,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간 60년을 기념하고 문화교류 증진을 위해 음악회 개최	이스라엘 문화원 스라엘대사관	9.18 / 여의도 KBS홀
26	학술	제4회 세계한국학 대회	•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학"이라는 주제로 지정분과, 특별분과, 자유분과로 나누어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학 중앙연구원	9.21~24 서울 롯데호텔

◉ 지방자치단체 사업(총 292건)

자치단체	사업수	자치단체	사업수
서 울 시	14	강 원 도	11
부 산 시	19	충청북도	3
대 구 시	16	충청남도	15
인 천 시	15	전라북도	8
광 주 시	7	전라남도	27
대 전 시	12	경상북도	8
울 산 시	17	경상남도	54
경 기 도	54	제 주 도	12

◉ 서울특별시

기관	사업구분	사업내용	시기 / 장소
서울시	타종식	• 8.15광복절 타종식	8.15 / 종각
	유족위문	• 애국지사 유족위문	8.14
	포상	• 독립유공자 정부포상	8.20
동대문구	영화상영	• 건국60년 기념 청소년 영화상영	8.8 / 배봉산 공연장
중랑구	경축 음악회	• 찾아가는 클래식 음악회 • 금요음악회	8.28 / 영란여중 8.29 / 중랑구청 대강당
성북구	음악회	• 건국60년 구민화합을 한 한여름 음악회	8.29 / 국민 대학교
노원구	음악회	• Art Festival, 광복절 기념음악회(매토요일)	8.16 / 노원 문화거리
서대문구	전시회	• 건국60년 기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8.14~8.15 / 서대문 형무소
마포구	걷기대회	• 건국60년 기념 걷기대회 및 범국민 대축제	8.15 / 평화의공원
양천구	음악회	• 건국60년 기념 전야 음악회	8.14 / 양천공원
구로구	축제	• 건국60년 추억의 노래 한마당	8.14 / 구로구민회관
동작구	영화상영	• 구민대상 우수 영화 야외상영	8.13
관악구	축제	• 건국60년기념 전통시장 살리기 한마당	9월
서초구	영화제	• 한여름밤의 영화제	8.14 / 반포종합운동장

◉ 부산광역시

기관	사업구분	사업내용	시기 / 장소
부산시	전야 음악제	• 건국60년 전야음악제(1,500명) – 식전 : 타악퍼포먼스 "개천" – 음악제 : 교향악단, B-boy, 무용 – 대 합 창 : 전국 대합창	8.14 / 시청 녹음 광장
	충렬사 참배	• 호국영령 기념참배 – 주요 기관장 20여명 참석	8.15 / 충렬사
	기념식	• 8.15광복절 기념식 및 영화상영 – 기관장 및 시민 1,800여명 참석 – 경축식, 축하공연, 기념영화상영	8.15 / 시민 회관
	타종식	• 8.15경축 타종 – 타종 33회, 태극기 물결행사	8.15 / 용두 공원
	유족위문	• 독립유공자 · 유족 위문 – 유공자 380여명, 위문금 전달	8월
	시설개방	• 공원 · 박물관 등 무료개방 – 충렬사 등 7개소, 전시민 대상	8.15
	국기선양	• 태극기 홍보 : 시내 마을버스 • 국기계양운동 : 가로기, 전가구	8.11~8.15
	국기선양	• 사이버 태극기 달기 – 홈페이지 국기달기운동	8.8~8.15
	전시회	• 대한민국정부수립 60년 사진전 – 정부수립이후 사진50점 전시	8.1~9.30 / 부산 근대역사
북구	유족위문	• 독립유공자 · 유족 위문 간담회 – 북구관내 거주 유공자 20여명	8월
	체육대회	• 건국60년기년 구민축구대회 – 북구구민 1,000여명	8.15 / 구민 운동장
금정구	태극기 선양	• 대형태극기 게양 – 태극기 소공원에 게양	8.15
부산진구	유공자 위문	• 독립유공자 위문금 전달 : 43명	8.15
사하구	유공자 위문	• 독립유공자 위문금 전달 : 30명	8.15
수영구	유공자 위문	• 독립유공자 위문금 전달 : 1명	8.15
중 구	전시회	• 독립운동 주제 전시회 – 독립기념관 작품 대여 전시	8.14
강서구	체육대회	• 마을별 체육대회 – 6개동 8개소 7,000여명	8.15
	위령제	• 제14회 항일 무명용사 위령제 – 장락마을 위령비 앞 70여명	8.15
기장군	체육대회	• 마을별 체육대회 – 18개 마을주민 700여명	8.15

◉ 대구광역시

기 관	사업구분	사 업 내 용	시기 / 장소
대구시	경축식 전야 음악제	• 건국60년경축 전야음악제 – 건국60년 축하 군악대 및 의장대 시범 –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기원연주회 – 대한민국 희망을 표현하는 공연	8.14 / 문화예술 회관 광장
	태극기 선양	•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 전 가정, 전 직장, 주요도로변 등 시 전역	8.14~8.15 / 관내전역
	경축식	• 건국60년, 제63주년 광복절 경축식 – 경축사, 건국유공자 포상, 만세삼창	8.15 / 수성 아트피아
	무료영화상영	• 건국60년, 제63주년 광복절 경축 무료 영화상영	8.15 / 수성 아트피아
	선열묘지 참배	• 건국60년, 제63주년 광복절 선열묘지 참배	8.15 / 신암선열 공원
	달구벌 타종	• 건국60년, 제63주년 광복절 경축 달구벌 대종 타종	8.15 / 국채보상운 동 공원
	유족위문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격려 (대구광역시 및 구, 군 참여)	8.15 / 개별방문
	중요 무형문화재 초청공연	• 건국60년 경축 중요무형문화재 초청공연	7.28~8.1 / 코오 롱 야외음악당
	호러공연 예술제	• 폭염을 주제로 한 독창적인 테마예술제	7.29~8.3 / 대구 스타디움
	전국우수콘서트 밴드초청연주회	• 건국60년 축하분위기 조성 및 문화예술도시 구현	8.4~8.9 / 문화 예술회관
	영화 감상회	• 건국60년 축하분위기 조성 및 문화예술도시 구현	8.11~8.13 / 문화 예술회관
	실내악 페스티벌	• Chamber 형태의 성악, 기악팀 공연 – 클래식, 째즈, 크로스오버 등	8.2~8.14 / 문화 예술회관
	어린이세상 &무대체험	• 어린이 뮤지컬 및 아동극	8.1~8.9 / 문화 예술회관
	2008올해의 청년작가 초대전	• 2008 청년작가 초대전	8.18~8.31 / 문화 예술회관
수성구	축제	• 한여름밤에 물을 주제로 더위를 즐기는 수성폭염 축제	8.1~8.3 / 수성못 외 2
민족통일 대구청년 협의회	위문행사	• 사할린 한인위문 행사 – 위령비참배, 헌화, 예술단공연, 체육행사	8.14~8.17 / 러시아 사할린

◉ 인천광역시

기관	사업구분	사업내용	시기 / 장소
인천시	태극기 선양	• 범시민 태극기 달기 운동 – 태극기달기 주간지정 운영	8.11~17 / 전가구·전직장
	기념식	• 건국60년및광복절 경축식 – 1,500명 참석,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 인천광역시장 경축사, 만세삼창 등	8.15 / 종합문화 예술회관
	공연	• 건국60년 및 제63주년 경축 특별공연 – 1,500명 참석(시립무용단)	8.15 / 종합문화 예술회관
	전시회	• 태극기 사진 전시회, 태극무 공연 등 – 5,000 여명 참관	8.15 / 종합문화 예술회관
	유족 위문	• 독립유공자 위문금전달	8.15
	전시회	• 나라꽃 무궁화 전시회	8.14~24 / 인천 대공원
	무임승차	• 애국지사, 광복회원 및 국가유공자와 함께 타는 가족 1인 지하철 무임승차	8.15 / 인천 지하철
	음악회	• 건국60년 전야음악제 – 인천시립교향악단 공연	8.14 / 종합문화 예술회관
	기념식	• 건국60년 기념, 제58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해상헌화,기념식)	9.9 / 자유공원, 월미도
강화군	현충탑 참배	• 건국60년 및 광복절 경축 현충탑 참배	8.15 / 견자산 현충탑
	기념식	• 건국60년 및 광복63주년 광복절 경축식 – 경축사, 만세삼창 등	8.15 / 강화문예회관
	타종식	• 경축타종식 및 강화역사관 등 무료관람	8.15 / 고려궁지 강화동종
동구	영화 상영회	• 건국60년 기념 가족영화 상영회 – 한여름밤 가족영화 상영	8.15~17 / 송현 그린공원
계양구	체육 대회	• 건국60년 기념 축구대회 – 동(마을) 대항 축구대회	8.14~15 / 계산체육공원, 계양초등학교
옹진군	기타 행사	• 백령평화축제 – 연날리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국악공연 등 문화행사 – 마라톤대회, 수영대회 등	9월 / 백령면 일월

◉ 광주광역시

기관	사업구분	사업내용	시기 / 장소
광주시	사진 전시회	• 건국60년 광주변화상 사진전시회 – 광복 후 광주시의 변화상 사진 전시	8.12~.22 / 시청 시민홀
	전야 음악제	• 건국60년 경축 전야음악제 – 우리 가락 공연,시립합창단 · 교향악단 공연	8.14 / 5.18기념 문화센터
	현충탑 참배	• 현충탑 참배 – 시 간부, 시 의원, 기관 및 단체장 129명	8.15 / 광주공원
	광복절 경축식	• 건국60년, 제63주년 광복절 경축식 – 시 간부, 시 의원, 기관 및 단체장 등 670명	8.15 / 시민회관
	민주의 종 타종식	• 건국60년 및 제63주년 광복절 기념 민주의 종 타종행사 – 관련인사, 시민대표 및 공무원	8.15 / 민주의 종각
	애국지사 위문격려	• 애국지사 및 유족 위문 · 격려 – 대상 151명(유공자11, 유족 140)	8.15
		• 유공자 시내버스 무임승차 – 광복회원 및 유족 100명	8.14~8.16
		• 시립민속박물관, 우치공원 무료개방 – 광복회원 및 유족	8.15
광복회 광주 전남지부	사적지 순례	• 광복회원 사적지순례 – 광복회원 및 유족 100명 – 학생기념탑, 광주공원현충탑, 농성광장(김태운 의병장), 대전국립묘지 등	8.15

◉ 대전광역시

기관	사업구분	사업내용	시기 / 장소
대전시	음악회	• 1부행사 : 20:00-20:30(경축식) • 2부행사 : 20:30-21:10(합창) • 3부행사 : 21:10-21:30(공연)	8.14 / 카이스트 앞 잔디광장
	경축식	• 내용: 기념사, 포상, 경축사, 공연, 만세삼창	8.15 / 시청 3층 대강당
	축제	• 빛깔 있는 축제 - 장대인형극 웨딩	8. 14 / 시립 미술관 앞
	축제	• H2O축제 - 북춤, 불꽃놀이, 합창 등	8. 15 / 시립 미술관 앞
	축제	• 한여름 밤 댄스 페스티벌 - 각종 춤의 축제	8. 16 / 시립 미술관 앞
	콘서트	• 패밀리콘서트 - 가족 음악회(클래식)	8. 23 / 예술의전당 아트홀
	음악회	• 챔버뮤직 시리즈4 -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외3곡	8.29 / 예술의전당 아트홀
	전시회	• 한국현대사특별전 - 건국이후 한국 사회 모습 전시	10.20~11.30 / 충남대학교 박물관
	사생 대회	• 태극기, 무궁화, 애국관련 그림 그리기 대회 - 초등생 53, 중학생 7, 일반 4	7.26 / 시청 3층 대강당
	태극기 선양	• 태극기 전시회 - 태극기 변천사, 애국지사소장품 등	8.14~15 / 시청 3층 로비
		• 태극기 보급 - 차량용 1,000, 수기용 1,000, 가정용 300 등	8.14~15 / 대전IC, 대전 동물원
	현충원 참배	• 보훈가족과 국립묘지 참배	8. 5 / 대전현충원
	간담회	• 보훈 가족 150명과 오찬 간담회	8.15 / 구내식당

◉ 울산광역시

기관	사업구분	사업내용	시기 / 장소
울산시	음악회	• 클래식, 가요복합 콘서트 – 1,000명 참석	8.13 / 문화 예술회관
	자전거 퍼레이드	• 자전거 퍼레이드 – 건국60년 앰블럼 부착 거리 퍼레이드 – 자전거 동호인 50명	8. 14
	가훈, 핸드 프린팅	• 가훈 써주기 및 핸드프린팅 – 시민에게 가훈 써주기 – 순국선열 유작 또는 가훈에 자신의 손바닥 핸드프린팅	8.14 / 문화 예술회관
	열린 무대	• 가수초청 콘서트 – 400명 참석	8.14 / 울산 종합운동장
	전야 음악제	• 전야음악제 – 시립예술단 프로그램 – 1000명 참석	8.14 / 예술회관 광장
	무궁화 행사	• 무궁화 나눠주기 및 사진전시회 – 무궁화무상공급, 사진전시 – 참석인원 3,000명	8.14~16 / 울산 대공원
	사진 전시회	• 건국60년 사진전시회 – 건국60년 발자취사진 및 울산의 어제와 오늘	8.14~8.15 / 문화 예술회관
	태극기 선양	•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 관내 전 시 · 군 참여	8.15 전후
	기념식	• 건국60년, 광복63주년 경축식 – 1,500명 참석, 독립유공자 포상	8.15 / 문화 예술회관
	추모식	•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식 – 150명 참석, 추모제	8.15 / 울산 북정공원
	유족위문	• 독립유공자 가족 위문금 전달	8.15 / 태화나루
	청소년 안보체험 시티투어	• 청소년 안보체험 시티투어 – 박상진 생가, 비함정 탑승 등 – 중학생 100여명	8.15 전후
	문화 마당	• 가수초청 콘서트 – 참석인원 400명	8.22 / 대숲특설무대
중구	체육 대회	• 중구 병영연합 및 다운동 청년회 – 400명, 축구대회 – 병영연합 청년회 주관	8.15
남구	가요제	• 선암수변공원 연꽃가요제 – 참여 연인원 : 40,000명	8.13~15 / 선암수변공원
북구	체육 대회	• 북구 동 대항 축구대회 – 1,800명	8.15
울주군	체육 대회	• 울주군 읍 · 면 체육대회 및 민속행사 – 8,200명	8.15

◉ 경 기 도

기관	사업구분	사업내용	시기 / 장소
경기도	경축 행사	• 경축식 – 참여인원 : 광복회원 등 700여명 – 경축식 종료 후 오찬	8.15 / 중기 센터
	전야제	• 전야 경축음악회(1,600여명) – 경기필 축하공연 – 합창단공연(안산시립합창단) – 경축 불꽃 쇼	8.14 / 경기 문화의전당 대공연장
	자연 탐사	• 청소년 한강하구 대탐사 – 참여인원 : 도내거주 중고생 150명 – 민통선 따라 한강하구, 습지 탐사 – 건국60년 근대사 특강 – 민통선 주민과 떡 나눔 행사 등	7.30~8.2 / 민통선 일원
	사진 전시회	• 건국이후 60년간의 발전과정 사진 전시회 – 5대분야 역사적 발전과정을 담은 상징적인 사진 전시 – 교육 · 역사, 사회 · 경제, 과학 등	8.1~8.17 / 경축 행사장
	위문 행사	• 광복회원 위문 및 위문금 전달 – 대상 : 1,291명	8.6~8.14
	학습 자료	• 건국60년 신개념 학습자료 개발 및 수업 – 도내 초등학교 교재 배부, 특별수업 – 교사들의 교재 개발 시 참고자료 및 학부모 교육자료 활용	연중
	위문 공연	• 주한미군 장병 위문공연(2000명) – 추석맞이공연(미군장병 한국전통 문화공연, 한국 전통 음식 체험) – 한미친선 우호증진 공연(도립예술단, 미2사단, 비보이 공연)	9.4, 10.15 / 미2사단 체육관
	외신기자 DMZ 투어	• 건국60년 기념, 외신기자 DMZ 투어 – 인원 : 외신기자 50여명 – 체험코스 : 열쇠전망대, 군부대 체험 등	8.27 / 열쇠부대
	안보 체험	• 건국60년 기념, 안보체험 투어 – 대상 : 940명(청소년, 주한외교사절단 및 주한외국인, 군부대 장병 등) – 코스 : 자유수호박물관, 임진각, 통일전망대, DMZ 철책선 걷기, 전투격전지	8~9월
수원시	음악회	• 수원여름음악축제 – 8.11(월) – 개막공연 – 8.12(화) – 국악공연 – 8.13(수) – 클래식공연 – 8.14(목) – 락공연	8.11~8.14 / 야외 음악당
	연극제	• 2009 수원화성 국제연극제 – 해외작 : 6편(불가리아,호주,러시아 등) – 국내작 : 13편(초청작, 공모작 등)	8.15~8.24 / 화서공원 문화의전당 KBS아트홀

기관	사업구분	사업내용	시기 / 장소
성남시	기념식	• 건국60년, 제63주년 광복절 경축식	8.15 / 여성문화회관
	음악회	• 건국60년 시립국악단 전야제 – 참석예정인원 : 2,000명 – 출연진 : 138명	8.14 / 중앙공원
		• 토요미니 콘서트	8월 토요일 / 시 전역
		• 썸머쿨 콘서트	7.25~8.30 / 시 전역
		• 가족과 함께하는 소리 여행	8.6~8.9 / 성남 아트센터
		• 시립교양악단 제56회 정기연주회	8. 28 / 성남 아트센터
	교 육	• 건국60년 공직자 아카데미 교육	8. 29 / 시민회관 대극장
		• 애국심 고취를 위한 가정통신문 전달	성남교육청
		• 나라기록관 견학 – 추진기간 : 2008.8.5 ~ 8. 14 – 견학인원 : 460명(1일 60~70명)	성남시
	홍 보	• 건국60년 홍보탑 및 홍보물 설치 – 홍보탑 : 4개소 – 버스부착 현수막 : 200개 – 청사 현수막 : 4개소	성남시
고양시	음악회	• 건국60년, 광복63주년 기념 경축 음악회 – 주관 : 고양시, 고양시립합창단 – 협연 : 모스틀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 행사내용 : 오페라아리아, 가곡 등 음악회	8.14~15 / 토당동 근린공원
	글짓기 대회	• 초 · 중 · 고교생 나라사랑 독도사랑 글짓기 대회 – 주최 :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동국대학교 – 주관 : (사)아시아문화교류봉사협회 – 행사내용 : 초 · 중 · 고교생 글짓기 대회	8. 10 / 동국대
부천시	축제	• 제11회 부천국제만화축제 – 행사기간 : 8. 14 – 8. 17 – 장 소 : 시청 및 문화센터	8. 14 / 문화센터
	기념식	• 광복절 기념 행사 및 축하연 – 기념식(시청 대강당) : 8. 15 – 축하연(장소미정) : 8. 15	8. 15 / 부천시청 대강당
군포시	음악회	• 한여름 쿨 페스티벌 – 숲속 푸른 음악회(8.9~23) – 삼색 테마 콘서트(8.6~20)	8.6~23 / 야외무대

기관	사업구분	사업내용	시기 / 장소
안양시	열린 음악회	• 행사목적 : 건국60년 경축 • 참석인원 : 3,000명 • 행사내용 – 1부 : 식전공연 및 의식행사 – 2부 : 부부사랑선포식 등 – 3부 : 음악회 – 4부 : 폐회식	8.23 / 병목안 시민공원
용인시	전야 음악제	• 태극기 나누어주기, 대북연주 • 시민연합합창단 합창(만세삼창) • 초청공연, 불꽃공연	8.14 / 민속촌 특설무대
남양주시	시민 걷기대회	• 태극기 보급, 광복절행사, 걷기대회 • 보건소 무료건강검진 실시	8.15 / 홍유릉 광장
평택시	안재홍 선생 기념사업	• 다사리 포럼	8.14 / 가보호텔
		• 독도영토주권과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 홍보세미나	8월 / 남부 문예회관
		• 건국60년 기념 특별전시회 – 민족운동가 10명에 대한 캐리커쳐 전시회,도서전,보훈퀴즈, 포토존설치	10월 /평택호 예술관 등
	시민 한마음 전야제	• 평택 60년사 사진전	8.14 / 시청광장
		• 전통문화 체험행사 – 장승만들기 등 7개	8.14 / 시청광장
		• 경축 전야제 – 태극기 나눠주기, 농악공연,시민합창	8.14 / 시청광장
	한미친선 프로그램	• 한미 친선 소프트볼 대회 – 미군 주둔팀과 평택시 연합팀간 친선경기	8.15 / 합정 레포츠공원
광명시	음악회	• 전야음악회 – 출연진 : 광명시립합창단, 타악그룹 광명, 이춘목의 서도소리 등	8.14 / 문화의 거리
시흥시	시민 한마당	•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건국60년을 기념하는 시민한마당 행사	6.14 / 옥구공원
	뜨락 콘서트	• 건국60년을 기념하는 뜨락콘서트 개최	7.11 / 시화공고
		• 건국60년을 기념하는 뜨락콘서트 개최	8.30 / 동사무소
	가을연주회	• 건국60년을 기념하여 시흥교향악단의 가을을 여는 콘서트 개최	10.2 / 비둘기 공원

기관	사업구분	사업내용	시기 / 장소
화성시	음악회	• 읍민화합 음악회(콘서트 행사) • 참석인원 : 1,000여명	8.14 / 봉담 읍사무소
	보훈 회관 개관식	• 보훈회관 개관식 – 테이프 컷팅식, 경과보고 – 기념식/ 다과회/ 축하연 등 • 참석인원 : 300여명	8.15 / 보훈회관
	읍면민 체육 대회	• 8.15 읍면민체육대회 – 종목별 체육경기 등 • 참석인원 : 2,500여명	8.15 / 봉담읍, 마도면, 송산면, 정남면
파주시	음악회	• KBS교향악단 초청 연주회 – 교향악단 클래식 연주 – 성악가, 초대가수 협연	8.12
이천시	범시민 운동 발족식	• 「향교 오층석탑」 반환을 위한 시민운동기구 발족식(300명) – 대상 : 이천시 관내 문화단체 및 사회단체	8.16
	체육 대회	• 8.15 백사면민 체육대회 – 주요행사 : 체육행사(축구,족구,마라톤) – 참석자 : 500명(시장,의장,국회의원 등)	8.14~8.15 / 백사면 생활체육공원
		• 제59회 8.15경축 마장면민 체육대회 – 주요행사 : 축구, 계주, 마라톤, 노인, – 참석자 : 700명(시장,의장,국회의원 등)	8.15~8.16 / 마장중고교
김포시	음악회	• 건국60년 및 제63년 광복절 기념 「한 여름밤 추억만들기 음악캠프」	8.15
포천시	음악회	• 광복절기념 청소년음악회 개최 – 공연내용 외국노래시리즈, 오페라갈라 시리즈 뮤지컬의세계, 뮤지컬 "사운드오브 뮤직"의 세계 등	8.15 / 포천 반월아트홀
	유공자 표창	• 건국60년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 – 인원 : 52명	7.23 / 시청
광주시	음악회	• 건국60년 제13회 보훈가족과 노인을 위한 춤판(300명)	8.11 / 노인복지회관
		• 건국60년 어울너울 작은 국악 마당(300명)	8.12 / 노인복지회관
		• 건국60년 제5회 시민과 노인을 위한 한범택 춤판(300명)	8.14 / 노인복지회관
	문화제	• 건국60년 제13회 남한산성 문화제	9.19 ~9.21 / 남한산성
	축제	• 건국60년 기념 제11회 광주왕실 도자기축제	9.26~10.12/ 조선관요박물관

기관	사업구분	사업내용	시기 / 장소
안성시	문화 행사	• 건국60년 나라사랑 그림그리기대회 – 대상 : 유치원,초,중,고 200명 – 나라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 부대행사(퍼포밍아트공연 등) – 체험행사(혈서체험,고문체험 등)	8.15 / 안성 3.1 운동 기념관
	체육 대회	• 건국60년 면민 체육대회 – 참석대상 : 면민 등 2천명 – 내용 : 축구 등 12개 종목 체육대회 및 부대행사	8.14~15 / 일죽고교 운동장
의왕시	음악회	• 건국60년기념 찾아가는 시민음악회	8.16 / 학의천변, 문화의 거리
여주군	태극기 달기	•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 게양 지역 : 간선도로, 가정, 상가 등 – 게양 개수 : 1,396개	8.14~15 / 여주전역
	무임 승차	• 독립유공자 · 유족 시내버스 무임승차 – 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 구간 : 여주관내 – 운수업체 : (주)경기 · 대원고속 등 – 무임승차차량 : 일반형 시내버스	8.14~17 / 여주관내
	강연	• 여주아카데미교육 – 주제 : 건국60년 기념관련 주제 – 인원 : 400명(주민, 유관기관 등)	8.27 / 군민회관
	생가 방문	• 명성황후생가 무료개방 – 대상 : 일반주민 – 사업내용 : 입장료, 주차료 무료	8.15 / 명성황후 생가
동두천시	음악회	• 대한민국 동두천 락페스티발 2008 – 참여 : 연인원 50,000여명 – 내용 : 아마추어 락밴드 경영대회 동두천 락 페스티발	8.14~17 / 소요산 국민관광지
	체육대회	• 전국 MTB 왕방산 챌린저 대회 – 참여 : 1,000여명 – 1일차 : 자전거연합회장기대회(10㎞) – 2일차 : 전국MTB 왕방산 챌린저(35㎞)	8.30~31 / 왕방산 일원
	간담회	• 광복회원 간담회 – 대상 : 13명 – 내용 : 광복회원 격려(오찬)	8.15
	체육대회	• 광복63주년 제54회 축구대회 – 참여 : 민 · 관 · 군 축구팀 30여 개 팀	8.10 / 종합운동장
가평군	체육대회	• 광복기념 면 · 민화합 한마당큰잔치 – 주관 : 설악면체육회 – 내용 : 체육대회 및 노래자랑	8.15 / 설악중고교, 미원초교

◉ 강 원 도

기관	사업구분	사업내용	시기 / 장소
강원도	경축식	• 광복63주년 및 건국60년 경축식 – 1,000여명 참석, 유공자 포상 전수	8.15
	전야 음악제	• 광복63주년 및 건국60년 전야음악제 – 2,000여명 참석	8.14 / 도청 앞 특설무대
	유족위문	• 독립유공자 위문품 전달 – 도내 생존 애국지사 5분	8.15
	전시회	• 순국선열 광복활동 사진 전시회 – 광복활동 사진 50점	8.15
		• 나라꽃 무궁화 전시회 – 무궁화 분재 60점	8.15
	태극기 선양	• 태극기 선양 홍보 · 보급 – 보급량 : 1,000개	8.15
		•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 도내 모든 시군 참여 : 가정, 직장	8.15
춘천시	타종식	• 건국60년 및 63주년광복절 경축타종식 – 참석인원 : 300여명	8.15 / 시청광장 (시민의 종각)
	유족위문	• 애국지사 동상참배 – 유인석, 윤희순 여사 동상참배	8.15
		• 독립유공자 및 광복회원 위문품전달	8.15
원주시	타종식	• 건국60년 및 63주년 광복절 경축타종식 – 참석인원 : 광복회원 등 200인	8.15 / 치악 종각
강릉시	타종식	• 건국60년 및 63주년 광복절 경축타종식 – 참석인원 : 100여명	8.15 / 임영대 종각
동해시	음악회	• 건국60년 기념 경축 음악회 – 500여명, 동해문화예술회관	8.14
속초시	음악회	• 2008 대한민국 음악 대향연 – 10,000여명	8.14 / 청초호 유원지

◉ 충 청 도

기관	사업구분	사업내용	시기 / 장소
충청북도	기념식	• 건국60년 및 63주년 광복절 경축식 – 약 800명 참석, 독립유공자 포상 등 경축식 진행	8.15 / 청주 시민회관
	태극기 선양	• 건국60년 기념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 도내 12 시 · 군 참여	8.15 전후
	전야 음악제	• 건국60년 기념 전야음악제	8.14 /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 충 청 남 도

기관	사업구분	사업내용	시기 / 장소
충청남도	전야 음악제	• 농악대, 국악관현악단 공연, B-boy, 초청가수, 합창, 불꽃놀이	8.14 /유관순 체육관 앞 광장
공주시	전야 음악제	• 농악대, 연정국악원 현대음악 공연	8.14 / 고마나루 특설무대
보령시	전야 음악제	•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초청가수, 타악 공연	8.14 / 문예회관
아산시	전야 음악제	• 퓨젼국악공연, 대북공연, 건국주제 특별공연	8.14 / 신정호 야외공연장
서산시	전야 음악제	• 사물놀이, 모듬북 공연, 시청공무원밴드, 아카펠라, 아리랑 합창	8.14 / 문화회관 광장
논산시	전야 음악제	• 밸리댄스, 한국무용, 초청가수	8.14 / 문예회관
계룡시	전야 음악제	• 청소년공연(댄스), 난타, 초청가수 공연	8.14 / 시청앞 광장
금산군	전야 음악제	• 국악공연	8.14 / 다락원
연기군	전야 음악제	• 섹스폰, 퓨전국악밴드, 자원봉사 부스 설치, face painting등	8.14 / 고복저수지 야외공연장
부여군	전야 음악제	• 충남국악단 공연(서동요)	8.14 / 국악의 전당
서천군	전야 음악제	• 경축음악회	8.14 / 문예의 전당
청양군	전야 음악제	• 경축 음악회, 메시지 전달 등	8.14 / 문예회관
홍성군	전야 음악제	• 풍물 · 모듬북공연, 재즈댄스, 색소폰, 향토가수, 불꽃놀이	8.14 / 구 세무서 광장
예산군	전야 음악제	• 경축 음악회	8.14 / 예당저수지 야외특설무대
당진군	전야 음악제	• 초청가수 공연, 불꽃놀이	8.14 / 문예의 전당

◉ 전라북도

기관	사업구분	사업내용	시기 / 장소
전라북도	전야 음악제	• 전야 음악제(국악, 대중가요, 가곡, 비보이공연 및 합창 등)	8.14 / 소리문화전당 야외무대
	기념식	• 건국60년 및 63주년광복절 경축식 – 1,000명 참석, 유공자포상 전수 등	8.15 / 도청 대강당
	유공자 위문	• 생존 독립운동 애국지사 기념식 초청 및 위문금 전달	8.15
		• 생존 독립운동 애국지사 초청 오찬 환담	8.15
	전시회	• 전라북도 도정기록물 특별전 – 전라감영 고문서 및 각종 도정관련 기록물 전시	8.11~31 / 국립 전주박물관
		• 전라북도 도정기록 사진전 – 도정관련 주요기록 사진 등	7.28~12월말 / 도청, 시군 순회
	해외 교민 초청	• 재외동포 모국방문단 홈스테이 – 홈스테이를 통한 건국60년 전북 발전상 조명	7.25~8.11 / 한옥마을 등
		• 전북출신 해외 리더 초청 – 투자유치 설명회 및 전북 발전상 조명	10.15~10.17 / 새만금방조제 등

◉ 전라남도

기관	사업구분	사업내용	시기 / 장소
전라남도	전야 음악제	• 참가단체 : 도립국악단 등 4개 단체 • 참여인원 : 500명 • 도립국악단 축하공연 – 여명의 빛, 국악가요, 장고춤	8.14 / 목포 평화의 광장
	기념식	• 건국60년 및 광복63주년 경축식 – 400명, 독립유공자 포상전수 등	8.15 / 시민문화체육센터
	유족 위문	• 독립유공자 위문금 전달	8.15 / 전 시군
	태극기 선양	•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	8.15 전후 / 전 시군
	자전거 타기 결의대회	• 도 자전거보유 직원 및 자전거 사랑 연합회 목포지부 등 400명	8.1 / 도청 광장
목포시	새천년 시민의 종 타종	• 일반 시민 및 기관단체장 200명 • 타종 : 12개조 63회	8.15 / 유달산 시민의 종각
	현충탑 참배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기관단체장 등 100명	8.15 / 부주산 현충탑
	광복절 경축식	• 도 기관단체장, 시 기관단체장 등 400명	8.15 / 시민문화체육센터
담양군	건국60년 기념 축구대회	• 봉산면 리대항 축구대회	8.14~15 / 봉산 초등학교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문	• 위문금 및 위문품 전달(10명)	8.13~14 / 유공자 및 유족가정
	태극기 달기운동	• 주요시가지 가로기 정비 • 11개 구간, 396개소	3.1~12.31 / 읍면별 가로변
	생활체육 한마당	• 3사랑 다짐 및 군민화합을 위한 공연	10월 / 진우네 국수집
	영화상영	• 주민, 학생 등 500명	8.7~14 / 문화회관

기관	사업구분	사업내용	시기 / 장소
곡성군	체육 대회	• 민속 · 체육 · 문화행사 – 씨름, 배구, 윷놀이, 노래자랑	8.14~15 / 석곡, 고달, 옥과면
	위문금 전달	• 독립유공자 위문금 전달(6명)	8.15 / 6개 면
고흥군	음악회	• 한여름 밤의 해변음악회 – 그룹사운드. 통기타그룹 트롯가수 공연	8.2 / 발포 해수욕장
		• 한여름 콘서트 – 순천필하모닉 오케스라연주 – 가수 박상민 등 700명	8.24 / 종합문화회관
장흥군	음악회	• 건국60년 기념 달너울 음악회 – 통기타 라이브, 국악한마당, 댄스동아리 등 – 주최 : 달너울 음악동호회	8.13 / 수문 해수욕장
	태극기 게양	• 정남진 물축제 기념 태극기 게양	7.30~8.3 / 탐진강변 일대
	체육 행사	• 족구 및 배구 대회	8.15 / 안양 대덕
강진군	전야 음악제	• 해군 홍보단 축하공연	8.14 / 고려청자 도요지
해남군	유족위문	• 독립유공자 위문금 전달(12명)	8.15 / 읍면
	태극기 선양	•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	8.10~20 /읍면
무안군	공연	• 무안군 여성합창단 공연 – 무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공연 – 무안여성 합창단 공연	7.28 / 일로회산 백련지
완도군	체육 대회	• 건국60년 기념 걷기 대회 – 건강한 지역사회협의회 주관 – 주민 등 100여명 참여	8.14 / 완도읍 일원
	음악회	• 음악동호회 '등대지기' 공연 – 주민 등 200여명 참여	8.14 / 해변공원 야외음악당
화순군	유족위문	• 독립유공자 위문금 전달(12명)	8.15 / 유족 자택
	전야 음악회	• 화순 관현악단 연주 – 주민 등 200여명 참여	8.15 / 화순읍 광덕리

◉ 경상북도

기관	사업구분	사업내용	시기 / 장소
경상북도	기념식	• 제63주년광복절 및 건국60년 경축식 – 주최 : 경상북도	8.15 / 울릉군 독도
	태극기 선양	•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 도내 전시 · 군참여	8.15 전후 / 도내 일원
	위문 행사	• 생존독립애국지사 초청 간담회	8.12 / 도청 회의실
	음악회	• 건국60년기념 전야 음악제 – 주관 : 경상북도	8.14 / 김천문화예술회관
	음악회	• 건국60년경축 도립교향악단 공연 – 주관 : 경상북도	8.13 / 경산 시민회관
	음악회	• 독도어울림 프로젝트 ※ 조오련 독도33회 회영 및 축하음악회 – 주최 / 주관 : 경상북도 / 포항MBC	독도회영 (7.1~7.30) 축하음악회 (7.31)
	기념행사	• 건국60년기념 독도사랑 연날리기 – 주최 · 주관 : 경상북도	8.15 / 울릉군 독도
	기념행사	• 건국60년기념 국토사랑 독도탐방 – 주최 : 경상북도 – 주관 : 경일대 독도 · 간도연구센터	8.13~14 / 독도

◉ 경상남도

기관	사업구분	사업내용	시기 / 장소
경상남도	기념식	• 건국60년 및 63주년광복 경축식 – 독립유공자 포상전수(600명 참석)	8.15
	태극기 선양	•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8.15 전후
	음악회	• 건국60년 기념 경축 전야음악회	8.14 / 삼천포 대교공원
창원시	태극기 선양	•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시 유관기관)	8.15 전후
	유족 위문	• 독립유공자 위문금, 위문품 전달	8.15
	음악회	• 광복경축 음악회 – 시민화합 광복경축음악회	8.5 / 창원광장
	타종식	• 창원대종 타종행사 – 광복경축 창원대종 타종식 – 약 300명 참석(광복회원,시민)	8.15 / 창원대종각
	8.15 단축 마라톤	• 8.15기념 환경수도창원 단축마라톤 – 대회코스 : 10km, 5km – 참여인원 : 1,000명	8.15 / 창원보조경기장
마산시	전야 음악제	• 건국60년 2008 광복 전야음악제 – 연주 : 마산시립교향악단단 – 인원 : 1,000명 – 내용 : 환상서곡 아리랑외 10여곡	8.14 /3.15 아트센터 대극장
	박물관 특별 기획전	• 제목 : 마산의 애국지사 사진전 – 전시자료 : 사진 및 도서자료	8.14~10.31 / 마산시립 박물관
	마산 문학관 특별행사	• 제목 : 나라사랑, 마산사랑 편지 공모전 – 대상 : 마산시민 누구나	7.20~9월 / 마산 문학관
	태극기 선양	• 공공청사 광장 베너형태극기 게양 – 대상 : 시청, 3.15아트센터, 청소년 회관, 박물관, 문학관 등 • 가로기 및 24시간 게양기 일제정비	8.15 / 시청 외 공공청사 광장 등
	유족 위문	• 격려 및 기념품 전달 – 관내거주 유가족 45명	8.15 / 백두봉 삼계탕
	추모제	• 죽헌 이교재선생 추모제 – 약 200명 참석(추모제,유족인사 등)	8.15
	체육 대회	• 8.15광복절 기념 진전면 및 의산면 청년 체육대회 – 약10,00명 참석	8.15

기관	사업구분	사업내용	시기 / 장소
진주시	음악회	•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 음악회 – 성악가 및 가수초청 공연 – 참석인원 : 1,500여명	8.14 /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역 축제	• 강주연못 문화축제 – 정촌면민수련대회(체육화합행사) – 연음식 전시회 – 찾아가는 음악회(700여명 참여)	8.15~16 / 정촌면 강주연못 일원
	음악회	• 광복 63주년, 건국60년 기념 『독도는 우리 땅』음악회 – 진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 – 참석인원 : 1,000여명	8.15 / 신안동 공원 분수대
	태극기 선양	•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 대상 : 전 읍면동 – 내용 : 도로변 가로기 게양	8.13 전후 / 진주시내 일원
진해시	체육 대회	• 8.15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 – 참여인원 : 2,700여명	8.15 / 진해예술촌 영길운동장 용원초교
	태극기 선양	•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8.15 전후
	유족위문	• 독립유공자 위문금 전달 – 대상 : 19명	8.15
	음악회	• 건국60년기념 · 광복절음악회 – 참여인원 : 3,000여명	8.15
통영시	태극기 선양	•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 개소수 : 1,303개소	8.15 전후 / 가로변
	기념 공연	• 시민이 여는 음악회 – 음악회, 불꽃쇼 • 이순신 뮤지컬 공연(1회차)	8.14 / 해양공원
	기념 행사	• 거북선 보트 노젓기 대회 – 18개 팀 500명	8.15 / 문화마당 강구안
밀양시	태극기 선양	• 태극기달기 운동전개	8.15 전후 / 밀양시
	음악회	• 8.15경축 시민을 위한 음악회 – 참여인원 1,000여명	7.27 / 밀양문화 체육회관
	전통예술 공연	• 8.15경축 밀양 무형문화재 공연 – 참여인원 1,000여명	8.15 / 밀양강 둔치
	체육 대회	• 8.15경축 상동면민체육대회 – 내용 : 배구 외 5개종목 마을별 대항경기, 한마당축제 등	8.15 / 상동면 체육공원
		• 8.15경축 청도면민체육대회 – 내용 : 축구 외 6개종목 마을별 대항경기 및 노래자랑	8.15 / 청도중학교

기관	사업구분	사업내용	시기 / 장소
거제시	태극기 선양	•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8.15 전후
	체육 대회	• 8.15경축 면민 친선체육대회 – 체육 및 민속 행사	8.15~16 / 장목초교
	강연회	• 건국60년 기념 특별강연회	8.24, 9.4 / 청소년 수련관
	시설 개방	•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옥포대첩 념공원, 어촌민속전시관 무료개방	8.15
양산시	체육 대회	• 건국60년기념 하북면민의날 행사 – 내용 : 전시회,체육 · 문화행사 등 ※ 8.14 전야제 : 면민노래자랑(통도사)	8.15 전후
	노래자랑	• 8.15경축기념 중앙동민 노래자랑	8.15 전후
	야외 음악회	• 8.15경축기념 평산동 야외음악회 – 주최 : 평산동주민자치위원회	8.15 전후
	태극기 선양	•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전 읍면동)	8.15 전후
고성군	체육 대회	• 8.15경축기념 회화면민 축구대회 – 참여인원 : 500여명	8.15 / 고성고
	태극기 선양	•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전읍면) – 태극기 달기, 가로기 게양	8.15 전후
	유족 위문	• 독립유공자 격려(8명)	8.15
남해군	체육 대회	• 8 · 15기념 체육대회	8.15 / 정보산업고
	태극기 선양	•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 관내 주요장소 태극기정비 및 게양	8.15 전후
산청군	태극기 선양	• 태극기달기운동 전개	8.15 전후
	지역 축제	• 한의학박물관 무료 개관	8.15
	행사	• 건강 걷기대회	8.14 / 조산공원
함양군	유족 위문	• 독립유공자 유족격려, 위문품 전달	8.15 전후
	태극기 선양	•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 군내 255개 전 마을	8.15 전후
	체육 대회	• 8.15 경축 읍면리 대항 체육대회 – 고운체육관 외 10개소, 3,000여 명	8.15 전후
	산상 음악회	• 지리산 제일문 산상음악회 개최 – 대상 : 3,000여 명	8.16 / 지리산
거창군	달리기 대회	• 군민 한마음 달리기 대회 – 대상 : 전 군민	8.15 / 거창초교
	체육 행사	• 읍 · 면민 체육대회 – 읍면별 체육행사	8.15 / 초등학교
	태극기 선양	• 태극기 달기 운동 –가정 및 기관	8.15 전후
합천군	숲속의 작은 음악회	• 국악, 관악, 통기타 연주 • 합창 공연	8.14 / 일해공원

◉ 제 주 도

기관	사업구분	사업내용	시기 / 장소
제주 특별 자치도	경축식	• 제63주년 광복절 경축식	8.15 / 학생 문화원
	참배	• 애국선열 추모탑 참배	8.15 / 추모탑
	위령제	• 태평양전쟁희생자 합동위령제	8.15 / 종합경기장
	유족 위문	• 유료관광지 무료개방 행사 – 독립유공자와 동반가족 1인, 독립유공자 유족 등	8.15 / 학생 문화원
		• 간담회 및 광복회원 위문	8.15
	글짓기	• 나라사랑 글짓기대회 및 시상식	7~8월
	전야 음악제	• 건국60년 기념 전야 음악제	8.14
제주시	유족 위문	• 독립유공자 위문품 전달	8.15 전후
	태극기 선양	•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 주요 시가지 가로기 게양 – 각 가정 및 기관, 단체 등 참여	8.15 전후 / 주요 도로변
서귀포시	유족 위문	• 독립유공자 위문금 전달	8.15
	태극기 선양	•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 주요 시가지 가로기 게양 – 각 가정 및 기관, 단체 등 참여	8.15 / 주요 시가지
	지역 축제	• 제13회 표선해변 백사 대축제	8.8~10 / 표선 해수욕장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민관공동위원장	현승종, 김남조, 한승수
집행위원장	김진현

건국60년사업 관계부처 참여자

대통령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김상협 미래비전비서관, 장석명 국장, 이우찬 국장, 이상훈, 김효겸, 오일근, 김호원, 이상규 행정관
국무총리실 건국60년사업추진기획단	박철곤 국무차장, 우기종 단장, 이원식 부단장, 유희종 팀장, 김상돈 팀장, 정원영 팀장, 박용철 팀장, 권오상 팀장, 최형주, 김준경, 이영호, 이재교, 양상수, 강재하, 이달형, 이연주, 강화성, 김수원, 김두섭, 이은영, 한영모, 하은경, 남정란, 유혜영, 김수연, 전윤희
관계부처	**국방부** 김진훈 육군중장, 정지용 육군준장, 이동화 공군대령, 전규명 해군중령, 김종만 육군중령, 최득순 육군중령
	행정안전부 황인평 의정관, 이재풍 의정담당관, 방순동, 김원석, 김호규, 김학용, 윤정주
	문화체육관광부 강봉석 문화정책국장, 이형호 문화정책과장, 정기원
	기타 이병우, 윤연원(국무총리실), 강병중, 연태훈(기획재정부), 신대철, 홍성근, 김동곤(교육과학기술부), 문창부 재외동포과장, 한혜진, 배긍찬, 홍성욱(외교통상부), 김정노(통일부), 유경남(법무부), 이경수, 이호종(지식경제부), 김태식(환경부), 전광호, 남성연(여성부), 최병호(국토해양부), 서인자, 전용진(국가보훈처), 전제은(산림청), 박한남, 김득중(국사편찬위)
민간참여	메타윈, 제일기획, 태그스토리, 한국조폐공사, B-파트너스, GIGO 파트너스, HS애드 등

사진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무부, 국가보훈처, 산림청, 한국은행,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제주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서울시향, 대한민국건국회, 한국정치학회, 포럼 굿 소사이어티, 한국기업경영학회, 평화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청소년생활체육협회,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한국오페라단, 국학운동시민연합, 한국고유문화콘텐츠진흥회, 한국무역협회,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재외동포재단, 국기원, 미국태권도연맹, 제일기획, HS애드, 세계일보, 이종상 화백 *사진 저작권 문제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발행인	국무총리 한승수, 현승종, 김남조
발행일	2009년 6월 30일
발행처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110-756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80번지 적선현대빌딩 903호 전화 : 02.2100.8885 팩스 : 02.2100.8895 www.visionkorea60.go.kr
디자인 · 제작	(주)에스아이케이알 02.2264.5298 서울시 중구 예장동 1-150 세화 B/D 3F

대한민국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